발간에 부쳐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찬탈되자 일본의 공적·사적(公的·私的) 기관·학자·사업가 등에 의한 한반도 조사작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대륙침략 야욕을 일찍부터 품었던 일제는 이미 19세기부터 이런 조사사업에 열을 올리다가 한일합병 이후는 식민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이 노골화했고 그 틈바구니에서 일부 학자, 그리고 사업가들까지 개발의욕을 불태우게 되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역사·지리·문화·생활습관의 연구가 종합적·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비록 행정적으로는 「島」로서 전라남도에 속해있었으나 지리적 독립성으로 해서 본도에 대한 연구사업이 활발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런 풍토 속에 이즈미 세이이치(泉 靖一·1915~1970)에 의해 집필된 이 「濟州島」가 1966년 도쿄(東京)대학 출판회에서 간행되었으니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당연하다.

이즈미 세이이치는 부친 이즈미 아키라(泉哲)가 경성(京城)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전임하는 바람에 12세때(1927) 동대문심상소학교로 전학, 경성공립중학교를 거쳐 1935년 경성대학 법문학부 국문학과에 진학했다. 그 해 여름과 뒷해 1월 한라산에 등반했는데 이 때 등산대원 동료 마에가와 도모하루(前川智春)를 잃었다. 그는 37년 본도에 20일간 체류하면서 졸업논문 「제주도-그 사회인류학적 연구」를 제출했다. 그는 조사사업의 연구를 위해 1946년 5월 서울에 밀항했고 1950년 5~9월에는 「도쿄에 있어서의 濟州島人」을 조사했으며 1965년 11월과 타계하기 한달 전인 1970년 10월에도 제주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렇듯 이즈미는 본도를 포함,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여러번 답사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제1부 「濟州島民族誌」의 내용은 그때 그때의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는 도쿄에 있으면서도 변모돼가는 제주도문화를 계속 연구했고, 1950년부터는 도쿄와 그 인근에 거주하는 제주인을 조사했다. 그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던 1965년 다시 제주를 찾아 원로 교육가인 고 홍정표(洪貞杓) 선생과 현용준(玄容駿) 전 제주대학교 교수 등을 만나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제3부 「제주도에 있어서의 30년」은 이 때의 수확이다.

이렇듯 이즈미 교수는 제주도를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접근하리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버지 아키라의 영향이 컸다고 일본의 전기작가 고 후지모토 히데오(藤本英夫)는 「泉靖一傳」에서 밝히고 있다. 이즈미 아키라는 16년간을 미국에서 보낸 독실한 크리스찬이지만 미국에 있을 때 「잽(Jap : 미국인이 일본인을 멸시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조롱당한 피차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조선인차별」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

1996년에 작고했으나 지금도 일본의 역사적 작가로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시바 료오타로(司馬遼太郎)는 그가 1986년에 발간했던 「耽羅紀行」에서 이 「제주도」를 「명작」이라고 평했었다.

1935년부터 1965년의 30년에 이르는 본도 각 분야를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기록한 이 책이 본도의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또 이미 1999년에 제주시 우당도서관에서 번역본을 발간한 바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증판본을 내게 된 것은 그만큼 자료의 정확성·중요성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번 번역본의 증판에 즈음하여 평소 본도 문화 발전에 관심이 많은 오헌봉(吳憲奉) 유성건설 주식회사 회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홍성호(洪性豪) 제주문화 사장의 진력이 컸음을 밝히고 감사하는 바이다.

역자 洪 性 穆

머 리 말

현해탄(玄海灘)에 가로 놓여있는 세 개의 커다란 섬 가운데, 제주도는 조선의 일부이다. 그것은 쓰시마(對馬)가 조선반도의 남쪽에 붙어 있으면서도 일본에 속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사실이다.

옛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는 독립국으로서 신라나 백제에 입공(入貢)하고 일본에도 조공(朝貢)하고 있지만 백제의 멸망과 더불어 신라에 병합되었다. 그 후 제주도는 정치적으로도 조선의 일부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책 속에도 쓰여있는 바와 같이 해발 1천9백50m의 한라산을 받들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는 특히 고려조(高麗朝) 이후는 피비랜내나는 것이었다. 원(元)에 의한 점령으로부터 시작, 왜구의 거듭되는 침입, 반란 그리고 해방후의 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킨 4·3사건에 이르는 도민들의 싸움의 역사는 그 혹독한 자연과 더불어 제주도의 문화를 생각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일들이다.

내가 이 섬을 처음 찾은 것은 1935년 여름이었다. 수 주일의 여행 끝에 섬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에 커다란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한편 겨울이 되면 한라산 일대는 깊은 눈에 덮여, 아직까지 적설기의 산꼭대기에 서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1935년 12월부터 뒷해 1월에 걸쳐 나는 산악부 벗들과 한라산의 등반을 계획, 1936년 1월 1일 드디어 그 정상에 이르렀지만…악우(岳友)의 한 사람 마에카와 도모하루(前川智春)군을 잃고 말았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커다란 충동이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꼬오낭(甲南) 고교의 이마니시 도시오(今西壽雄)군을 바로 얼마 전 지적 받을 때까지 우메사오 타다오(梅棹忠夫·주≡전 大阪國立民族學博物館長)군으로 착각했었을 정도이다.

凡　例

1. 본문 안과 방언어휘에 있어서의 한국어 표기는 저자의 1930년대 채집자료를 1966년에 현지에서 재검토, 주로 金宅圭씨에 의해 한글화・로마자화 및 발음기호화된 것이다.

2. 도표나 사진의 목차는 권말(卷末)에 실려 있다.

3. 문헌목록에는 이미 현물이 없어진 것도 적잖고 조사 불충분 때문에 발행지와 연월일이 분명치 않은 것도 참고로 하기 위해 게재했다.

4. 사진 가운데 특히 연대를 기입 않은 것은 1935~37년 사이에 촬영한 것이다. 여기 실은 80매의 사진 중에는 洪貞杓선생과 이이야마(飯山達雄)・다무라(田村義也) 양씨의 촬영분도 있지만 촬영자의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씨명을 표기하지는 않았다.

목　　차

제1부　제주도민족지

제1장　자 연 환 경

제1절 지질(地質) ····· 67
제2절 지형(地形)·수계(水系)·해류(海流) ····· 71
제3절 기상(氣象) ····· 75
제4절 동물 및 식물 ····· 84
(가) 제주도의 식물 ····· 85
(나) 제주도의 동물 ····· 89
제5절 종 합 ····· 91

제2장　촌락의 연구

제1절 주민과 역사 ····· 95
(가) 개벽신화와 「솟아나는 신(神)」 ····· 95
(나) 일본과의 관계 ····· 98
(다) 제주도인의 신체－형질 ····· 102
(라) 몽고(蒙古) 및 운남(雲南)과의 관계 ····· 103
제2절 부락의 분포상태와 그 성격 ····· 108

제3절 도내에 있어서의 성씨(姓氏) ····· 119
제4절 촌락과 직장 ····· 123
제5절 교 통 ····· 137
제6절 종 합 ····· 144

제3장 가족의 연구

제1절 세대(世帶)의 인구와 가족의 성원(成員) ····· 151
제2절 가족의 음식물 ····· 157
제3절 농업과 가족 ····· 160
(가) 농업과 그 기술 ····· 160
(나) 농업노동의 형태 ····· 165
(다) 숯굽기와 수렵 ····· 171
제4절 목축과 가족 ····· 174
(가) 목축과 그 기술 ····· 174
(나) 목축노동의 형태 ····· 179
제5절 어로(漁撈)와 가족 ····· 183
(가) 어업과 그 기술 ····· 183
(나) 어업노동의 형태 ····· 188
(다) 나잠(裸潛)과 그 기술 ····· 193
(라) 나잠노동의 형태 ····· 198
제6절 섬의 여성 ····· 208
(가) 가족 안에 있어서의 분업과 여자의 지위 ····· 208
(나) 결혼과 출산 ····· 215
제7절 종 합 ····· 220

제4장 초가족 집단의 연구

제1절 친족관계 ····· 231
(가) 조상제(祖上祭) ····· 231
(나) 장례(葬禮) ····· 234
(다) 마을과 친족집단 ····· 239
제2절 수누름 및 계(契) ····· 242
(가) 수누름 ····· 242
(나) 계 및 그 밖의 집단 ····· 246
(다) 그 밖의 기능집단 ····· 248
제3절 말방아(碾磨)집단 ····· 250
제4절 물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 259
(가) 이용되는 물의 종류 ····· 259
(나) 용수(用水)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 263
(다) 용수권(用水圈)과 말방아집단 ····· 267
제5절 종 합 ····· 269

제5장 제주도의 종교

제1절 섬의 성소(聖所) ····· 273
Ⅰ. 보편적 성소 ····· 273
(가) 성소로서의 산 ····· 273
(나) 시조(始祖)전설에 얽힌 성소 ····· 277
Ⅱ. 개별적 성소 ····· 281
(가) 사귀적 신령(蛇鬼的神靈)의 성소 ····· 282

(나) 비사귀적 신령의 성소 ····· 288
(다) 유례적 제장(儒禮的祭場) ····· 292
제2절 우도(牛島) 도내촌의 행사 ····· 293
(가) 정기적 행사 ····· 295
(나) 임시적 행사 ····· 300
제3절 종 합 ····· 302

제6장 제주도 민구의 해설

제1절 의 류 ····· 309
(가) 갈 옷 ····· 309
(나) 가죽옷(裘類) ····· 310
(다) 관 류(冠類) ····· 312
(라) 우의류(雨衣類) ····· 313
(마) 신 류 ····· 313
제2절 식기류(食器類) 및 그 밖의 생활용구 ····· 314
(가) 식기류 ····· 314
(나) 두껑 없는 대바구니 ····· 315
(다) 두껑 있는 대바구니 ····· 317
(라) 옹기그릇류 ····· 317
제3절 농구류(農具類) ····· 318
(가) 경작농구 ····· 318
(나) 제초(除草) 또는 수확용구 ····· 319
(다) 정백(精白) 용구 ····· 320
(라) 잡구(雜具) ····· 321

제4절 어 구(漁具) ····· 323
(가) 선류(船類) ····· 323
(나) 망류(網類) ····· 324
(다) 조구(釣具) ····· 325
(라) 마미초(馬尾草・주 : 마미초는 본디 모자반을 뜻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본도 해안에 널려있는 해조류 전반을 지칭하고 있음) 채집구 ····· 325
(마) 나잠구(裸潛具) ····· 326
제5절 가 옥 ····· 327

제2부 도쿄에 있어서의 제주도인

1. 머리말 ····· 333
2. 도쿄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이주경과(移住經過) ····· 335
3.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분포・사회결합 ····· 337
4. 가족의 구조 ····· 343
5. 성씨와 이름 ····· 347
6. 남녀의 생활 ····· 355
7. 소비생활 ····· 363
8. 교육・종교생활 ····· 368
9. 성 격 ····· 374

제3부 제주도에 있어서의 30년

1. 머리말 ····· 383

2. 경제의 변동 ····· 388
3. 가족과 친족의 변동 ····· 400
4. 에필로그 ····· 416

부록

제주도관계 문헌목록 ····· 421
제주도방언 어휘 ····· 427
英文 요약 ····· 443

<표 목 차>

<표 1> 氣溫의 平均較差 ····· 77
<표 2> 南北氣溫比較表 ····· 81
<표 3> 冬期氣候比較表 ····· 82
<표 4> 植物種目比較 ····· 85
<표 5> 男子頭長幅指數比較表 ····· 103
<표 6> 村落組織의 對比 ····· 110
<표 7> 海·山村別人口增減表(1928~36年) ····· 113
<표 8> 新舊行政區劃對比表 ····· 118
<표 9> 濟州島邑面別姓氏統計 ····· 120
<표 10> 世帶人口의 移動表 ····· 152
<표 11> 人口, 戶數, 世帶人口增減表-1928年부터 1936年에 이름 ··· 154
<표 12> 朝天面의 自然村 世帶人口 ····· 155
<표 13> 家族成員表 ····· 156
<표 14> 山·陽·海村에 있어서의 常食物表 ····· 158
<표 15> 輪 耕 表 ····· 163
<표 16> 마쉬떼 ····· 167
<표 17> 男女漁撈從業者統計 ····· 188
<표 18> 牛島潛女의 潛水表(各月은 陰曆) ····· 200
<표 19> 朝鮮人 및 日本人出産·死亡統計 ····· 209
<표 20> 결혼 및 離婚表 ····· 218

<표 21> 마을안 친족집단표 ····· 241
<표 22> 碾磨集團과 用水圈比較表 ····· 268
<표 23> 日本在住者의 上陸地 ····· 337
<표 24> 平均世帶員數地域別比較 ····· 344
<표 25> 世帶員數別 家族數(%) ····· 344
<표 26> 家族類型 ····· 345
<표 27> 家族構成比較 ····· 346
<표 28> 同姓氏婚姻 ····· 349
<표 29> 年次別 어린이 이름 ····· 354
<표 30> 陽·山村, 海村별 男女分業比較 ····· 357
<표 31> 父母別就職狀況比較 ····· 357
<표 32> X地區濟州島人職種比較 ····· 358
<표 33> 家庭의 雰圍氣 ····· 362
<표 34> 朝鮮服所有者所持數 ····· 364
<표 35> 學歷比較 ····· 369
<표 36> X地區在住濟州島人子弟의 生年別, 男女別, 學歷別, 就學狀況 ··· 371
<표 37> 世帶數·人口·男女比의 推移 ····· 388
<표 38> 人口의 增加 ····· 390
<표 39> 産業別人口의 推移 ····· 391
<표 40> 農家世帶數와 耕地面積의 推移 ····· 392
<표 41> 農作物作付反別의 推移 ····· 393
<표 42> 畜産의 推移 ····· 395
<표 43> 漁業人口의 推移 ····· 396
<표 44> 漁船의 推移 ····· 396
<표 45> 海村K里의 食物(1965年) ····· 398

<표 46> 世帶員數別世帶 ····· 401
<표 47> 家 族 構 成 ····· 402
<표 48> 家族타이프 分布表 ····· 403
<표 49> 同姓氏婚姻 ····· 405

<그 림 목 차>

<그림 1> 濟州島近接地帶地圖 ····· 68
<그림 2> 土壤分布圖 ····· 70
<그림 3> 屛門川의 물 分布圖 ····· 74
<그림 4> 日照時數年變化圖 ····· 79
<그림 5> 冬期氣象觀測地圖 ····· 81
<그림 6> 濟州의 氣象比較 ····· 83
<그림 7> 濟州島의 植物垂直分布圖 ····· 86
<그림 8> 山·海村地帶의 村落密集度比較圖 ····· 94
<그림 9> 對馬海峽周邊地에 있어서의 男子頭長幅指數의 分布圖 ··· 102
<그림 10> 行政組織과 自然發生村落과의 關係圖 ····· 109
<그림 11> 濟州島의 部落分布圖(1936年) ····· 112
<그림 12> 舊三郡과 舊面과의 關係圖 ····· 118
<그림 13> 里別同姓家族比率圖 濟州郡涯月面 ····· 124
<그림 14> 橋來里의 職場分布圖 ····· 131
<그림 15> 北村里의 職場分布圖 ····· 131
<그림 16> 海村의 住居와 耕地關係圖 ····· 135
<그림 17> 大東輿地圖에 의한 島內交通 ····· 142
<그림 18> 里別世帶人口分布圖 ····· 152
<그림 19> 숯굽기와 아궁이 ····· 171
<그림 20> 筏 舟 ····· 184

<그림 21> 자리잡기 ····· 185
<그림 22> 후릿그물 ····· 187
<그림 23> 漁船分布圖 ····· 189
<그림 24> 일본에 있어서의 裸體潛水漁業者分布圖 ····· 205
<그림 25> 祖上祭用의 屛風圖 ····· 233
<그림 26> 墳 墓 圖 ····· 236
<그림 27> 연자방아 구조도 ····· 252
<그림 28> 연자방아 사용자 분포 ····· 254
<그림 29> 마을안에 있어서의 用水圈과 碾磨集團關係圖 ····· 269
<그림 30> 牛 島 ····· 295
<그림 31> 가죽 다루는 用具 ····· 312
<그림 32> 草 鞋 ····· 314
<그림 33> 三叉鍬(pi-chang) ····· 319
<그림 34> 碎土具(kombe) ····· 319
<그림 35> 글갱이 ····· 320
<그림 36> 방 아 ····· 320
<그림 37> 고 레(맷돌) ····· 321
<그림 38> 목 기(낭그릇) ····· 321
<그림 39> 멕 ····· 321
<그림 40> 마 께 ····· 322
<그림 41> 홀갱이 ····· 322
<그림 42> 안반과 마께 ····· 322
<그림 43> 주 낙 ····· 325
<그림 44> 장호미(a)와 곤체기테(b) ····· 326
<그림 45> 삼간집의 방 배치도 ····· 327

<그림 46> 山村家屋의 廚房 ····· 328
<그림 47> 家屋配置圖 ····· 329
<그림 48> 單幕居와 一間幕居와의 방배치 ····· 330
<그림 49> X지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의 分布 ····· 339
<그림 50> X地區濟州島人의 居住密度 ····· 341
<그림 51> K씨 一族의 이름의 變化 ····· 350
<그림 52> 家族 타이프 ····· 403
<그림 53> 二世代祖上의 呼稱 ····· 407
<그림 54> 在K里 羅州 金氏 永熹氏家系 및 關係家系原圖 Ⅰ ···· 410
<그림 55> 在K里 羅州 金氏 永熹氏家系 및 關係家系原圖 Ⅱ ···· 411
<그림 56> 在K里 竹山 安氏 家系 ····· 411
<그림 57> 在K里 金海金氏 家系圖 ····· 412
<그림 58> 在K里 水原白氏 家系圖 ····· 412
<그림 59> 在K里 濟州夫氏家系 ····· 413
<그림 60> 在K里 全州李氏家系 ····· 413

第 1 部

濟州島 民族誌

(1935~37年)

제 1 장 자연환경

제 1 절 지 질

제주도는 조선반도와 일본의 나가사키(長崎)현과의 중간, 목포(木浦)를 떠나 남쪽 1백42㎞ 해상에 가로놓인 감자모양의 큰 화산도이다. 본도와 34개의 부속도서 및 암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경 1백26도10분~1백26도58분, 북위 33도12분~33도34분 사이에 있어서 일본의 후쿠오카(福岡)현, 오오이타(大分)현 및 고오치(高知)현의 남단과 거의 같은 위도이다(그림 1). 본도는 동서 약 80㎞, 남북 약 40㎞, 해안선은 2백여㎞로서 조선반도 중에 가장 큰 섬이다. 하라구치 큐우망(原口九萬)[1]의 조사에 의하면 이 섬의 화산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아마 화강암류(花崗岩類)일 것이다. 본도의 화산활동은 우선 제3기(紀)말엽에 시작하여 처음에 조암류(粗岩類)가 분출하고 제4기(洪積世)에 가서 조면질안산암류(粗面質安山岩類)를 내뿜고, 다음에 활동을 그쳤다가 마지막으로 현무암류의 큰 흐름이 있었고 그 활동은 유사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고려사,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탐라지, 이조세종실록, 동국통감, 남선보굴(南鮮寶窟) 제주도 및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의 여러 책들은 각각 분화의 기사를 싣고 있다. 제주도는 조선에 있어서 가장 젊은 화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분화에 관한 기사를 사서에서 찾아 보면

1) 朝鮮總督府『朝鮮地質調査要報』第一○卷의 一(原口九万).

<그림 1> 濟州島近接地帶地圖

「穆宗五年六月. 有山湧海中. 山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 十年瑞山湧出海中. 遣大學博士田拱之往視之. 人言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凡七晝夜始開霽. 山高可百余丈. 周圍可四十余里. 無草木. 煙氣冪其上. 望之如石硫黃. 人恐懼不敢近.. 拱之躬至其山下. 圖其形以進. 今屬大靜縣.」(東國輿地勝覽)

「有山湧出干耽羅海中者. 卽此島. 而飛揚之名. 蓋取諸此歟」(耽羅事實新增)

이라 되어 있고,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郎)는 목종 5년(1002년)의 분화

를 비양도, 동10년(1008년)의 서산(瑞山)의 분화를 대정 동쪽 2리쯤 된 곳에 우뚝 솟아있는 군산(軍山)이라고 상정(想定)하고 있다. 이 용암의 분출은 대단히 왕성해서 분출의 중심은 한군데에 그치지않고 무수하게 있어(현재의 側火山도 그 일부로 여겨진다) 그러한 용암류의 전후관계가 분명치 않은 것은 적지 않으나 용암의 분출순서는 대개 산성(酸性)에서 점차 알카리성으로 이행(移行)해 간 것으로 보인다.[2)]

지금 여기서 지질학적 중요성을 지닌 노출암(露出岩)의 세목(細目)을 들 여유는 없지만 현재의 경작지 혹은 목야지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암석을 보면 섬의 거의 동부전체 및 서단(西端)은 비현정질현무암(非顯晶質玄武岩)으로 덮여있고 한라산으로 향한 동서의 산악지대는 한라산현무암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사이는 장석현무암(長石玄武岩)과 조면질안산암이 다소 넓은 범위에 걸쳐 흩어져 있으나[3)] 본도의 동식물 및 주민의 결정적 지질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무암계의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침은 없다.[4)]

또한 하라구치씨는 그의 보고서 말미에서 이 섬의 광용(鑛用)지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도에는 금속광상(金屬鑛床)은 전혀 이를 볼 수 없으며 비금속광상도 거의 없다. 다만 현무토(玄武土)로부터 옹기그릇과 굴뚝을 제조하는데 그친다.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주면 광양동(光陽洞), 제주면 삼양동(三陽洞), 대정면 신평리(新坪里).

현무암은 본도 어디서나 나며 석재로서 조선가옥 및 돌담, 밭주위의 돌담·묘지·축항 등에 널리 사용된다(사진 3). 개사층(介砂層)은 해

2) 中村新太郎「濟州島火山雜記」,『地球』第四卷號.
3) 朝鮮總督府『濟州島地質圖』.
4) 川崎繁太郎「濟州島의 地質學的觀察」,『文敎의 朝鮮』昭和五年(1930) 一〇月.

저(海底)로부터 밀려올라온 것으로 해안 가까운 지역에 분포한다. 그 양은 거의 무진장이지만 아직 그 이용방법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그 후도 두드러진 개사(사진 6)의 이용법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 섬의 농업과 중요한 관계를 갖는 토양 가운데 사토(砂土)·식토(埴土)·양토(壤土)·사양토(砂壤土) 등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2(a)인데, 흑토(黑土)만의 분포는 그림2(b)와 같다.[5]

<그림 2> 土壤分布圖

5) 昭和一二年度(1937) 全羅南道道廳調査에 依함.

제2절 지형·수계·해류

제주도의 모양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바닷속에 내던져진 감자형」 또는 「방패형」을 이루어, 거의 동서로 긴 타원형으로 섬전체가 아스피테화산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집중적인 지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속단은 할 수 없기에 여기서는 극히 개괄적인 관찰만을 해보기로 한다.[6]

섬의 중핵(中核)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표고 1천9백50m)은 사방에 완만한 들판(사진 1)을 끼고 있으나 남쪽 기슭의 경사지는 북쪽에 비하면 약간 급하며 서남부해안에는 넓은 평야를 볼 수 있다. 우선 표고에 의해서 섬을 3개 지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한라산 주봉의 종상(鐘狀) 화산(사진 5)의 일부로, 해발 1천9백50m에서 1천7백50m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데 산은 주위의 산골짜기에 급각도로 떨어져 곳곳에 조면암의 흉벽(胸壁)을 노출시키고 특히 한라산정의 백록담화구는 조면암과 현무암과의 경계선에 형성되어진 것으로서 화구 서벽은 조면암, 동벽은 현무암으로 되어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7] 다음은 1천7백50m에서 5백m에 이르는 현재 교목림(喬木林)에 덮여있는 사이로서 경사는 아래쪽 지대에 비하면 조금 급하고, 사이 곳곳의 현무암층은 수식(水蝕) 때문에 날카로운 V자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세번째는 5백m 이하의 광대한 지대로서 현재 많은 주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다. 이는 두번째지대의 연장이지만 경사는 더욱 완만하고 계곡의 낭떠러지는 별로 높지않다. 두번째, 세번째지대를

6) 朝鮮總督府, 五万分의一地圖「濟州·金寧·城山浦·表善·西歸浦·漢羅山·大靜 및 馬羅島·摹瑟浦·飛揚島·翰林」.
7) 朝鮮總督府『朝鮮地質調査要報』第一〇卷의 一.

통해서 측화산(側火山)이 엄청나게 솟아있는데 나카무라씨는 그 수를 3백수십개라고 헤아리고 있다. 그 가운데는 한 번만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것도 있으나 두 번 세 번의 폭발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곳도 적지않다. 어떤 것은 화구에 물이 고여있고, 어떤 것은 약간 넓은 분지를 이루면서 일부가 이지러진 것, 완전한 형태를 남기고 있는 것 등 여러 가지이다.[8]

해안에는 암초가 많고 바다 곳곳에는 하얀 물거품이 일며, 특히 남부에선 평야가 바다로 떨어지는 물줄기로 낭떠러지를 이루는 곳도 있다. 그중에서도 정방(正房)폭포와 같이 낭떠러지로부터 직접 폭포가 되어 바다로 떨어지는 내도 있다.

제주도의 하천의 원천을 이루는 분수령은 한라산을 중앙으로 어승생악(御乘生岳), 성판악(城板岳)의 두 산을 연결하는 「〈형」의 산능(山稜)으로서, 여기서 북류(北流)하는 것에 별도(別刀)·산지(山地)·도근(都近)·병문(屛門)의 여러 내가 있으며 남류(南流)하는 것에는 천미(川尾)·송(松)·효돈(孝敦)·정방·연외(淵外)·강정(江汀)의 여러 내가 있다. 이들 여러 내는 대부분 건천으로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드물지만 한 번 호우가 오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 생각지않은 곳에 폭포가 생기고 때로는 범람해서 교통을 차단한다. 따라서 제주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하천은 관개(灌漑)·용수 그밖에 이용되는 일이 적고, 주민은 오히려 내를 피하고 있다. 다음에 하천의 물흐름에 대하여 필자의 실지답사결과를 상세히 기술해보기로 한다. 이들 하천의 답사는 매우 곤란하고 또 위험하다. 만일 양쪽 기슭에 흉벽이 바짝 다가서 있어 오르기도 어려운 골짜기 밑에서 한 번 호우를 만나면 물은 순식간에

8) 多田文男「朝鮮의 火山」,『地理敎育』昭和 一一年(1936) 九月.

불어나서 격류로 감겨들어 생명을 잃을 위험마저 적지 않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덧없이 최후를 마친 사람도 적지 않다. 예를 병문천의 경우에서 살펴보자.

병문천은 한라산의 북벽에 발원(發源)한다. 이따금 굉장한 낙석(落石)을 낳는 조면암의 갈색 흉벽이 이 내의 원천인데 우물과 같이 에이고 암석이 겹쳐진 강바닥을 이루며 북행(北行)한다. 표고 1천6백60m 부근에서 한라산 북벽을 원천으로 하는 작은 못과 합치기까지 수류는 산석(散石) 밑으로 스며들고 이 지점에 이르러 작은 물줄기를 용출한다. 거기서부터 약간 넓은 골짜기 사이를 지나 낭하모양의 협곡까지 이어진다. 이 V자골짜기의 가장 깊은 골짜기 밑에서 산정까지의 높이를 살피면 2백60m쯤 되는데 골짜기 밑에는 20m에 달하는 폭포가 5개나 걸려있고 표고 1천1백m까지는 수류를 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유수는 사라지지만 골짜기 폭이 약간 넓어져서 양쪽 기슭의 낭떠러지 높이가 20~30m 정도 낮아지는 표고 4백50m 정도까지는 곳곳에 용수(사진 8)와 유수(溜水)가 있다. 거기서부터 아래로는 첩첩한 용암골짜기가 넓혀져 어느새 한방울의 물도 없어지고(사진 9) 바다로부터 5백m지점에서 재차 물이 솟아나서 북쪽으로 흐른다. 이 사이의 본류(本流)의 연장은 25㎞ 정도인데, <그림 3>과 같이 현류(現流)지대의 거리는 3㎞, 용수유수지대(湧水溜水地帶)는 5㎞, 잠류(潛流)지대 17㎞가 되어 부락은 하류의 5백m 현류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잠류지대에서 보게된다.

이 사이에서의 물의 이용상태는 최후의 5백m가 음료수 및 세탁에 이용되는 외에 상류의 현류지대에서는 방목하는 우마가 떼로 물을 마시는 것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바는 상류에서 흘러나와 잠류한 물이 모두 냇물을 따라 내려가 해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잠류함과 동시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갖가지 수로를

통하여 해안 또는 도중의 산야로 상당히 광범하게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은 냇물을 따라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작은 수로의 이곳 저곳에 볼 수 있는 용수에다 모이는 것이다.

<그림 3> 屛門川의 물 分布圖

다음으로 제주도의 해안을 씻으며 섬의 기상 및 해산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9] 이 섬 근해의 조석간만(潮汐干滿)의 차는 다도해방면의 높고 낮음과 큰 차가 없고 겨우 1m내외로 창조(漲潮·밀물)는 서쪽으로, 낙조(落潮)는 동쪽을 향하여 흘러간다. 제주도의 연안을 스쳐가는 해류의 주된 것은 대만(臺灣) 남쪽으로부터 오오스미 해협(大隅海峽·일본 가고시마현의 동쪽해협) 서쪽에 걸쳐 분기(分岐)된 흑조(黑潮·일본열도에 따라 태평양을 흐르는 구

9) 全羅南道水産會支部『濟州의 水産』.

로시오 난류)의 지류로서 본도의 동남해안을 스쳐 유로(流路)를 북동으로 돌려 쓰시마(對馬)해협으로 향한다. 한편 연해주(沿海州)를 따라 남하해서 강원도로부터 동쪽으로 돌아가는 한류의 여파가 앞의 난류와 합쳐져서 수많은 작은 해류가 되어 본도 연안을 매시 2 내지 3해리 속도로 스쳐가기 때문에 풍부한 해산물을 산출하고 특히 유력한 난류는 섬의 동남부의 기온을 높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10]

제3절 기 상

제주도의 기후는 조선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색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제주에 측후소[11]가 있을 뿐으로[12] 남쪽 및 산악지대의 기상은 과학적으로는 상세하게 밝힐 수가 없었다. 다만 서귀포에는 간단한 측후소가 있었던 적이 있어 약간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13] 또는 겨울철 산악지대에 있어서의 그것은 1936년에 경성(京城)대학 산악부가 실시한 동계한라산등반의 결과 얻어진 숫자[14]를 이용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의 관측의 결과로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본도는 조선 안에서는 가장 해양적 천후(天候)를 띤 곳으로, 기온은 대체로 온화하지만 역시 대륙에 가깝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해양을 건너 불어재끼는 계절풍의 영향이 심해서 이른바 삼한사온(三寒四溫)의 현상이 있긴 하지만 육지만큼은 심하지 않고 기온도 제주에서

10) 桝田一二「濟州島海女의 地誌學的 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第二輯下.
11) 濟州島測候所, 濟州氣候一班.
12) 全羅南道 濟州島『昭和一二年 濟州島勢要覽』.
13) 朝鮮總督府觀測所『朝鮮氣象三〇年報』
14) 城大山岳部『積雪期漢拏山登山記—前川智春君을 잃음—』.

는 영하5도를 내려가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바람이 거칠기 때문에 육체에 느끼는 추위는 상당히 심하다. 또 라우덴자하가 말하는 온대이고(溫帶以高·7백m 이상)에 있어서는 육지와는 다르게 바다를 건너 불어재끼는 계절풍이 맹렬한 눈보라와 가스를 동반하여 우라닛뽕(裏日本·일본의 동해에 면한 지역)과 같은 강설(降雪) 상태를 나타낸다. 여름철은 해양의 조절로 혹서(酷暑)를 느끼는 일은 적지만 찌는듯한 용암위를 흐르는 거센 산바람은 때때로 숨이 막힐 지경이기도 하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면 제주도의 1924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사이 연간평균기온은 14도6분(기온은 전부 섭씨)으로, 이것은 조선각지의 평균기온보다도 높다. 조선에 있어서 가장 기온이 높은 8월의 평균기온은 26도로서 이것은 경상남·북도 충청남도의 일부와 비교하면 어느정도 낮은 것이다. 다음으로 8월에 있어서의 최고극기온(最高極氣溫)의 평균을 보면 제주도에서의 그것은 35도7분으로 조선각도의 거의 전부, 즉 1백41개 측후소 소재지 중 35도7분과 같은 온도, 혹은 그 이하의 것은 겨우 20에 지나지 않으며 만주의 평균치보다도 낮다. 위도가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기온이 온화함을 나타내고 있다. 겨울철은 1월의 기온을 보면 평균기온은 4도5분으로 전 조선중에서 가장 따뜻하며 평균저극(平均低極)을 비교해서도 영하5도7분으로 전조선중에서 비길데가 없는 고온이다.

다음에 기온의 교차(較差) 즉 온폭(溫幅·최고기온과 최저기온과의 차)를 월별(月別)로 조선각지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온한(溫寒)의 차가 적고 기온이 온화한가가 명료해질 것이다.(표 1)

강우량은 전년(全年)평균 1천3백98.7㎜를 나타내 1천4백㎜에 가깝다. 이는 물론 기온과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만의 관측에 의한 것으로 겨울에는 동남지대에, 여름에는 서남지대에 이 강수량을 월등히 초과하

<표 1> 氣溫의 平均較差

地 名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平均	統計其間
濟 州	5.4	5.9	7.6	8.4	9.3	7.2	6.6	6.6	6.8	7.6	7.1	6.2	7.0	1924~34
木 浦	7.3	7.8	8.7	9.3	8.8	7.8	6.6	7.8	7.8	9.2	8.6	7.7	8.1	1907~34
釜 山	8.1	8.3	8.5	8.2	8.2	7.0	5.8	6.5	7.2	9.0	8.9	8.2	7.8	1905~34
全 州	8.3	9.2	10.9	12.3	12.1	11.4	8.1	8.7	10.3	12.8	10.5	8.7	10.3	1910~34
大 邱	9.0	10.0	11.3	12.4	12.3	11.1	8.8	9.0	9.7	12.3	11.3	9.7	10.8	1908~34
仁 川	7.6	7.7	8.0	8.8	8.5	8.1	6.6	7.2	8.4	9.1	8.6	7.7	8.0	1905~34
京 城	8.6	9.7	10.4	11.9	11.7	10.5	8.0	8.7	10.3	12.2	10.7	9.2	10.2	1908~34
江 陵	3.8	8.9	9.5	16.5	10.6	9.4	7.8	8.1	9.0	10.5	10.1	8.8	9.3	1912~34
平 壤	10.3	10.2	10.1	12.2	11.9	11.5	8.6	8.7	10.7	12.1	16.0	9.6	10.4	1907~34
元 山	8.0	9.0	8.5	10.3	10.3	8.8	7.1	7.2	8.9	10.2	9.0	8.7	9.0	1905~34
能岩浦	9.7	9.9	8.7	9.6	9.0	8.2	6.6	7.8	10.1	10.7	8.7	8.6	9.0	1905~34
城 津	10.0	8.3	8.4	9.3	8.6	7.0	6.2	6.6	8.9	10.0	9.3	9.6	8.6	1908~34
中江鎭	16.7	18.7	13.8	13.8	14.1	13.6	11.2	11.6	13.5	14.7	11.5	13.7	13.9	1918~34
雄 基	7.8	8.2	8.2	8.9	8.3	8.9	5.8	6.5	8.7	9.4	8.3	7.6	7.9	1913~34

(朝鮮氣象 30年報에 따름)

는 강우가 있음은 제주관측소의 관측자 말에서도 명백하다. 그러나 이 강우량은 결코 전조선 각지에 비교해봐도 적은 것은 아니며 반도 남안(南岸)의 일부에서 볼 수 있는 띠모양의 다수(多水)지대를 제외하면 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호남지방의 그것과 비교해서도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 강수량이다.

다음에 각 계절에 걸쳐서 이것을 보면 우선 겨울철(12월부터 2월)에 있어서의 강우량은 북부에서는 2백㎜를 넘어 조선 제일이며 산악지

대는 눈이 많다(사진 10, 13). 봄철(3월부터 5월)은 서남지대가 특히 비가 많아 반도남해안과 마찬가지로 약 3백㎜를 넘어 반도중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의 여름철(6월부터 8월)의 강우량은 호남지방·서울부근·평양북부에 있어서는 8백㎜를 넘으며 앞의 두 지방을 연결하는 선 및 후자의 주위는 7백㎜에서 8백㎜의 강수를 보이고 다음에 그것들을 둘러싼 지대는 6백㎜에서 7백㎜의 강수량을 보인다. 제주도는 이들 지대 다음으로 5백㎜에서 6백㎜ 사이를 왕래해 북선의 개마(蓋馬)고지 일대 동남선(東南鮮)의 대행(大行)산맥에 연한 띠모양의 지대 및 진남포(鎭南浦) 일대와 비슷한 우량이다. 가을철(9월부터 11월)에 들면 전 조선의 상태와 비교해서 재차 강수량이 많아져 3백㎜를 넘어서게 된다.

다음으로 강수의 상태를 우천일수의 분포에 의해 보면, 1년에 1백40일이상(제주관측소의 보고에 의하면 1백43일로 되어있다)으로 백두산부근과 함께 조선중에서 가장 비오는 날이 많은 지역이다. 이것을 월별로 보면 12월 및 1월에 가장 우천이 많고 그밖의 달은 거의 평균해 있다. 우천일과 상관관계를 갖는 일조시수(可照 時間에 대한 일조시간의 백분율)를 전 조선의 그것과 비교하면 육지중에서 가장 짧은 곳은 목포지방으로 54%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제주도는 더욱 짧아 48%이다. 다음으로 1년중의 일조시간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제주도의 일조시간은 11월경부터 짧아져서 12월, 1월에 최저에 달하고 여기서부터 상승해서 3, 4, 5월로 맑은 하늘이 계속되고 6월에 일시 천후가 악화하지만 점차 회복되고,'니햐쿠도카(二百十日·주≡입춘에서 2백10일째되는 날. 즉 9월1일경으로 이날을 전후해서 태풍이 부는 일이 많다) 무렵에는 조금 나빠지지만 다시 회복되어 수확기에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그림 4> 日照時數年變化圖

다시 일조시간수는 단축된다. 육지에서의 일조시간수 변화의 곡선은 凹형으로, 다시말하면 6월에서 7월에 걸쳐서는 우기로 일조시간이 짧

지만 그밖의 날은 대개 맑은 날이 많고 특히 겨울철에는 맑은 날이 계속된다. 그에 반해서 제주의 그것은 凸형으로 대개 특별한 우기가 없고 4월에서 10월에 걸쳐 맑은 날이 많은 것은 농업을 주로 하는 사회생활에 특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삼다(三多)의 하나로 지적되는 바람은 제주도의 기상을 생각할 때에는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탁월풍(卓越風)은 11월에서 다음해 4월에 이르는 반년은 주로 북북서풍(사진 11)이며, 4월에서 10월에 걸쳐서는 풍향이 일정치않아 북·동북동·동 및 남남동풍 등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것은 동풍이다. 즉 섬의 탁월풍은 주로 북북서풍과 동풍이다. 그리고 연평균풍속은 5.1m/초, 최속(最速)의 달은 1월, 다음은 2월 및 12월로서 각각 6.8m/초 6.5m/초로 5, 6월이 가장 무풍(無風)의 달로서 4m/초이다. 이것을 육지의 각지와 비교하면 풍향은 지방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풍속은 단연 조선에서 제일이다. 다음으로 10m/초를 넘는 바람 즉 폭풍의 일수를 보면 12월에서 3월에 걸쳐서는 거의 한달의 절반을 차지, 4월부터 10월에 이르는 기간은 약간 평온해지며, 11월에 들어서면 계절풍이 심해진다. 연간의 폭풍일수는 자그마치 1년의 3분의1 이상을 차지, 조선 내에서 가장 심한 강풍지대인 것이다. 그러나 5월부터 9월까지는 소위 해륙풍에 지배되어 낮에는 북풍, 밤에는 남풍이 되고 전형적인 해양기상이 된다. 이 사이의 평균풍속은 가장 약하지만 드물게는 태풍 또는 저기압을 동반한 폭풍이 내습하여 풍속 30m/초를 넘는 경우도 있어서 폭풍이 인축(人畜)에 미치는 피해는 심대하다.

이상의 자료는 섬 북쪽인 제주의 그것으로, 남부의 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라산과 그 들판에 의해 전도가 거의 이분돼 있다는 것으로도 분명할 것이다. 지금 시험적으로 입수

가 가능한 1~2개의 자료를 근거로 이를 비교해보기로 하자. 한가지 자료는 낡은 관측치(觀測値)로서 매년의 평균치는 아니지만 제주와 서귀포를 일단 대비(對比)할 수가 있다. 지금 기온만을 비교한다면 <표 2>와 같다.

<그림 5> 冬期氣象觀測地圖

<표 2> 南北氣溫比較表

	濟州邑內 (北濟州)	西歸浦 (南濟州)
1月	3.6	8.5
2月	7.6	6.2
3月	11.1	10.5
4月	15.7	15.2
5月	17.2	18.4
6月	21.4	22.0
7月	24.3	26.5
8月	27.7	29.0
9月	24.1	26.2
10月	17.1	19.6
11月	11.7	16.4
12月	7.0	9.0
年平均	15.7	17.2

비고 : 제주읍내 것은 1922년의 簡易觀測, 서귀포 것은 1927년의 簡易觀測임

다시 다른 자료로서 1936년 12월 27일부터 다음해 37년 1월 3일까지의 한라산 북쪽 각지에 있어서의 기온·풍향·풍속의 동시관측치를 비교하면 <표 3> a·b·c와 같다.

관측소는 각각 <그림 5>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한라산의 화구호(火口湖)인 백록담과 제주와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데 제주에서의 그것은 관측소의 수치를 차용(借用)한 것이다. 더욱이 관음사는 제주 남쪽 산야지대가 산림지대와 접하는 작은 수풀중에 있는데 표고는 5백

<표 3> 冬期氣候比較表

(a) 溫度比較表(●雨, *雪, △싸라기눈, ◎曇, ◐晴)

月 日	時	濟 州	觀音寺	개미목 막사리	I C	較 差	遞減率	濟 州 天 氣	觀測地 天 氣
12.27	10	10.4	6.0			4.4	0.80	●	●
〃	12	10.5	6.0			4.5	0.82	●	●
〃	18	11.2	6.5			4.7	0.85	●	●◎
28	6	10.3	5.2			5.1	0.93	◎	◎*
30	18	1.8		89.0		12.8	0.86	◎	◐雲海
31	10	2.7		90.5		12.2	0.82	◎	◐雲海
31	18	4.2		92.1		12.1	0.81	◉	◎
1. 1	8	3.7		97.5		6.2	0.42	◎	◎
2	10	4.4			92.3	12.1	0.69	◎	◎*
〃	14	4.9			91.9	13.1	0.7	●△	◎*

(b) 風向比較表

月 日	時	濟 州	觀音寺	개미목	C
12.27	10	北東	東		
〃	12	北東	東		
〃	18	北東	東		
28	6	北東			
30	18	北北西		南	
31	10	北		南西南	
31	18	北西		—	
1. 1	8		—	南	
2	10	北北西			北
〃	14	北西			西

(c) 風速比較表(m/sec, * 8時50分)

月 日	時	濟州	觀音寺	개미목	C
12.27	10	12.4	1.4		
〃	12	12.0	1.4~3.4		
〃	18	12.9	1.4		
28		5.2	1.4		
30	18	6.3		4.2	
31	10	3.9		12.8	
31	18	5.8		* 1.11	
1. 1		2.2		8.7	
2	10	8.7			8.75
〃	14	11.0			27.18

<그림 6> 濟州의 氣象比較

51m. 개미목(蟻頂) 오두막은 한라산 북벽을 원류(源流)로 하는 대석택(大石澤)의 골짜기 밑에 있는데 표고는 1천5백m. CI는 한라산의 화구 백록담의 북단 물 위에 있는데 표고 1천8백m이다. 이들의 관측지(觀測地)는 섬의 북쪽에 있으나 표고가 다르기 때문에 현저한 차이가 인정된다.

다음에 동식물, 따라서 인간의 자연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강우량의 상관관계를 평균기온을 종축(縱軸)으로 또 강우량을 횡축(橫軸)으로 잡아서 달마다의 기온과 강우량과를 양자의 교점(交點)에 의해 표시하고 그것들을 연결한 크리마트그램(그림 6)으로 나타내 이것을 인접각지[15]의 그것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제주의 기상타이프(a)는 1월부터 5월까지는 한대적(寒帶的) 타이프 즉 시베리아적 타이프(c)를 나타내며 6월부터 10월에 걸쳐서는 열대적 즉 마닐라적 타이프(d)을 나타낸다. 바꿔말하면 5월, 10월이 섬의 기상변환기이며 그것이 서울(b)에서는 6월, 9월이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목포나 후쿠오카(福岡) 등에 가깝고 더구나 변환도(變換度)는 한층 극단적이란 것은 제주도의 기상적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절 동물 및 식물

식물에 작용하는 중요한 환경인 지질·토질·지형·기상 등에 관해서는 이미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식물의 분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자료관계로 간단한 기술에 그치겠다.

---

15) 濟州以外의 크리마트그램은 全部, 村山釀造「朝鮮産小蠹虫類의 種類分布 및 被害植物」,『農業關係諸學聯合大會講演集』昭和四年(1929) 一〇月 一六日·一七日 京城에서 所載된 것이다.

가) 제주도의 식물

특수식물에 관해서는 오래된 지지(地誌)에도 많은 명칭이 열거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고문서의 기재에 관한 고찰은 생략하고 나카이 모오노싱(中井猛之進)[16] 및 모리 타메조(森爲三)[17]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섬의 식물분포상황을 개관(槪觀)해보기로 한다.

제주도 소산(所産)의 식물 개수(槪數)는 1백42과(科) 5백89속(屬) 1천3백17종(種)이며 그밖에 1백16종의 변종(變種)이 발견되어 본도의 식물 개수는 조선에서의 딴 지방보다도 풍부하다(표 4). 또 일본의 후지(富士), 하코네(箱根) 등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풍부하다.

<표 4> 植物種目比較

	科 數	屬 數	種 數	變種數
濟 州 島	142	589	1,317	116
金 剛 山	99	366	773	51
白 頭 山	66	239	490	19

식물상(植物相)은 나카이에 의하면 해안식물대와 산지식물대의 2개상(相)으로 나뉘며, 다시 산지식물대를 1대에서 7대로 나누어 그는 각지대의 식물학적 특징을 열기(列記)하고 있다. 모리는 수직분포에 이용되는 구분에 따라 분류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모리는 각각 표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식물대를 분류한다.

1. 해안식물대(海岸植物帶)…해안에서부터 표고 50m까지
2. 산록대(山麓帶)…표고 50m에서부터 북쪽 표고 7백m, 남쪽표고 1천m

16) 中井猛之進『濟州島 및 莞島植物調査報告書』.
17) 森爲三「濟州島所生植物分布에 대해」,『文敎의 朝鮮』一九二八年一〇月.

A. 평야식물대 ┐
B. 산야식물대 ├ 난대(暖帶)
C. 난대식물대(상록활엽수림) ┘

3. 교목대(喬木帶)
   A. 온대림(낙엽활엽수림)…표고 7백m~표고1천m 이고(以高). 북표고 1천2백m 남표고 1천5백m까지.
   B. 한대림(침엽수림)…표고 1천2백m~표고 1천5백m이고, 북표고 1천5백m, 남표고 1천7백m까지
4. 관목대(灌木帶)…표고 1천5백m~표고 1천7백m이고, 북표고 1천9백m 남표고 1천8백50m.
5. 고산식물대…표고 1천9백m~표고 1천8백50m이고(以高)

이상 식물의 분포상태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濟州島所生植物分布에 대하여」에 의함

<그림 7> 濟州島의 植物垂直分布圖

다음으로 각 지대에 있어서의 식물경관(景觀)을 기술해보기로 하자.

해안에 서면 지표(地表)에는 암석이 노출되고 바람은 항시 엇갈려 불며, 햇볕은 강하다. 땅 속에는 염분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작고 두꺼운 식물이 많아서 현재는 마을을 애워싼 방풍림 이외에는 수목은 적다. 난류관계로 흘러 들어온 문주란(사진 12), 파초일엽 등의 아열대식물이 자생하고 제주도 특산으로는 갯장구채 절굿대 등을 들 수 있다. 길을 한라산 중턱 완만하게 경사진 들판을 따라 올라가면 부락은 밀집하고 주위는 온통 경작지인데, 경작지는 한 구획마다 돌담으로 둘려있고 곳곳에 휴한지가 있다. 이 사이의 식물경관은 윗쪽에 이어지는 산야식물대 난대림 등과 큰 차는 없으나 제주멍석딸기라는 제주도 특산의 식물을 보는 것과 양자에 비해서 몹시 인공이 가해져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산야식물대는 화전, 목장을 위해서 근년에 소각된 지대로, 어느쪽도 난대림이 이어진 곳이다. 난대림은 산지가 차츰 가파라지고 암석이 첩첩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채 남겨진 부분, 그리고 당시 소나무의 조림을 했던 지경으로 상록활엽수의 삼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만일 섬의 삼림에 인공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대의 상록활엽수는 해안선에 까지 확대되었을 것이다. 섬의 노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1천9백년경에는 이 삼림의 일부가 해안선까지 뻗쳐 있었다고 했으나, 지금은 다만 교통이 불편한데다 이용이 되지 않을 만큼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무인도(예를 들면 서귀포앞바다의 森島)에 옛날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더욱이 겨울철에 있어서의 설선(雪線)은 산야식물대와 거의 같은 고도로까지 내려와 이보다 아래로 눈이 오는 일은 드물어서 복설지대(覆雪地帶)는 비스듬히 잘라낸 방추형(紡錘形)을 이룬다.

더 나아가 교목대로 들어서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서나무 숲으로 일본의 온대림의 대표적 수목인 너도밤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이 낙

엽활엽수림은 현재도 아직 태반은 자연림인데 왕벚나무[18]의 자생목을 보는 것도, 표고버섯재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도 이 근처이다. 교목지대를 벗어나면 온통 구상나무의 수계(樹界)가 나타나는데 여름 종반에서부터 가을중반에 걸쳐 빨간, 가련한 열매를 맺는다. 이는 홍적기말(洪積期末)의 빙하시대 유물로 여겨지는 것인데 남선의 고산지대에도 나는 것으로 중·북부조선 및 북만주의 분비나무와 관계가 깊고 일본의 전나무와는 관계가 옅은 것이다. 이 지대이고(以高)는 벌채를 해보지않은 대삼림지대로서 지나가기가 어려울만큼 가지와 가지들이 교착해 무성하다. 이와같은 삼림을 돌파해서 관목대로 나오면 안계(眼界)는 확 트여서 널따란 바다의 전망은 굉장하며 바람 또한 세차게 불어온다. 만일 그것이 5월이라면 진달래, 산철쭉 등이 아름다움을 겨루어 피어있고 이것들 사이로 섬매발톱나무, 들쭉나무, 제주산버들 등 일본에서는 중부 이남에서는 볼 수 없는 고산식물이 잡다하게 번성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더욱이 들매화나무와 같이 조선육지에는 전혀 볼 수 없으나 일본 및 북해도의 고산에 때때로 볼 수 있는 식물도 있다). 관목류가 낮아진 뒤에도 뾰쪽한 용암들이 솟은 산꼭대기 부근 여기저기에는 이들 고산식물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식물경관의 특징은 조선 및 일본의 그것과는 달라서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식물이 평등한 조건 아래 생존을 겨루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이 복잡하게 뒤섞여 군락을 이루고 있고, 북선과 같이 얼마 안되는 종류가 넓은 면적에 걸쳐 분포해 동종군락을 이루는 일은 없는 것이다.[19] 지금까지 말한 제주도의 식물을 총괄적으로 생각해보면

18) 竹中要「染井吉野櫻(왕벚)의 原産地에 대해서」,『史蹟名勝天然記念物』第一一集第一號.

19) 中井猛之進『東亞植物』.

다음과 같다.

① 산록대에 생기는 난대식물은 일본의 그것과 관계가 깊으며 교목대이고(以高)는 조선과의 관계가 깊다.

② 양쪽 분자중에 선주(先住)식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조선과 연락이 있는 고지식물로서 난대식물은 홍적기말, 기후가 온대로 회복한 뒤에 들어온 것으로 더욱이 이들 식물이 제주도라고 하는 고도의 지질·기상에 적응해서 점차로 그 형태를 바꾸어 많은 특산식물을 형성한 것이다.

③ 요컨대 제주도의 식물은 어느쪽이냐 하면 조선적 분자(朝鮮的 分子)가 농후하지만 섬 독특한 식물경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제주도의 동물

본도의 동물은 모리 다메조(森爲三)[20]의 포유류·파충류 및 양서류의 조사 및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治郎)[21]의 곤충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포유류(哺乳類)…10종내외, 맹수는 동국여지승람에도 있는바와 같이 옛날부터 서식하지 않는다.

② 조류(鳥類)…약 1백20종, 조선에 많은 까치가 서식하지 않는다. 큰부리까마귀는 매우 많다. 꿩은 육지의 그것과 비슷한 꿩, 노랑딱새는 육지와 동종의 황금새이다. 또 팔색조라고 하는 진귀한 새가 발견되고 있다.

③ 파충류(爬蟲類)…독사는 살무사이다.

④ 양서류(兩棲類)…송장개구리·참개구리·옴개구리·배붉은개구

20) 森爲三「濟州島의 陸産動物槪要論」,『文敎의 朝鮮』一九二八年一〇月.
21) 岡本半治郎「濟州島의 昆蟲相」,『勸業模範場歐文報告』第一卷第二號.

리·산개구리 등 대륙산과 같은 것이 전부 산출되지만 제주도롱뇽과 같은 특산도 있다.

⑤ 담수어류(淡水魚類)…서귀포의 용담(龍潭) 부근에는 길고 큰 강쿠히(ガンクヒ·주=확인불능)가 난다. 또 은어도 많다.

⑥ 곤충류(昆蟲類)

인시류(鱗翅類) ┌ 호접류(胡蝶類)…65
　　└ 아　류(蛾類)…165

초시류(鞘翅類)…사이슈오사이시(サイシュウオサイシ)·히메가네(ヒメカネ·주=둘 다 확인불능)

막시류(膜翅類)…북지구멍벌·어리줄배벌·밑들이벌·혹집게벌레

곤충류합계 5백27종 중
고북구계(古北區系)인 것 318
동양계인 것 149
양자공통 50

이 가운데 조선과 만주에 나고 일본에 없는 것 55종, 그중 29종은 본도와 조선과의 특산, 그러나 본도와 일본에 있고 조선에 나지 않은 것이 5종 발견되고 있다.

⑦ 갑각류(甲殼類) … 조선 각지에 나는 가재는 없다.

⑧ 다족류(多足類) … 지네, 노래기 등이 많다.

이상 동물을 총괄하면 본도는 고북구 북중국아구(古北區北中國亞區) 조선지방에 속하는 것으로 즉 조선반도와는 가장 유연(類緣)관계가 깊으며 일본과는 아주 얕은 관계에 있다. 그러나 동물학상으로는 본도는 식물과 같이 독자적 지역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제5절 종 합

제주도는 조선반도의 최남단에 있어서 울릉도와 함께 조선반도에 속하는 대화산도이다. 화산의 형상은 아스피테형이며 그 활동은 서기 1008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석은 최후의 대일출(大溢出)에 의해 전도를 덮은 다공질(多孔質)현무암으로 이것은 돌담, 가옥(사진 3) 등에 이용되며, 현무토는 독, 단지 등의 재료가 되고 있다. 지하광상(地下鑛床)은 볼만한 것이 없으며 이곳 저곳의 해안에 밀어 올려진 개사(介砂)는 아직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토질은 현무암이 풍화된 것과 화산회토로부터 형성되는데 식양토(埴壤土), 식토(埴土)가 널리 분포되어 흑갈색을 띈 흑토(黑土)가 많다.

섬의 모양은 커다란 방패형으로, 그 동서의 단면은 남북에 비하면 정상부에 있어서는 약간 완만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들판과 급히 기울어지는 협곡에 새겨진 정상부와의 사이에 두드러진 변환대(變換帶)가 보인다(사진 1). 더욱이 들판은 경사에 의해 양분할 수가 있다. 들판에는 엄청난 수의 독립된 소화산이 점재해 있다. 수계(水系)를 정하는 분수령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어승생악과 성판악과를 잇는 선으로 하천의 유수(流水)는 상류부에서는 현류(現流)하며, 조금 내려오면 잠시 이곳저곳에 용수 및 유수를 보이고 있지만 표고 5백m 근처에서 완전히 잠류한다. 잠류된 물은 냇길을 따라 복류(伏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하수로(地下水路)에 의해 분류(分流)하고 대부분은 해안지대에서 해수의 압력으로 용수가 된다. 그러니까 시내골짜기는 하류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수로(流水路)는 아니며 오히려 홍수 때의 방수로(放水路)인 것이다. 따라서 하천은 관개 기타로 이용되는 일이 적으며 부락도 하천이나 골짜기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를 피하고 있다.

제주도 연안을 스쳐가는 해류는 구로시오(黑潮)의 분기류(分岐流)가 주된 세력을 이루고 있으나 연해주(沿海州)에서 남하하여 강원도해안에서 동전(東轉)하는 한류의 여파가 섬 부근에서 이 난류가 합류하여 풍부한 수산물을 생산케하고 있다. 섬의 기상은 해양의 영향을 받아 온화하지만 바람은 제주삼다의 하나로 불리고 있는 만큼 전 조선을 통틀어서도 가장 심하며, 여름에는 남 및 동중국해의 태풍의 영향을 받는 일이 심하다. 계절풍은 해상을 넘어 오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겨울 일기는 다른 조선각지와는 달리 불순하다. 강수량은 1년을 통하여 1천4백㎜에 달하며 우천일수는 백두산지대와 함께 전 조선에서 가장 많고, 일조시간도 짧다. 한편 섬의 남북의 기상은 한라산 및 해류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대개 남쪽이 온화하고 해양적이다.

따라서 식물의 분포상태는 남북이 약간 그 양태를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산록대에 나는 난대식물은 일본의 그것과 관계가 깊으며 교목대이고(喬木帶以高)는 조선과의 관계가 밀접하긴 하지만 독자적인 식물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즉 제주도소산의 수목은 약 2백80종 정도 있으나 그중에 일본과 공통의 분자는 약 9%를 차지, 만주·조선육지의 분자는 약 6% 조선·일본 공통의 분자는 약 13%, 조선·중국 공통의 분자는 1%강이며, 제주도의 고유분자는 약 10%에 이르고, 기타는 모두 동아시아 공통의 분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일은 교목대이고의 주분자는 조선에 속하고 이것들이 선주식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수목의 종류에서 말한다면 일본적인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초본류(草本類)는 교목대이고에 있어서는 조선적분자가 농후하다.[22] 그러나 현재 부락이 있는 산록지대에는 자연림이 적고 새로이 이식된 방풍림과 잘리다 남은 독립수목을 볼 수 있을 뿐으로 부락과 삼림과

22) 中井猛之進『東亞植物』.

의 거리는 가장 먼 곳에서는 17~18㎞, 가장 가까운 곳은 3㎞ 내지 2㎞이다.

동물은 하나의 특수환경을 구성하는 일이 없으며 본도는 고북구북중국아구조선지방(古北區北中國亞區朝鮮地方)에 속한다. 이상 지적한 것과 같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촌락의 지형이 평탄한 곳에서는 집단형으로 기울고 산지의 경우는 경작지가 적기 때문에 분산형을 취한다고 말해진다. 제주도의 취락지대는 대개 평야이다. 들판의 경사는 바다로 향할수록 완만해진다. 부락의 형태도 그 표고(標高)를 줄여감에 따라 밀집해지고 있다. 또 제주도의 토질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현무암이 풍화한 것과 화산회토인데 건조기에는 과도하게 건조된 모래먼지를 날리며, 습윤기(濕潤期)에는 심하게 점도(粘度)를 높임으로써 교통이 곤란하게 된다. 그 때문인지 부락은 용수를 중심으로 환절적(環節的)인 집중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하천에 연한 지대는 홍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촌락은 이를 피해 작은 언덕에 집촌을 만들고, 어업을 주로 하는 부락에 있어서는 풍파를 피해서 안전하게 배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만(江灣)과 다시 거기에 만들어진 방파제(이것은 인공적 환경이지만)에로 가옥이 밀집한다. 또 폭풍에 대하는 공동의 방어(방풍림 돌담의 共同造營)도 제주도에서 촌락형성 조건의 하나로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촌락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용수이다. 마스다 이치지(桝田一二)[23]와 라우텐자하[24] 등도 제주도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가옥이 밀집하고 다시 용

23) 桝田一二「濟州島의 地理的 特性에 대해서」,『地理學評論』昭和八年(1933) 六月.
24) H, Lautensach ; Quelpart und Dagelet, Wiss, Veröff. Museums f. Landek. 2, Leipzig, N, F3, 1935.

(a) 海 村　　(b) 山 村

<그림 8> 山・海村地帶의 村落密集度比較圖

수가 많은 해안지대에 부락이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한 고찰은 다음 장으로 미루기로 하고,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만이 제주도촌락의 집촌성(集村性)의 유일한 조건인 것처럼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 그러냐하면 해안지대에 비해서 더 물이 모자란 산간부락은 해안부락보다도 가옥이 밀집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 2 장 촌락의 연구

제 1 절 주민과 역사

제주도 주민의 역사·체질 등의 구명(究明)은 본고(本稿)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두 세가지 고찰을 함으로써 여기서 제주도를 다루는 태도를 우선 명백히 하고자 한다.

가) 개벽신화와 '솟아나오는 신(神)'

처음에 고려사·지리지(地理志) 소재의 신화를 둘러싼 여러 설을 검토해보고 싶다. 이 지리지를 저술한 양성지(梁誠之)는 실로 제주의 양씨였다.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제주도관계 기사도 출처는 같다고 보아 무방하다.[1] 그후 제주도의 신화를 논하는 자는 대부분 고려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탐라현은 전라도의 남해중에 있다. 그 옛 기록에 이렇게 전한다. 태초에는 인물이 없었다. 삼신인이 있었는데 그는 땅에서 솟아났다.(그 主山의 북쪽기슭에 구멍이 있는데 모흥(毛興)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곳이다). 맏이를 양을나(良乙那)라고 불렀으며 다음을 고을나(高乙那)라고 불렀고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불렀다. 세사람은 거친 벽지에서 유렵(遊獵)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어느날 자주빛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상자가 떠올라 동해 바닷가에 다다른 것을 보고 이를 열었더니 상자 안에는 다시 돌상자가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홍대자의(紅帶紫衣)를 한 사자가 따라 왔었다. 돌상자를 열어보니 푸른 옷을

1) 李健著, 今西龍譯「濟州風土記」,『朝鮮學報』, 第一卷, 第二號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망아지·오곡씨앗 등이 있었다.

사자가 말하기를『나는 일본국 사자인데 우리 임금이 세딸을 낳고 이렇게 말했다. 서해의 중악(中嶽)에 신자(神子) 세사람이 내려와 바로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배필이 없다고 한다. 이에 신(臣)에게 명하여 세딸을 모시고 가도록 했다. 아무쪼록 잘 배필을 삼아서 대업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세사람은 나이 차례로 장가를 들고 샘물이 달고 흙이 기름진 곳에 다달아서 활을 쏘고 땅을 정했다.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都)라 부르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라 불렀으며,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라고 불렀다. 오곡을 처음으로 뿌리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키우니 날로 부유해졌다.[2)]

제주도의 신(神) 또는 신성한 것이 지중에서 솟아 나왔다는 전설은 이 삼신용출의 전설에 국한되지 않고 서귀포의 남자무당 박봉춘(朴奉春) 구전(口傳)의「제주도 신가(神歌) 속의「서귀본향당본해」(西歸本鄕堂本解)[3)]의 머리말에「제주도의 땅, 설매(雪馬)의 나라에 인문관풍신(印文官風神)이 솟아났다」고 했고 또 수기동(水基洞)에서 들은, 대정군에 전하는 신화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돼 있다.

그 옛날 한라산[4)] 서남쪽 나무와 풀이 자라지 않은 고원(高原)에 솟아있는 첩첩한 암석산, 오백장군[5)] (五百將軍·五百羅漢·사진 15)의 암석으로부터 두사람의 아름다운 자매의 신이 솟아 나왔다. 그것은 바람도 없는 차가운 달밤이었다. 언니의 이름을 이혼, 동생의 이름을 이완이라고 불렀다. 동생이 달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언니 이혼에게 말했다. "저 달 속에 살고 있는 저 그림자인 남자가 우리들의 정해진 남편 한라부악(釜岳)의 신입니다. 언제 이 지상에

2)『高麗史』第五七卷「地理志」今西龍譯, 前揭書.

3) 赤松智城·秋葉隆『朝鮮巫俗의 硏究』上卷.

4)『耽羅志』의 濟州·山川의 綱에「漢拏山·在州南二十里鎭山其日漢拏者以雲漢 可拏引也. 一云 頭無岳以峯皆平也. 一云 圓山以穹窿而圓也. 一云 釜岳以山之頭皆有池似貯木器也」

5) 五百將軍은 現在의 島民에 의해 漢拏山보다 神聖視되어 있지만 웬일인지 東國輿地勝覽·耽羅志等에는 그 所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抹殺的 態度로 나와 있다.

내려올는지 또 어디로 내려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서 먼저 만난 사람이 시집가기로 합시다"고. 언니가 대답해 말했다. "남자는 홀로 차지하는 것, 그대의 말에 따라 그러면 서로 헤어져서 낭군을 찾으러 나가자." 말을 마치자 마자 샛바람(東風)이 안개를 불러 달도, 산도, 여신도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몇 년후 어느 여자신방[6]이 대정군 천제연의 파란 연못(사진 14)가에 암자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 맞은편 기슭에 달의 신, 한라산신이 내려와서 작은 배를 타고 못을 건너 그 여자신방을 만나 말하기를 "기연(奇緣)입니다. 함께 혼인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 가만히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여신방이 대답하기를 "저도 남자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당신의 정해진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배를 빌려 주십시오. 저는 바다로 갑니다. 헤어짐에 있어 당신의 이름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나는 한라산의 신, 달속에 살고 있던 환구[7]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신방은 홀로 환구의 배에 타고 흘러 흘러 바다로 나가자 해상 저 멀리 한림쪽에서 작은 배에 탄 남자신이 흘러왔으므로 이를 끌어당겨 배안에서 함께 자고 그후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또 제주도의 개벽전설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수기동에서 채집). 옛날 설문대할망[8]이라고 부르는 키가 큰 여신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해상에 섬을 만들어 여기서 살려고 해서 한강(경기도)의 토사를 한 웅큼 손에 쥐고서 해상을 날아 바다에다 이것을 뿌리자 순식간에 제주도가 생겨났다. 가장 큰 흙덩어리는 한라산이 되고 작은 무더기는 지금의 측화산(側火山)이 되었다고 한다.

이 할망의 큰 키는 무시무시하여 바닷가에 선 채 한라산정의 백록담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섬이 육지와 떨어져 있

6) 赤松智城・秋葉隆, 前揭書.
7) Fan-gu는 島民의 俗說에 의하면 本解, 즉 巫의 노래라고 한다.
8) 姥를 陸地에선 halmoni라지만 濟州島에선 halman이라고 한다.

는 것은 불편하여 그 사이를 연결시켜달라고 섬사람들이 할망에게 간청하므로 할망은 "좋소, 그렇지만 나에게 바지를 하나 만들어주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승낙해서 마침내 바지만들기에 나섰는데 처음에 예정한 30두(斗, 1두는 1백匹)로는 부족해서 기어이 1백말의 베를 사용해 바지를 완성했으나 이것마저 몸에 딱 맞지 않았으므로 할망은 일을 완성시키지 않았다. 어느날 설문대할망은 혼자 물장오리오름(長兀岳)으로 나가 막대기로 이 산의 중턱을 두드렸더니 물이 급히 솟아나 화구호(火口湖)가 생겼고 그는 그 깊은 물속에 키 큰 몸을 감추고 지금도 아직 그 호수 속에서 잠들고 있다고 한다. 장올악(長兀岳·9백62m)은 성판악 동북쪽에 있는데 예전부터 성소(聖所)로 알려져 있었던 듯 탐라지에도 영험이 두드러진 곳이라는 기재가 있다.[9]

나) 일본과의 관계

육지에서 이 섬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도민의 풍속습관 특히 여인으로부터 받는 느낌이 육지와는 다르다는 것과 앞에 말한 고려사(高麗史) 소재의 기사에서 '일본적'인 것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 우선 고려사의 개벽전설에 대하여 아마노 사다카게(天野信景)는 시오지리(塩尻·江戸中期의 국학자 天野의 수필집) 상권에서 이 전설중의 일본국주(國主)가 그 세딸을 이 섬에 보냈다는 기사에 대하여 '옛날 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照大神)가 삼녀를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津國)에 내려보냈다는 설과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나바 이와키치(稱葉岩吉)도 '이 전설은 지쿠젠노쿠니무나카타(筑前國宗像)의 신화의 발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무나카타신사(宗像神社)의 분포를 검토

9) 耽羅志·濟州·山川의 綱에 「長兀岳·在州東南四十五里几四峯. 一峯最高大 嶺有龍池. 徑可五十步. 深不可測. 人喧則雲霧四起. 風雨暴作旱則禱雨, 有●云々」.

해보면 스스로 명백해질 것으로 여겨진다'[10]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가 인용한 옛기록의 출처가 분명치 않고 또 마찬가지로 출처는 분명하지만 탐라기년(耽羅紀年)[11]에는 '나는 벽랑국리(碧浪國吏)다'고 하고서 그 주(註)에 '지지작일본국사'(地志作日本國使)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아도 '나는 바로 일본국사'라고 하는 기재에 너무 구애받는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12]

다음으로 서기(書紀) 소재의 제주도 즉 탐라에 관한 기사를 보면 게이타이기(繼體紀)에 '2년(508년) 겨울 10월 신해삭계축(辛亥朔癸丑)에 남쪽의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에 다녀가다[13]고 되어있고 그 후 고오토쿠(孝德)천황 5년 여름 4월에 토화라인(吐火羅人)이 휴우가(日向)에 표착했다'는 것도 씌어 있다.[14] 일본과의 교통을 말해주는 것으로는 사이메이기(齊明紀)에 '7년 5월 정사(丁巳) 탐라가 처음으로 왕자 아파기(阿波岐) 등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유래를 싣고서 '이요시무라지하쿠도쿠(伊吉連博得)의 글에서 가로되 신유년 정월25일 돌아오면서 엣슈(越州·주≡지금의 福井, 富山, 新潟縣을 합친 지역)에 이르다. 4월 1일 월일(越外)로부터 올라와서 동쪽으로 돌아가다. 7일 나아가 성안산(檉岸山)의 명(明)에 이르다. 8일 새벽 서남풍을 쫓아 배를 대해로 띄우다. 바다 가운데서 길을 잃어 표류해 신고(辛苦)를 겪다. 8박 9일만에 겨우 탐라도에 이르다. 사신이 즉시 섬사람을 초청 위로하고 왕자 아파기등 9명을 함께 객선에 태워 조정에 봉헌(奉獻)토록 했다. 5월23일 아사쿠라(朝倉)의 조정에 봉진(奉進)하

10) 稻葉岩吉「朝鮮民族史」,『朝鮮史講座分類史』.
11) 金錫翼『耽羅紀年』.
12) 安倍能成「耽羅漫筆」,『靑丘雜記』.
13)『日本書紀』岩波文庫中卷, 二八四쪽.
14) 同書下卷, 一九五쪽

다. 탐라의 입조(入朝), 이때부터 시작되었다[15]」고 되어 있다. 그 후 입조관계는 계속되어진 듯하며 텐치기(天智紀) 8년에는 사자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고[16] 텐무기(天武紀)에는 국내 국외의 사정으로 보아 이미 내조(來朝)할 필요가 없다고 사자를 돌려보낸 기록[17]이 보인다. 그 후 백제는 신라에게 멸망되었기 때문에 입조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13년. 일본인이 제주도에 간 기록보다도 제주도로부터 온 기록이 많은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밖에 속일본기(續日本紀), 연희식(延喜式)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 등에도 탐라 또는 도라(度羅)의 섬에 관한 조그만 서술이 보여진다.

섬의 향토지 탐라지 및 후세(後世) 제주도에 관한 역사를 여러책에서 집성한 탐라기년(耽羅紀年)을 보면 고려의 충혜왕(忠惠王)후 2년(1332년)에 「倭寇南鄙明年以七百余艘來侵」으로 시작하여 광해군(光海君) 6년 만력(萬曆) 42년(1614)에 「夏6月 判官李廷獲得倭賊二艘於北浦前洋以功賀」로 그치고 있다. 2백72년간에 연안에 출몰한 왜적에 대한 기록은 28건에 이르며 방호소(防護所) 수전소(水戰所) 및 봉수(燧燧)는 그 때문에 여러 곳에 만들어지고 한라산의 오백장군은 외국으로부터의 모욕을 방지하는 신으로서 섬에선 물론 육지에서도 존중받게 되었다. 그밖에 지역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때문인지 강희(康熙) 48년(1709년)판의 탐라지도서(耽羅地圖序)[18]에는 「三學·審學·漢學·倭學」이라고, 일본어의 통역관을 양성한 학교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은 부산에도 있었던 것이다.

---

15) 同書下卷, 二一六쪽
16) 同書下卷, 二三一쪽
17) 同書下卷, 二六三쪽
18) 이 地圖는 一九三三年八月, 京城大學敎授奧平武彦에 의해 發見되어 그後 筆者는 濟州의 舊家에 所藏되어 있던 것을 古川島司의 알선으로 보았다. 이것에는 序가 없었다.

이상 일본과 제주도와의 역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재료를 열거하였지만 이것을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조선의 다른 장소와 비교해서 특히 깊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일 것이다. 즉 옛날에는 조선반도의 남부에 한인(韓人)이 정주(定住)하기 시작했을 무렵 왜인도 이와 잡거(雜居)해 있었던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며[19]. 임나(任那), 백제가 일본에 보낸 사절의 수는 탐라의 그것과 비교하면 회수도 많고 기간도 길다. 또 일본사절의 도래의 회수는 이 또한 남선제국(南鮮諸國)쪽이 상당히 많고, 제주도와의 교섭은 다만 표류한 정도에 불과하고 사적통상관계(私的通商關係)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의문이다. 왜구의 내구(來寇)는 문화적 접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탐라지의 성씨(姓氏) 항목에 원성(元姓), 운남성(雲南姓) 즉 원및 운남(남부중국) 사람이 귀화해서 새 성(姓)을 이룬 사실을 볼 수 있으나 일본인의 이와같은 사례는 적어도 기록에는 실려있지 않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풍속 중에서 일본과 가까운 것을 찾아보면 바느질을 할 때 육지부인은 바늘을 안으로 향해 사용하지만 제주도인은 일본인과 같이 운침(運針)한다는 것[20] 아기를 업는 방식이 일본과 비슷한 것[21]. 섬에서는 벽토(壁土)에 넣는 새(茅)를 수세라고 하고 육지에서는 벽에 그와같은 것을 섞는 일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짚을 넣어 이것을 수사(スサ)라고 말하는 점[22]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의 재료로서 일본풍속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무모하다. 다만 말할수 있는 것은 어느시기에 전파한 풍습은 섬나라라고 하는 고립된 환경 때문에 달리 영향 받은 바 적어 오래 남아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

19) 稻葉岩吉, 前揭書.
20) 全羅南道濟州島, 『一九三七年濟州島勢要覽』.
21) 全羅南道濟州島, 『一九三七年濟州島勢要覽』.
22) 森「濟州島漫談」, 『文敎의 朝鮮』一九二八年一〇月.

다) 제주도인의 신체－형질(身體－形質)

다음에 제주도민 및 이와 가장 근접하고 있는 쓰시마(對馬) 이키(壹岐)의 도민과 남조선·큐슈(九州) 북부 및 일본본도의 서부지방 등 인접지방의 주민의 형질을 비교해보자. 두부에 있어서 두최대장경(頭最大長徑)·두최대폭경(頭最大幅徑)·두장폭지수(頭長幅指數)에 관해서는 제주도는 남조선에 가깝고 쓰시마 및 이키(壹岐)는 북큐슈 서부산요(山陽) 산잉(山陰)에 가까워 각각 이를 한 무리로 삼을 수 있다. 더욱이 양자 사이에는 꽤 현저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서[23] 계측의 수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두장폭지수에 두어 이를 근접지방주민과 비교하면 <그림 9>와 같아서 제주도는 전라·경상 두남도와 가깝다.

<小浜,「濟州島, 對馬 및 壹岐에 있어서의 島原住民의 體質, 人類學的 硏究」에 의함>

<그림 9> 對馬海峽周邊地에 있어서의 男子頭長幅指數의 分布圖

23) 小浜基次·佐藤正良「濟州島·對馬 및 壹岐에 있어서 島原住民의 體質人類學的硏究」,『人類學雜誌』第五〇卷.第一一號, 第五一卷七號, 第五一卷第八號.

그래서 여자의 얼굴 모습이 일본인과 비슷하다고 일반적으로 흔히 말해지고 있으나 이와같은 느낌(사진 19, 20, 21)은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남녀의 형질적 차이가 각부분에 걸쳐 아주 적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제주도인은 본질적으로는 남선인인 것이다. 또 여기서 주의해야될 사실은 제주도민의 두부의 측정치는 아주 몽고인에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지금 시험삼아 두장폭지수만을 가지고서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24].

<표 5> 男子頭長幅指數比較表

種 族	n	M±m	6±m6	V±mv
濟州島朝鮮人	245	85.69±0.21	3.27±0.15	3.81±0.17
平北朝鮮人	160	84.04±0.36	4.50±0.25	5.36±0.110
咸北朝鮮人	90	85.46±0.56	5.27±0.39	6.17±0.46
喀爾喀族	192	85.29±0.27	3.74±0.19	4.39±0.22
巴爾虎族	132	85.17±0.34	3.99±0.24	4.68±0.28
布里牙特族	96	86.74±0.37	3.64±0.26	4.20±0.30
達呼爾族	290	81.51±0.20	3.39±0.14	4.16±0.17
索倫族	32	84.20±0.64	3.62±0.45	4.30±0.54
鄂倫春族	14	83.74±1.06	3.95±0.75	4.72±0.89
山東支那人	1106	77.80±0.121	4.02±0.085	5.17±0.110

라) 몽고(蒙古) 및 운남(雲南)과의 관계

이 섬과 몽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사지리지가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원종(元宗) 11년 역적 김통정(金通精)이란 자가 삼별초(三

24) 蒙古族 및 퉁구스族의 數字는 鳥五郎「蒙古族 및 通古斯族의 體質人類學的研究補遺」,『人類學雜誌』第五〇卷, 第二號付錄에 따름.

別抄)를 장악해서 입거(入據), 난을 일으키다. 4년뒤에 왕은 김방경(金方慶)에게 명하여 이를 토평하였다. 충렬왕(忠烈王) 3년에 원(元)이 목마장을 만들다. 20년 왕은 원에 사절을 보내어 탐라를 돌려주도록 간청했다. 원의 승상 완택(完澤)등이 상주(上奏)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어 탐라를 우리나라로 돌려주었다. 다음해 을미(乙未) 이름을 바꾸어 제주라 하고 처음으로 판비서성사 최단(判秘書省事 崔端)을 목사로 삼다. 26년 황태후가 다시 마구간말(廐馬)을 풀고 31년에 우리나라로 환속시키다. 충숙왕(忠肅王) 5년 초적(草賊) 사용엄복(士用嚴卜・世家에는 使用金成이라고 되어 있다)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획책함에 토인(土人) 문공제(文公濟) 병을 일으켜 이를 주살(誅殺)하다. 원에 문의하여 재차 관리를 두다. 공민왕(恭愍王) 11년 원에 예속하기를 청함에 원부추문아단불화(元副樞文阿但不花)로 탐라만호(萬戶)를 삼았는데 본국의 김장로(金長老)와 함께 주(州)에 나타나 만호 박도손(朴都孫)을 매질하여 바다로 던졌다. 16년 원은 주(州)를 재차 내속(來屬)시키다. 그때 목호(牧胡)는 강력해서 국가가 파견한 여러 목사만호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켰다. 김경지(金庚之)가 토벌을 함에 목호는 원에 호소,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할 것을 청했다. 왕은 주청하여 본국에서 관을 자서(自署)시키고 목호가 키운 말을 골라 헌상할 것을 예전과 같이 하겠다고 하자 원황제는 이에 따랐다. 18년 원의 목자합적(哈赤) 발호(跋扈)하여 관리를 살해하다. 6년 8월 뒤 왕은 도통사 최영(都統使 崔瑩)을 시켜 합적을 토벌토록하고 관리를 두었다[25]」.

이 1백4년 간에 원은 섬을 2개로 나누어 한때 다루하치(達魯花赤)를 두어 통치하도록 했으며 어떤 때는 일본 및 남송(南宋) 공략의 선박을 만들고 우마 특히 말을 키우기 위하여 목장을 만들었던 것

25) 『高麗史』第五七卷 『地理誌』 今西龍訳, 前揭書.

이다. 처음에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섬에 주둔한 군인의 수가 1천7백명이라고 원사외이전(元史外夷傳)[26]에는 씌여있으나 그 후 얼마만큼의 몽고인이 이 섬에 들어 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원과 함께 그 밖의 민족도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원이 쇠퇴하고 명(明)이 융성해짐에 따라 원계(元系)의 사람은 특히 합적의 난 이후 상당한 박해를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도민과 교혼(交婚)하여 동국여지승람 및 탐라지에서 말하는 원성으로 되었던 것이리라. 이것을 이 책에서 찾아보면 10개성에 이른다. 원계 (元系) 사람들이 그냥 토착한 것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기간은 제주도의 가장 처참한 시기로서 뭍에는 몽고인이 있고 바다에는 왜적이 횡행했으며 때때로 주민은 봉기해서 문화는 퇴영일로(退嬰一路)를 걸었을 것임으로 아마도 새로운 타민족의 문화를 흡수할 힘도 겨를도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육지에 있어서는 원의 문화는 의복(衣服), 변발(辮髮), 마구(馬具) 같은 것에 특히 볼 수 있으며 그 풍속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27]

물론 제주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인정되지만 속설에서 믿어지고 있는 것처럼 심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몽고 풍속을 들어보면 그 무렵 아직도 산간부락에서 행해지고 있던 짐승가죽으로 된 모자, 외투(사진 36), 치마, 양말, 신(鞋・이것을 총칭해서 섬 방언으로 가죽옷이라고 말한다) 각 부락에 몇 개씩은 갖추고 있는 말방아(碾磨 사진9), 승마용의 안장(사진 73), 밭이나 부락입구에 쌓여있는 돌더미(石堆) 또는 미륵, 돌하르방, 우석목이라고도 불리우는 석상(石像・사진 16), 목동이 우마를 쫓을 때 부르는 노래

26) 『元史・外夷傳』第九五.
27) 內藤雋輔「高麗風俗에 미친 蒙古의 影響에 대해」, 『桑原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등이다. 짐승가죽의 의복에 대해서는 당서동이전(唐書東夷傳)에 탐라의 풍속을 기술하여 「龍朔初. 有担羅者 其王儒理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外南島上, 俗朴陋. 衣犬豕皮,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把土」[28]라고 되어있다. 또 앞에 말한 삼신인의 전설에도 「皮衣肉身」과 태고의 생활을 전하고 있어서 원에게 점령되기 이전부터 섬사람들은 가죽옷을 입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만일 몽고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면 형상(形狀) 기타 세부에 나타나 있을 것이 확실한데 하등 몽고적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즉, 모자·외투·치마·양말은 털부분이 밖에 나타나 있다. 만주[29] 및 몽고[30]의 가죽옷은 안쪽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民具의 章에서 상술하겠다). 또 가죽신(皮鞋)은 몽고인의 장화[31]나 북방 퉁그스의 양말모양의 신(鞋)[32]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가죽으로 만든 조선의 신(鞋)인 것이다. 전마(碾磨·말방아)는 조선육지에 있어서도 돌방앗간이라고 해서 상당히 널리 분포해 있으며 만주에서도 널리 볼 수 있다. 오히려 몽고의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북중국의 농경구로 볼 수 있을 터이다.

다음으로 안장인데 이것은 분명히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조·형상으로 추정컨대 원으로부터의 영향임을 볼 수 있다. 돌무더기(石堆) 및 미륵은 몽고의 「오보」에 유래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퉁그스 및 몽고, 더 나아가서는 북유러시아대륙에 공통된 습관으로 여겨지는 석퇴문화(石堆文化)[33]이며 미륵(사진 12, 13)은 장생(長柱·장승)

28) 唐書東夷傳『朝鮮史』第一編第三卷支那史料別錄.
29) 秋葉隆 「오로촌民具」, 『民族學研究』, 第三卷第一號. 凌純聲·松花江下游的赫哲族 및 筆者의 踏査에 의해서도 이런 것을 見聞한 일은 없다.
30) 筆者의 踏査 및 그밖의 紀行, 寫眞等을 미뤄바도 털이 있는 面은 안쪽에 들어 있다.
31) 筆者의 目見에 따름
32) 秋葉隆 前揭書(29)
33) 秋葉隆 「朝鮮民俗에 대해」『朝鮮文化之研究』所載.

의 변형으로도 생각된다. 풍수의 신앙에 의한 악기제거(惡氣除去)로서 석퇴(石堆·이것을 탑(사진 18) 또는 성(사진 17)이라고 말한다)를 만들도록 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육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가축을 모는 노래는 뒤에 「목축의 절」에서 실례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육지 그대로의 것이 많고 다만 음률이 어느 정도 다른 정도여서 몽고와의 관계는 거의 볼 수 없다. 어떻든 이 섬의 습속이 육지와는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몽고문화의 영향이 그렇게 강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별로 사람들에 의해 문제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섬에 운남인(雲南人·동남아시아인)이 귀화 이주한 기록이 동국여지승람·탐라지·탐라기년 등에 실려있다. 즉 동국여지승람[34]에는 다음 4가지 성이 거명되고 있다.

梁, 安, 姜 對(雲南. ○大明初. 平定雲南. 徙梁王家屬. 安置于州.)

그밖에 중국인 유구인(琉球人)이 표착된 기록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생략한다. 다만 주목할만한 것은 남중국의 일반인민이 입고 있는 시삽의(柿澁衣)[35]와 제주도민의 그것(갈옷이라고 한다)과는 감물을 만드는 방법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을 가지고서 제주도의 갈옷이 남중국으로부터 전파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제주도민의 신체형질·역사·문화 등에는 종래 일반적으로 믿어졌던 것 만큼 일본 및 몽고의 영향은 적으며 옛날에는 독립국이었고 백제의 멸망 뒤에는 신라에 복속하고 그 이후 제주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조선 특히 남선의 한 지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옛 이름에서 볼 수 있는 耽牟羅, 涉

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35) 筆者의 目見에 따름.

羅, 耽浮羅, 儋羅, 屯羅 등의 耽, 涉, 儋, 屯은 모두 조선어에서는 섬을 의미하며 羅는 나라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섬나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의 섬이름이었던 것처럼[36] 제주도는 섬이라고 하는 독자적 환경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조선의 한 지역인 것이다. 나는 이와같은 태도를 가지고 본고를 집필해나갈 생각이다.

제2절 부락의 분포상태와 그 성격

제주전도에 있어서의 부락의 인구규모별 분포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며 더욱이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섬의 행정 최소단위인 이(里) 및 구(區)는 그 가운데 몇 개의 자연발생부락 즉 자연촌(마을 또는 동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상세하게 볼 때 행정구획으로서의 이는 몇 개의 구로 나뉘어진다든지 그것이 곳에 따라서는 동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 동은 대부분 자연촌에 해당하며 자연촌은 지역적환절(環節)로서 다시 상·중·하동 또는 모모동(某某洞)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림 10>은 행정조직과 자연촌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구체적 예를 여기에 맞춰 본 것이다.

즉 조천면 대흘리 제2구중에 자연촌으로서 수기동(水基洞)이 있고 이것은 지역적 환절기로서 동동과 서동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안의 밀집부락의 대부분은 북촌리와 같이 이(里)가 자연촌인 경우와 화북리의 제1구 별도(別刀)와 같이 구(區)가 자연촌인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몇개 동으로 나뉘며 그러한 동중에는 지역적 환절을

36) 高橋亨「民謠에 나타난 濟州의 女子」『朝鮮』一九三三年一月.

A 型

B 型

<그림 10> 行政組織과 自然發生村落과의 關係圖

볼 수 없는 곳이 보통이다. 지금 수기동과 같은 타이프를 A형, 북촌리, 별도와 같이 행정조직과 자연촌이 일치해 있는 것을 B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A형의 취락은 비교적 인구가 적은 자연촌군(自然村群)을 그것들 중의 유력한 자연촌의 명칭으로 행정상 총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행정상의 명예직인 구장의 힘은 마을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지 않고 자연촌은 각각 독립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같은 형태는 물론 예외도 있으나 주로 중간지 및 산지촌락(山地

村落)의 특징이다. 해안의 대부분의 부락은 B형에 속하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촌이 행정단위로서의 이(里) 또는 구(區)로 되어있다.

다음으로 A·B 두 형태의 자연촌을 두고 비교해보면 A형에 있어서는 마을이 2개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반하여 B형에서는 여러개 동으로 나뉘어있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의 자연촌은 해안지대에서는 수개동으로 나뉘어 표고가 높아짐에 따라 동의 수가 줄어간다는 것을 조사촌(調査村)에 대하여 나타내 본다면 <표 6>과 같다. 그런데 면·이(面·里)에서 입수할 수 있는 인구통계는 모두 이 행정단위로서의 이(里) 또는 구(區)가 단위로 되어있고 자연촌을 단위로 한 통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의 통계에는 더더욱 자연촌을 단위로 한 것은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연촌별 인

<표 6> 村落組織의 對比

行政區劃			自然村落			
里	區	區中에 있어서의 다른 自然村의 有無	村	洞	標高	裸潛漁業權의有無
橘來里	없음	없음	Tali	上, 下洞	399m	없음
大屹里	第二區	有	Murutojingköl	東, 西洞	320m	없음
大屹里	第一區	有	Hanulu	東, 西洞	140m	없음
臥山里	第一區	有	On	없음	350m	없음
臥山里	第一區	有	Munmi	東, 西洞	145m	없음
北村里	없음	없음	Pupola	東, 広石, 興禮, 西, 海, 億水, 洞	15m	有
新村里	第一區	없음	Shin-chon	東, 東中, 上, 西中, 東水洞	20m	有
禾北里	第一區	없음	Perto	東, 中, 西, Konur, 洞	0m	有
禾北里	第二區	없음	Kowobok	東, 中, 西洞	0m	없음

구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단위로서의 이(里)를 단위로 한 인구통계를 이용해서 부락의 인구분포를 나타낼 때에는 B형이 많은 해안지대는 대부분 실상에 가깝고, A형지대에 있어서는 실제보다 협동체규모가 크게 표현된다. 1936년도의 도청통계에 따라 부락의 인구규모별 분포를 도시(圖示)해보면 <그림 11>과 같다. 이 그림에 의해 명백해진 것처럼 부락은 식물대의 분포와 거의 평행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흥미깊은 현상이다. 즉 촌락은 해안식물대와 평야식물대의 사이, 다시 말하면 북부에서는 2백50m 남부에서는 3백m 사이에 밀집하고 인구의 밀도는 압도적으로 해안이 조밀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산야식물대에도 촌락의 분포를 볼 수 있지만 그 이고(以高)에 있어서는 전연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로서 들 수 있는 조건은 산야식물대이고(以高)는 경사면의 각도가 급하게 됨과 동시에 용암의 자갈이 많고 물이 부족하며 일한합병 후에는 산야식물대보다 높은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되어 새로운 개간이 금지돼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현상은 산야식물대는 그 무렵 목장으로서 이용돼 있던 것 외에는 버려진 구경지(舊耕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곧잘 인용되었던 해안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은 용수가 풍부한 때문이라는 기계론적 해석에 강한 반성을 주고 있다. 또 산야대 내지는 평야대의 상부를 상세히 조사할 때에는－예컨대 병문천유역의 아라리(我羅里)로부터 약 5㎞, 윗쪽에 2천명이나 3천명 인구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연중 마르지 않는 용수가 몇군데 있다. 이들 용수는 해안의 짠맛 나는 물보다는 양질이다. 그러나 이 물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은 한군데도 없다. 제주도와 같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 조차 물은 취락의 성립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수는 없다.

<그림 11> 濟州島의 部落分布圖(1936年)

다음으로 정확한 이별(里別) 인구통계가 얻어지는 1928년부터 1936년간의 인구이동상태를 관찰해보기로 하자. 1928년의 본도 총인구는 20만5천6백6명이며, 1936년도의 그것은 19만6천7백74명, 즉 4.2%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출가(出稼)에 있지만 이것이 본도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장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이별(里別)로 인구의 이동을 보면 <표 7>과 같다. 즉 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이(里)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곳, 그리고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는 곳이 있다. <표 7>에서 해촌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해변의 마을로 다소나마 해녀의 나잠어업권구(裸潛漁業權區·제3장 제5절)를 가지고 있는 촌락이며 산촌이란 어업권을 갖지않은 이(里)를 수합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본도의 인구는 평균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그중에 해안의 촌락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이동현상을 다시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면 제주도의 경제변천의 역사를 대강 상정(想定)할 수가 있으며 또 도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3개 타이프의 성격을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명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

<표 7> 海·山村別人口增減表(1928~36年)

部落의人口增減數 / 邑또는面	人口增加 또는 村落數		人口平均減少率 以下減少村落數		人口平均減少率 以上減少村落數		總村落數
	海 村	山 村	海 村	山 村	海 村	山 村	
濟州邑	6	6	1	2	1	9	25
涯月面	5	1	1	3	1	8	19
翰林面	3	1	1	0	8	11	24
大靜面	1	0	0	0	6	6	13
安德面	0	0	0	0	4	6	10
中文面	6	2	0	1	1	1	11
西歸面	3	0	0	0	7	2	12
南元面	1	0	0	0	6	2	9
表善面	1	1	0	0	3	1	6
城山面	4	0	0	0	4	3	11
舊左面	2	0	1	1	7	2	13
朝天面	3	3	2	1	0	1	10
計	35	14	6	8	48	52	163
比 率	39.4%	18.9%	6.7%	10.8%	54.8%	70.2%	

주) 部落의 1928年부터 1936年에 이르는 增減率은 -4.2% ※ 島廳統計로부터 算出

므로 고지도(古地圖)와 산록지대의 실지답사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에 있어서는 어떤 가족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던 부락을 떠나 딴 부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사간다고 말하고, 토지문제가 해결된다면 마을 안에서 다수의 반대가 없는 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허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혈연의 선을 따라 이사가 행해진다. 이사는 그 무렵 대체로 감소해서 신촌·함덕리등과 같이 새로 개척되어가는 부락에 있어서도 1년에 옮겨오는 사람은 5가족을 넘는 일이 없다. 한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구좌면의 우도(牛島)에 거주가 허가된 때였다고 노인들은 말하고 있다. 그때에는 2년간에 8개동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였다[37].

통계가 없으므로 노인들의 말에 따라 근년의 이사상황을 더듬어 본다면, 가장 심했던 것은 우도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1900년경에서부터 약 15년간이었다고 한다. 이 사이에 고지(高地)의 촌락에서 저지(低地)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교래리(橋來里)와 같은 전형적 산촌에 있어서는 이 사이에 약 30가족이 부락의 바로 아래에 있는 신촌리로 내려갔고 수기동(水基洞)에 있어서도 10가족 정도가 조천리로 내려갔다고 한다. 또 이렇게해서 사라져버린 부락도 있다. 심한 경우는 남쪽의 서귀면으로, 수악(水岳)기슭에 산촌(散村)을 이루고 있던 평대진전(坪垈陳田), 마찬가지로 산촌을 이루고 있던 생수동(生水洞)의 여러 부락은 거의 전부가 이사를 해버렸다고 한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이 무렵 산야지대에서 볼 수 있는 폐경지(廢耕地)의 돌담은 이러한 산촌의 소멸을 이야기해주는데 다름아니다. 이 기간의 이동의 특징은 이동의 단위가 가족으로서 산지로부터 해안으로의 이동이었다. 이 기간을 「가족의 향해이동기(向海移動期)」라고 명명해 두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부락의 이동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해촌과 산촌과의 2분류(分類)와 도민의 일부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3분류와를 대비해 보자. 지금까지 지적했던 해촌의 특징은 행정구획과 자연촌과의 관계가 B형인 점, 그리고 해안에 해녀의 나잠어업권구를 갖는 것이며 산촌의 특징은 A형인 점과 해안에서 나잠어업권구를 갖지 않는 것이다. 또 이와같은 조건에 대한 예외마저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나잠어업권구에 대해서도 이것을 마을별로 관찰할 때에는 다소의 예외는 인정된다(다음 장 참조). 분류의 보조수단으로서는 부락의 표고(標高)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해안식물대 및 평야식물대 하부에 있

37) 演坪陳述書件.

는 부락은 해촌, 그 이고(以高)는 산촌이라고 보아 상관 없다. 그런데 앞서의 분류에 의한다면 지금까지 기술해 온 산촌을 지리적·경제적·종교적요소에 따라 양촌(陽村)과 산촌(山村) 2개로 나눈다. 다시 말하면 양촌은 평야식물대 하부 및 중부에 있고「가족의 향해이동기」이전에는 섬의 경제가 농업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장 부유했었고 유교(儒敎)의 영향이 농후해서 문자를 이해하는 자도 많고 계의 조직도 발달해 있었다. 섬의 관헌(官憲)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계층으로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부락인 것이다. 산촌은 표고에 있어서는 양촌보다 높은 곳에 있고 신간지(新墾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 않고 유교의 영향도 양촌보다는 약하다. 양촌인의 가치판단에 의하면 산촌인은 여자가 나체가 되어 잠수하지 않는 점에서 해촌사람 보다는 윗 계급에 있다고 여겨졌었다. 1900년초까지에는(그때까지도 양촌의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양촌이 사회의 가장 상위에 있고 산촌이 그 다음이며 해촌은 최하위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자 그 무렵 경제적으로 유력해진 해촌인은 산촌인과 양촌인과를 동일시하고 또는 도리어 양촌인의 유교적 완고함을 경멸하여 산촌인을 위에 놓은 일도 있기 때문에 해촌인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계층의식과는 전혀 반대의 층화관념(層化觀念)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가족의 향해이동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의 촌락의 분포에 대해서는 양촌의 발생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촌이 일어난 연대는 각 마을의 연기서류(緣起書類)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없어져버린 오늘날에는 확실히 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 마을에 남아있는 구전(口傳)에 의하여 이것을 추찰(推察)해 보기로 한다. 예컨대 조천면 와산리(臥山里) 제1구 문미촌은 3백년 전, 마찬가지로 대흘리(大屹里) 제1구 하늘촌은

3백75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마을이 만들어진 때에는 섬의 관습으로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반드시 섬의 시조인 고·량·부 삼성 중의 어느쪽 한 성에 속하는 자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해촌과 산촌의 성립을 구전에 의해 조사해보면 제주(濟州)·성읍리(城邑里)·고산리(高山里)·대정성(大靜城)·모슬포(摹瑟浦)·서귀포(西歸浦)·정의성읍(旌義城邑)·성산포(城山浦)·김녕(金寧)·조천리(朝天里)·함덕리(咸德里)·화북리(禾北里) 등 오래된 성읍을 제외한 딴 작은 마을은 대부분 1850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사이에 산재(散在)해 있던 가옥이 모여서 한 마을을 형성했다고 여겨진다. 가옥이 모인 연대는 해촌쪽이 약간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해촌으로서는 오래되고 더욱이 옛관습을 보존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던 북촌리의 개촌(開村)기념으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한 번도 손본 적도 불탄 적도 없는 향사를 1935년에 헐어제쳤을 때 마룻대(棟)에 「康熙□□年 建□」란 문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추찰(推察)되며, 비슷하게 강희연간에 만들어진 탐라지도[38]를 보면 해안에 있어서는 산지(山地)와 마찬가지로 현존(現存)의 촌락이름이 전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그 당시의 마을 수는 현재에 비해서 적다는 것으로도 명백해질 것이다. 따라서 1650년경부터 1850년 이전까지는 집촌형성(集村形成)시대라고 명명해두자. 우선 어떠한 자극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인구의 증가와 동국여지승람에 「東文鑑 地多亂石乾燥 素無水田 唯糙麥粟生之厥田古無彊畔 强暴之食 日以蠶食 百姓苦之」[39] 운운(云云)한 것으로 보아도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났던 것과 양·산촌에서의 농법의 개량과 어촌에서의 생업이 수렵으로부터 어로(漁撈)로 옮긴 것

38) 李某『耽羅地圖』.
39)『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八.

등이 분산돼 있던 집집을 점차 일정장소로 모여, 취락을 형성시킨 중요원인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은 경향은 우선 산·양촌에서 시작되어 해촌이 그에 따랐던 것 같다. 그 때문에 유교의 사상이 보급되고 온돌을 만드는 것도 깨달아 해촌의 나잠권구도 분명한 구획을 갖기 시작했음에 틀림없다.

당서(唐書)에는 「夏居草屋 冬窟室」[40]이라고, 혈거(穴居)를 말해주는 것 같은 기사도 있지만 그때 이미 이와같은 주거상태를 되새겨 볼만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집촌형성시대」 이전의 부락상태는 자료의 결핍으로 이젠 상상하는 것조차 곤란하다. 어찌 되었던 섬의 취락은 과거 4백년사이에 두 번의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집촌형성시대에는 해변 및 원야(原野)지대에 분산해 있던 집집이 우선 평야식물지대로 모이고, 다음에는 해안에 있어서도 같은 집중이 이루어져 산지에서 새로운 토지개간을 하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한군데로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양촌이 번성했지만 1900년에 이르러 주로 해산물의 판로 확장에서부터 「가족의 향해이동기」가 생기고 이사하는 사람이 속출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부차적문화(副次的文化)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구 행정구획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술해온 것과 같은 수직적(垂直的) 구분은 아니고 오히려 수평적(水平的) 구분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전도를 3개현으로 나누어 제주·정의현·대정현으로 하고 있다. 뒤에 이것을 3개군으로 하였으나 1914년 후는 2군을 폐해서 1군으로 하였다. 앞의 3개군은 단순한 행정구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보게되면 언어, 풍속 등에도 다소의 차이가 인정될 듯 하다. 실지답사(實地踏査)·전승(傳承)·탐라지(耽羅志) 및 탐라

40) 『唐書東夷傳』.

지도를 기본으로 해서 옛 구획을 생각해보면 <그림 12>와 같다. 또 그 당시 행해지던 면(面)의 명칭은 1934년에 개명되었는데 본고는 전부 그 당시의 개명을 따랐으나 해방 후에는 면 명칭이 다시 고쳐졌으므로 참고로 면 명칭의 3차례변화를 대비해 보기로 한다.<표 8>

<그림 12> 舊三郡과 舊面과의 關係圖

<표 8> 新舊行政區劃對比表

韓國의 行政區分	合併時의 行政區分邑面名	合併前의 行政區名	舊三郡
濟州市	濟州邑	濟州面	
涯月面	涯月面	新右面	濟州
翰林邑	翰林面	舊右面	
翰京面 大靜邑	大靜面	大靜面	大靜
安德面	安德面	中面	
中文面	中文面	左面	
西歸邑	西歸面	右面	
南元面	南元面	西中面	旌義
表善面	表善面	東中面	
城山面	城山面	旌義面	
舊左面	舊左面	舊左面	
朝天面	朝天面	新左面	濟州
楸子面	楸子面	楸子面	

제3절 도내에 있어서의 성씨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의 연구는 섬 사회를 아는데 불가결한 것이다. 여기에 인용한 통계적 조사는 도청이 마스다 이치지(桝田一二)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개관(槪觀)할 수 있는 자료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별(里別) 통계의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은 번잡한 일임으로 여기서는 성씨의 면별 집계와 옛 3군 즉 제주·정의·대정 각군으로부터 대표적인 면을 하나씩 골라 그 면에 포함된 이별(里別) 성씨구성을 들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키로 한다. 유감스럽게도 본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다. 부분적이지만 1965년에 보완적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제3부를 참조해주기 바란다. <표 9>는 성씨의 면별통계로서 총수에 있어서는 金씨가 1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高·李·姜·康·吳·朴·文·洪·玄·宋 등의 차례이다. 본관을 제주로 하는 高·梁(良)·夫의 3성씨중 夫씨의 수는 6백94가족으로 딴 2성에 비하면 소수이다. 더구나 본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梁씨중에는 운남(雲南)에서 온 것도 포함돼 있고, 더욱이 여기서는 각각의 비율이 불분명하므로 본관이 제주인 梁씨의 정확한 실수(實數)는 분명치 않다. 이들 여러 성씨 가운데 동국여지승람[41] 및 탐라지[42]에 의하면 夫씨는 「初寶城郡之福城縣人 來婿于高氏 其子孫有継爲王子者」라고 되어 있고, 또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의 10성은 元나라 사람이 귀화한 것, 梁·安·姜·對는 명(明)초에 운남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중 석(石)씨는 자손이 끊겼다. 딴 성

4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姓氏
42) 申纘·耽羅志·姓氏

<표 9> 濟州島邑面別姓氏統計

(單位는 家族)

姓氏 \ 邑面	濟州邑	涯月面	翰林面	大靜面	安德面	中文面	西歸面	南元面	表善面	城山面	舊左面	朝天面	計
尹	103	36	94	22	26	66	7	4	7	8	135	64	575
魯	1									2			3
呂	1			2					1		3		7
蘆	2		1		1	1		1				1	7
白	90	26	10	13	5	3	2	3	1	2	29	33	217
馬	4	1				1	2				3		11
裵	1	9		2		1	1	2	1			1	18
任	99	27	138	8	12	57	1	1	2	5	66	47	465
房	4					1		1		1			7
朴	354	205	282	57	63	37	53	17	20	48	153	96	1,385
邊	42	54	64	38	4	7	31	2	14	3	2	3	264
牟	8												8
張	163	135	159	12	21	16	4	8	6	5	39	43	611
池	3	2	5	7	26	15	1						59
李	704	345	593	356	196	345	147	61	61	49	297	372	3,526
林	19	30	14	64	44	43	2	6	1	5	123	4	355
梁	433	381	491	125	139	62	86	275	20	17	133	91	2.213
柳	4	1	1	17	26	8		1	2				60
劉	9		5		3	2	8	1					28
河	16		12					2					30
咸	1		22		1			11	4	10	10	11	51
韓	29	13	14	6	4	19	104	29	32	101	258	330	939
高	935		748	125	153	181	194	199	151	205	610	294	3,795
康	156	68	38	24	4	42	408	116	360	406	15	73	1,848
宋	211	93	65	116	87	35	55	50	104	75	73	109	1,073
孫	12	19	6	1		2	1	1	1	5	7	12	67
羅	4	2	1	6		10	1						24

姓氏 \ 邑面	濟州邑	涯月面	翰林面	大靜面	安德面	中文面	西歸面	南元面	表善面	城山面	舊左面	朝天面	計
禹	13	1	1		4				1	1	24	8	53
黃	19	6			2	3	1	4	3	6	28	37	109
郭	1						1				10	2	14
玄	243	43	76		9	36	199	202	95	147	23	39	1,112
元	5					65	2	2			36	5	115
嚴	1							1	1				3
夫	104	20	43	14	3	5	42	11	15	106	325	106	694
文	478	216	176	165	26	44	16	32	14	3	92	73	1,335
洪	231	177	319	28	29	26	10	21	63	114	96	70	1,184
孔	4		2			1		1	1	1	15		25
權	24						4	5			16	8	57
吳	139	119	85	65	100	107	34	266	94	276	176	36	1,811
鄭	119	39	34	74	13	23	46	78	52	145	112	24	759
田	30												30
丁	5	3	2	27	1	18	1					2	59
趙	44	51	220	53	21	56	20	2	18	27	44	25	581
安	100	59	13	10	4	10	4	15	39	5	48	69	376
蔡	23		21		1	1	1	1	3	6	6	55	140
左	15	33	154	12	6	1	4	1				2	228
崔	53	11	41		1	10	7	6	18	4	20	8	179
曹	12				1			2	2	1	5	14	37
金	2,288	970	1,141	608	327	479	402	550	320	393	1,212	1,177	9,867
姜	435	670	410	269	261	332	57	43	16	31	130	26	2,770
許	63	5	3		13	9	95	31	2	5	43	17	288
魏	3	1	6						2		2		14
魚	1												1
兪	22	5	3		1		13		3	1		14	62
愼	44		8		7		1	15	7	4	58	74	214
申	26	54	24		8	2	10	15	2	1	12	10	254

姓氏 \ 邑面	濟州邑	涯月面	翰林面	大靜面	安德面	中文面	西歸面	南元面	表善面	城山面	舊左面	朝天面	計
朱	3					1	4			1		2	11
車	7		30	1	6	1			1	1		7	54
周	1	1										5	7
秋	6								1	1			8
秦	30	117	123	24	19	26	6	1					336
徐	57	10	47		1	19	4	3				3	144
全	65	1	5			4	1	3	2		2	3	115
宣	1	3	2		1								7
千	2			2	4							1	4
成	10	3	2		8	29	1		1	4			58
邵	21				1							4	26
南		1	10									12	23
方			4					1		1			6
具			6		7	1							14
蔣					1								1
陳					2	3	1					1	7
皇甫					1								1
肖					4								4
下						1							1
賓		1				1							2
辛												1	1
沈												1	1
邪												1	1
計	8,239	4,097	5,779	2,349	1,700	2,277	2,409	2,054	1,563	2,225	4,551	3,619	40,818

씨에 대해서도 오랜 연대 사이에 본관을 육지의 적당한 곳으로 바꾸고, 또는 육지로부터 온 성과 혼동되고 있다. 따라서 저 사람이 원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든가 운남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외래성씨가 특수부락을 구성하고 있는 예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통계를 상세하게 관찰할 때 특히 소수성에 대해서 현저하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성씨 중에서도 옛 3군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원(元)씨는 제주군에서는 46가족, 대정군에서는 67가족인데 대하여 정의군에서는 2가족밖에 볼 수가 없다.

다음에 제주군에서 애월면, 정의군에서 표선면 대정군에서 안덕면을 골라 이별(里別)로 같은 성씨의 가족수를 비율로 나타낸다면 <그림 13>과 같다. 이 그림은 이(里)의 가족수를 1백이라고 했을 경우의 각 가족의 호주의 성씨를 수로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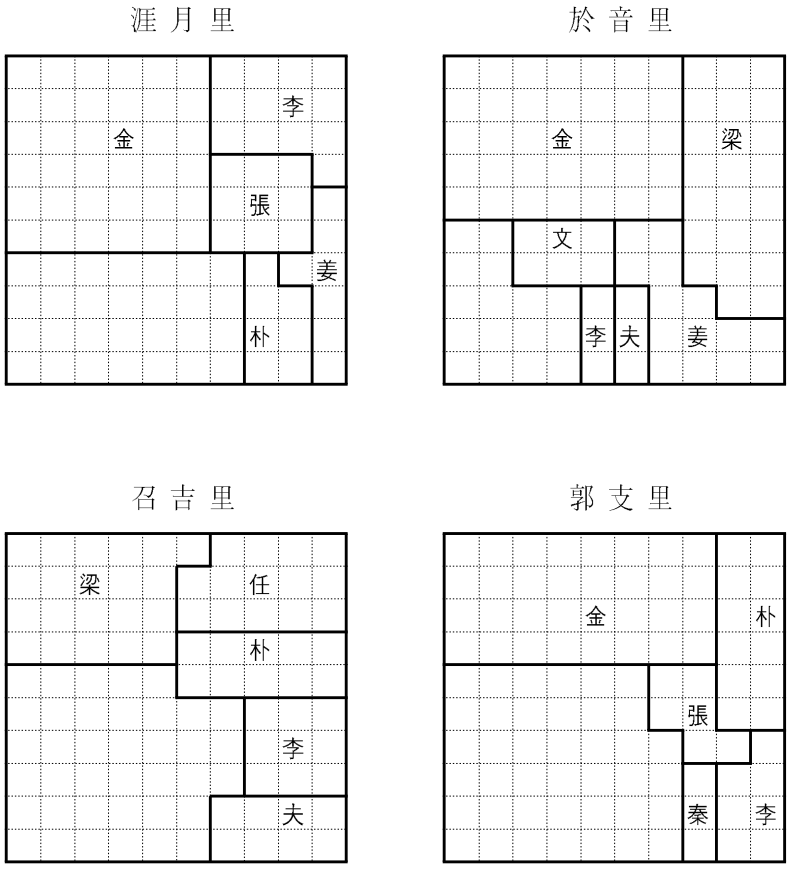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분명한 것처럼 같은 성씨가 이 가족의 절반보다 많게 차지하는 경우는 의외로 적고 여기서 선택한 35리중 제주군 애월면에서는 상귀리(上貴里)와 장전리(長田里)의 강(姜)씨, 정의군 표선면의 대천리(大川里)의 강(康)씨는 세사람에 불과하다. 즉 제주도에서는 동성(同姓)부락이라고 할만한 것은 존재치 않으며 이러한 이(里)에는 유력 다수의 성씨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밖에 몇 개의 성씨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제4절 촌락과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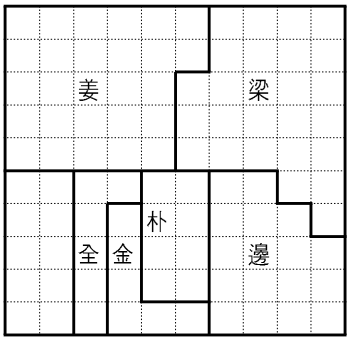
제주도에서의 촌락의 직장, 즉 생산의 장(場)은 목장·삼림의 일부,

어장·나잠어업권구 즉 나잠어업장·선창·용수·말방아등 개인소유에 속하지 않는 공동의 직장과 개인소유의 경작지가 그 주된 것이다. 우선 주거와 직장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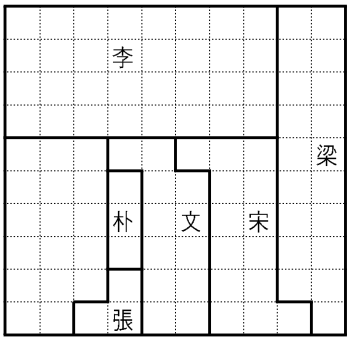
<그림 13> 里別同姓家族比率圖 濟州郡涯月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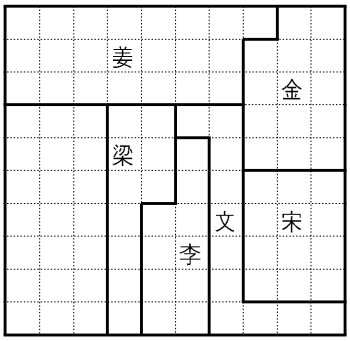
上 加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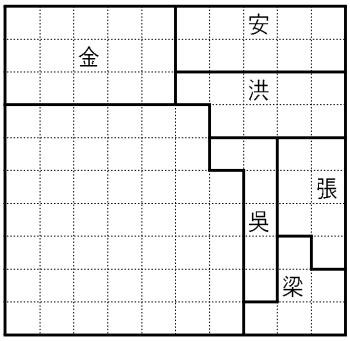
於 音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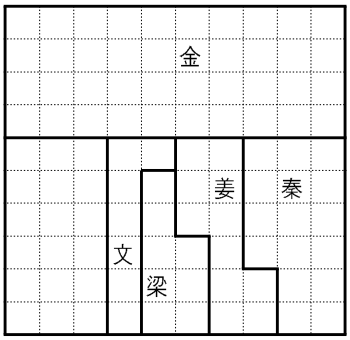
舊 嚴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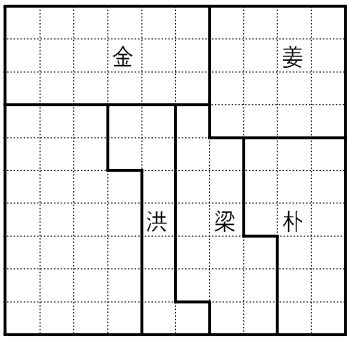
高 內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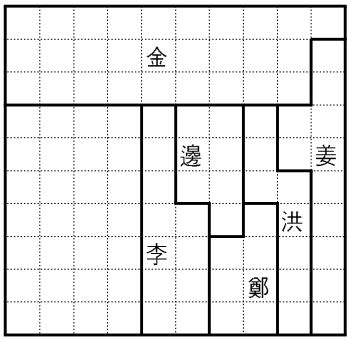
納 邑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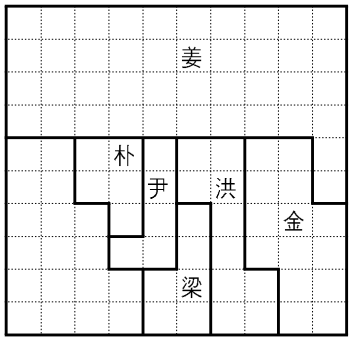
水 山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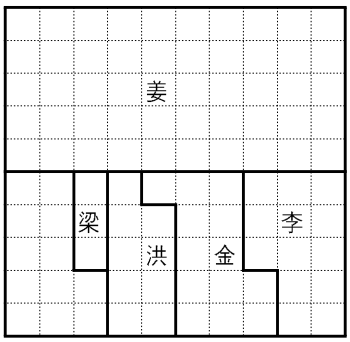
新 嚴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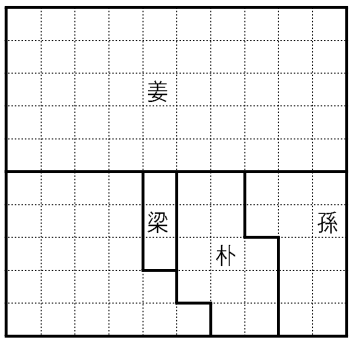
於 道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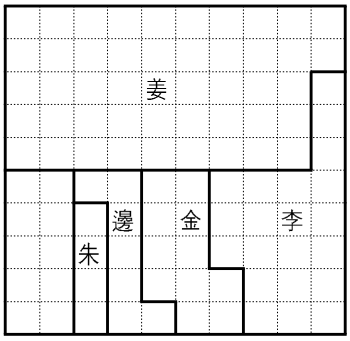
上 貴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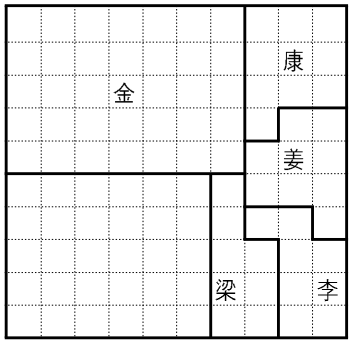
長 田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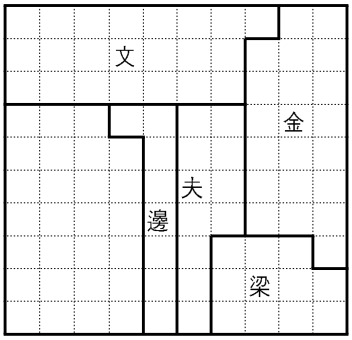
今 德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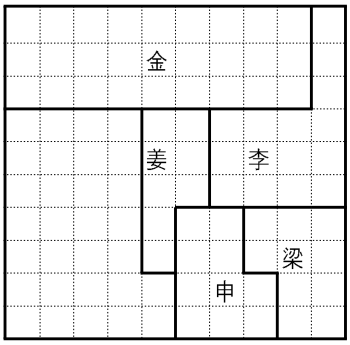
下 貴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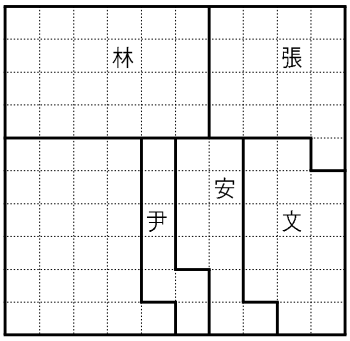
古 城 里



光 令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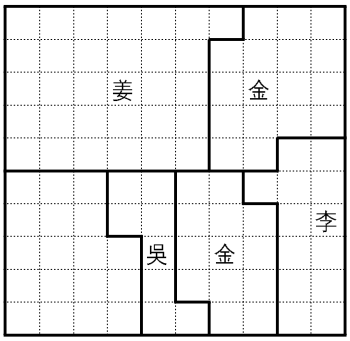


下 加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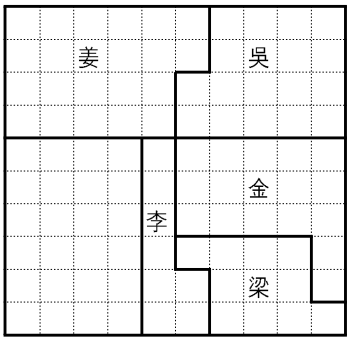


大靜郡 安德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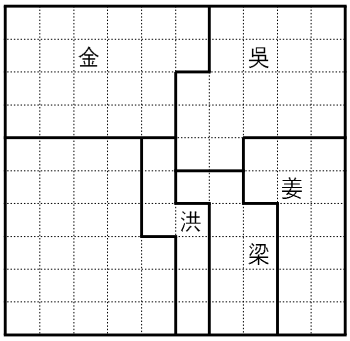
柑 山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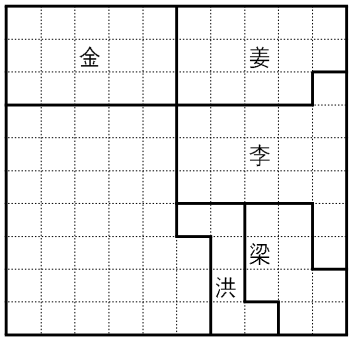
倉 川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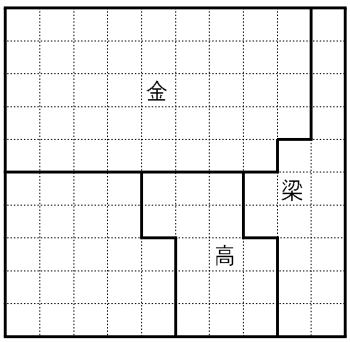
上 倉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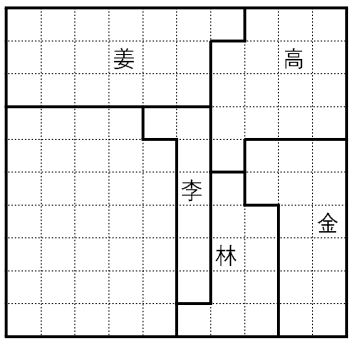
上 川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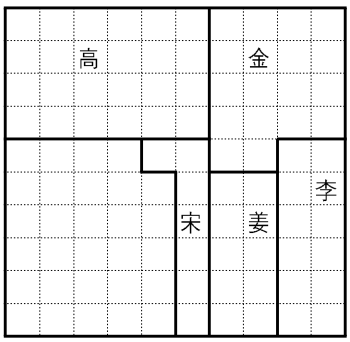
廣 坪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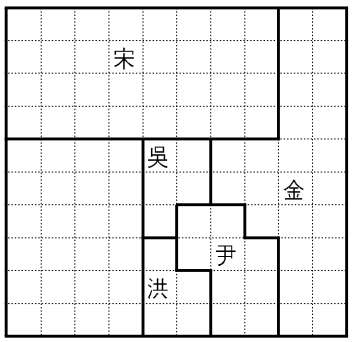
東 廣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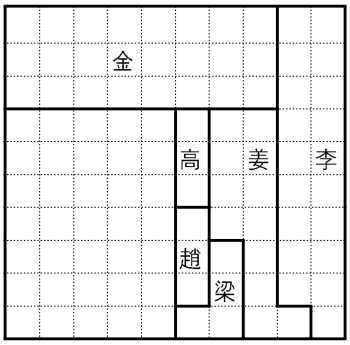
西 廣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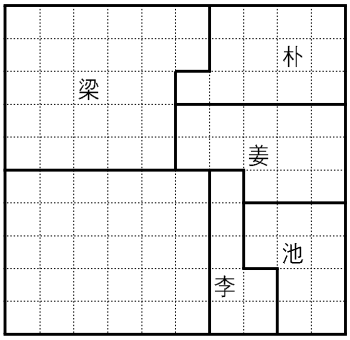
德 修 里



沙 溪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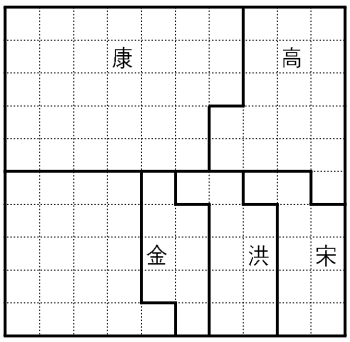


和 順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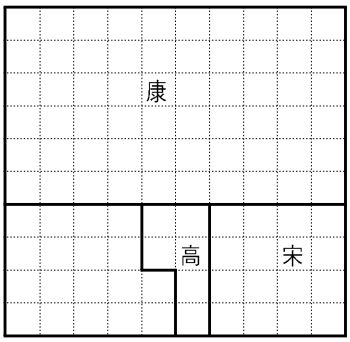


旌義郡 表善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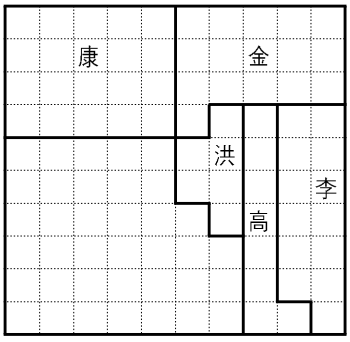
表 善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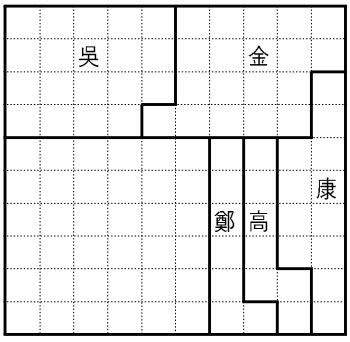
下 川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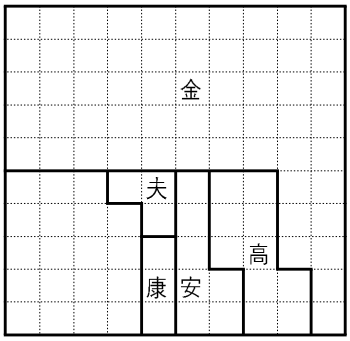
城 邑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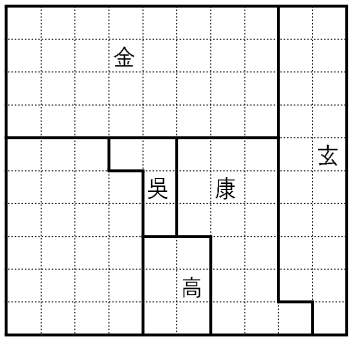
加 時 里



兎 山 里



細 花 里



여기서도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양·산촌과 해촌과의 차이이다. 양·산촌은 경작지, 목장, 삼림－양촌보다도 산촌에서 광대한 것을 갖고 있다－용수·말방아 등인데 해촌에 비해서는 약간 변화가 덜하다. 해촌의 주요한 직장은 경작지·어장·나잠어업·선창·용수·말방아 등인데 산촌에 비하면 매우 작은 목장과 지방에 따라서는 작은 과수원이 추가된다. 촌락과 직장과의 지리적 관계를 표시하면 <그림 14>, <그림 15>와 같다. 양자를 비교하면 양·산촌과 해촌과는 명백히 그 형태를 달리한다.

<그림 14>에 대해 살펴보면 교래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자연촌(마을)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상동과 하동으로 나뉘어 있다. 이 마을은 구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백60년 전에 관명(官命)에 의해 방목우마의 감시와 통행자보호를 위하여 개설된 부락으로 상동은 하동보다 3년 앞서서, 그 당시 부락민은 김녕리에서 올라왔다는 것이다. 마을의 서쪽에는 형제(兄弟), 정악(丁岳) 등의 산들이, 남쪽에는 적악봉(赤岳峰)의 연산(連山)이 솟아있고 북쪽엔 부대(扶大), 부소(扶小)의 두 오름이 바람을 막으며 동쪽에는 산심악(山深岳)의 기봉(奇峰)이 기복(起伏)하고 있으

<그림 14> 橋來里의 職場分布圖

<그림 15> 北村里의 職場分布圖

나 널따란 분지모양의 고원(高原)때문에 동풍이 샌 지대로 알려져 있다. 부락은 가는 대나무 방풍림으로 둘러싸여 있고(사진 23) 가옥은 3, 4채씩 일단을 이루고 그 후방 또는 전방에 돌담에 둘러싸인 불규칙한 모양의 밭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옥에 접해 있는 밭의 면적은 극히 작

아서, 좀처럼 가족의 호구(糊口)를 충족시켜 줄 만큼의 곡물을 수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밭은 바람을 피해서 꽤 먼 산기슭까지 널려있으며 부락을 둘러싼 넓은 평탄지역은 목장으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기관(奇觀)을 나타내고 있다(사진 24). 이 밭들은 모두 마을사람들 소유로서 그들 모두가 자작농이다. 그러나 개간된 밭은 이 섬 공통의 관행으로서 아버지는 자기가 먹을 몫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할하고, 장남으로부터 토지와 함께 분가한다. 부족한 경지는 먼 들판의 개간에 의해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부친이 죽었을 경우 아버지가 남긴 토지는 형제에게 평등하게 분할된다.

이 부락에서는 윤회경작(輪回耕作)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제3장 제1절). 주식인 피와 보리가 차례로 파종되고 있다. 이 마을은 아마도 처음에는 산촌(散村)으로 가옥에 경지가 부속돼 있었으나 그 후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바람이 강한 주변 들판을 피해서 꽤 먼 곳에 밭을 얻은 것이리라. 상동의 부일권(夫日權)씨집에 대해서 말한다면 가장 먼 밭의 거리는 4㎞이다. 그들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어쩌면 화전적(火田的)인 조잡한 농법에 따랐을 터이지만 우마감시, 통행자보호라고 하는 관명에 따라 자유로운 방랑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경작방법에 있어서도 딴데 비해 빨리 윤회적 농법을 취하여 얼마 안있어 정주하여 집촌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딴 여러 해안마을에서 볼 수 있는 겨울철에 우마를 휴한지에 몰아보내는 일은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겨울철 휴한지에 가축을 내보내면 우마가 죽는다고 믿었었다.

교래리의 목장은 그림과 같이 부락을 둘러싸서, 관목(官牧)시대의 목장한계인 상양성(上揚城·다음 장에서 상술)의 돌담이 마을 동쪽으로 뻗쳐

오늘날에도 많은 우마가 방목되므로써 반목반농(半牧半農)의 생활이 영위되고 있다. 목장은 마을의 공유로, 그것을 마을사람이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다. 밭과 가옥을 둘러싼 돌담은 우마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스스로 목장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때로는 적설이 2m나 되는 때가 있으므로 수확 후 농한기에는 주위의 목초는 전부 베어서 원추(圓錐)모양으로 쌓아 올려진다. 이것을 눌(nul)이라고 하는데 이와같이 해서 쌓아 올려짐으로서 비로소 목초의 개인소유권이 생긴다. 가옥과 목장과는 거의 붙어 있어 경지(耕地)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 그러나 우마는 이 목장을 벗어나 산 속을 헤매이는 것이 많아 이것을 찾기위해 심한 경우는 한라산 꼭대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삼림도 또한 공유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뚜렷하게 수목의 양이 감소하고 있다. 산촌의 부업인 숯굽기의 재료는 주로 국유림을 불하받아 충당한다. 그러나 부락에서 2.5㎞쯤 된 바늘오름(針岳)일대의 삼림은 아직 마을소유에 속해서 이 재료를 이용해 일부 목탄(木炭)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를 위해 목탄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목탄은 해촌과의 물물교환의 재화(財貨)로서, 제주의 시가지에 상품으로서 반출된다. 그밖에 가옥을 둘러싼 방풍림의 토지는 사유로서 그 성장을 기다렸다가 간벌해 적당히 팔아치울수도 있다. 그들은 육지에서와 같이 연료를 삼림에서 얻지않고 목장에 널려있는 우마분(牛馬糞)을 건조시킨 것(말똥), 또는 수확후의 짚을 사용한다. 삼림의 수목은 목탄의 재료로 사용될 뿐이다.

용수는 해촌에 비하여 아주 원거리로부터 길어 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하동사람들은 상동 끝까지 가서 길어오므로 그간 왕복 3㎞의 행정(行程) 때문에 물기는 여자 또는 아이들에게 부과된 큰 노동이

다. 말방아(또는 물ᄀᆞ래)는 곡물정제(精製)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서 이것은 그림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교래리에는 상동에 4개, 하동에 3개 있고, 사용자는 저절로 정해 있어서 지역적 혹은 친족적 집단이 단위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가옥과의 거리는 가장 가까이는 10m, 가장 멀어도 60m를 초과하는 일은 드물다.

다음으로 해촌에 대해서 관찰해 보자. <그림 15>에 나타나는 것처럼 북촌리는 대표적인 해촌으로 자연촌은 동동(東洞)·광석동(廣石洞)·상동(上洞) 흥례동(興禮洞)·서동(西洞)·해동(海洞)·억수동(億水洞) 등 7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상동이 가장 오래되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마을 개촌기념으로 만들어진 향사는 강희연간에 건립된 것이므로 2백7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당시의 조선총독부의 5만분의 1지도[43]에 의하면 억수동은 해안으로부터 2㎞ 남쪽 평야지대에 있으나 이 동은 그후 이사를 해서 해안에 이르고, 그 무렵엔 해동과 어깨를 겨루고 있었다. 마을 북쪽엔 조그만 만이 있고 경작지는 그림에서와 같이 마을 뒷쪽 즉 남쪽 들판에 있는데 산촌과 마찬가지로 전부 사유지로서 촌민 또한 거의가 자작농이다. 다만 경지의 상태가 산촌과 다른 점은 가옥주위에 접속적으로 불규칙한 경지를 보기가 드물고 뒷쪽에 길을 건너 한 뭉텅이로 이뤄져 있다. 그 면적은 그것만으로는 마을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계의 절반은 해산물에 의해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있다. 경작방법은 순환경작이지만 다만 주작물은 조와 보리이며 수확 후의 밭에는 교래리와는 달라서 우마를 들여 놓는다. 이 마을은 본질적으로 옛날엔 농촌이었다. 전승(傳承)에 의하면 가옥은 산재해 있었으나 어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물결이 고요하고 표착(漂着)하는 해조류가 풍부하며 샘

43) 朝鮮總督府, 五万分의一地圖「濟州」

물이 단 이 만(灣)으로 모여온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주거와 경지와는 거리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임해지대(臨海地帶·해안식물지대)는 다공질(多孔質)의 용암기반(溶岩基盤)에 해수가 침투하기 때문에 토지에 염분이 많아 농지로 적합치 않다. 다시 말하면 경지에는 바다로부터의 일정한 고도(高度)와 거리의 상승치(相乘値)가 필요한 것이다.<그림 16>

<그림 16> 海村의 住居와 耕地關係圖

따라서 해촌은 분리경지촌락(分離耕地村落)을 이루고 마을 또는 양촌에서와 같은 접속경지(接續耕地) 촌락은 드물다. 해촌에서의 경지와 주거와의 거리는 가장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2㎞를 넘는다.

제주도에서는 어로를 할 경우 바다는 자유이다. 부락의 선창에서 배를 띄우면 어디에 가서 낚시를 하건 그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어법과 특히 어구가 빈약하다는 것과 기후가 불순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정한 한계가 발생한다. 즉 떼배(筏舟·테우)로 주간에 왕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동한다. 그들의 전통적인 어법은 자리를 잡는 그물낚시와 갈치의 일본조(一本釣)였다. 이들 고기가 모이는 곳이 그들의 어장인 것이다. 북촌리에 있어서는 마을 선창에서부터 5백m정도 떨어진 해상에 달여(獺嶼)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선 특히 자리가 많이 난다.

다음은 해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해녀의 나잠어업권구에 관한 것

인데 앞 절에서 말했지만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는 나잠어장(裸潛漁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앞에 말한 어장과는 달리 매우 까다로운 관행이 있어(제3장 제5절) 나잠어업의 경계(境界)는 매우 분명하다. 이와같은 마을은 그 나잠어장에서 딴 마을의 해녀가 조업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따라서 새로 개설된 마을은 작은 범위의 나잠어장밖엔 가질 수 없다. 북촌리의 그것은 취락을 중심으로 약 1㎞의 해안선을 갖고 있다.

선창은 이들 어장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 바람이나 파도로부터 안전한 만(灣) 속에 용암을 쌓은 제방으로서 입구는 좁고 그 안은 별로 넓지 않다. 선창은 마을사람 전체에 의해 유지된다. 즉 수리·건설은 촌민이 모두 나서 이루어진다. 북촌리의 선창은 하나지만 반드시 한마을에 하나라는 법은 없고, 곳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선창을 갖고 있는 마을도 있다. 거주지로부터의 거리는 5백m 내외이다. 해안지대에 있어서의 용수는 대체로 해안선에 모이고, 두드러진 것은 만조때에는 바다 속에서 용출하는 것(솟는 물)도 있고, 용수장소는 산촌에 비하여 풍부하지만 수질은 좋지 않은 모양이다. 북촌리의 용수도 전부 해변에 있고 마을안에 모두 4개가 있는데 사용자의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2백 내지 3백m이다.

북촌리에는 모두 13개의 말방아가 있는데 사용자의 집과의 거리는 1백m를 넘지 않는다. 해촌의 목장은 산촌에 비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여름철엔 특히 바쁘므로 우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산촌 사람에게 그 감시를 위탁한다든가, 소수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감시인을 고용해 쓴다. 또「경지」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겨울철엔 우마를 휴한지에 들여 놓는 곳도 있는가 하면 산촌의 목장에도 방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사람들이 경지밖에 있는 마을목장에 방목

할 뿐이다.

해촌에 있어서는 뒤에 「노동형태의 절」에서 언급하겠지만 농번기와 어번기(漁繁期)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중요한 노동은 이 기간에 집중된다. 그래서 주거는 양·산촌 보다도 경지와 어장에 밀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장은 주거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축을 양·산촌에 위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 말해온 바와 같이 양·산촌과 해촌의 촌락형태를 직장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일맥의 공통점, 예를 들어 농경방법이 순환경작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물이 비교적 적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지·목장·어장의 셋의 관계의 차이를 인정않을 수 없다.

제5절 교 통

제주도와 도외와의 교통을 말해주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제1절에서 말한 게이타이키(繼體紀)의 것인데[44] 그 후 조선육지·일본·중국 또는 안남(安南) 등과의 교통을 나타내는 기사는 여기 저기서 발견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사는 극히 드물어서 어떠한 배로 어떠한 항로를 취해서 어떠한 바람·조류를 이용했는가는 판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약간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는 같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사이메이기(齊明紀)[45]에 「신유년 정월 25일 돌아가며 월주(越州)에 이른다. 4월 1일 월외(越外)로 상로(上路)하여 동쪽으로 돌아가다. 7일 나가서

44) 『日本書紀』繼體紀, 第一節註一七參照.
45) 『日本書紀』齊明紀, 第一節註一九參照.

성안산(檉岸山)의 명(明)에 이르다. 8일 계명(鷄明)시를 기하여 서남풍을 따라 배를 대해에 내보내다. 바다에서 길을 잃어 표류하고 신고를 겪다. 9일 여드레밤을 지나 겨우 탐라도에 이르다」고 되어있다. 월주(越州)란 중국의 그것이리라. 「성안산의 명」이란 어디인지 분명치 않다. 이것은 표착 기록임으로 순조(順路)를 거쳐간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 후 탐라의 사절과 일본 사절의 왕래기록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서술은 없다. 도리이류조(鳥居龍藏)[46]는 섬의 동남쪽을 스쳐지나는 난류를 지적하고 있으나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전설에 삼성신화의 일본국사(國使)가 상륙한 바닷가는 성산포 부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후세에 덧붙인 것인 듯하다.

조선육지와의 교통의 구체적기록도 결코 풍부하진 않지만 이씨조선에 들어서서부터 이괄(李适)의 난에 연좌되었다는 이유로 이섬에 유적(流謫)의 몸이 된 해원군 이건(海原君 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47] 머리말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실려있다. 「탐라의 섬은 정확히 전라의 동쪽 경상의 남쪽에 있다. 바다를 건너기 수천리, 남쪽은 일본, 유구(琉球)와 그 바다를 같이한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서북풍을 이용해야 하고 거기서 나올려면 반드시 동남풍을 이용해야 한다. 만일 순풍을 얻으면 한조각 범선으로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건널 수 있지만 순풍을 얻지 못하면 매와 같은 날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널 수가 없다. 바다물결은 동남쪽이 낮고 서북쪽이 높은데 들어갈 때에는 해류를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 뱃길이 매우 용이하나 나올 때에는 해류를 거슬리는 것 같아 뱃길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나올 때의 어려움은 들어갈 때보다 배나 더하다고 한다」고 되어 있는 것만

46) 鳥居龍藏「民族學上으로 본 濟州島(耽羅)」『日本周圍民族의 原始宗教』所載.
47) 李健「濟州風土記」,『朝鮮學報』第一卷二號.

봐도 그 무렵의 육지와의 교통상태와 그 어려움을 살필 수가 있다. 때때로 역대의 목사들도 섬에 건너갈 때에는 대단한 각오를 요했을 것이다. 구전에는 해상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 많다. 토산당본해(兎山堂本解)[48] 속에는 진상(進上)을 위해 서울에 온 목사가 나주(羅州)의 뱀귀신(蛇鬼)이 화신(化身)이 된 옥기(玉碁)를 한강에 가라앉혀 제주로 돌아가려 하는데 날씨가 거칠어 돌아갈 수 없게 된 광경을 묘사하면서 「배를 저으려고 하자 천기가 갑자기 나빠져서 풍랑이 거칠어졌다. 이 때문에 삼삭일순백일(三朔一旬百日)을 여행으로 고생하였다」고 했다. 이 무렵 섬사람 중에서 항해를 잘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카하시(高橋享)는 제주도인의 역사와 가요의 연구[49]에서 그들을 자연의 뱃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도내 여러 곳의 실지답사를 해 본 결과 배는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원해(遠海)어업도 아직 전무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들은 먼 바다를 무서워했다. 제주도 민요의 앞 뒤 메김말인 절절한 「이어도-離虛島」란 말도 바다 저쪽에 배를 기다리는 귀신의 섬으로서 그것은 바다의 위험의 상징처럼 여겨진다(제3장 제3절). 제주도민은 오키나와인(沖繩人)이나 남양토인(南洋土人)과 같은 천성의 뱃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어떻든 제주항로는 예전부터 뱃사람들의 험로(險路)로서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근대항해술에 통한 선장 가운데서도 이것을 미신적으로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이 섬의 문화가 극히 최근까지 고립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19세기의 제주항로는 탐라기년에 산견(散見)되는 기사 및 구전으로부터 추측컨대 전라도의 탐진(耽津)을 출항해서 다도해의 섬들을 누비

48) 赤松智城・秋葉隆『朝鮮巫俗의 硏究』上卷, 濟州島神話.
49) 高橋享「民謠에 나타난 濟州의 여자」,『朝鮮』昭和八年 一月.

고 추자도에 이르러 여기서 항로를 정남(正南)으로 잡아 본도 북쪽에 있는 화북리 또는 조천리·성산포 등의 항구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풍토기에도 있는 바와 같이 추자도와 제주도 간이 외해(外海)여서 풍랑이 높은 난항(難航)의 수로인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옛날과 변함이 없어서 악천후의 경우 유일한 피난지는 추자항이었다.

예전부터 명항(名港)으로 지목된 곳은 화북리·조천리·김녕리·성산포·서귀포·한림 등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곳은 화북리·조천리·김녕리·성산포 등인데 북쪽에 보다 많은 이용도 큰 항구가 많았던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항구는 주로 제주산지항·한림항·서귀항·성산포항의 4개항이다. 제주산지항은 1930년대에 총공비 57만원을 투입해서 축조한 것으로 그 무렵은 목포와의 사이에 매일 1회의 정기선이 다니고 있었다. 한림항은 총공비 12만원을 투입하여 축조된 것으로 항구로서는 비양도가 겨울철 북서풍을 차단하고 수심도 깊기 때문에 도내 제일의 양항이라고 볼만 한데 주로 원해어선의 근거지로 되어 있다. 서귀포항은 도내에서 단 하나의 천연의 양항으로(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6만5천원을 투입, 방파제가 만들어짐) 항만이 약간 좁은 것이 유감이지만 어선이 밀집하는 것은 도내 제일이다. 성산포항은 제주산지항 축조 후는 약간 쇠퇴하였으나 예전부터 유명한 항구로서 오늘날에도 아직 원해어업의 근거지로 되고 있다. 이상 제주도민의 생활상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사실은 이들 여러 항구가 현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이용되는 일은 적고 일본의 대자본 아래 있는 어업자들에게만 크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민으로서 은혜를 입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 항구로부터 출가하는 사람들이 육지나 일본으로 송출되었으며 해산물이 실려 나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본도의 산업개발에 직접 도움이 됐다고

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 무렵 도민생활에 영향을 미친 도외 교통노선(島外交通路線)의 주된 것은 다음의 3개선이었다.

즉 월 3회왕복의 판제선(阪濟線)은 아마가사키(尼ヶ崎)기선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항지는 오사카(大阪)·시모니세키(下關)·부산·완도·산지·한림·모슬포·서귀포·표선·성산포·김녕·조천으로 이 항로는 주로 오사카로 출가하는 사람을 송환(送還)하고 있었다. 순연정기(順延定期)의 부제선(釜濟線)은 여수(麗水) 마사 요시노부(政吉信)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항지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부산(釜山)·여수(麗水)·거문도(巨文島)·나로도(羅老島)·산지(山地), 또 하나는 부산·여수·나로도·거문도·미조리(彌助里)·산지 및 부속도서 각지의 순회노선인데 해녀의 육지진출은 이들 항로에 의한 것이 많았다.

조선총독부의 명령선로였던 조선기선주식회사의 목제선(木濟線)은 1936년까지는 격일(隔日)이었으나 1937년부터 매일 왕복으로 되고 주로 목포·제주를 연결, 추자도·한림등으로의 기항은 부정기로 되어 있는 제주항로는 간선(幹線)이었다.[50]

다음으로 도내의 교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제주도는 도처에 용암이 노출하고 화산탄(火山彈) 화산력(火山礫)이 첩첩으로 쌓여 예로부터 좁은 길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51]에 의하여 그 무렵의 상태를 보면 <그림 17>의 실선(實線)과 같으나 사실은 다시 제주·서귀포를 잇는 석파선(石坡線·점선으로 표시)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제주~대정로(大靜

50) 全羅南道 濟州島『一九三七年濟州島勢要覽』.
51)『大東輿地圖』第二二, 李章閣叢書第二,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그림 17> 大東輿地圖에 의한 島內交通

路), 제주~정의로(旌義路) 및 어쩌면 약간 늦게 발달한 것이겠지만 제주~서귀포(석파로)[52]의 3개로선인데 이들 노선의 특징은 전도의 경사면에 대하여 직각 또는 평행을 이루고 있던 점, 즉 2점의 최단거리를 연결했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와같은 구도(舊道)를 다녀보면 차류(車類)를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 당시는 물자의 운반은 우마에 의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합병 후 만들어진 전도일주도로는 노면의 경사를 적게하고 차량의 교통을 편리하게 한 것은 도외와의 교통의 발전과 곁들여 도내에 있어서의 상품경제의 발달을 재촉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 일주도로가 해안에 개통됨으로써 「가족의 향해이동」이 이루어지고 정의·대정의 고읍(古邑)은 경제적인 중요성을 잃어 주된 행정기관(읍사무소 및 면사무소)은 해안에 가깝고 그리고 이 도로에 면한 곳에 옮겨졌던 것이다.

더 나아가 제2차계획으로서 일주도로보다 위쪽에 대동여지도에 의

52) 이 길은 陰曆十二月부터 二月가지는 積雪 때문에 利用되지 않고, 濟州·旌義路가 代用되고 있다.

한 구도(舊道)를 따라 신도(新道)의 개통공사가 그 무렵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양·산촌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은 확실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에 수반하여 양·산촌의 사회구조에 변화가 생겼음에 틀림 없다. 이 점 필자는 「그 후」에 대하여는 장래의 숙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구도(旧道)의 개발 상태로 보아 차(車)종류가 운반용구로서 이용되지 않았음은 명백하지만 제주도 전체에서 얼마나 차종류가 발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은 1936년도에 있어서의 육상운반구표[53]에 의해서도 그 일단을 알 수가 있다. 즉 자동차·리어카·자동자전거·자전거 등의 현대적 차종류가 전도에서 각각 27대·21대·5대·1천1백92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손수레차·짐마차 등 비교적 낡은 차종류는 각각 76대 22대란 수량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고 집과 집을 연락하는 자연적도로는 해마다 침하(沈下)한다고 하는 기묘한 현상(사진 25)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도로는 밭과 밭을 구획하는 돌담사이에 만들어진 좁은길로서 돌담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담이 없어진다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으로 소로라고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갖는다. 이와같은 돌담사이의 좁은 길은 폭풍우 때의 수로가 되기 때문에 용암 위의 토양은 풀이 자라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점차 유실(流失)돼 간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강우시에 길이 질퍽거리기 때문에 일부러 길의 흙을 밭으로 집어 넣는 일도 있다. 길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수식(水蝕)은 점점 심해지고 곳에 따라서는 터널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암반이 노출된다. 돌담과 돌담과의 사잇길은 좋은 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

53) 全羅南道 濟州島, 前揭書.

제6절 종 합

제주도의 시조전설(始祖傳說)에 대해서는 우선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 실려있는 삼성개벽(三姓開闢)의 설화를 들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제주도의 신(神)들이 솟아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삼성이 출현하는 모습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고려사에서는 용출(聳出), 동국여지승람·탐라지에서는 용출(湧出)이라고 말하고 탐라기년에는 수출(首出)이라고 씌어 있어서 모두 지하의 신성계(神聖界)로부터 지상의 속계(俗界)로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 구전의 신화에서도 딴 신들의 출현 모습을 서귀본향당본해나 표천강본해(表天綱本解)[54] 혹은 수기동(水基洞)의 「환구」전승에서도 '솟아난다'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솟아난다는 것은 밑으로부터 위로 용출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용출하는 신들은 딴 지방에서도 드문 일은 아니지만 본도에 있어서는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삼신용출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일본국사」를 가지고서 즉각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속단(速斷)으로, 「벽랑국사(碧浪國使)」라고 씌어진 글귀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신화학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제주도만이 남조선 여러 땅에 비하여 고대사상(古代史上)으로 보아 일본과의 관계가 깊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상대(上代) 남조선에 한인이 정주하기 시작한 무렵, 왜인도 이어 뒤섞여서 그 땅에 있었음은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일이고, 서기(書紀)에 볼 수 있는 일본과 탐라와의 교섭이 남조선의 그것과 비교해서 밀접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다. 또 그 후 제주도는

54) 赤松智城·秋葉隆『朝鮮巫俗의 硏究』上卷.

왜적의 내습을 자주 받았지만 이것은 문화적 교섭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원 및 운남인이 귀화하여 각각 원성(元姓)과 운남성(雲南姓)을 형성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일본인의 이와같은 예는 볼 수가 없다.

풍속에 대해서도 2·3개의 공통점을 드는 사람이 있으나 이것들은 극히 작은 것이어서 우연의 일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체형질상(身體形質上)에서 양자의 차이를 보건대 제주도인은 남조선에 가깝고 큐슈(九州)북부, 상인(山陰)·상요(山陽)의 서부, 이키(壹岐)·쓰시마(對馬) 등의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부(頭部)만을 몽고인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근사치를 나타내지만 일반 조선인의 두부측정치는 퉁그스보다도 도리어 몽고인에 가깝다는 것[55]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제주도인의 두부가 몽고인과 아주 비슷하다고 해도 그것은 제주인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일반조선인의 특징이 강조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서기 1273년부터 1374년까지 원에 점령되어 배를 만들고 말을 양성해서 일본 및 남송(南宋)공략의 근거지로 되었으나 순수한 몽고인이 이 섬에 온 숫자는 명확치 않다. 다만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상륙한 원의 군인수는 원사외이전(元史外夷傳)에 의하면 1천7백명이라고 되어있고 뒤에 이 땅에 남아서 소위 10개성의 원성(元姓)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남은 사람의 전부가 몽고인이었는지 어떤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원에 점령되었던 시대의 제주도는 바다에 왜적, 뭍에는 몽고인이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다. 몽고인이 남기고 갔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풍속이 수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이것을 관찰할 적에 명백히 몽고의 영향이라고 볼만

55) 上田常吉「朝鮮人과 日本人과의 體質比較」, 東京人類學會『日本民族』所載.

한 것은 드물다. 또 이제까지 도외시되어있던 사실로는 대명(大明)의 초기에 이주해온 운남인이 4성(姓)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으로 볼 때 제주도의 인간도, 문화도 지금까지 믿어지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나 몽고와는 가깝지 않으며 뭐니뭐니해도 조선반도의 「섬나라」인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부락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도청의 이별(里別) 통계가 반드시 자연발생부락 즉 마을의 실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획의 최소단위인 이(里) 및 구(區)는 특히 나잠어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지대, 즉 양·산촌에서는 자연촌락과는 일치하지 않고 이(里)나 구(區)속에 몇 개의 자연촌이 포함돼 있다. 나잠어장을 갖고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행정상의 이 또는 구와 자연촌이 일치한다. 전자에 속하는 자연촌은 동 또는 환절사회(環節社會)라고 보아야할 2개동에 의해, 후자의 마을은 2개이상의 환절사회라고 해도 동(洞)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도(島)의 이별통계는 후자의 부락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만, 전자의 부락에 있어서는 사실보다 크고 보다 개괄적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을 무시해도 해안식물대의 인구는 평야식물대에 비하여 조밀하다. 또 그 무렵은 전도의 인구가 점차 감소해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 증가하는 마을은 해촌이었다. 즉 양·산촌 사람은 1900년대부터 해안으로 내려갔었다. 「가족의 향해이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평야식물대에 광대한 경지가 버려졌다. 다시 말하면 폐경지가 된 것이다. 「가족의 향해이동」현상은 해산물의 판로확장에 수반된 상품경제의 발전이 도내·외의 교통로 개발에 따라 박차를 가해진 것에 기인(起因)한다. 즉 경제적 이유가 농후했다. 그리하

여 1935년 이래 이와같은 인구의 이동이 약간 정지하기 시작한 것은 양산·촌에 있어서의 우마의 판로가 개시된(제3장 제4절) 것에 기인하는 것이리라.

제주도에서는 섬 주민의 일부는 촌락을 3개 또는 2개의 타이프 즉 양촌·산촌·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촌은 「가족의 향해이동기」전, 즉 섬의 경제가 농업에 주로 의존해 있던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유례(儒禮)를 중히 여기고 문자를 해득하는 자가 많으며, 협동조직으로서의 계의 조직이 발달한 마을로서 산촌보다도 높이가 낮고 해촌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하는 부락이다. 산촌은 문자 그대로 섬 부락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양촌보다는 경제적으로 낮지만 여자가 해녀가 아니기 때문에 양촌인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하면 해촌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놓여지는 부락이다. 해촌은 바다에 면해서 나잠어장을 갖고 도덕적으로는 여자가 해녀인 것, 경제적으로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해서 가장 경시(輕視)되었었다. 그러나 가족의 향해이동기 후에 이와같은 층화관념(層化觀念)은 역전되었다. 특히 오래된 마을을 제외한 섬의 부락의 개촌역사는 구전 및 고지도에 의하면 4백년에서 1백년 이전에 까지 소급할 수가 있다. 이들 부락은 산재해 있던 주거가 점차 밀집해 온 것으로 보여지며 그 시기를 나는 「집촌형성시대」라고 명명하였다. 이와같은 주거의 집중이 어떠한 자극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아마도 인구의 증가와 산·양촌에 있어서는 화전농법이 윤작적인 것으로 이행되고, 해촌에 있어서는 어로가 수렵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된 때문일 터이다. 집단화의 경향은 양촌에서 시작하여 산·해촌으로 파급되었다고 생각된다.

섬에 있어서의 성씨의 조사는 본관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도청이 작성한 자료에 따라 이것을 보면 金·高·李·姜·康·吳·朴·文·洪·玄·宋 등의 여러 성씨가 그 무렵 본도에서 볼 수 있었던 76개성중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러한 이내(里內)에 있어서는 <그림 13>에서 표시한 것처럼 한성으로 50% 이상을 차지한 것은 드물고, 수개의 동성집단이 병존(並存)하여, 사실 이것들은 친족관계 또는 집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제4장 제1절) 또한 앞에 말한 원성 및 운남성은 오랜 연대 사이에 본관이 육지 또는 도내의 그것에 옮겨버림과 동시에 현재 특정한 집단을 이루고 있지도 않다.

촌락의 환경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주거와 직장과의 관계 분석이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부락의 직장은 양·산촌과 해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즉 양·산촌의 주된 직장은 개인소유의 경지와 마을의 공동직장으로서의 목장·삼림·용수·말방아 등인데 해촌에 있어서는 같은 개인소유의 경지와 마을공동직장으로서의 어장·나잠어장·선창·용수·말방아·목장등이다. 그리고 목장은 양·산촌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보이지만 해촌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양·산촌의 경지는 점차로 가족이 모여 있었던 시대의 유물로서의 접속경지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분리경지와의 복합체로서 주작물은 조와 보리 또는 피이며, 농법은 윤회경작임으로 소위 순환경지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해촌에 있어서는 이와는 모습을 달리해서 경지는 부락의 배후에 분리경지를 이루고, 같은 순환경지이긴 하지만 양·산촌과는 달리 수확 후 목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해촌의 경지는 분리경지로, 촌락은 어장과 경지와의 중간에 있다(사진 43). 해변에 가까운 해안식물대는 기반이 다공질 현무암이기 때문에 해수가 침투함으로 해

변에서 일정한 고도와 거리의 적(積), 즉 d×h≡a의 관계에 있어서 경지가 발달하여 어장과의 사이에 용수(湧水)가 많은 불가경지(不可耕地)가 남는다. 더욱이 어번기와 농번기가 거의 동시에 오기 때문에 주거를 두 직장에 근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불가경지에 주거가 밀집해 있다. 그 결과로서 여름철에는 주거에서 떨어진 목장에서 노동할 수는 없으므로 가축을 양·산촌에 맡기지 않으면 아니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토지제도로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은 경지는 주로 장남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균등하게 분할되고, 부족한 부분은 먼 들판을 개간하는 것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다 상속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년에 이른 남자에게 차례로 분여(分與)되어 최후까지 어버이가 가장 좋은 토지를 가지며 어버이의 사후 그 토지는 형제에게 평등하게 나뉘어진다. 그래서 경지는 상당히 분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내·외의 교통을 살펴보자. 주위가 거친 바다이기 때문에 도외와의 교통은 몹시 불편해서 예전부터 난항(難航)의 땅으로 지목되었었다. 그 때문에 제주도에 있어서의 원해항해(遠海航海)의 발달은 도리어 훼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해서 제주도에는 독자적 문화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한편 도로도 지형과 토질의 관계에서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고 구도(舊道)는 중요지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므로 차종류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딴 사회환경과도 곁들여서 오랜동안 자급자족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합병후 해산물의 상품화에 수반해서 섬의 일주도로가 개통되고 다시 도외와의 정기적항로가 열리게 됨에 따라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노동력과 물자의 유통이 왕성하게 되어 「가족의 향해이동」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간선도로 이외의 도로는 돌담과 돌담 사이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리도 곤란해서 비가 오면 수로(水路)가 되기 때문에 점차 침하(沈下)한다. 제주도에 좋은 길이 적은 이유의 하나는 돌담과 돌담 사이에 길이 만들어진 데 기인하는 듯 하다.

제3장 가족의 연구

제1절 세대의 인구와 가족의 성원

제주도의 각 세대의 평균 크기는 도청통계[1]로 산출하면 <표 10>과 같이 5명~3.9명 사이를, 1937년 현재로 한다면 과거 21년에 걸쳐 점감(漸減)해 왔다. 시험적으로 이별(里別) 인구조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1928년도[2]를 예로 들어 세대인구의 조밀(粗密)을 전도에 걸쳐 살펴본다면 <그림 18(a)>과 같아 한림·대정·안덕·서귀·남원의 여러 면(面)은 그 해 세대인구의 평균 4.8명을 월등히 넘고 있고, 중문·표선·조천의 각면 및 제주읍의 세대인구는 평균을 밑돌고 있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936년이 되면 <그림 18(b)>에서 표시한 것처럼 평균세대인구는 현저하게 감소해 4.0명이 되고 한편 1928년도에 평균을 넘고 있던 각면의 세대인구는 일반적으로 두드러지게 줄었다. 그에 비해서 평균이하였던 각면은 구태(舊態)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평균선으로부터 위에 나서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제주읍 및 조천면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이 무렵에 있어서 세대인구가 적은 지방은 서쪽 여러 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 全羅南道濟州島『濟州島勢要覽』.

2)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이런 종류의 통계는 官廳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朝鮮人과 日本人과의 구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은 도민인구의 4% 이하임으로 小數點 以下 1단위까지의 숫자대는 별로 영향은 없다.

<표 10> 世帶人口의 移動表

a) 1928年

● 6人以上
⊙ 5.6人～5.9人
○ 4.8人(平均)～5.5人
△ 4.7人～4人
▲ 4人以下

(生活狀態調査 그 2) 濟州島算出, 作圖)

b) 1936年

● 4.5人以上
○ 4.0人(平均)～4.4人
△ 3.9人～3.5人
▲ 3.4人以下

(島廳統計로부터 算出, 作圖)

<그림 18> 里別世帶人口分布圖

이와같은 세대인구의 증감은 절대인구 및 세대수의 증감과 상관관계(相關關係)를 갖는 것은 물론이다. <표 11>에 의하면 1928년부터 36년에 걸쳐 전도의 인구는 8천8백35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출가(出稼)로서 1935년도부터 도관권(島官權)은 출가를 총독부의 명에 따라 극력 막았기 때문에 1935, 36년 2년간에 대해 말한다면 귀환자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의 도항자(渡航者)만으로도 귀환자를 뛰어넘어 이 9년간에 1만5천9백54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7천1백19명(1만5천9백54명에서 8천8백35명을 뺀 수)은 출생·사망의 차감(差減) 즉 자연증(自然增)[3] 및 육지부로부터의 도항자 혹은 일본인 인구의 증가에 의하여 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세대수는 이 사이에 4천2백48호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앞에서도 말한, 섬의 가족제도가 충분히 실행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조건이 준비된 때문일 것이다. 본도에 있어서는 아들들이 성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각자 아버지의 토지를 평등하게 분할상속하고 각각 독자적 생계를 갖게된다. 새로운 밭의 개발이 가능한 한, 그리고 해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유리한 출가(해녀의 출가와 일본에의 출가)가 있는 한, 이와같은 상속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로서 세대인구는 적어지고 가족의 노동력 부족을 가

3) 死亡統計는 1931년 以前의 것은 발견할 수 없음으로 정확한 것은 不明이다. 지금 참고로 1931년으로부터 1936년에 이르는 6년간의 出生·死亡의 差를 계산해보면 8천2백29명의 自然增으로, 이 새의 실질적인 인구증가는 1천8백60명으로, 日本出稼者數는 往復을 공제, 1만4천6백77명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14,677명-(8,229명-1,860명)=8,308명, 즉 8천3백8명은 陸地 그 밖으로부터의 渡航者로 補充된 셈이 된다.

이 계산에서 島民의 육지에의 渡航을 無視한 것은, 臨時的인 海女의 出稼를 제외해서는 육지로의 渡航者가 全無라고 해도 過言이 아닌 것과 海女出稼는 年內에 歸還해버리는 일이 많아 인구통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이다.

<표 11> 人口, 戶數, 世帶人口增減表－1928年부터 1936年에 이름

	人口				戶數				家族人口			
	1928	1936	差引增減	比率(%)	1928	1936	差引增減	比率(%)	1928	1936	差引增減	比率(%)
濟州邑	35,013	35,385	+ 372	+ 0.1	8,031	8,202	+ 171	+ 2.1	4.3	4.4	+ 0.1	+ 2.3
涯月面	21,783	21,377	- 406	- 1.8	4,610	5,500	+ 890	+ 19.3	4.7	3.8	- 0.9	- 19.1
翰林面	30,504	28,901	- 1,603	- 5.3	6,154	7,823	+ 1,669	+ 27.1	4.9	3.6	- 1.3	- 26.5
大靜面	15,001	12,801	- 2,200	- 11	2,747	3,311	+ 564	+ 20.5	5.4	3.8	- 1.6	- 29.6
安德面	9,659	8,048	- 1,611	- 16.4	1,820	2,066	+ 246	+ 13.5	5.3	3.8	- 1.5	- 28.3
中文面	9,865	11,268	+ 1,503	+ 15.2	2,242	2,636	+ 346	+ 17.5	4.4	4.2	- 0.2	- 4.5
西歸面	14,058	13,136	- 922	- 6.5	2,629	3,135	+ 506	+ 19.2	5.1	4.1	- 1.0	- 19.6
南元面	12,414	10,364	- 2,050	- 16.5	2,192	2,432	+ 240	+ 10.4	5.4	4.2	- 1.2	- 22.2
表善面	7,265	6,563	- 702	- 9.6	1,584	1,608	+ 24	+ 1.5	4.5	4.0	- 0.5	- 11.1
城山面	12,482	11,461	- 1,021	- 8.1	2,501	2,635	+ 13.4	+ 5.4	4.9	3.6	- 1.3	- 26.5
舊左面	20,864	19,168	- 1,696	- 8.1	4,317	4,489	+ 172	+ 3.9	4.8	4.2	- 0.6	- 12.5
朝天面	13,214	14,166	+ 952	+ 7.2	3,266	3,515	+ 249	+ 7.6	4.0	4.0	± 0	± 0
楸子面	3,486	4,136	+ 660	- 18.9	759	748	- 11	- 1.4	4.5	5.5	+ 1.0	+ 22.2
計	205,609	196,774	- 8,835	- 5.2	42,852	48,100	+ 5,248	+ 12.2	4.8	4.0	- 0.8	- 16.6

(島廳統計, 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에서 算出)

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엔 육지의 빈농(貧農)이 본도로 출가오는 경우가 많고 그 일부는 정착하고 있다. <그림 18> (a), (b)에서 표시한 세대인구의 큰 부락이 어째서 작아졌는가에 대하여 <표 11>을 참조하면 인구의 감소와 세대수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것 같지만 어느 쪽이건 한쪽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도 약간이지만 인정된다. 어떻든 인구의 증감과 세대수의 증가와의 사이에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셈이다. 관련이 없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광범한 지역에 작용하여 세대인구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게 한 이유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 12> 朝天面의 自然村 世帶人口

村 名	家族人口
Murutojingköl	4.0人
Tali	4.6
Hanulu	2.8
Pupola	4.3
Shin-chon	4.5

우선 조천면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자연촌의 세대인구를 나타내보면 <표 12>와 같다. 마을사람들에게 세대인구의 적은 이유를 물으면 "출가가 많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지만 아들의 상속방식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 같다. 가족의 성원은 몹시 잡다(雜多)하지만 가장 많은 구성은 한조(組)의 부부와 그 아이들의 2세대(世代)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부모(어느쪽이건 한쪽인 경우가 많다)와 그 자식부부 및 그 아이들의 3세대를 포함하는 것, 드물게는 2조의 남자부부, 시집갔다 돌아온 딸, 조카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일가의 가정(家政)·노동·제사등 일체의 책임은 주부에게 돌아가지만 주부측의 친족이 가족 중에 들어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본도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될 현상은 1인 혹은 2인의 성녀(成女)뿐이든지, 혹은 그 아이들만을 포함하는 가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편이 일본에 출가하고 있는 경우(출가는 남자가 많다), 첩으로서 1가구(家口)를 갖추어 토지를 받고서 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경우, 기타 과부로서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등에 의한 것인데 여자는 독립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세울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대표적인 가족의 타이프를 들어보자. <표 13>에서도 명백한 것 처럼 본도의 가족은 중국적(中國的), 말하자면 유례적(儒禮的)인 규제를 받으면서도 말자상속적(末子相續的)인 가족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소위 대가족은 구성할 수 없다. 게다가 여성

의 노동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산촌에서는 토지만 있으면, 해촌에서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독립해서 생계를 영위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남자는 안심해서 일본으로 출가해 갈 수가 있으며 과부는 주눅이 들어 남편 친족의 부조를 받는다든지 친정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

<표 13> 家族成員表

(1) 3世帶의 家族(舊左面演坪里 職業 半農半漁)

姓 名	年 齡	性	戶主 및 戶主와의 關係	備 考
康 京 錫	46	男	戶主	
朴 順 先	49	女	戶主의 妻	
尹 京 考	81	女	戶主의 母	
康 榮 錫	22	男	戶主의 長男	
李 丙 成	22	女	長男의 妻	
康 榮 一	1	男	長男의 子	
康 豊 錫	18	男	戶主의 二男	

(2) 2世帶의 家族(舊左面演坪里 職業 船舶業)

姓 名	年 齡	性	戶主 및 戶主와의 關係	備 考
康 寬 順	30	男	戶主	
金 有 生	33	女	戶主의 妻	
康 慧 淑	2	女	그의 子	

(3) 2世帶家族으로 同世帶의 夫婦를 포함하는 것(朝天面橋來里 職業 農業)

姓 名	年 齡	性	戶主 및 戶主와의 關係	備 考
夫 日 權	48	男	戶主	
金 石 錫	43	女	戶主의 妻	
夫 千 石	28	男	戶主의 長男	
宋 完 官	26	女	長男의 妻	
夫 寶 培	19	男	戶主의 二男	
宋 丙 鎬	23	女	次男의 妾	

(4) 女子만의 家族(朝天面橋來里 職業 農業)

姓 名	年 齡	性	戶主 및 戶主와의 關係	備 考
李 南 花	32	女	戶主	夫日權의 첩으로, 그의 집 近處에 거처를 두고 있다. 常住하지 않음.
(康 氏)	67	女	戶主의 母	

이 섬은 여다남소이기 때문에 독신의 여성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그녀들은 양·산촌에 있어서는 토지만 빌릴 수가 있다면 독립의 생계를 영위해서 자유로이 연인도 가질 수 있다. 또 해촌에서는 토지마저 필요가 없다. 그것을 첩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지만 경제적관계에 따르지않는 자유로운 연인인 것이다. 이와같은 여자세대는 의외로 많고 특히 해촌에서는 그 무렵 증가하고 있었다. 어쩌면 세대수의 증가는 본도의 상속관행에 의하는 것 외에 이와같은 여성세대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뭐니뭐니해도 일본에의 출가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가족의 음식물

도민의 가족경제는 아직 자급자족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생산물의 대부분은 식품이다. 자본주의적 경영에 의한 목축이나 어로는 거의 볼 수가 없고 그것들은 아직 가족내에서의 부업적존재여서 주된 직업은 거칠은 농업이다. 그러나 해촌사람들은 바다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시간이 긴 것과 삼림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어개류를 양·산촌에 팔아서 식량과 연료의 일부를

양·산촌에서 얻는다든지 가라지(강아지풀의 일종)라고 하는 풀이삭을 모아 허기를 달랬던 시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00년 이후 어로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어획물의 판로가 확대되어서 그때까지의 섬의 경제중추는 양촌에서 해촌으로 옮기고 해촌은 더욱 많은 주식물을 금전으로 산촌과 양촌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산·양·해촌 3종류의 부락에 있어서의 일반가족의 일상식(日常食)을 표로 표시하면 <표 14>와 같다. 주식물은 보리·조·피 등이며, 부식물의 주된 것은 조선된장, 야채, 콩, 잎, 해촌에서는 자리이다. 콩잎은

<표 14> 山·陽·海村에 있어서의 常食物表

		山 村	陽 村	海 村
		橋 來 里	臥 山 里	北 村 里
봄	主食物	아침·저녁=小豆와 大豆 콩죽, 낮=보리 또는 피밥	조밥 (10일에 1회는 쌀죽)	조 또는 보리밥
	副食物	된장국(아침·낮·저녁) 날콩잎	된장국, 乾魚 및 김치 등 야채절임	미역된장국 자리젓
	食事回數	3	3	3
여름	主食物	보리밥	보리밥	조 또는 보리밥
	副食物	된장국 날콩잎	된장국 생선·배추·콩잎	된장국 자리
	食事回數	3	3	3
가을	主食物	稗에 乾魚 또는 야채를 섞은 밥, 감자와 피를 섞은 밥	팥과 콩을 놓은 조밥	조밥(사정이 허용하는 限 보리를 구한다)
	副食物	된장국, 야채절임 마늘장아찌	된장국, 김치등 야채절임	된장국 야채, 해조류
	食事回數	3	3	3
겨울	主食物	피밥	조 또는 보리죽	조·감자·콩·팥·보리 등 있는 것을 섞은 죽
	副食物	된장국 배추절임	된장국 배추절임	자리젓 멸치젓
	食事回數	2	2~3	2

날건채 밥을 싸 먹는데 본도식품 중 자리와 함께 특색있는 것이다. 된장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콩을 삶아 큰 통(가래도구리)에 누룩과 함께 넣어 새 짚신 신은 발로 밟아 그것을 직경 10㎝ 정도 크기로 쥐어 짚으로 싸 3개월 정도 그늘에 두었다가 곰팡이가 필 무렵 커다란 된장독 속에 넣고 여기에 된 소금물을 붓는다. 얼마후 아래쪽에 가라앉은 부분이 된장이 되고 위의 맑은 물은 간장이 된다. 된장에 고추가루를 더한 것을 고추장, 된장독 속에 넣어 두었던 마늘장아찌는 본도인이 애호하는 식품이다. 섬의 일상식품은 앞의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양촌이 제일 풍부하고 산촌이 제일 보잘 것 없다. 그러나 해촌에서는 그 무렵부터 백미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섬의 생활수준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듯 했다.

지금까지 말한 상식(常食)에 관해서 섬에는 '칼칼 먹엄다'고 하는, '아주 푸짐하게 먹는날'이 있다. 이것은 특히 정해진 날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경제상태에 따라 밭벼(陸稻) 밥을 짓는 날인 것이다. 일반가정에서는 수누름(주 : 표준어로는 품앗이. 제4장 제2절)을 하는 날, 즉 농번기에 공동노동을 행한 날의 저녁이나 비가 계속 오는날 같은 때를 골라 주부는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생선이나 때에 따라서는 2~3가족이서 단체로 추렴을하여 돼지를 잡고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내는 것이다. 또 첩의 집에서는 남자가 오는 날을 선택한다. 이 「칼칼먹었다」의 본뜻은 쌀밥을 먹는데 있으므로 부식물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또 겨울에는 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봄·여름·가을에 걸쳐서 '잘 먹는 날'은 내가 조사한 범위로는 산촌에서는 평균 30일에 1회, 양촌에서는 5일에 1회, 해촌에서는 20일에 1회 정도의 비율이다.

제사때의 식사는 「칼칼먹었다」보다 좋은 것이 준비된다. 즉 밭벼

대신에 시내에서 백미를 구입해다 밥을 짓고 그 위에 술이 추가된다. 제주도에서는 약주가 쓰이지 않으며 주로 소주가 애호되고 탁주도 드물다. 그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즐기는 것은 밀조(密造)한 쌀소주(도둑놈이라고도 한다)이다. 식기에 대해서는 제5장 민구(民具)의 항목에 양보하기로 하는데 본도에서는 중류이상의 가정에서도 유기(鍮器·놋그릇)를 사용하는 일은 드물고 주로 질그릇을 쓰며 목기가 그 다음이다. 식사방법도 육지와는 모양이 달라서 한 가족이 대형의 양푼(食盤)을 둘러앉아 어른 아이 구별없이 숟가락으로 이를 떠먹는데 가끔 손가락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사람 한사람이 밥상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4] 이와같은 점에 섬사람들의 소박함이 엿보이는 것이다.

제3절 농업과 가족

가) 농업과 그 기술

제주도의 농가세대수는 1936년에 있어 총세대수 4만8천1백에 대하여 4만1천46세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섬의 총면적 18만7천7백39정보에 대하여 경작지 총면적은 그 약 50%에 해당하는 9만3천9백81정(町) 4반보(反步)에 이르며 1세대당 경지면적은 2정3반 강(强)으로 전라남도의 평균 1정2반[5] 보다도 넓은 경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뭐니뭐니해도 토질·기후가 엄청나게 나쁜 것과 조악(粗惡)한 경작방법과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도민의 생활은 어려워서 태풍피해가 컸던 해에는 식량의 결핍에서 출가자(出稼者)의 증가를 보게되는 것이다. 재배작

4)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5) 이 節의 數字는 濟州島, 1937年 島勢要覽 및 島廳統計에 따랐다.

물은 식량의 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보리·피·콩·감자·고구마·메밀 등인데 벼는 관개가 불편하기 때문에 전도에 걸쳐 겨우 8백7정7반의 논을 갖고 있을 뿐이다.

보리 : 보리는 도민식량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인데 파종기는 해촌에 있어서는 음력 8월절, 양·산촌에 있어서는 9월절의 전후 3일간을 선택하지만 이 사이에 1개월의 차이가 있다. 경작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쟁기로 갈고 밭이랑에 비료(후술)－돈분(豚糞) 같으면 반당(反當) 1백관, 해조(海藻) 같으면 1백내지 1백50관－를 가로로 즐비하게 넣고 8승 내지 1두의 종자를 살포해서 쟁기로 휘졌는다. 이렇게 파종한 후 2, 3회 제초를 하는데 해촌에서는 4월절, 양·산촌에서는 5월절 전후의 3일간에 수확한다. 추비(追肥)는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베어들인 보리는 집 앞뜰에 널어 건조시키고 도께(사진 69)로 두드리든지 홀태(사진 35)로 탈곡하여 들여 놓는다. 이렇게해서 반당 1석1두3승 정도의 수확을 얻는다. 이것을 식량으로 제공할 때 주로 말방아에서 겉겨를 벗긴다. 보리짚(麥藁)은 특히 해촌에서는 중요한 연료로 쓰기 때문에 지면에 돌 또는 나무로 직경 10m정도의 판을 만들어 그 위에다 보리짚을 높이 쌓는다. 그 위에 「노람지」라고 하는 띠의 덮개로 지붕을 만들고 정상에 띠 또는 억새로 만든 모자(주제기)를 덮는다. 이와같은 보리짚 쌓은 것을 「눌」이라고 하는데 짚을 보존하는데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양·산촌에서는 눌은 가끔씩 밖엔 보이지 않는다. 이들 마을에 있어서의 겨울철 연료는 주로 우마분(牛馬糞)을 건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조·피 : 조 파종은 보리의 수확 직전에 행해진다. 우선 밭을 쟁기(사진 30)로 갈고 여기에다 종자를 뿌리고 재차 쟁기로 흙과 종자와를

혼합하든가, 전혀 갈지 않은 땅에다 종자를 살포하여 잡초와 흙과 종자와를 혼합시킨다. 그리고 말을 몇마리 빌려서 밭 돌담안에서 몰면서 흙을 밟도록 한다. 이것은 종자가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과 되도록 땅속 깊이 묻힘으로써 지표가 건조해도 발아(發芽)에 방해가 안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비료는 양·산촌에서는 거의 주지 않지만 해촌에서는 해조류(馬尾草·역자주 : 마미초는 본디 모자반을 뜻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방언 둠북으로 불리우는 해조류 전반을 지칭하고 있음)를 조금 주는 곳도 있다. 이와같이 해서 조 같으면 반당 8두8승7홉, 피 같으면 3두6승4홉 정도의 수확을 얻는다. 수확기는 해촌에 있어서는 음력 9월초, 양·산촌에서는 9월절 전후 3일간이다. 조 및 피는 가위로 이삭을 잘라내든가 밑둥에서부터 잘라서 조 홀태로 탈곡하던가 다듬이 돌로 두드린다(사진 34).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멧돌·절구 또는 말방아로 정제한다.

콩·팥 : 파종기는 조·피 등과 비슷하며 물론 비료는 주지 않는다. 조·피와 마찬가지로 밭이랑을 만들 필요 없이 종자를 뿌려 뒤에 쟁기로 흙을 덮는다. 이와같이해서 콩은 반당 2두1승7홉, 팥은 1두7승3홉 평균의 수확을 본다. 밭벼(陸稻)는 비료를 주지만 농법은 거의 비슷하다.

메밀 : 메밀은 쟁기로 간 다음 종자를 반당 4승내지 6승 정도 살포하고 거기에다 재를 20~30관 뿌려 재차 쟁기로 파헤치는 것 만으로 반당 4두3승5홉 정도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감자·고구마 : 이들 작물은 육지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경작방법은 육지와 다를바가 없다. 그밖에 최근에는 목화재배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윤경방법(輪耕方法) : 제주도에서는 그 무렵 별로 비료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의 피폐를 막기 위하여 윤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잡초는 그대로 깔아서 비료로 하기때문에 밭에 대해 화입(火入)을 하는 일은 드물다. 섬에는 우마가 풍부하기 때문에 야채를 심는 토지 외는 모두가 소로 경작된다. 그러나 신간지(新墾地)에는 처음에는 쟁기를 사용치 않고 사람손으로 낫이라고 칭하는 섬특유의 곡괭이와 삽을 함께 한 것 같은 가래(사진 67)로 깊이 지면을 파헤친다. 윤경의 형식에는 일정한 법칙은 없으나 주된 윤경의 형태는 <표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표 15> 輪 耕 表

[海 村]

組織別	第 1 年 째		第 2 年 째		第 3 年 째	
	夏 作	冬 作	夏 作	冬 作	夏 作	冬 作
1	粟	麥	粟	麥	粟	麥
2	靑刈大豆	麥	粟	休	棉	麥
3	棉	麥	粟	벳치類	棉	麥
4	粟	休	棉	麥	粟	麥
5	棉	麥	甘 藷	麥	粟	豌 豆
6	甘 藷	麥	大 豆	麥	粟	벳치類

[陽 村]

組織別	第 1 年 째		第 2 年 째		第 3 年 째	
	夏 作	冬 作	夏 作	冬 作	夏 作	冬 作
1	粟	休	甘 藷	麥	粟	休
2	陸 稻	休	粟	休	大 豆	休
3	蕎 麥	休	陸 稻	休	甘 藷	麥
4	休	麥	粟	벳치類	休	麥
5	甘 藷	休	陸 稻	休	大 豆	休

[山 村]

組織別	第 1 年 째		第 2 年 째		第 3 年 째	
	夏 作	冬 作	夏 作	冬 作	夏 作	冬 作
1	陸 稻	休	休	麥	大 豆	休
2	粟	休	休	麥	粟	休
3	稗	休	蕎 麥	休	陸 麥	休
4	馬 鈴 薯	休	休	休	蕎 麥	休

(1937年 濟州島勢要覽에 의함)

비료 : 윤경의 상태를 보아도 분명한 것처럼 섬의 농법은 해촌에 있어서는 약간 집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산촌에 갈수록 거칠어져서 심한 곳에서는 10년에 한 번 경작하는 경우도 있다. 도민의 비료에 대한 지식은 몹시 얕다. 그 무렵 도청에서 유산암모니아 기타 비료의 보급을 시도하였으나 현금을 얻을 수 없으므로써 전통적인 경작법을 버리지 않았다. 예전부터 그들이 쓰고 있는 비료는 양·산촌에서는 청애대두(青刈大豆)·잡초·돈분(豚糞)이며, 해촌에서는 마미초(馬尾草·주≡原文에는 해안에 표착되는 해조류 전반을 가리키는 듬북으로도 표기하고 있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청애대두는 이것을 베어들인 채 생채로 사용하든지 퇴비를 만들었다. 그러나 퇴비의 원료로서 주된 것은 낙엽, 마분, 우분, 돈분 등인데 마분 및 우분은 연료로 쓰기 때문에 별로 상용치 않고 구비(廐肥)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돈분이다.

본도에서는 돼지우리와 변소(방언으로 칙간 또는 통시)가 함께 있어서 인간의 분뇨로 돼지가 키워진다(사진 29). 우리 속에는 짚이 가득 깔려 있어서 이것과 인간의 대변으로 키워진 돼지의 분뇨가 섞여져 자연히 훌륭한 퇴비가 만들어진다. 해촌의 마미초(馬尾草)의 퇴비는 폭풍 뒤에 해안으로 불려온 마미초를 집 마당에 직경 1.5m 높이 1m 정도로 쌓

아올려 새로 지붕을 만들어 이것을 「둠복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때때로 해수를 끼쳐 발효시킨다. 따라서 염분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에 알칼리도(度)가 세어 토지에 따라서는 부적합한 곳도 있으나 해촌에서는 어디서건 이용되고 있다.

나) 농업노동(農業勞動)의 형태(形態)

제주도의 농번기는 음력 4월말에서 5월초순에 걸쳐서인데 이것을 "밭갈기가 바쁘다"고 말해서 조, 녹두, 콩의 파종기엔 평상시 일하지 않는 남자들도 모두 함께 팡닢(日覆笠)을 쓰고서 들에 나간다. 이 시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방목하던 우마는 1개소에 모여져 특정한 감시인이 정해져서 가축에 대한 걱정 없이 일가총동원으로 거칠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된다. 이와같이 해서 파종기에 들어가면 남자는 두사람이서 쟁기달린 소를 몰고 여자가 그 뒤를 따라 곰배로 흙덩어리를 부수고(사진 31) 아이들은 큰 돌을 밭으로부터 제거하고 작은 돌을 밭 안으로 던져놓는다. 이것은 밭을 바람과 건조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작은돌이 많은 밭일수록 섬에서는 좋은 밭인 것이다. 남자는 밭갈기가 끝나면 나무 그늘에서 담배를 피운다. 여자는 비료와 종자를 뿌린다. 그것이 끝나면 남자는 일어서서 소를 몰며 쟁기를 밀어간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흙을 밟는다. 이것이 끝나면 여자는 빌려온 말을 몰고와서 밭에 들여 놓는다. 아이들이 작은 막대기로 말을 몬다. 그러면서 그들은 밭발리는 소리 즉 조밟는 소리를 alalu naliyang ho alu라고 되풀이 한다. 「자아 돌아라 돌아」라는 의미라고 한다.

말이 없어서 사람의 발로 밟을 때에도 어느정도 가락을 바꾸어 이 노래를 부른다. 만일 말이 한 마리밖에 없을 때에는 고삐를 길게 해

서 이것을 잡은 사람이 밭 중앙에 서서 그를 중심으로 말을 놔는듯한 모양으로 빙빙 달리도록 해서 고삐를 점점 조이며 반경을 줄여나간다. 종자를 뿌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중에 밟기를 끝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조나 피와 같이 가벼운 종자는 야간에 비가 오면 몽땅 흘러내려가 버리고 바람이 불면 흩어날리기 때문에 이 시절의 노동은 아침은 첫 새벽부터 밤은 긴 초여름 햇발이 바다 저쪽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마쉬떼」라고 하는 것은 조밟기를 위해 특히 빌려주는 말떼들을 말하는데, 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조밟기를 위하여 방목하고 있는 자기말을 집합시키는데는 대단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모아두면 가족 가운데서 그 감시를 위해 사람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마쉬떼」를 빌어오는 것이다. 「마쉬떼」의 소유자는 개인으로 빌리는 값은 데리고 오는날은 가산하지 않고 3두에 1일 7원 정도가 시세였다. 「마쉬떼」의 소유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이유는 그 무렵 제주도말의 판로가 현저히 넓혀져 갔기 때문에 「마쉬떼」로서 농번기의 짧은 기간 자기집농사를 희생시키며 타인에게 빌려주기 보다는 이것을 육지 혹은 일본으로 파는 쪽이 득이 된다는 것과 한편 소의 수요도 증가해서 그 무렵 말 한 마리가 19원인데 대하여 소는 1두 52원－소 사양(飼養)에 목축자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해촌에서는 특히 해산물의 판로확장에 수반하여 우마의 감시를 산촌에 위탁하겠금 되어 양·산촌이 일손부족으로 농번기에 말을 모아오는 일이 어렵게된 것등이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마쉬떼」의 수요자측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출가인의 증가 때문에 가족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자연경작 면적이 축

소되는 한편 육지로부터 자유노동자가 흘러들어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조달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더욱이 사람의 노동력과 말 빌리는 값 사이에 별로 차이가 나지않기 때문이다. '밭갈기가 바쁘다'는 계절이 끝나면 섬의 날씨는 매우 맑아서 바다로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진다. 그리하여 장마철로 접어든다. 밭에 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한다. 7월절 전후는 이른바 '검질 매기가 바쁘다'는 계절이다. 이 계절은 초복이라고 해서 메밀의 파종기와 잡초매기에 밤을 낮 삼을 시기인데 초복이라고 하면 바쁘다는 의미로 조차 쓰여진다. 그러나 남자는 이젠 일하지 않는다. 여자는 「팡닢」을 쓰고서 격렬한 햇볕과 안개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oyolan sade oyolan sade」라고 하는 sade soli(時代의 노래…수기동에서 채취)가 밭 이곳 저곳에서 들린다. 이것은 김매는 소리로서 집안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이 금기(禁忌)를 어기면 그 사람 밭에는 잡초가 무성한다는 이야

<표 16> 마쉬떼

部 落 名	마쉬떼所有者(현재)	頭 數	過去에 있어서의 有無
MuTutajin köl	金春水	15두	없음
	金 某	20두	
Tali	夫方根	25두	없음
	愼基千	11두	
	宋奉周	11두	
	金方甲	15두	
Hanulu	夫某	25두	5년전까지는 1두 더 있었다
Munmi	馬契가 소유자	10두	없음
Pupola	없음 ㄱ 山林에서	없음	20년전까지는 50두도 되었었다
Shinchon	없음 ㄴ 빌리고	〃	있음
Perto	없음 ㄹ 있다	〃	있음

기가 있다. 가사는 '요왕(堯王)과 신농씨(神農氏)시대에는'이라는 의미라고 알려져 있으나 분명치는 않다.

음력 9월에 들어서면 산지에는 첫 서리가 내린다. 벌써 거둬들일 시기이다. 이 계절을 '거둬들이기가 바쁘다'고 표현한다. 게으른 남자들도 호미(표준어=낫)를 갖고서 바삐 돌아다닌다(사진 72). 계절풍이 몹시 불어제껴서 차가운 비라도 내리면 큰 일이다. 그때까지 겨울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둬들여진 조·피·밭벼 등은 적당히 건조시켜서 조, 홀태 또는 도께로 탈곡한 뒤에 풍선(風選)을 하는 것이다. 도께질 할 때의 노래를 마당질소리라고 부른다(교래리에서 채집).

오야도 홍, 오야도 호야

「오야도」때에 손을 올리고 「홍」때에 내리치며 「오야도」때에 손을 올리고 호야 때에 내리친다.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뉘(籾)는 그대로 저장되고 필요에 따라 다량인 경우에는 말방아에, 소량인 때에는 맷돌 또는 절구에 넣어 정백(精白)된다. 말방아에서 정백될 때에는 우마를 사용하든가 네사람이서 이것을 밀든가 하고, 사람 손으로 할 때에는 수누름으로 몇가족이 연합해서 한다. 방아를 찧을 때에는 행동을 합치기 위하여 방아소리를 부른다.

이영 이영 이여도 호라 이영
마랑 마랑가라 흠 흠
가시오롬 강당장 집
시골방에 세마장 따라 흠

이 민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첫째가 메김말(囃子)의 「이여도」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가시리(加時里)의 강당장 집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카하시

(高橋享)는 이여도에 「離虛島」란 글자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옛날 고려시대 충렬왕(忠烈王) 3년 원의 지배를 받아 목관(牧官)이 내려와 이를 다스리면서부터 원말까지 제주는 해마다 토산품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공물선(貢物船)은 북쪽 산동(山東)으로 가기 위해 섬의 서북쪽 대정의 모슬포에서 출항준비를 갖추고 출발을 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대정에 강씨라고 하는 선박운송업자가 있어 이 공물선의 선주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수척의 큰배에다 공물을 가득 실어 황해를 가로질러 출항했다. 그런데 이들의 공물선은 끝내 돌아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무렵 항로 중간에 「이여도(離虛島)」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가 섬사람들에 의해 믿어지게 되었다. 어느 해 강씨 자신이 스스로 공물선을 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에게는 나이든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애처로움을 달랠길 없어 "아 이여도야 이여도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노래를 만들어 이를 불렀다. 하다못해 내 남편이 이여도까지만이라도 도착했었으면 하는 의미였다. 그 곡조는 매우 비애, 처참하였다. 그런데 같이 슬픔에 잠겨있는 대정의 부인네들은 이것을 듣고 모두 서로 동감하였다. 딴 부인들도 모두 동정하여 이에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래는 갑자기 전도로 퍼졌다.」[6)]

내가 조천면 수기동(水基洞)에서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제주도 사람들이 섬밖으로 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들르지 않으면 안되는 섬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여도라고 했다. 거기에는 해적이 있어서 배가 도착하면 승객의 소지품을 전부 빼앗고 남김없이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섬사람이 이 섬에서 죽게 되었을 때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싶으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도적은 좋다고 대답하고서 그의 혀와 두 손을 자르고 작은

6) 高橋享, 「民謠에 나타난 濟州島의 女子」, 『朝鮮』, 1933年 1月號.

배에 태워서 바다로 내보냈다. 바람과 조류를 따라 그 배는 운좋게 제주로 실려왔다. 그의 아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몹시 슬퍼하여 관청에 신고하였으나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어서 매우 곤란했으나 겨우 입으로 글을 써서 이여도의 소재와 해적에 대한 것을 보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바다 저쪽을 원망하면서 이여도의 노래를 지었다. 그 슬픈 곡조는 갑자기 전도로 퍼졌다고 한다. 그 섬의 위치는 중국과 제주도의 중간에 있다고도 하고, 또는 서북쪽 얼음나라(氷國)와 제주의 중간에 있다고도 전하여진다.」

또 가시리(표선면)의 강당장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가시리의 호가(豪家) 강당장의 집은 내분(內紛)이 많아서 아내와 아들의 불평이 그치지 않았는데 세 형제에게 유식자(有識者)집의 세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이자 집의 풍파가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다. 작고 어두운 정지(표준어는 부엌) 속에서 노파가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가래소리」이다.

이영 이영 이여도 마랑 가라
이여도 ᄒᆞ민 내 눈물난다
이여도 ᄒᆞ라 이영 방에 고들베기 지엉
저녁이나 붉은 때 ᄒᆞ라
가시오롬 강당장 집에 세클방에
세클가난 우리 다소도 히연제 가난
시골방에 세마자 간다.

(水基洞에서 채집)

또 어떤 ᄀᆞ래소리에는

이영 이영 이여도 ᄒᆞ라
이영은 마랑 마랑가라
산에 들면 우김새 소리

물에 들면 소무제출 소리
나중 들면 네난가리
저물 때 들면 젠가레 소리

(臥山里에서 채집)

이렇게 해서 조 수확기에 보리 파종기가 계속된다. 조 파종과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보리가 파종되면 이미 겨울을 기다릴 뿐이다. 이와 같이 농업 노동의 태반은 여자에 의해 마련되며 남자는 봄 가을 2회의 농번기에 손을 빌려주는데 불과하다.

다) 숯굽기와 수렵(狩獵)

그 무렵 삼림의 벌채에는 제한이 있어서 원목을 자를 때에는 사유(私有)에 속한 것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의 것은 불하를 받지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양·산촌사람들에게 있어서 숯굽기는 겨울철 부업으로서, 특히 남자의 일로서는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다. 삼림으로부터 잘려나온 활엽수는 길이 1척 정도로 잘려서, 모양이 반듯하고 별로 굵지않은(직경 3~10㎝) 것으로 조종(弔鐘)모양의 외곽을 쌓고(직경 1.8m, 높이 1.5m) 그 속에 되도록 세로로 규칙적으로 바르게 통나무를 쌓아 올려서 물로 반죽한 찰흙을 밑으로 발라올려, 정상부에 직경 30㎝ 정도의 굴

<그림 19> 숯굽기와 아궁이

뚝과 하부에 60㎝에, 30㎝ 정도의 화입구(火入口)를 열어 거기서 점화한다. 연기 나오는 것을 점검하여 우선 정상부의 굴뚝을, 다음에는 화입구를 진흙으로 막아 일주야를 방치하고서 흙의 벽을 부순다. 그들은 고정된 숯굽기 아궁이를 만들지 않고 수시로 이와같은 숯굽기 아궁이(방언≡숯금)를 만든다.

제주도 풍속의 하나로서 누구나 잊지 않고 말하는 가죽옷은 개·너구리 또는 노루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의복으로 그 무렵에도 겨울철에 산촌에서 겨우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다. 1900년 초에는 아직도 섬 전체에 널리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수렵은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고기보다도 오히려 가죽옷에 사용할 가죽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일본의 관헌(官憲)에 의한 무기압수와 일본인의 수렵에 의한 포획물의 감소 때문에 점차 쇠퇴해가서 자잘한 수렵의 관습은 이미 조사할 수가 없게 되었으나 노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눈이 오기 전에 골짜기의 적당한 장소에 긴 목책(木柵)을 둘러쳐 놓는다. 그리고 큰 눈이 온 뒤 쾌청한 날에 몇사람이서 대(隊)를 짜서 각자가 개를 끌고 산 위쪽을 돌며 총을 든 한 두사람이 목책의 일부를 부수어, 포획물의 출구를 마련, 거기서 엎드려 기다린다. 산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밭에다 「테월」이라는 눈신(樏)을 신고 개를 부추기면서 짐승을 쫓아내온다. 깊은 눈 때문에 짐승은 경사진 곳을 위로 올라가지 못한체 밑으로 밑으로 쫓겨오다가 목책을 만나 목책쪽을 따라 도피구를 찾아 출구로 나온다. 이것을 쏘아대는 것인데 일시에 많은 포획물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목책의 위치, 그리고 쫓아나가는 방향의 결정, 전대원의 지휘는 연상의 경험자가 맡는다. 고기의 분배는 대원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가죽은 그날의 공적에 따라 분배된다. 총이

없을 경우에는 역시 대를 짜서 눈 오는 날에 산을 둘러 짐승을 포위하고 개를 부추켜 쫓아가도록 해서 피로하게 만든 다음 목책출구로 인도해 돌을 집어던져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획득한 포획물은 노루·사슴·오소리·수달 등인데 그 무렵 간신히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노루뿐이었다고 한다. 그밖에 형상불명의 덫을 만들어 꿩·족제비 등을 잡는 경우도 있다. 꿩은 그 무렵 실로 많이 나서 일본인 전문엽사가 있을 정도였으나 산촌사람들은 몇사람이서 꿩을 쫓고 있었다. 눈오는 날 2~3명이 포획물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 움추려 있다가 꿩이 보이면 그것을 위로 위로 쫓아가 나무가 없는 눈 깊은 곳이거나 골짜기로 몰아서 눈에 빠져 지쳐있는 것을 생포하는 것이다.

또 수렵과 관련해서 도민 가운데 비교적 표고(標高)가 높은 산촌 사람들은 눈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조선에서는 실로 드물게 보는 현상인데 아무리 큰 눈이 오는 곳에서도 설질(雪質)을 몇가지로 구별해서 각각 명칭을 부여할 만큼 눈과 생활이 밀접해 있는 지방은 적지만, 나는 섬의 교래리에서 처음으로 눈에 대하여 자세한 지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무 눈 : 봄 또는 늦가을에 내리는 끈적진 눈
사랑눈 : 속설(粟雪)…제주도 고지(高地)의 가장 차거운 눈
ᄀᆞ루눈 : 분설(粉雪)
옴 : 봄에 낮에 내려서 녹았다가 밤에 다시 얼어 붙은 싸라기눈
오 름 : 딱딱한 눈(固雪)
방울눈 : 함박눈

그들은 사랑눈 또는 방울눈이 내린 직후면 사냥감을 생포하기가 용

이하지만 급경사면에는 눈사태가 많기 때문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지 말라든가 「옴」의 사면(斜面)은 미끄러지기 쉽다든가,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옴」의 눈다리(雪橋)는 위험하니까 다니지 말라, 그러나 「오름」의 다리는 충분하니까 안심해서 건너라, 「방울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눈이 그칠 것이라는 등 눈 깊은 산촌사람들에 걸맞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의 수렵생활은 이미 현대생활 속에서는 스포츠로서의 의미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눈에 대한 지식은 방목하는 우마를 찾아나서서 깊은 산중을 방황하는 그들의 뇌리에서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4절 목축과 가족

가) 목축과 그 기술

이 섬의 주요한 축산은 소·말·돼지·닭 및 꿀벌 등인데 꿀벌을 제외한 4종의 사육은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었다. 1936년도에 있어서의 각 가축의 총수는 소 3만9천6백86마리, 말 2만2천2백35마리(1934년 통계, 말에 대하여는 36년도 것이 보이지 않음). 돼지 3만6천1백59마리 닭 7만5천3백1마리 꿀벌 5천1백10통으로 되어있고[7] 축우 총수는 전 조선의 30%강, 사마수(飼馬數)는 마찬가지로 그 40%강을 나타내고 있다[8]. 소 및 말은 농경·승용·운반 또는 식용으로서 도내에서 쓰이는 것 외에는 육지 및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수출두수는 1936년도에 있어서는 각각 1천9백54마리, 1천4백6마리이다. 양자

7) 島內統計는 濟州島『1937年 濟州島勢要覽』에 따름.
8) 桝田一二,「濟州에 있어서의 畜産의 地理的 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三輯.

의 사육호수는 전 호수의 각각 33% 및 25%에 이르며 일반도민의 소중한 부업이다.

더 나아가 도내의 우마의 분포를 보면 소는 대체로 도내에 평균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관찰하면 동부가 약간 조밀하여 양촌에서는 암소가, 해촌에서는 숫소가 많다. 말의 분포는 제주읍을 제외한 북쪽에 특히 조밀하다. 돼지는 농가에서는 적어도 1호에 한 마리는 사양되고 있고, 분포는 전도에 일반적이지만 아직 수출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닭도 널리 길러져서 계란은 수출(1년 5만4천4백61kg)되고 있다. 양봉은 그 역사가 얕지만 기후에 적합한 직업이란 것이 점차 알려지고 있어서 증가해 가고 있다. 1920년대에는 겨우 13봉군(蜂群)밖에 사양되지 않고 있었으나 1936년도에는 5천1백10봉군으로 증가했고, 벌꿀의 연산액(年産額)은 그 당시 가격으로 2만7천3백55원에 달하고 있다. 그밖에 그 무렵 면양증식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아마도 몽고점령 이래 처음있는 계획이었다. 즉 원(元)에 의한 점령당시에는 양의 목장이 특설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권(羔圈)이란 문자가 탐라지도[9]의 서문에도 볼 수 있다.

방목 : 「우마사육의 양식에 대하여는 그 성질·형식 등으로 보아 대체로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즉 ① 연중방목 ② 계절적 방목 ③ 완전사육(全飼)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연중방목 형식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마스다이치지(桝田一二)는 그의 「제주도에 있어서의 축산의 지리학적 연구」[10] 속에서 말하고 있으나, 나는 이 섬에 있어서만은 연중방목을 다시 3개로 나누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휴한지, 수확 후의 평지, 그리고 산지에의 방목 등 세 가지이다.

---

9) 李某, 『耽羅地圖序』.
10) 桝田一二, 前揭書.

첫째는 주로 해안지대에서 행해지는 목축의 방식인데 옛 기록에도 그런 것이 기술되고 있다. 즉 「부자 중에 우마가 많은 사람의 경우 같으면 한 머슴을 정해서 목동으로 삼고 그 우마를 풀어 아무 곳에서나 이를 방목하고 날이 저물면 한 밭속에 집어넣어 모두를 묶어 밤새 내놓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그 똥을 밭에 모으며 다음날 해가 높이 뜬 후에야 비로소 방목을 한다. 매일 이와같이 해서 우마의 똥이 밭에 가득하게 되면 그 후 다른 곳으로 옮겨 또 그 밭에다 그와같이 똥을 눕도록 하는데,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다. 우마가 많은 사람은 밭에 똥을 많이 모으고 우마가 적은 사람은 겨우 한 두 밭에 똥을 준다. 이와같이 해서 다음 해에 보리를 파종한다. 즉 이것이 분전(糞田)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은 많은 집에서 행하는게 아니다」[11] 다음으로 현재의 예를 화북리 별도(別刀)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이 부락은 제주의 동쪽 이웃 해촌인데 서쪽에 약간 높은 구릉(丘陵·별도봉)이 솟아있다. 예전에는 이 산에서 경작을 했으나 지금은 휴한지가 되어 돌담 안에는 잡초(개자리, 강아지풀)가 키높이 자라고 있다. 그 안에 봄에서 가을에 걸쳐 말을 방목하고 가을에 조 수확이 끝나면 마을 가까운 밭에 이것들을 이동시켜 떨어진 이삭이나 버려진 짚들을 먹도록 한다. 한편 목장의 풀을 베어(사진 39) 마을밖 광장에 쌓고 겨울에는 이것을 주는 것이다. 감시인은 거의 붙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두 번째는 그 무렵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던 방법인데 해발 2천3백 내지 6백m(이 근처에 上揚城이라는 관권시대 목장 경계의 돌담이 있다)에 이르는 지역에 방목하고 농번기에는 몇 가족이 연합하여 우마군을 만들어(사진 38) 각 가족 교대로 책임을 지고 종일 감시자를 낸다. 그러나 농

11) 李徳, 「濟州風土記」, 『朝鮮學報』, 第一卷 第二號.

번기가 지나면 감시의 책임은 각 가족으로 돌아가 매일 붙어서서 감시하는 일 없이 수시로 보러 나가는 정도이며, 우마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풀을 쫓아 한라산 정상부근까지 올라갔던 우마들은 큰 눈 때문에 다닐 수가 없고 하산을 할 수 없으므로 이것들을 모아 좁은 휴한지로 몰아 들인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산악지대에 우마를 방목해서 다만 때때로 망보러 나갈 뿐, 완전히 우마의 자유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것을 행하고 있는 마을(예컨대 교래리)에선 「우마를 돌담 안에 가두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역설적인 일면의 진리가 있다. 드물게 산 속, 특히 상양성(上揚城)보다 높이 방목되었던 우마는 점점 산으로 올라가 겨울철 큰 눈이 오면 죽지만 늘 방목돼 있던 우마는 도리어 산정 가까이 올라가는 일 없이 가을이 되면 스스로 내려와서 동사(凍死)하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해서 무질서하게 경계도 나뉘어 있지 않은 곳에 방목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우마에 표적을 붙인다. 표적은 마을별로 하는데 소에는 표를 붙이고 말은 그 귀를 자르는 것이다.

표적(낙인)을 붙이는 곳은 대부분 대퇴부(大腿部)이지만 드물게는 귀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 표적의 모양은 각각이지만 자연촌이 단위가 되고 다시 그 위에 동성집단(同姓集團)끼리 독자적인 것을 갖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수기동의 『ㄲ』표, 대흘리 한울마을의 「ㅏ」표 교래리의 「大」자—이것은 우마가 점점 살이 찌도록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다시 이 마을의 신(愼)씨는 「冂」, 부(夫)씨는 「ㄱ」를 갖는 것이 그런 것이다. 동성집단의 표적은 부락의 표적, 예컨대 「大冂」와 같이 병용되기도 한다. 말에 대해서는 귀를 자르는 방식으로 구별짓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표적을 병용할 때도 있다. 우마에게 있어서

는 들풀과 사소한 목초가 중요한 사료가 되는데, 참새완두·개자리·참새피·방동사니 등이 해촌 및 양촌에서는 주된 것이며, 산촌보다 높은 곳에서는 등갈퀴나무·새(茅)·콩·팥·달맞이꽃·비수리·다불쑥·제주조릿대 등이 중요한 것이다. 보리나 피를 보통 사료로 사용하는 일은 전혀 없고 따라서 평일에 사료를 삶아주는 일은 없다. 축일(丑日)에는 소에게 콩이나 보리를 삶지 않은채 준다.

우마에 음료수를 주는 일은 없으며 또 인간을 위한 우물이나 못은 엄중하게 우마로부터 격리되고 있다. 따라서 우마떼는 자연의 유수(流水), 고인물 등을 찾아 나서서 그곳에 모인다. 풀이 많은 산 줄기에서는 산정으로 가까이 갈수록 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구호의 물이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한라산정의 백록담 물가에서 우마군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는 일도 있다. 또 마을에 따라서는 예컨대 와산리에서와 같이 특히 우마를 위한 유수지(溜水池 사진52)를 만들어둔 곳도 있다. 도민은 우마에 대하여 비교적 무관심하다. 따라서 무질서한 방목으로해서 자유로이 교배하고 새끼를 데려 산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품종개량에는 거의 마음을 쓰지 않았었다. 말은 키가 작은, 「포니」라고 칭하는 종(사진 72)으로 완강하다기 보다는 조야(粗野)하고 짐 싣는 힘은 대단히 약하다. 소도 육지에 비해서 왜소하고 야위어 있다(사진 30). 또 구충(驅蟲)에 대해서도 관습적으로 음력 11월에 목장에 불을 놓아 태우는 정도이고, 그밖의 배려는 볼 수 없다. 이 들불은 도리어 목초의 종류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는 설도 있다.

거세(去勢) : 제주도에서는 소와 돼지를 거세(去勢)한다. 그러나 전체 우마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위세(威勢)가 지나친 소와 교배 후의 숫돼지에 한한다. 방법은 육지와는 방식이 다르다. 소 같으

면 5살때에, 돼지같으면 교배직후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몇 사람의 사나이가 대상의 동물을 앞마당에 끌어내서 2개의 나무조각으로 고환(睾丸)을 죄인 후 작은 칼로 외피에 구멍을 내어 고환을 끄집어낸다. 수술 뒤에는 재와 소금을 바르고, 깨끗한 밭에 돌담을 높이 쌓아 그 속에 풀어 상처가 나을 때까지 방치한다. 깨끗치 못한 밭에선 상처가 곪는다고 믿고 있다.

나) 목축노동의 형태

제주도에서 대규모 목축이 행해진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원의 점령당시에 비롯되었는데[12] 원이 물러간 뒤에도 명(明)에게 말을 진상했다는 기록도 있고[13] 우마는 이조(李朝)에 들어서서도 주된 공헌품이 되고 있었다[14]. 당시의 목축은 우마를 보통 농가에 일정두수 배정하여 부역으로서 거기에 책임을 지우고 도망시켰을 때에는 처자를 팔아서라도 갚도록 했던 것이다[15]. 또 교래리나 어승생악(御乘生岳) 아래의 여러 마을은 관우마 감시(官牛馬 監視)를 위하여 특설된 것으로 그 시대를 도사(島史)에서는 관권시대(官權時代)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國政)의 퇴폐와 함께 이러한 우마의 소유권은 점차 감시인인 촌민(村民)의 손으로 옮겨지고 도민의 자주적인 목축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0년대 초에서부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해산물의 판로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해촌에서는 스스로 목축을 영위함이 없이 가축을 양·산촌에 위탁하게 되었다. 해산물의 판로확장보다는 늦어서 1930년대에 들어가면 우마의 판로가 열렸으나 이때 이미 감소한 양·산촌

12) 高麗史 第五七卷 地理志.
13) 同書.
14) 李某,『耽羅地圖序』.
15) 李健, 前揭書.

의 인구로는 노동력을 댈 수 없어서 육지인의 입도(入島)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들 육지인들은 우마나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자력을 갖지 못한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어떤 사람은 소작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민과 함께 황무지 개간에 나서 당면한 식량을 우마의 감시에 의해 얻고 있었다. 조천면의 원(院)과 같은 마을은 마침 커다란 양촌과 해촌의 바로 위 목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락의 위탁에 의한 우마의 감시로 생계의 3분의2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점차 도내에 있어서의 지역적 분업이 나타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과도적상태에 있는 어로(漁撈)와 목축노동은 농업의 그것과는 달리 유동적이며 몹시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다음으로 목축노동의 주체를 이루는 방목우마의 감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예를 산촌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그들은 들불을 놓은 목야에 새 풀이 돋아날 무렵 좁은 휴한지 돌담으로부터 우마를 방출, 햇볕 잘 받는 좋은 풀이 풍부한 곳에 이것들을 데려다 놓고선 돌아온다. 그래서 매일 혹은 격일로 아이들(12~13세)이 이것들을 망보러 나간다. 그런 가운데 농번기가 닥치면 쟁기 끄는데 필요한 소나 조 밟기를 위한 「마쉬떼(말떼)」를 적당한 장소에다 데려다 놓는다. 그 밖에는 마을의 크기에 따라 소와 말을 별도로 2~3개군으로 나누어 각군(各群)을 돌담이 쳐진 약간 넓은 휴한지로 몰아넣어 소유자의 각 가족들로부터 교대로 감시인을 내게 한다. 농번기가 끝나게 되면 감시업무는 각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재차 산지에 방목하고 그렇게 빈번히 망보러 가지는 않게된다. 이와같이 해서 겨울이 닥치게 되면 남자들도 산 속의 우마를 여기 저기 찾아다니고 이것들을 좁은 휴한지로 몰아들이는데,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탐색은 겨울이 되어도 계속된다. 산 속에

서 해를 넘긴다든지 폐사(斃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겨울철 사료는 목초용 긴 낫으로 베어들인 잡초를 건조시킨 것을 이용한다. 목초 베기는 우마를 가진 가족의 중요한 노동으로서 겨울철에 있어서의 우마의 탐색과 함께 남자의 일이다. 해촌의 목축노동은 약간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 무렵엔 몇 세대의 우마를 한데 모아 특정한 개인에게 감시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촌리에서는 토지와 사람 손이 부족한 집에 우마의 감시를 맡긴다. 바꿔 말하면 빈곤한 가족에게 부락전체의 우마의 감시를 의뢰한다. 그 대상(代償)으로 의뢰한 사람은 봄·가을 두 번 보리를 5승씩, 의뢰하지 않는 사람도 2승씩 수여한다. 즉 사회보장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마의 감시책임은 의뢰받은 가족에게 있으므로 감시하는 방식도 성실하다. 그 가족은 10세 정도의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대로 낮엔 우마를 쫓아 산야를 거닐며 저녁에는 목야의 돌담안에 넣고 돌담이 부서지면 수리하고 있었다. 천재(天災)는 감시자의 책임 밖이며 예컨대 큰 비에 의해 우마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용서된다. 또 신촌리와 같은 마을에선 1년에 1백20원정도로 이를 일가족에게 맡기고 있다. 그밖에 조천리와 같은 큰 부락이 되면 신촌리등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원촌(院村)에 위탁하고 있었다. 흰구름 떠다니는 한라산과 그것을 에워싼 애기중 같은 측화산(側火山) 기슭에 펼쳐진 초원을 「사낭 소리」나 「속히 갑시다 소리」를 소리높이 부르며 수백마리의 우마군을 끌면서 건너가는 소년소녀의 모습은 이 섬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다.

「소가 고비를 돌았을 때 곧장 가라」고 하는 소리 = 이로 이로 호

「말에게 빨리 가라」고 하는 소리 = 호 호 호 호

이밖에 감시에 대한 노동과 마산(馬産)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마계(馬契)가 와산리 문미마을에는 볼 수 있었다. 몇 사람이 처음에 각자의 말을 갖고 와서 그 중 몇 마리를 팔아 그것으로 망아지를 보다 많이 구입하고 이것을 키워서 팔아 다시 망아지를 구입한다. 그 무렵은 8가족이 일단이 되어 계를 조직하고 말을 산지(山地) 깊숙히 내쫓지 않고 여름엔 열흘 걸러로 겨울엔 매일 각 가족이 감시를 교대한다. 만일 말이 도망갔을 적에는 공동책임으로 전원이 찾아나서므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우마의 목축은 가족 중에서는 남자와 아이들의 노동으로 일부의 우마는 쟁기와 조 밟기,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지만 그것은 사육되고 있는 전부가 아니며 매매되는 것도 적지 않다.

여자의 손에 의한 축산은 양돈과 양계이다. 돼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가 각 가정의 변소에서 키워지는 것인데 분뇨는 비료로서 사용되며, 이의 사육은 손이 별로 들지 않으므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교배는 숫돼지를 암돼지 사육자가 빌어서 한다. 그리고 교배 후에 앞에 말한 것처럼 고환을 즉각 빼내어 거세를 하는 것이다. 양계는 완전히 원시적인데 다만 집안 들보에 닭집(사진 40)을 만들어 그 속에 계란을 낳게 한다. 이것은 아마도 뱀으로 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사(鷄舍)를 특별히 만든다든지 사료를 주는 일도 드물다.

목축에 관한 금기(禁忌)로서는 해일(亥日)에 돼지를, 유일(酉日)에 닭을 잡으면 그후 번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축일(丑日)에 소를 매매하면 기르는 소가 모두 병에 걸린다고도 한다. 더욱이 앞에 말한 것

처럼 그 날에는 집 근처에 있는 소에게 콩·보리를 주도록 되어있다. 말에 대해서는 오일(午日)의 금기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와산리에서는 선흘리와 말 매매를 하는 것을 사람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싫어한다.

제5절 어로와 가족

가) 어업과 그 기술

제1장에서 말한 것처럼 본도는 어개류(魚介類)가 풍부하고 난류와 한류와의 회합점(會合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의 연안어업과 나잠(裸潛) 및 마미초(馬尾草·주≡여기서는 해조 전체를 지칭하고 있음) 채취 정도의 어로 외에는 발달하지 못했다. 그런 때문인지 해촌에서도 농업이 생산활동의 주체를 이루고 어업은 부업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따라서 섬의 경제중심은 1925년경까지는 농업상의 조건에 혜택받은 양촌에 있었음은 이미 기술한 대로이다. 어업은 일반적으로 천업시(賤業視)되어 양촌의 남자가 해촌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나체로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10년 이래 경제의 중심이 해촌으로 옮겨진 이후는 양촌사람들의 이제까지의 사상과는 거꾸로 「어떻게 산촌 사람을 색시로 맞을 것인가. 바다에도 들어가지 못하하는 여자를…」이라는 생각이 해촌 남자를 휩쓸었다.

자리그물어업 : 이것은 섬에도 널리 펼쳐있는 어법으로 동국여지승람에는 「不用罟置」[16]라고 되어 있으나 자리그물은 얼마 안되는

1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재래어법의 하나로서 전도에 6백50통(統)의 그물이 있고[17] 다음에 말하는 일본조(一本釣), 연승어업(延繩漁業)의 미끼(이껍)도 자리그물에 의하여 공급된다. 말하자면 본도의 기본적어법인 것이다. 자리(사진 41)는 이 섬 연안의 특산이다. 길이가 8~12㎝의 가느다란 은빛 고기로써 떼를 지어 연안, 특히 작은 섬 주위를 유영(遊泳)한다. 예전부터 도민이 잡아 올렸던 고기 중 주된 것으로, 이것을 젓으로 담근 자리젓은 도민이 즐겨 먹는 것이다. 자리그물은 주위 4m 길이 3m 정도의 크기로 눈은 가늘고 모양은 방추형(紡錘形)을 이루어 그 안에는 둥근 나무테가 붙어 있다. 이것을 「떼배」(그림 20·방언으로는 테우라고도 함)에 싣고 바다로 나가 자리가 모이는 곳에 내린다(그림 21). 자리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군생(群生)하는 고기임으로 한 마리가 그 그물 속에 들어가면 한 무리가 전부 들어가게 되어, 이 같은 간단한 어법이긴 하지만 어획은 많다. 어기(漁期)는 5월에서 8월 사이인데 이 기간을 놓지면 자리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 어법의 요령은 자리떼가 모이는 곳을 알아내는 것과 그물을 걷어올리는 시기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사진 41).

<그림 20> 筏 舟

17) 島內統計는 全羅南道濟州島『1937年 濟州島勢要覽』및 島廳統計에 따름.

<그림 21> 자리잡기

일본조(一本釣) : 원칙적으로 자리어기가 시작될 때부터 10월말까지 주로 행해진다. 떼배를 난바다로 띄워 외줄(술)에다 낚시를 달아 깊숙이 떨어뜨려 손으로 낚는 것이다. 주된 어획은 갈치이다. 경비가 들지 않으므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가장 뛰어난 미끼는 자리이다. 이것을 마리채 배에서 입으로 바늘을 꿰어서 쓰는데 자리어기가 끝나면 멸치를 대용으로 한다든지 의이(擬餌)로서 천조각을 사용한다. 일본조는 다음에 말하는 연승어법(주낙)이나 멸치그물의 발달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으나 뭐니뭐니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전도에서 일본조 어구가 1천2백69통이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연승어법(延繩漁法·주낙) : 곳에 따라서는 「삿내끼」라고도 불리는데 전라남도에서 근년에 건너온 어법이다. 어획물이 일본조(一本釣)에 비하여 매우 많은데 비하여 경비가 별로 들지 않으므로 순식간에 전도로 확대되었다. 그 무렵 이미 전도의 연승어구는 3천8백60통의 다수에 이르고 있었다. 이 섬에서 사용되고 있던 연승은 길이 50길(尋·한 길은 두팔을 좌우로 벌린 길이 약1.8m) 정도의 큰 그물 양쪽에 석유관 같은

통박을 달아 이 그물에 20~30개의 낚시줄을 연결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한 조(組)를 대 또는 엷은 널판으로 만든 하나의 바구니 속에 넣어 배 한 척에 이것을 10개정도 싣고서 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조류를 감안해 가며 연승을 흘린다. 미끼는 일본조와 거의 비슷하지만 때로는 작게 자른 소라를 사용한다. 이렇게 몇 시간을 흘려 두었다가 한쪽에서부터 끌어올린다. 연승에서 잡아올린 고기는 주로 돔·북바리·민어 등이다. 그 무렵엔 흘려둔 연승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려놓은 연승에 맞붙어 감시를 했다. 밤을 새워 흘려 보내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어기는 자리와 거의 같다.

지예망(地曳網)어법(후릿그물) : 여기에는 소위 후릿그물로 큰그물, 중그물 등 두 종류의 그물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물의 크기의 차이로서 기술이나 노동의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뭐니뭐니해도 그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므로 그물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은 적으며 대부분은 어업조합에서 공동출자해 구입하고 있다. 전도의 멸치그물은 그 무렵 겨우 9통에 불과했다. 후릿그물어법은 멸치잡이에만 이용된다. 바위가 적은 해변에서 멸치떼를 발견했을 때 배에 타서 그림과 같이 그물을 가라앉혀놓고 이것을 포위, 점차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그림 22). 사용후 그물은 해안의 바위 위에 널어서 말린다. 이 때에 수리도 한다. 후릿그물이 섬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이후의 일로서 그물에 대한 지식도 얕다. 그물은 오사카에서 구입해온다. 그물은 해안에 만들어진 그물막이라고 칭하는 네 발 달린 바닥 높은 통에 넣어서 보존된다(사진 74).

그밖에 전라남도의 어부가 출가(出稼)해 와서 행하고 있는 어법에 소위 분기망(焚寄網)이 있다. 이것은 후릿그물보다도 비용이 들지 않아

<그림 22> 후릿그물

서 그 무렵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목적하는 고기는 역시 멸치로서 그물의 모양은 자리그물과 비슷한데 길이 3길(尋)의 삼각추형(三角錘形)의 것이다. 「멸치가 바다를 빨갛게 물들여 올 때」, 밤이 되어 난바다로 나가 그물을 배곁에 드리우고, 7백촉광(燭光)에서 1천촉광 정도의 카바이트램프를 비추면 멸치떼는 빛에 끌리어 배 주위에 몰려든다. 이것을 그물로 건져 올리는 것이다. 그들의 지식에 의하면 「바다를 하얗게해서 온 멸치는 빛에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불길로 끌어들이기는 어렵다」고 한다. 육지어부들에 의해 섬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법에는 다시 유망(流網), 안강망(鮟鱇網) 등을 들 수 있으나 도민들은 거의 이것들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본도와 육지의 어업자, 섬의 어항(漁港)을 이용하는 일본인 어업자의 어획고를 보면 1936년도에 있어서 일본인종업선수(從業船數)는 6백86척, 승무원 5천78명으로 1백41만6천3백25원의 어획을 올리고 있는데 비하여 조선인측은 종업선수 2천1백23척, 승무원 1만8천3백19명에 76만7백7원의 수확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나잠의 어획고를 제외하면 선수(船數) 및 승무원수는 변치 않으므로 어획고는 42만7천9백10원이 된다.

이 가운데 다시 전라남도로부터의 출가어부의 수입을 제하면 도민어부의 수입은 30만2천7백50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섬 근해에서 대규모로 어로를 행하면서 한림·서귀포·성산포·제주산지(사진 79) 등 여러 항구를 이용하지 않는 관외(管外) 일본어선의 어획고 예상은 36년도에 79만4천2백36원에 오른다. 이에 따라 제주도근해의 어류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거의 입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명백하다. 더욱이 이같은 상태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나) 어업노동(漁業勞動)의 형태

제주도 근해의 여러 섬 즉 추자본도·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에 있어서는 어업으로 생계의 절반을 이어가는 사람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도에 있어서는 어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부업으로서, 순수한 어촌은 볼 수가 없다. <표 17>은 1936년도의 제주도 수산업자의 총수이다.

<표 17> 男女漁撈從業者統計

	戶 數	人 口	
		男	女
專 業	999	1,161	860
兼 業	7,714	2,767	7,513
被 傭 者	1	-	1

(1937年 濟州島勢要覽에 따름)

이것으로 제주읍·조천면·안덕면·서귀면 등에선 전 호구의 70%까지가 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면에서는 약 50%가 어업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어업자 가운데 생계의 절반이상을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업어가(專業漁家)는 매우 적다.

×：筏舟
△：日本배 또는 朝鮮배
○：動力船
(島廳統計에서 作圖)

<그림 23> 漁船分布圖

자릿그물어업은 남자 손이 많은 가족에서는 가족단위로 행하지만 그 무렵과 같이 출가 때문에 남자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두 가족의 남자가 공동으로 2명 내지 3명이 출어한다. 그러나 세 가족이 공동으로 행하는 일은 드물다. 대부분은 한사람이 배를 젓고 1명 또는 2명이 그물을 던진다든지 끌어올린다든지 한다. 배를 저을 때의 노래를 「놋소리」라고 한다.

이야도사 이야도사.
(우도에서 채집)

어획물의 분배는 그물과 배를 갖고 있는 쪽이 6,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4라는 비율이 이 섬의 관행이다. 기간은 앞에 말한 것처럼 5월에서 8월 사이로 일본조와 주낙의 기간도 대부분이 겹친다. 일본조는 가족단위로 남자에 의하여 행해진다. 특히 조(組)를 짜는 일 없이 한 두명이서 난바다에 배를 저어 나간다. 사용되는 배가 작기 때문에 2~3일간 바다에 머무는 일은 없다. 대부분은 마을에서 하루 왕복의 행정(行程)으로 저녁에 나가 아침에 돌아오는 것.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등 두가지이다. 어기 중에는 우마는 특정의 감시인이나 산촌에 맡겨지며 농사는 주로 여자가 맡아 한다. 그녀들은 동시에 나잠노동에도 종사하므로 남자에 비하면 특히 바쁘다.

주낙(연승)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자리그물과 거의 비슷한 기간에 행해지고 있으나 한배에 타는 인원은 남자 4명으로 정해져 있다. 전에는 한가족의 노동력으로도 행해졌으나 그 무렵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두 가족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세 가족 이상 공동으로 행하는 일은 자리어법과 마찬가지로 극히 드물다. 그것은 분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구를 한쪽이 제공했을 때에는 자리그물과 같은 분배율에 따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쪽이 배와 미끼를, 다른쪽은 주낙을 제공해서 5대5의 분배를 실시한다. 일본조와 마찬가지로 행동의 범위는 하루로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한도로 하고 있다.

후릿그물어업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조합에서 그물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항시 조합이 주체가 된다. 예를 북촌리에서 찾아보면 조합원은 15명으로 그들이 공동출자로 그물을 샀다. 그중에서 인격자이자 연로한 부모씨가 조장(도감)에 추대되어 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 조합원이 일하고 있었다. 즉 멸치떼가 연안에 몰려오는 시기는 해마다 달랐으나 어디로 부터든지 멸치가 왔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바다가 잘 보이는 해변에 관망대(觀望臺)를 세워서 조합원이 매일 교대로 망을 보는 것이다. 파랗게 맑은 바다에 멸치떼가 밀려오면 빛깔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새파란 바다 밑에 붉은색 해조덩어리 같은 것이 근접해오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면 감시자는 고동이라는 피리를 분다. 조합원들은 바닷가에 모여 그물막 속에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그물을 끄집어내어 각자 배

를 타고 저어나간다. 그런 가운데 조합원의 가족은 전부 해변에 나와 그물에다 도로레를 장치, 그물을 잡아 끄는 것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조장이다. 분배는 평균분배로서 각 조합원 가족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만일 어획물을 모아 판매를 했을 때에는 매상금을 평등하게 나눈다. 한편 수리비용도 조합원이 평등하게 지불하는 것이다. 딴 노동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노력을 빌렸을 경우는 노동으로 반제(返濟)하는 것이 섬의 관습이지만 어업에서는 획득물을 그 물건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함으로 노력으로 반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어획이 우연에 지배되는 일이 많으므로 그 날의 노동과 내일의 그것과는 같은 결과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후릿그물을 제외한 도민의 어업에 있어 일가족 이상의 가족이 일을 할 때에도 그러한 공동은 늘 한 번뿐의 결정으로 정해지고 2회, 3회씩 항시 공동하는 것 같은 특정한 가족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써 수시로 극히 우연히 자유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어업에 관한 노동의 형태를 살펴볼 적에, 일가족의 남자들에 의해 행해지던 노동이 두 가족의 결합으로 되고, 마침내는 전원 십수가족에 이르는 조직적 조합의 설립으로 까지 발달해오고 있다. 그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해산물의 판로 확장에 의한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나 한편으로는 가족 내의 노동력의 감소도 간과할 수가 없다. 또 어선을 위해서 각 해촌은 각각 밭이나 부락의 도로, 그리고 목장에 경계의 돌담을 용암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튼튼한 선창(방파제. 사진 26)을 만들고 있다. 이 건설과 수리는 전적으로 부락에 맡겨 있어서 어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공동작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락의 어업 활동의 중심은 선창인데 거기

에는 각종의 배가 매어있고, 그물보관소나 멸치감시대도 이 부근에 있으며, 바다에 제사지내는 신당(神堂)도 선창에 인접해서 마련돼 있다. 그들의 배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직 원시적인 떼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파도에는 특히 약하다. 그 때문인지 주민들의 바람에 대한 지식은 매우 발달해 있다. 즉 북쪽의 반어촌(半漁村)에서의 그것을 말로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들은 동풍을 샛바람, 남풍을 마파람, 서풍을 갈바람, 북풍을 하늬바람, 북동풍을 놉세, 동남풍을 갈마바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는 북풍과 동풍이 가장 심하며 이 바람이 불 때에는 출어를 하지 않는다. 동풍이 불어 구름이 동으로 흐를 때에는 폭풍(놀)의 전조로서 연해에 출어하고 있는 떼배는 시급히 선창 안으로 피난한다. 또 동풍이 불고 뒤에 북풍이 불면 천기가 좋아짐으로 배를 준비해서 기다리라고 전해진다. 한편 여름에 갑자기 오는 비를 「소나기」라고 하고 장마비를 「마」라고 하는데 자리가 잡히는 때이다.

종교적 행사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종합해서 말하겠지만 어업에 관한 간단한 금기사항을 들어본다(북촌리와 우도에서 채집).

① 출어를 위해 선창을 향해 가는 길에 여자가 길을 가로지르면 고기가 안 잡힌다.
② 마찬가지로 출어하는 길에 빈 물허벅을 보면 고기가 안 잡힌다.
③ 출어 전야에 타인과 싸운다든지 사람을 죽인 꿈을 꾸면 고기가 안잡힌다. 즉 꿈자리가 나쁘면 안된다.
④ 출어 중 거북(玳瑁)을 보면 고기가 안잡힌다. 거북이 그물 속에 걸려도 결코 죽여서는 아니된다. 또 출어 중에는 거북(대모)이란 말은 금구(禁句)이며 「용왕 셋째딸(말젯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

⑤ 고래도 또한 금구로서 영감이라고 불러야 한다.

⑥ 물에서 죽은 사람은 사체가 떠오르지 않는 한 장례를 치러서는 아니된다. 만일 사체가 떠올랐을 경우에는 마을전체에서 장례는 치르지만 그 뒤의 제사는 사자의 가족만으로 행한다. 이 두가지 금기를 깨뜨리면 해상을 헤매는 사자의 망령(亡靈)이 출어 중에 올라 타서 허광(虛狂)이 되어, 소리는 마치 그 사자와 같이 나오고 자기 부친을 자기 자식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전해진다.

다) 나잠(裸潛)과 그 기술

제주도라고 하면 해녀를 연상(連想)하리만큼 섬의 해녀 즉 잠녀는 유명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서동이전(唐書東夷傳)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려사지리지·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사서(史書)에는 잠녀에 관한 것이 씌여 있지 않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뒤의 두 책의 편찬을 맡았던 양성지(梁誠之)는 제주사람이었다[18]. 육지에는 지금도 잠녀를 볼 수 없으므로 그 무렵 만일 제주도에 잠녀가 있었더라면 풍속 중에서 한마디 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물며 편자(編者)가 몰랐을리는 없다. 그런데 이들 서적보다 1백수년 뒤에 나온 제주풍토기[19]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어서 손에 잡히듯 잠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중에도 천한 것은 곽(藿·미역)이다. 미역을 캐는 여자는 이를 잠녀라고 부르고 2월부터 이후 5월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채취해 나오는데 남녀가 서로 뒤섞여도 수치스러움을 모르

18) 今西竜, 「東國輿地勝覽에 대해서(第一回)」, 『朝鮮學報』, 第一卷 第一號.
19) 李徤, 「濟州風土記」, 『朝鮮學報』, 第一卷 第二號.

므로써 해괴함을 보여준다. 생복을 캐는 것도 이와 같다. 채취한 것은 관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을 해결한다. 그 생리적 고통이 말로 다 하기가 모자란데 만일 부정한 관리가 있어 탐욕한 마음을 함부로 부린다면 바로 교묘하게 명목을 붙여 거두어가는 일이 헤아릴 수 없다. 1년의 소행(所行)으로 그 소임을 다 할 수가 없으며 하물며 관청의 거듭된 수납에 고통을 받아 이같이 함부로 날뛰는 관리들의 폐단은 그 기강이 극도에 달한다. 그래서 어찌 의식의 자료를 바랄 수 있으랴. 이러기 때문에 만일 탐관(貪官)을 만나게되면 잠녀들이 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소위 기묘사화(己卯士禍·李行健에 앞서기 약1백년)에 관련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제주에 귀양의 몸이 됐던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20]에는 잠녀의 기록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문헌적 전색(文獻的 詮索)으로부터 제주도의 잠녀가 서기 1481년부터 1629년의 1백47년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양성지는 제주사람이고 주자학(朱子學)이 한창이었던 이 시기에 만일 그가 비록 잠녀에 관한 일을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자기의 고향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나체가 되는 것을 관제(官製)의 사서(史書)에 쓸 수가 있었을 건인가. 또 김정은 유교개국(儒敎開國)을 기도했던 사나이였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붓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했던 것은 아닐까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인가. 왜냐하면 주자학과 나잠행위는 서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섬에 유교의 영향이 강해지게된 후에 잠녀가 나타났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현재 섬의 잠녀가 나잠에 의해 얻어지는 연간총수입은 193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33만2천7백97원에 이르러 도민의 남자가 어업으로 얻

20) 金淨,『濟州風土錄』. 入手하기 어려운 書籍이지만 古川濟州島々司로부터 빌렸다.

을 수 있는 총수익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표 17>에서 이미 나타냈던 것처럼 도내의 어로종업자는 여성이 많아 남자어부 3천9백28명에 대하여 8천3백73명이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내 잠녀의 분포를 개관해보면 애월·대정 등 서쪽의 2개면과 구좌·정의등 동쪽 2개면이 가장 조밀하며 그중에서도 부속도서인 가파도와 우도는 특히 밀도가 높다. 그것은 잠녀의 주요 수확물인 해조류가 해저(海底)의 지형·해류·기온 등에 영향받는 일이 크기 때문이다. 섬의 동쪽은 바다가 깊은데다 용암 암반이 노출돼 있어서 난류가 정면으로 이와 충돌하기 때문에 해조류의 발육을 도와줌과 동시에 유착(流着)하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의 동쪽에서 채취되는 해조류의 주된 것은 우뭇가사리·미역·감태·마미초(馬尾草)등이다. 한편 서쪽 비양도부근은 1008년경까지 화산활동을 보이고 있던 지역으로 바다가 깊고 암반이 노출된 데다 난바다에서 한류·난류가 맞붙어 역류해온 난한이류(暖寒二流)가 그 해변을 스쳐지나기 때문에 미역·감태·우뭇가사리·마미초 등이 풍부하게 자란다.[21]

이와같은 해조류가 모이는 곳으로서의 섬의 해안은 남김 없이 이들 마을의 나잠어장에 점유돼 있고 거기에서는 비료로 사용되는 마미초(馬尾草·여기서는 둠북을 뜻함)가 주로 채집되고 있다. 또 소라나 전복과 같은 조개류의 채집도 부락의 나잠어장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예전부터 이와같은 어획물은 즉시 환금(換金)되었기 때문에 특히 제주·한림·서귀포·성산포 등 도읍부근의 잠녀가 다투어 채집하였다. 이와같은 패류는 전에는 도민의 주된 공물(貢物)이었음과 동시에 식량이기도 했다. 그런데 1900년 이래 가장 비싼 환금생산물이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무렵부터 도민의 입에는 들어 가지 못하게 되었

21) 桝田一二,「濟州島海女의 地誌學的 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二輯下.

다. 그들의 패류 먹는방법은 독특해서 우선 바깥껍질을 돌로 부수어 속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촌 도처에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패사(貝砂)를 볼 수가 있다.

본도의 잠녀는 일본의 해녀보다도 추위에 강하고 또 임신 월경중이라도 꺼리지 않고 사계절에 걸쳐 조업한다. 잠수를 할 때에는 「소중기」라고 칭하는 남색 무명의 수영복을 입는다. 이것은 앞면은 유방까지 덮지만 뒷면은 노출돼 있고 가느다란 천이 열십자로 하부에 붙어 있다. 바가지에 그물이 붙은 태왁과 호미 또는 「빗창(조개를 따는 것)을 갖추고서 「눈(물안경)」을 끼고 잠수한다. 이 안경은 그무렵 이미 일본제를 구입해오고 있었으나 그녀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 자기들이 유리를 사서 만들었던 것이 훨신 밝아서 일하기가 쉬웠다고 한다. 배로부터 잠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바닷가로부터 헤엄쳐 나가 잠수하는 경우도 있다. 헤엄치는 방법은 거의가 평영(平泳)과 서서 헤엄치는 것인데 잠수방법은 일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즉 입영(立泳)의 자세로 바닷물에 얼굴을 들이밀고 어획물을 찾아나서는데 발을 세게 구부려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머리는 재빨리 수중으로 집어 넣고 몸을 뻗어 발을 위로 흔들며 침하속도(沈下速度)를 빨리 한다. 신체가 완전히 물 속에 빠지면 발을 차듯이 움직이면서 손으로 양 겨드랑이를 휘저으며 내려간다. 해조를 캔다든지 조개를 뜯을 때에는 손 동작이 바뀔뿐 수중의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 1회의 잠수가 끝나가게되면 신체를 꺾어 다리를 아래로 내리고 세게 바닷밑을 차면서 뛰어오른다. 수면으로 떠오름과 동시에 「휴」하고 숨을 내쉰다. 이것을 섬 방언으로는 「호이」라고 한다. 잠수시간은 1분에서 1.5분이며 잠수 깊이는 10길까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4~5길 자리에서 작업을 한다. 이와같은 잠수를 30회 내지 70회정도 되풀이한 후 상륙해서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 몸을 따

뜻하게 한다. 이와같은 일련의 노동을 신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회 또는 4회 반드시 태왁을 해중에 가지고 가서 그 주위에서 잠수하는 것은 일본해녀가 띄움통(浮樽)을 갖고서 바다에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이 그녀들의 해상에서의 잠수근거지인데 어획물은 태왁 밑에 달려 있는 그물안에 넣으며 피로한 때에는 바가지를 붙잡고서 몸을 파도에 맡긴다. 이 섬의 잠녀들은 맨몸으로 잠수하는 심도(深度)에 있어서나, 천후나 계절에 대한 강도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일본의 해녀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전에 조선 연안에서 일하고 있던 이세(伊勢)해녀들을 쫓아내어 육지는 말할 것도 없고 쓰시마(對馬)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 더 나아가서는 만주(滿洲)에 까지 출가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나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자아이가 7~8세가 되면 선창 안이나 썰물때의 바닷가에서 어머니의 흉내를 내며 헤엄치는 연습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이것을 직접 지도하지 않고 아이들끼리만 헤엄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10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태왁을 얻는다. 이번엔 이것을 부낭(浮囊)으로 해서 약간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 잠수연습을 하지만 아직 어획물은 잡지 않는다. 14세가 되면 비로소 안경·호미·빗창 등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어획물 잡기에 나선다. 이때에 잠녀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다. 16세가 되면 잠녀조합의 회원이 되고 겨우 한사람 몫의 일을 하게된다. 이렇게해서 잠녀생활은 50세까지 계속할 수 있다. 그 사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는 16세에서부터 35~36세까지일 것이다. 따가운 남녘 햇볕을 쪼이면서 해녀생활을 보내는 그녀들의 체격은 당당한 것인데, 피부는 적동색(赤銅色) 그리고 머리도 적갈색으로 변한다. 해녀가 많은 지방의 아이들은 집에서 따로 강요하지 않아도 또 양친이 없어도 보고 들으면서 훌륭한 잠녀로 되어가는 것이다.

라) 나잠노동(裸潛勞動)의 형태

앞에서 이미 말한 것 처럼 제주도의 나잠어업자는 모두 여자이다. 나잠은 제주도에서의 가장 확실한 여자의 직업아리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촌에서는 1호당 평균 1명 이상의 잠녀를 가진 가족이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녀들의 나잠노동이 가계의 태반을 지탱해준다. 게다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은 거의 여자의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촌의 여자는 매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위에 나잠노동의 방식은 남자의 어업과는 전혀 모양을 달리해서 획득물의 판로가 넓어지고 잠녀조합이 창설된다든지 출가가 늘어나도 도구나 기술에는 조금도 재래(在來)의 그것과 변화된게 없다.

나잠(裸潛) : 제주도에서는 농번기와 해조의 채취기가 거의 일치해 있으므로 그 기간 여자들은 바빠지며 더구나 능숙하게 일을 한다. 그러나 여자들이 아무리 분주해도 남자들은 그것을 돕지 않는다. 7, 8월의 잠녀의 하루생활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자들은 아침 2시간은 밭에서 김매기에 종사한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땀을 훔쳐내며 “물질하러 가자”고 말하면 갑자기 수명 또는 십수명이 일어나서 집으로 향한다. 바다에 가까운집 사람은 집에서 소중기로 갈아입고 오지만 대부분은 태왁 속에 소중기를 넣어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닷가 바위그늘에서 갈아 입는다. 배로 난바다에 나갈때에는 젊은 남자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해서 잠수하러 나갈 때에는 반드시 무리를 지어, 개인적으로 나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가는 친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집단으로 일을 해도 어획물은 자기가 잡은 것은 자기 것이 되며 딴사람이 잡은 것은 딴사람 것

이다. 잠수를 일연속(一連續)이나 이연속 계속하면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은 다음 다시 밭으로 나간다. 오후 4시쯤이 되면 바다가 따뜻해진다. 다시 누군가가 "물질하러 가자"고 말하면 줄줄이 바다로 나간다. 이번엔 저녁노을이 해상에 피와 같이 흐르고 화산자갈(火山礫)이 흩어지는 산간지대가 보라색으로 빛나기까지 그녀들은 일을 계속하고 해가 질 무렵 용암의 언덕길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사이 남자들은 아이들을 보거나 잡담들을 하거나 낮잠들을 자며 느긋하게 보낸다. 잘못해서 바닷가로 나가 여인들의 잠수 모습을 지켜보다가 "개에게나 먹혀 버려라"는 고함을 듣고는 당황하여 도망치기 일쑤다. 폭풍 뒤에 해조 무더기가 부락의 나잠어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때에는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건 파종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가총출동하여 손잡이에 양다리가 달린 긴 막대기(곤체기떼)나 낫 달린 막대기(장호미) 등을 손에 잡고 해안으로 모인다. 각 가족이 경쟁으로 해조를 쟁탈, 한바탕 전쟁소동을 벌인다. 겨울엔 농사가 없어 여유있게 잠수를 할 수 있을 테지만 평균온도가 섭씨 5도8분으로 해수는 그보다 따뜻한 곳이 많으나 아무래도 물은 차갑고 게다가 일부 해조는 금채기(禁採期)이기 때문에 조개류밖에 채취가 안되므로 여자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회수도 인원수도 훨씬 적어진다. 우도 잠녀들의 1년을 통한 나잠상태를 나타낸 것이 <표 18>과 같은데 이와같은 노동실태가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나잠어장(裸潛漁場) : 정확한 용어를 찾지 못해 나잠어업권구(裸潛漁業權區) 혹은 나잠어장이라고 불렀지만 요컨대 어느 부락의 지선어업권(地先漁業權)의 일종에 의해 관할되고 있는 해안으로, 바꿔 말하면 그

<표 18> 牛島潛女의 潛水表(各月은 陰曆)

各月別	月別 潛水日數	日別 潛水回數	採 取 物
1월	20日	2回	미역, 우뭇가사리 다소
2월	14日	2回	미역, 모자반(듬북) 다소
3월	28日	2回	모자반, 미역 다소
4월	28日	2回	되는대로
5월	28日	3~4回	우뭇가사리 그밖에는 되는대로
6월	28日	2~3回	전복, 소라
7월	28日	2~3回	감태, 기타
8월	28日	2~3回	감태, 기타
9월	10日	1回	감태, 기타
10월	10日	1回	감태, 기타
11월	7日	1回	전복, 소라
12월	7日	1回	전복, 소라

부락의 잠녀는 당연한 권리로서 나잠할 수 있지만 딴 부락의 잠녀 입어는 허용되지 않는 해안을 말한다. 이 섬에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로에 대하여는 그러한 전용어업권(專用漁業權)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나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며 따라서 분쟁이 때때로 일어난다. 제주도의 연안은 전부 이와같은 어장으로 점거되어 있다. 나잠어장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촌이어서 행정구획으로서의 이(里)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화북리를 예로 든다면 화북리 제1구인 별도(別刀) 및 파단은 나잠어장을 가지고 있으나 제2구인 거로(巨老) 및 부록동은 해안에서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나잠어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들 부락사람들은 해안으로 떠밀려온 해초 중에서 둠북 이외의 것은 채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신촌리에 있어서는 2개의 해촌인 원당(元堂)과 신촌과의 나잠어장은 둠북 기타 해조류에 대해서

는 2개로 나뉘어 패류는 어디에 들어가도 무방하다. 이와같이 구체적으로는 나잠어장에는 복잡한 관행이 있고 특히 둠북의 채집에 있어서는 딴 마을의 나잠어장에 들어가 있다든가 나잠어장의 경계가 틀린다든가 해서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 또 둠북에 관한 관행으로서는 가족간에도 아버지가 채취한 것, 어머니가 채취한 것, 아들이 채취한 것 등 각각 별도의 눌(퇴적물)을 만드는 부락조차 있다.

한편 딴 마을의 나잠어장에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게 아니라 관행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어떤 마을이 특정한 딴 마을의 나잠어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돼온 경우도 있고, 또 특정한 가족에 있어서는 딴 마을의 나잠어장에 일정기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2원 정도를 딴 마을에 지불하여 연간 어업권을 살 수 있는 일도 있다. 어업권을 팔 때에는 각 마을의 사정에 따라 좀처럼 허용되지 않은 마을도 있는가하면 허용된 경우에는 소라, 전복, 미역 등 3종에 국한되며 둠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나잠어장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자연촌에 소속되는 것으로 그것은 그 마을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권리이다. 따라서 딴 마을에 시집 간 여자는 출생한 마을의 나잠어장에 나잠하는 권리를 잃지만 출가한 집이 속하는 나잠어장에서 일할 권리를 자동적으로 획득한다. 그러나 만일 시가가 속하는 마을에 나잠어장이 없을 때에는 나잠권리를 잃게되는 것이다. 또 나잠어장을 갖고 있지 않은 마을, 또는 딴 마을 혹은 육지로부터 가족전체가 이사 온 경우에는 이사한 마을의 나잠어장에 나잠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이와같은 가족의 여인들은 잠녀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므로 우수한 잠녀를 색시로 맞아들이지 않는 한 그와같은 가족이 우수한 잠녀를 얻는데는 세대(世代)의 교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잠녀의 출가(出稼) : 제주도 잠녀의 우수한 재능이 도외에서 발휘된 것은 1900년경 부터인데 처음에 일본에 가고 얼마 후 나잠어업의 전혀 미개척지였던 육지 연안으로 진출하였다. 그녀들은 강원도 부근에서는 이세(伊勢) 해녀와 심한 경쟁을 벌여 완전히 이를 내쫓고 마침내는 반도 연안 일대의 나잠어업권을 「입어관행보존등기(入漁慣行保存登記)」의 형식으로 획득하고 말았다. 그녀들은 보통 봄 2월경 범선에 20명에서 30명이 한조(組)가 되어 타서 1명 또는 2명의 남자 사공을 거느리고 우선 전라남도 해안으로 간다. 거기서부터 차츰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9월하순에는 청진(淸津)에 도착, 여기서부터 기선으로 조 수확기까지에는 귀도하는 것이었다. 1930년 종반에는 기선을 이용하여 더욱 어획이 많은 땅으로 직행, 거기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똑같이 기선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일본으로 향하는 사람은 대부분 오사카항로를 이용하여 대개 일본의 수산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육지에의 출가잠녀는 대부분 배 안에 머문다든지 장기간에 걸칠 때에는 해안에서 오두막집을 매고 스스로 좁쌀을 갖고가 끓여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정도의 생활을 감수했으므로 수입은 거의 전부(많게는 3백원, 적게는 1백50원정도)를 섬으로 갖고 돌아왔다. 193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이와같은 출가잠녀는 그해 3천6백60명에 이르고 갖고 돌아온 현금은 77만원에 달했다. 즉 1인당 평균 2백23원 강에 해당된다.

제주도의 잠녀가 일본의 해녀보다 우수한 이유는 ① 임금이 싼 데 비하여 능률이 좋다. ② 저수온(低水溫)에 대하여 일본인에게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을 보이는 외에 ③ 나잠에 있어서는 10길까지는 아무런 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배가 없어도 꽤 먼 난바다까지 무리를 짜 헤엄쳐 나갈 수 있었으므로 입어비(入漁費)가 싸게 먹힌다[22]는 것

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상은 1936년의 상태였지만 1938년의 가을 성산포에 도착, 어업조합에서 조사한 결과는 통제(統制)에 따라 약간 그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 같았다. 우선 나가사키 및 쓰시마(對馬)에의 출가는 해조류가 목적으로, 3월 특별선이 성산포에 기항, 6백명을 한도로 하는 잠녀가 승선하여 목적지에서 8월말까지 일하고 귀도하는 자와 10월 해삼철까지 기다려서 11월에 귀도하는 자가 있다. 이는 일본 수산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나가는 것이다. 그밖에 개인적으로 십수명의 잠녀를 데리고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보살펴주는 남자가 계획을 정해서 잠녀를 모집하고 잠녀 수입의 각 2할씩을 수수료 및 뒷바라지삯으로 징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육지·만주로 가는 것인데 출발은 4월이며 10월에 귀도했다.

물맞이 : 이렇게 과격한 육상노동과 나잠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들은 아무리 신체가 강건하다고 하더라도 극도의 피로감과 강박관념에 사로 잡히게 된다. 그녀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약수터로 간다. 제주도의 약수는 육지의 그것과는 달라서 산중에서 솟아나는 냉수의 유수(流水)인데 여기에 홈통 같은 것을 장치, 조그만 폭포를 만든다. 잠녀들은 그것을 몸에 맞는 것이다(사진 44). 성판악(城板岳) 및 어승생악(御乘生岳)에 있는 2개의 약수는 잠녀의 질병에 아주 잘 듣는 약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약수가 있는 곳의 표고는 각각 해발 9백m, 8백m 정도인데 사방에 상록수가 울창하게 들어서고 거대한 용암의 탑(塔)이 솟아있는 곳에 창창한 물이 용솟음치고 있다. 물 곁에는 조그만 오두막이 있어서 약수 맞으

22) 桝田一二, 前揭書.

러온 잠녀들의 숙박소가 되고 있다. 그녀들은 오두막관리인에게 50전을 주면 이 오두막에 며칠을 있어도 무방하다고 한다. 좁쌀이나 보리쌀은 각자가 갖고 가서 끓여 먹는다. 그녀들은 하루종일 예의 소중기를 입고서 살을 에는 듯한 냉수를 맞기도 하고 일광을 쪼이기도 한다. 오두막 주인은 나무로 된 물시계를 보면서 잠녀가 물맞는 시간을 보고 있다. 한 번에 10분 이상 냉수에 맞으면 몸에 해롭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1주일이나 2주일 휴식을 해서 그녀들은 다시 해촌으로 돌아간다. 약수는 산촌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성판악의 약수는 교래리의 공동재산으로 마을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그 밖에 조그만 약수는 무수하게 있다. 건천의 일부에 물이 솟는 곳을 골라 당일치기로 물맞이 가는 사람도 있다.

제주도의 잠녀와 일본의 해녀…처음에 약간 언급한 제주도 잠녀의 기원(起源)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일본 및 조선에 있어서의 해녀 및 어부의 분포를 그려보면 <그림 24>와 같은데 거의 제주도가 위치하는 위경도(緯經度)에 모여있다는 것과 조선에는 이 섬을 제외하면 전혀 잠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일본 및 중국에는 예전부터 잠수사(潛水士)가 있었다는 것은 고문서(古文書)가 말해주고 있는 바이지만 조선에 있어서는 이같은 기록을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나잠은 새로이 일본 또는 중국에서 전파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문헌만이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제주도의 잠녀와 일본의 해녀의 공통점을 들어보면, 기술에 있어서는 이미 말한 것처럼 매우 닮았다. 즉 헤엄치는 방식, 잠수하는 방식, 일본에서는 부낭(浮囊)으로 빈 통을 사용하고 제주도에서는 바가



<그림 24> 일본에 있어서의 裸體潛水漁業者分布圖

지를 사용하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잠수를 하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일본의 해녀는 잠수할 때에 무지기(일본식 속치마)를 입지만 섬 잠녀들은 이와는 모양을 달리하고 더욱이 조선복장과도 계통이 다른 방식인 「소중기」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어획의 대상물이 일본에서는 식용인 조개류·해조류가 주된 것임에 대하여 섬 잠녀들은 우선 밭의 비료로서의 듬북(馬尾草)이 주된 것이고 식용의 해조류와 조개류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일견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섬의 나잠이 농업의 요구와 관계가 깊음을 말해주고 있다.또 뒤에 말하는 것처럼 해조류가 채취되지 않을 때에 행하는 「잠수굿」에서는 신방이 조(粟)를 바닷속에 살포, 이것이 씨가 되어 해조의 싹이 튼다는 신앙은 분명히 농업문화의 반영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일본의 해녀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신앙행사가 안보인다.

이것은 요컨대 제주도에 있어서는 섬의 잠수가 농업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잠수는 오히려 농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의 백수랑(白水郞)에 관한 몇 가지 의문 : 나는 앞서 마스다 이치지씨가 작성한 그림과 관련되는 해녀 및 어부의 분포도를 표시해서 육지에는 잠녀가 전혀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도 해녀에 대한 기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실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은 여지승람의 제주토산(濟州土産) 항목에는 곽(藿·미역)·소라·전복[23]이 지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제주풍토기에 따르면 앞에서도 인용한 것처럼 잠녀에 의해 처음으로 획득된 것이다. 한편 일본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에 있어서는 이즈모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24] 「단 전복은 이즈모군(出雲郡)이 가장 뛰어나다. 잡는 자는 소위 미사키(御崎)의 해자(海子)이다」라는 기사가 있으며 히젠(肥前) 풍토기[25]에는 백수랑(白水郎)이 해송(海松·청각)·전복·소라를 따기 위해 어떤 섬에 주거를 정했다는 기사도 있다. 그밖에 만요슈(萬葉集)[26]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27] 등의 여러 곳에도 백수랑이 이들 산물을 채취했다는 기사가 있다. 더 나아가 학자는 대취편(代醉篇)이란 책의 일절 「唐周邯目蜀買奴日水精 善沈水 乃崑崙白水之屬也」[28]를 인용, 백수랑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할 바는 풍토기·만요슈·기타 일본의 옛기록에서의 아마(阿麻) 또는 아미(阿米·여기에 白水郎·泉郎·海子·海土 등의 글자를 맞추고 있다)는 여자 보다는 도리어 남자가 많고 잠수사(潛水士)였음과 동시에 배에 거주하는 어부 또는 뱃사람(舟人)이기도 해서 도미나 잡어(雜魚)도 잡았다. 그런데 제주도의 잠녀는 아무래도 일본의 백수랑과는 달랐던 것 같다.

반대로 다시 남조선 각지의 토산(土産)을 여지승람에 따라 본다면 앞에 말한 미역·소라·전복 등의 산물은 남선의 각지, 나주(羅州)·영암(靈巖)·장흥(長興)·진도(珍島)·강진(康津)·해남(海南)·순천(順天)·보성(寶城)·광양(光陽)·흥양(興陽)·장련(長連)·해주(海州)·옹주(瓮州)·강령(康翎)·장연(長淵) 등[29] 제현(諸縣)의 토산 항목에 산견(散見)되지만 그 획득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볼 수 없다. 미역은 썰물 때나 폭풍 뒤에 얻어지기는 하지만 양과 종류는 극한되어 있고 소라,

24) 『風土記』, 岩波文庫版, 141쪽(「出雲風土記」).
25) 同書, 255, 6쪽(『肥前風土記』).
26) 鹿持雅澄, 『万葉集古義』, 名著刊行會版, 1卷 373·375쪽, 四卷 159·163·435쪽, 5卷 375쪽, 6卷 100·203·288·318쪽, 七卷 297쪽 參照.
27) 『源氏物語』, 「須磨」.
28) 鹿持雅澄, 前揭書, 1권 375쪽.
2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三~四三.

전복의 두가지는 썰물 때에 해수가 없어질 것 같은 장소에는 거의 살지 않는다. 긴 막대기 끝에 작살을 붙여 해중으로 내던져 잡는 방법도 있으나 토산이 될만큼 잡히는지 아닌지는 의문이다. 즉 잠수 이외에 적당한 획득방법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들이 토산으로 지명되고 있는 한에서는 현재 조선의 육지에는 백수랑은 볼 수 없지만 전에는 조선육지에 있어서도 백수랑(남녀의 성별은 불명이다)이 있었다던지 그 무렵부터 이미 제주도 잠녀의 육지에서의 출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바와 같이 제주도 잠녀의 도외출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190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제6절 섬의 여성

가) 가족 내에서의 분업과 여성의 지위

동국여지승람에 이 섬의 풍속을 「여다남소(女多男少)」[30]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현상은 그 무렵에도 변하지 않고 있었다. 1936년도[31]의 통계가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총인구의 남녀비율은 100대116으로 여성의 인구는 남자보다 1할강을 웃돌고 있다. 한편 출생사망의 누년통계(累年統計)를 남녀별로 비교하면 <표 19>와 같은데 예외 없이 남자는 출생 사망 모두 여자보다도 많다. 게다가 1936년에 있어서의 도외거주자는 4만5천1백41명에 이르고 그들의 남녀비율은 100대56이란 사실은 본도의 여다남소현상을 숫자적으로 강화시켜주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31) 島內統計는 全羅南道濟州島, 1937年 『濟州島勢要覽』을 이용.

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본도 거주의 일본인만의 인구를 보면 총인구에 있어서의 남녀의 비율은 100대94로, 출생사망수는 <표 19>에서와 같이 어느쪽이냐 하면 출생율에 있어서는 남자가 많고 사망율에 있어서는 남녀가 거의 비슷하다. 즉 여다남소현상의 요인은 볼 수가 없다.

<표 19> 朝鮮人 및 日本人出産·死亡統計

各年別		日本人			朝鮮人		
		出生數	死亡數	差 引	出生數	死亡數	差 引
1931	男	14	9	+ 5	3,077	1,811	+ 1,266
	女	9	10	- 1	2,970	1,444	+ 1,526
1932	男	18	13	+ 5	2,117	1,665	+ 452
	女	11	15	- 4	2,022	1,332	+ 690
1933	男	22	12	+ 10	2,250	1,833	+ 417
	女	12	4	+ 8	1,993	1,506	+ 487
1934	男	14	8	+ 6	2,252	1,787	+ 465
	女	17	16	+ 1	1,986	1,372	+ 614
1935	男	13	16	- 3	2,046	1,887	+ 159
	女	8	12	- 4	1,843	1,576	+ 267
1936	男	18	9	+ 9	2,243	1,887	+ 356
	女	14	8	+ 6	2,068	1,576	+ 492

(島廳統計에서 算出)

다음으로 이 「여다남소」의 현상을 각리별(各里別)로 관찰할 때 1928년도 통계에 의하면 제주읍의 월평(月坪), 한림면의 금악(今岳)·신성(新星)·판포(板浦)·월령(月令)·금릉(金陵)·옹포(瓮浦)·대정면의 인성(仁城)·보성(保城)·안성(安城)·구억(九億)·동일(東日)·일동(日東)·영락(永樂)·무릉(武陵)·신도(新桃)·신평(新坪)·안덕면의 광평(廣

坪), 중문면의 영남(瀛南)·상예(上猊)·하예(下猊), 서귀면의 보목(甫木)·법환(法還), 성산면의 시흥(始興), 조천면의 교래(橋來) 등 여러 이(里)는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를 웃돌고 있다[32]. 이것을 지역적으로 개괄하면 서남지방의 여러 이(里)가 「여다남소」의 원칙에 반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해·양·산촌의 3개구분에서 보면 일정한 경향이 안 보인다. 그런데 1936년이 되면 한림면의 수원(洙源)·대정면의 하모(下摹), 안덕면의 상창(上倉), 중문면의 대포(大浦), 색달(穡達), 남원면의 태흥(泰興), 조천면의 와산(臥山) 등 7리만이 「여다남소」에 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의 인구가 많아진다. 이것은 특히 남자의 사망율이 증가한 때문은 아니고, 출가에 의해 「여다남소」의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같은 현상은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되어서 가족 가운데서 부인의 지위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카하시(高橋享)에 의뢰하여 본도의 홍순재(洪淳宰)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농사는 기경(起耕), 진토(鎭土), 노역은 부역(賦役)·토역(土役)·건축·어업, 기타의 힘으로 하는 기술이다. 한편 여성에 한정된 노동은 맷돌(挽臼)·절구(搗臼)·잠수업 기타 망건(網巾)·탕건(宕巾)·갓 등을 짜는 작업으로 여기에다 물긷기·세탁·재봉·요리등은 물론이다. 남녀공동으로 하는 노동은 제초(除草)·수확·비료운반·가사경영 등이다.[33]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양·산촌에서의 여성, 특히 주부의 일의 주된 것은 육체적 노동으로서는 밭갈이 뒤의 흙덩어리 부수기·파종·흙밟기·제초·탈곡·풍선(風選)·맷돌·절구·양돈·양계·물긷

32)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 (其二) 濟州島』.
33) 高橋享,「民謠에 나타난 濟州島의 女子」,『朝鮮』, 1933年 1월호.

기·취사·부역 등이고, 정신적 노동으로서는 육아·부조-친족 교제·금전출납-조상제(祖上祭) 및 집안제사(家祭)의 시행이다. 남자의 육체노동으로서는 우마목축·우마를 이용한 농사 즉 조경(粗耕)과 파종 후의 각경(攪耕)·수확시의 일부·숯굽기·수렵(그 무렵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건축 등이며 정신적 측면은 유례적 촌제(儒禮的 村祭)·좀 커진 남자의 교육·계의 감리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는 「튼튼한 여자를 들여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 그들의 이상적인 처는 「잘 일을 해서 자기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도 부양해 갈 수 있는 여자」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촌인을 「여자가 일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下等)이다」고 했다. 이와같이 주부는 일가의 가사 만반을 처리하고 남자들 보다도 더 바쁘게 생산에 종사하면서도 양·산촌에서는 남자의 지위가 높고 주인은 일가를 독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재산과 여자들의 노동은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부는 다만 고분 고분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첩을 얻든가 도락을 하든가, 농번기에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든가,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남편에게 종속한다. 여자는 노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보통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남편 또는 이에 대신하는 남자를 중개로 해서 경작할만한 토지를 얻어서 자기와 남자와 아이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여다남소」의 현상에 의해 주부로 될 수 없는 곳의 성녀(成女)도 남자를 중개로 해서 토지와 결합해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제주도의 양·산촌에 있어서의 첩의 특징이 있다. 본도의 첩은 본처에 아이가 없을 적에는 입가식(入嫁式)을 치러서 정식으로 시집가는 아가씨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구분을 지어서 혼례를 치르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녀들은 남자의 성적유희물도 아니려니와 소비자도 아니다. 오히려 남성에게 봉사하는 노동자인 것이

다. 남자가 첩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부양한다. 제주도에서는 여자들 사이에 유교적인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첩과 본처와를 동거시키는 일은 없다. 즉 첩이란 여자가 남자로부터 토지와 집과를 무료로 빌리는 것이다. 보통 집 한채와 토지 3반(反)을 주면 여자는 그 토지를 경작하고 식품과 의복을 얻고서 부자유 없이 생활하며 남자가 왔을 적에는 밭벼의 쌀밥에 마른고기 정도의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남자는 1년을 나누어 본가와 첩집에 숙박한다.

첩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본처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처보다는 젊고 딸 보다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본처는 첩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딸도 이에 따른다. 그러니까 첩을 가지면 집안이 활발히 활동하게 되고 남자는 마침내 편안하게 된다. 첩집의 한가지 특징은 가족 중에 첩 여인의 친족이 들여온다는 것이다. 남편쪽 친족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가족성원(成員)의 성질이 주부의 집과는 전혀 달라진다. 이와같은 가족의 구성을 이루는 것은 남자에게는 유리하다. 즉 더욱 유력한 노동력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첩 친족을 부양하므로써 첩과의 결합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은 첩에게 그 친족을 부를 것을 권한다. 첩에서 난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생활은 어머니 집에서 영위한다. 물론 본처에게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서자(庶子)로 삼을 수도 있다. 양·산촌의 본처가 첩을 경멸하는 상징적 표현이지만 첩집에서는 남편집의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즉 첩집은 현저하게 모계적존재(母系的存在)라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이와같은 정식 첩 이외에도 양·산촌의 여성의 일부는 성생활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출가(出稼)를 해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가진 여인

과 미망인 등이다. 토지를 젊은 아이의 재산으로 하여, 관리의 실권을 그녀들이 갖고 있는 경우, 그녀들과 그 아이들의 생활은 우선 보장될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신할 남성을 키울 수가 있다. 이와같은 가정에 기여들어온 남자는 생활력이 부족한 게으름뱅이가 많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연결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싫어지면 도망가던가 쫓아보내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계는 죄악도 아닐뿐만 아니라 슬픈일도 아니다.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서 비탄한 나머지 자살을 한다든지 질투에 사무쳐 남편이나 그 상대 여자를 살해한다고 하는 예는 경찰조사에 의하면 거의 볼 수가 없다.

해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는 양·산촌과는 약간 그 취향(趣向)을 달리하고 있다. 가족 가운데의 분업은 여자쪽에서는 양·산촌에서와 같은 양계(養鷄)의 비중이 적어지고 나잠과 시장에서의 교환이 추가되며 남자쪽은 우마의 목축이 적어져서 어업(사진 45)이 추가된다. 그 밖에는 커다란 질적인 변화는 없으나 지금 추가된 두 가지에다 여름철 노동의 대부분을 빼앗겨서 목축과 농사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감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서 농경지가 양·산촌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지고 여성은 나체 하나로 아니 진짜 나체로서, 도리어 남자보다도 큰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섬의 관행으로서 어업의 수입은 일가족 안에서 따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 남편은 처의 허락 없이 처의 수입에 손 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처의 남편에 대한 애정이 두텁다면 사실상으로 처의 수입은 남편의 관리에 맡겨진다. 그러나 양자의 애정이 단절되면 대개의 경우 남편의 생활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처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여자가 나잠의 출가로 얻어진 돈은 그 남편이 위험시되는 인간, 다시 말하면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듣

지 않는 인간이라면 남편쪽 친족의 신용 있는 사람(이것을 문중이라고 말한다)에게 위탁된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결코 처쪽 친족에게 위탁되는 일은 없다. 이와같이 여자가 가족 안에서의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사를 의논하는 것은 남편쪽 친족으로서, 처쪽 친족의 말참견을 허락치 않는다. 또 처쪽 친족이 가족과 동거하는 일도 없다. 해촌의 여자는 양·산촌의 여자와는 달리 여자만의 경제적단체에 속하고 있다. 이것이 그 무렵 일어나고 있던 부인회인데 예를 들면 북촌리에서는 마을 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풍족한 단체이며 때로는 마을의 중요기관, 예컨대 용수(用水) 및 돌담 등의 수리를 부인회의 이니셔티브로 시행한다.

해촌에서의 성생활은 양·산촌과는 그 모양이 다르다. 한사람의 여자에게 급급해서 아이보기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양·산촌에서와 같은 첩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여자만의 세대는 양·산촌보다는 많고 북촌리에 있어서는 30수호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여자만의 세대를 전전하는 남자도 있다. 해촌에 있어서는 가족 안의 분업이 양·산촌과 같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것이 흔들림 없는 통일체를 이루는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일가족 내에서의 남녀의 분업과 권위관계에 혼란이 일어나 가족이 강력한 결합을 보이지 않는다. 해촌은 그무렵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가족의 이와같은 통일되지 못한 결합 때문에 적어도 남자의 일상생활은 즐겁지 않은 듯 하다. 양·산촌의 남자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가하는데 반하여 해촌의 남자는 「집안이 심심하기 때문에」라는 정신적이유 때문에 오히려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기분이 출가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결혼과 출산

이 섬에서는 통혼(通婚)에 대해서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동성불혼(同姓不婚)의 규범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음과 동시에 섬의 가장 오래된 성인 고(高), 양(梁·良), 부(夫) 3씨는 전설에 따르면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부락 간의 통혼상태를 살펴보자. 제주읍의 오라리(吾羅里)와 노형리(老衡里)와는 예전부터 서로 교혼(交婚)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으나 서귀면의 서홍리(西烘里)와 서귀리, 마찬가지로 서홍리와 동홍리와는 평상시 사이가 좋지않은 부락은 아니나 통혼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며[34] 조천면의 와산리(臥山里) 문미마을은 선흘리(善屹里)와는 일반적으로는 교통하지만 말의 매매와 결혼만은 하지 않고 주로 함덕리(咸德里)로부터 색시를 데려오고 딸은 대흘리로 시집보낸다. 또 신촌리에 있어서는 색시를 조천·함덕리 등에서 구하지만 이 마을의 여자가 조천리에 가면 불행해진다고 전해져 예전에는 산촌인 교래리로 시집가는 자가 많았으나 그 무렵에는 잠녀의 일이 유리하기 때문에 산촌으로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 이와같이 자세히 조사하면 복잡한 통혼관례가 존재하는 듯 하나 1920년에 들어와서부터는 점차 부락내에서 결혼하는 일이 많아졌다. 결혼은 어느 마을에서나 본인끼리 자유로이 결정되는 일은 없고 남자가 15~16세, 여자도 거의 비슷한 연령에 이르면 상대방 부모 사이에서 허혼(許婚)의 약속이 행해진다. 이때 남자집에서 여자집으로 납폐(納幣·폐물)가 품목표와 함께 보내어진다. 내가 교래리에서 본 품목표 사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34) 赤松智城·秋葉隆, 『朝鮮民俗의 硏究』, 上卷, 『濟州島神歌』, 『西歸本鄕堂本解 및 同歌』, 주18 참조.

品目 : 米 : 捌斗 豚 : 壹首 燒酒 : 一桶 鷄 : 貳首 卵 : 四拾箇
此段上送候也 宋哲重 謹 拜上

時唯孟春
尊體百福僕之長子柄鎬年旣長成
未有 伉儷 伏蒙
尊慈許以令愛睨室慈有先人之
禮謹行納幣之儀不備狀唯
尊照 上狀
礪山後人宋哲重 上謹狀拜
夫主事宅 入納
一九三六年舊正月貳拾貳日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풍수사(風水師)에게 길일(吉日)을 정해주도록 해서 신랑은 비단으로 저고리와 바지 두르마기 등 세 가지를 만들어 입고 말을 탄다. 뒤에는 숙부와 하인이 따르고 신부의 집에 도착한다. 이것을 「장가간다」고 말한다. 한편 신부는 색채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는 두 줄기로 갈라빗어 그대로 뒷머리에서 묶어(얹인 머리라고 한다) 여기에 금 또는 은으로 만든 비녀를 꼽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 신부집에서의 의식은 간단하며 신랑부친쪽 숙부 또는 형 혹은 중매자가 미리 풍수사에게 부탁해 써 갖고 온 예장(禮狀) 또는 문혼장(問婚狀)과 2~4필의 무명천을 넣은 상자(함 크기는 44×33×15㎝)를 신부의 부모에게 바친다. 그때 무명천은 홀수를 금하기 때문에 2~4필이 보통이다. 앞의 교래리의 예를 보면 문혼장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이 예장은 고래리에서는 전부 같은 내용의 것을 사용한다. 예장 및 품목표는 신부집에서 소중히 보존하며 이혼할 때에는 이것을 돌려준다. 이같은 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잔을 교환하고 주연(酒宴)으로 옮긴다. 이 주연은 신부집 부담이다. 신부집에서의 연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2~3시간이면 끝나서, 신랑은 말에, 신부는 교자(轎子)에 탄다. 교자는 신랑을 따라온 숙부 또는 형이 데리고 온 인부(부락사람을 마음대로 빌린다)에 메어져서 신랑집으로 돌아와 다시 연회로 들어간다. 돌아오는 길을 「시집간다」고 한다.

연회가 끝나면 신랑 신부는 첫날밤을 맞는다. 신부가 신랑의 옷을 벗겨준다. 이것은 앞서 교환된 술잔과 마찬가지로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입니다" 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라고 전해진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신랑과 신부는 신부의 집을 찾아간다. 이것을 「촌에 간다」고 한다. 신부의 집이 먼 경우에는 일박을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그날 중에 신랑집으로 돌아온다. 이것으로 결혼에 관한 모든 의식이 끝났다. 결혼의 비용은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백원에서 1백50원이며 신부집에서의 비용은 여자쪽이, 남자쪽의 것은 남자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 신부집의 부담은 남자쪽의 그것에 비하여 커지기 때문에 그 무렵엔 신랑가족이 유복한 경우에는 여자집에서 행하는 연회의 주효료(酒肴料)를 보조해 주었다.

본도의 여자는 이혼을 한다든지 미망인이 되어도 재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각년도에 있어서의 결혼 및 이혼을 나타내보면 <표 20>과 같다.

다만 이 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 신고된 것 뿐임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 또 늦어지는 것도 때때로 볼 수 있으므로

<표 20> 결혼 및 離婚表

(人口 千人에 대해)

	朝鮮人		日本人	
	結婚	離婚	結婚	離婚
1925年	0	0	5.19	1.05
1926年	0	0	4.65	0.61
1927年	1.92	1.92	6.03	6.01
1928年	2.68	0.89	8.00	0.85
1929年	4.00	0	11.63	1.18
1930年	1.68	0	13.25	1.40
1931年	3.17	0	9.81	1.11
1932年	3.04	0	5.62	0.65
1933年	2.93	0	4.21	0.43
1934年	3.47	0	3.69	0.41
1935年	0.09	0	2.13	0.36
1936年	2.84	0	4.66	0.47

(1938年 濟州島勢要覽에 의함)

정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결혼을 한 여자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회임이 되어 입덧이 있어도 이것으로 일을 쉬는 일은 없다. 잠녀는 출산 10일전까지 물에 들어가고 농사에는 출산직전까지 종사한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면 딴 집 사람에게는 절대로 숨기고서 작은 온돌방(작은 구들)에 보릿짚을 깔아 그속에 드러눕는다. 남자는 이 방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며 즉시 친족 중에 분만에 경험있는 여인이 불려온다. 출산을 하면 친족여자는 배꼽줄(뱃똥줄)을 가위로 끊어 그것을 끈으로 묶고 오물을 짚위에 그냥 버려둔채 산의(産衣)를 입힌다. 배꼽줄은 짧게 끊으면 밤잠을 자다가 오줌을 싸고 너무 길면 소변의 도수가 적어진다고 알려져 있

다. 산의를 입히면 출산을 마을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모유가 있는 젊은 여인을 불러와 사흘 동안 젖은 받아먹게 한다. 이 여자의 마음이 나쁘면 아이에게 그것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어 젖을 먹여주도록 부탁받은 여인은 그의 마음이 아름다움을 마을사람들로부터 공인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달려온다. 이 여자를 「젖어멍」이라고 부른다. 출산 후 3일째를 「사흘」이라고 해서 엄마는 일어나 처음으로 아기를 목욕시키고 작은 온돌 속의 오물을 이날 길가 청정한 장소에 내다가 소각시킨다. 그사이 처음으로 모유를 주고 아이를 「애기구덕」이라는 요람(사진 63)에 넣어 다음과 같은 자장가(방언으로 애기재우는 소리)를 불러준다.

애기자랑 애기자랑

이날은 쌀밥을 지어 출산때 수고를 한 여자와 젖을 나눠준 유모(젖어멍)에게 식사대접을 한다. 또 7일째를 「일뤠」라고 해서 이날까지 급한 용무가 없는 딴 집사람은 산가(産家)에 가까이 가지 않으며 한편 출산이 있었던 집안에서는 일체의 재물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삼간다. 특히 우마의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7일째는 이와같은 금기(禁忌)가 풀리는 날로서 쌀밥을 지어 이웃 사람들을 불러 기쁨을 나눈다. 다음에 출생해서 1백일째를 「백일」이라고 해서 쌀밥을 지어 그것을 천속에 뭉뚱그려 당(堂) 또는 청정한 장소에다 버린다. 그리고 사흘 때 식사대접을 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대접을 하고 쌀밥을 이웃집에 나눠준다. 이같은 제(祭)를 1년째 되는 날에도 행하는데 이것을 「생일잔치」라고 하고, 이 날 부친에 의해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다. 산모는 「7일」 직후부터 농사나 나잠에 종사한다. 그래도 별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을 만큼 섬여인들의 신체는 강건하다. 육아는 양·산

촌에 있어서는 대개 모친에게 맡겨지고 해촌에서는 수유(授乳) 이외에는 부친에게 맡겨진다. 그리고 남자는 7·8세가 되면 아버지를 여자는 어머니를 따른다. 따라서 남아에 대하여는 부친의 영향이, 여아에 대하여는 모친의 영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제7절 종 합

제주도의 평균세대인구는 1917년도에는 5.0명으로, 이것은 그 무렵 전 조선의 평균 5.4명[35]과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로부터 십수년 사이에 점감(漸減)해서 1934년이 되면 3.9명이 되고 35, 36년에는 약간 불어나 4.0명이 되었다. 어떻든 1930년대의 제주도민의 가족은 농촌사회로서는 두드러지게 소가족(小家族)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도에 있어서의 세대인구의 추이를 1928년부터 1936년도 사이에 대해서 본다면 섬중에서 약간 도시적성격을 지니는 제주·한림·모슬포·서귀포·성산포 등의 여러 읍(邑)의 인구는 각각 5%·55%·7%·53%·2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총수는 겨우 2천9백20명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다.[36] 한편 1931년부터 36년에 이르는 5년간에 육지 기타 지역으로부터 제주도로 건너온 사람은 8천명을 넘고 있으므로 섬가운데 여러 읍에의 인구집중화 외에 출가가 농촌세대인구의 감소를 초래한 최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의 형태로서는 2세대(세대)가족 즉 부부와 그 아이들 및 3세대 가족, 즉 부부와 그 아이들 그리고 부친쪽 부모를 포함하는 것이다. 3

35) 朝鮮總督府, 『1935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로부터 算出.
36) 島廳統計로부터 算出.

세대가족에 있어서도 일가족 중에 2조(組)의 같은 세대 부부를 포함하는 일은 드물다. 그밖에 섬의 가족으로서 특이한 형태는 여자만의 2세대 또는 1세대의 가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가족의 성격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기술하기로 한다.

가족의 상식물(常食物)로서 해·양·산촌 공통의 것은 보리이다. F. P. Armitage는 주식물에 의해 각민족을 분류하고 조선인을 미식(米食)의 범주에 넣고 있으나 제주도민은 오히려 「보리·피·(또는 조)에 더하여 가축·어류」를 취하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칼칼 먹었다"는 특정한 날을 정한 취지는 밭벼(陸稻)를 먹는 데 있다. 제주도에 쌀이 들어오는 것은 고문서(古文書)[37]에 의해서도 분명하고 소위 "칼칼 먹었다"는 문화적으로는 육지화현상의 일단(一端)이며 유교화(儒敎化)가 강한 양촌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여겨진다. 한편 도내에서의 식품의 차이는 해촌에서는 조가 주이며 보리가 그 다음이고 해산물이 부식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 양촌에서는 보리·조 균등으로 야채와 해산물이 부식물이 되고 있으며 산촌에서는 피가 주이고, 보리가 그 다음이며 부식물은 야채이고 날 해산물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공통의 부식물은 된장과 돼지이다.

도민의 주된 직업은 농업으로 목축·어로는 전업자(專業者)가 거의 볼 수 없으며 부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7년도의 도내 조선인의 총세대수 4만7천6백92호중 4만4천1백46호는 농가인데 극히 조금이라도 자기토지 이외를 경작하고 있는 소작자는 전 농가의 16%[38]로 이것을 조선의 전 농가에서의 이같은 비율 82%[39]와

37) 李健「濟州風土記」,『朝鮮學報』, 第1卷 第2號.
38) 全羅南道濟州島,『1937年 濟州島勢要覽』.

비교하면 제주도의 농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도 자작농이 많다. 경지는 균분상속제(均分相續制)에 의해 분할되므로 농가호수가 점차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1928년에 있어서 농가 3만6천4백76호[40]가 9년사이 1만1천1백16호나 증가하고 있음을 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제주도의 농업은 그 무렵엔 아직 조잡해서 1호당 평균 2정3반 강의 경영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수확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작물의 주된 것은 보리·조·피·콩·팥·감자·메밀·밭벼(陸稻) 등인데 수도(水稻)는 관개(灌溉)의 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섬의 토질과 기후는 육지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방법도 달라진다. 즉 파종의 원칙은 비료와 종자와를 조경지(粗耕地) 또는 미경지(未耕地)에 점파(點播)해서 뒤에 쟁기로 각경(攪耕)하고 (사진 30) 이것들을 땅 속에 깊이 묻어 그 위를 사람의 발 또는 말발굽으로 밟아 굳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쉬떼」라고 하는 차마제(借馬制)가 발달했으나 1930년대에는 육지의 자유노동자가 말떼에 대신하려 하고 있었다. 또 경지경관(耕地景觀)도 아주 특이해서 마을 언저리 측화산(側火山) 위에 올라가 바라보면 마을의 주거지구에 접속하거나 또는 떨어져서 널려진 밭은 모두 돌담으로 에워싸여서 불규칙한 삼각형 또는 사각형을 이루어, 이러한 경지가 몇 개 모여서 양파모양의 집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같은 작물이 널리 한 지역을 차지해서 심어지는 일은 드물고 예컨데 조·피·밭벼·메밀 같은 것이 뒤섞여 심어져 있다. 따라서 가을철 10월경에는 황금색의 조밭, 황갈색의 피밭, 황록색의 밭벼밭, 회색의 메밀밭에 망망한 억새가 무성한 휴한지에 둘러쌓여 그림보다도 아름답다. 섬에는 1년에 세차례 농

39) 朝鮮總督府, 『1935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로부터 算出.
40) 『唐書東夷伝』, 「朝鮮史 第1編 第3卷 中國史料別錄」.

번기가 찾아온다. 첫 번째는 파종기 즉 「밭갈이가 바쁘다」는 시기인데 산촌과 해촌간에 특히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즉 거의 산촌에서는 음력 4월중순부터 5월, 해촌에서는 3월중순부터 4월 사이에 조·피·콩·팥·육도의 파종기에 보리의 수확이 이어진다. 이 사이에는 남자도 여자도 함께 들판에 나가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제초기(除草期) 즉 「검질매기가 바쁘다」는 시기인데 7월절 전후에 비가 잦아지고 앞서 심은 밭의 제초기와 메밀의 파종기가 겹치지만 그 사이는 남자는 별로 일하지 않는다. 세 번째 농번기는 수확기(사진 33) 즉 「거둬 들이기가 바쁘다」는 시기인데 산·해촌간에는 약 1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 즉 산촌에서는 음력 9월중순부터 10월중순, 해촌에서는 8월하순부터 9월하순 사이인데 조·피·콩·팥·밭벼, 조금 늦어서 메밀의 수확과 보리의 파종이 계속된다. 이 사이에는 첫 번째 파종기와 마찬가지로 남녀 뒤섞여서 아침엔 너무 일찍이는 아니지만 밤에는 해가 져서 어두워질때까지 들판에서 일을 한다.

겨울철 남자의 일로서는 숯굽기가 있다. 그것은 육지 또는 일본의 기술과는 약간 달리하고 있다. 1930년대에 들어와 삼림이 적어지기 시작한 때문인지 별로 신나지 않는 일이었다. 또 수렵은 성행했다. 그것은 대설(大雪)과 야수(野獸)의 습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루어졌다(사진 36). 눈에 관한 지식은 다른 조선각지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발달하였다. 그무렵 이미 수렵은 포획물의 감소나 무기의 압수 때문에 별로 행해지지 않고 있었으나 눈에 관한 지식은 겨울철 목축우마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목축은 원(元)의 점령이래 섬의 한 특이한 산업으로서 여러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아직 섬의 유력한 산업이다. 1937년도의 소의 총수는 전 조선의 30%, 말은 40%를 차지하고 사육호수는

전 호수의 각각 30%·2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에 양계·양돈도 또한 왕성했고, 그 무렵엔 꿀벌과 면양의 사양이 실시단계에 옮겨가고 있었다.

본도에서의 우마사양의 특징은 외양간에서 키우는 것(舍飼)이 전혀 없고 들판에 1년중 방목하는 것인데 그 목야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 다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즉 휴한지(목장·사진 37). 수확 후의 경지(耕地) 그리고 산지에의 방목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 3종의 목야는 상호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양·해촌에서는 여름 동안 자기 마을 목장안에 방목하고 하루 걸러로 망을 보러 간다. 또 그 목장이 넓을 때에는 아이들이 우마군을 인솔해서 풀이 풍부한 곳으로 간다. 수확기가 끝나면 낫을 들고 초원에 가 목초를 베어 「눌」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료는 농후사료를 거의 주지않는 섬사람들의 우마에 대한 유일한 봉사인 것이다. 한편 수확 후 마을 부근의 경지에 우마를 모은다. 얼마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목야에 불을 지르고 이것이 끝나면 겨울철 가두었던 우마를 개방한다. 산촌에서는 산지에 가축을 풀고 겨울이 들어서도 모처럼 이것을 몰아오지 않지만 우마는 저절로 눈을 피해서 마을로 돌아와 건초의 「눌」에 모인다. 그 무렵부터 해촌에서는 사람 손이 부족하기 시작했으므로 우마의 감시를 특정가족이나 산촌에 위탁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소작적인 우마감시인 또는 촌락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똑같이 남자의 직업으로서 부업적인 것에 어업이 있다. 그 무렵 섬에서 일반적인 어법은 자리그물, 일본조(一本釣), 주낙(延繩) 등으로 그 밖에 후릿그물이나 분기망(焚寄網) 등도 볼 수 있었다. 제주도의 근해는 어족자원이 풍성한 곳이다. 1937년 연안에서의 어획고 총액 2백97만1천2백68원중 섬의 어업자에 의한 어획고는 30만2천7백50원, 즉 겨

우 10%에 불과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아도 제주도 사람들이 어업에 관해서는 자본과 기술이 결여되어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어로종업자의 세대수는 전도에서 8천7백10세대로 총세대수의 16%를 차지하는데 그중 남자종업자 3천9백28명에 대하여 여자는 8천3백73명이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섬의 재래어업(在來漁業)은 자리그물어업이 주체를 이루고 있고 일본조와 주낙은 미끼관계로 해서 이에 원칙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자리(사진 42)의 출어기는 5월에서 8월사이이다. 1900년대의 자리어업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후 세대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본조를 제외한 어법에 의한 것은 거의 2가족 공동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배와 어구와 노력을 제공한 가족과 노동력만을 낸 가족과의 분업률은 6대4의 비율이다. 다시 후릿그물과 같은 꽤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어법이 들어온 후에는 마을 안에 망별(網別)조합이 조직되어 겨우 어법은 가족노동의 범위를 벗어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주도의 여자 어로종사자는 단연 남자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잠녀들인데 「제주도의 잠녀」는 예전부터 명물이었다. 그녀들에 의해 얻어지는 수익은 1년간 33만2천7백97원에 이르며, 본도에서의 수획물의 주된 것은 우뭇가사리·미역·감태 그리고 비료로서의 둠북과 같은 해조류와 전복 소라와 같은 조개류이다. 해녀의 감수기술은 일본의 해녀와 변함이 없고 서서 헤엄 치는 자세에서 해중으로 거꾸로 들어가 가장 깊은 곳에서는 10길, 보통 3, 4길의 바다 밑에서 작업을 하고, 1분에서 1분반 만에 떠오른다. 주된 용구는 태왁이라고 하는 바가지에 조그만 그물을 붙인 것으로 일본에서 빈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녀들은 7~8세때부터 친구끼리 헤엄치기 시작, 14세가 되

면 형식상의 잠녀가 되고 16세가 되면 잠녀조합에 들어가는데 그 때부터 20년간 정도가 잠녀로서의 왕성한 활동기이다. 그러나 50세까지는 잠수작업이 가능하다. 농번기에는 잠녀는 잠수와 경작노동을 적당히 배합해서 하루를 슬기롭게 이용한다. 가장 빈번하게 잠수하는 것은 3월에서 8월까지 사이이며,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는 차츰 적어지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는 별로 잠수하지 않는다. 잠수의 나잠어장을 「물」이라고 칭하고 그것은 각 어촌의 자연촌에 소속돼 있는 것이 원칙으로, 딴 마을 잠녀의 잠수는 허가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이와같은 나잠어장은 행정상으로는 같은 이(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도 각 자연촌에 의해 그 권리를 달리하며 패류채집에 있어서는 비교적 느슨하지만 해조류채집, 그중에서도 둠북채취의 관행은 엄중하다. 다른 마을로 시집 간 여자는 이미 그가 태어난 마을의 나잠어장에 잠수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며 남편마을의 나잠어장에 입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주도의 잠녀는 1900년초부터 일본으로 처음 출가하고 그후 육지로 진출하였다. 그 강력한 체력과 잠수기술 그리고 낮은 생활수준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이세(伊勢)해녀를 내쫓고 1930년대부터는 육지·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만주에서도 활약하고 있었다. 육지 또는 만주방면으로의 출가는 한사람의 남자 지휘에 따라 십수명의 잠녀가 조(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일본에의 출가는 수산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다. 격심한 노동에 의하여 심신이 함께 피로해진 잠녀들은 1년에 1회 또는 2회 휴양을 취한다. 그것을 「물맞이」라고 하는데 산중의 용수(湧水)로부터 끌어온 조그만 폭포부근에 산촌사람이 경영하는 오두막집에 머물며 차가운 담수를 맞으며 일광욕을 즐긴다. 이와같은 1주일 또는 2주일의 휴양으로 그녀들은 원기를 되찾고서 가정과

바다로 돌아간다. 조선에 있어서 제주도에 만이 잠녀가 있는 것은 기이(奇異)한 현상이다. 제주도 잠녀의 기원에 대하여는 몇 개의 의문점이 남겨져 있다. 즉 고려사지리지에도 동국여지승람에도 해녀에 관한 기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한편 토산(土産)의 항목에는 미역·전복·소라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또 남조선의 다른 현에도 같은 종류의 토산에 관한 기사가 있다. 한편 <그림 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해녀 또는 해사(海士)는 제주도와 거의 같은 위도에 밀집해 있고 쇼키(書紀) 후우도키(風土記)·망요(万葉)·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에도, 큐슈(九州) 및 상인(山陰), 그에 이어 상요(山陽)의 백수랑(白水郎) 혹은 아마(阿末)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아마(阿末) 또는 해녀와 제주도의 잠녀는 그 문화적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제주도의 잠수작업은 농경생활의 일환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일본 것은 도리어 농경사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나 그것과의 문화적 복합은 볼 수 없고 독립된 어민문화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로부터 여기에 3개의 문제가 남겨진다. 우선 첫째는 제주도의 잠녀는 일본, 유구(琉球),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것이었을까? 두 번째는 만일 전파되었다고 하면 그 연대는? 세 번째로 더 나아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나타난 남조선 및 제주도에 있어서의 토산인 미역·전복·소라 등은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얻어졌을까? 첫째에 대하여는 분포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양자의 문화적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둘째에 대하여는 여지승람(1481년)에 볼 수 없고 제주풍토기(1629년)에 볼 수 있다는데서 이 사이에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 속단(速斷)을 피하고 싶다. 셋째에 대하여는 남조선에도 일찍이 잠수부(여)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세 개의 문제에 대한 해답에서 제주도의 나잠녀(裸潛女)의 문화는 중국 또는 일본으로

부터 전해온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은 15~16세기 보다는 훨씬 오래되었고, 전에는 이 섬에 한한 현상은 아니고 널리 남조선에도 볼 수 있었으나 15~16세기에 들어와 제주도에만 남겨진 것이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섬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여다남소」의 현상과 가족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옛기록에 씌어진 여다남소의 현상은 그 무렵의 통계숫자에도 나타나고 있다. 193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인구의 1할 남짓 많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에 한하지 않고 남조선의 도서 및 연해지방에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41] 그런데 출생·사망의 누년(累年)통계를 보면 예외없이 남자는 출생, 사망 모두 여자보다 많다. 요컨대 남자는 많이 낳고 많이 죽는다. 이와같은 현상은 그 무렵의 조선인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었다.[42] 따라서 제주도의 「여다남소」는 이와같은 일반적 현상이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보다 강조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출가자는 남자가 여자의 2배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에서 「여다남소」가 이것에 의해 더욱 강조되는 결과로 되었다. 「여다남소」의 현상은 섬여자의 노동을 과중하게 만들었다. 즉 양·산촌에서는 경작지 없이 인간은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토지는 남자의 소유로 돌아가고 여자는 남자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토지와 연결될 수가 없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첩이 되지 않는 한 토지를 경작하는 것 조차 불가능했다. 토지만 있으면 노동력은 여자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미망인은 재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토지는 그녀의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아이가 어릴 때

41)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報告(其2) 濟州島』.
42) 朝鮮總督府,『1935年 朝鮮總督府 統計年報』參照.

에는 망부(亡夫)의 밭에서 여자는 일하고 수확을 혼자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런 만큼 남자는 얼마든지 가까이 다가오며 싫어지면 남자를 자유로이 내쫓을 수도 있다. 여자가 살아가는 강점(强點)이 단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이와같은 경우와 첩과에 국한된다. 많은 경우 첩은 토지와 집을 빌어서 본처와는 별거해 그에 종속하지 않는다. 첩도 또한 노동자이지만 본처 보다는 젊고 딸 보다는 일을 잘하며 유교적 도덕관이나 제례(祭禮)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어서나 여자에게 있어서나 자유스러운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 게다가 첩의 집에는 남편쪽 친척은 동거하지 않지만 때때로 여자쪽 여성친족이 늘어난다. 첩 아이들은 모친과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 집에서는 남편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즉 첩의 집은 본처의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해촌 잠녀의 가족에서는 가계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남자가 도리어 여자에게 종속한다. 여자의 일에 나잠(裸潛)이 첨가되므로 양·산촌 여성 보다도 바쁘고 과중하다. 그러나 남성에 의해 들여놔진 유교의 힘이 여자를 제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획수입은 부부 별도회계인 경우가 많다. 만일 남편이 믿을 수 없을 적에는 여자의 재물은 나편쪽 신용 있는 친족(문중)에게 위탁된다. 잠녀는 여자만의 조합에 소속되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의 생활에 통일성이 없고 같은 집안에서 제 각각 생활을 하고 있다. 첩은 양·산촌보다 적으며 여성만의 세대가 많다.

섬에서는 동성불혼의 법칙 외에 지역적 통혼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다. 무가(巫歌)에 의하면 그와같은 관계는 마을 마다의 수호신(守護神) 사이의 친·불친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43] 또 말의 매매·

43)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硏究』, 上卷 「濟州島神歌」, 註 18.

신방의 왕래와 같은 교환이나 교통에 관해서도 통혼(通婚)에 준하는 규칙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소 기타 물품의 교환매매와는 관계가 없다. 또 그와같은 관계에 있는 2개 마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도 마을사람 끼리에 특별한 적의(敵意)는 전혀 볼 수가 없다. 다만 통혼이나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 전통적인 금기를 지키고 있을 뿐인 것이다. 전에는 마을 간에 서로 혼인을 한다든지 드물게는 해촌과 산촌 간의 혼인도 볼 수 있었으나 1920년대에 들어와 마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리어 촌내혼(村內婚)이 점차 불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혼의 형식은 완전히 유례적(儒禮的)으로, 육지와 차이는 없지만 예장(禮狀)에 신랑신부의 식장에서의 방위(方位)를 쓰지 않는 것은 남조선의 일반관습과는 다른 점이다. 또 첫날 밤 잠자리에 드는 의식에서 섬에서는 신부가 신랑의 옷을 벗기지만 이것은 육지와는 정반대이다. 본도에 있어서 남녀관계를 말해주는 재미있는 예이다. 출생에 관한 행사도 또한 육지와 차이는 적지만 그 전후에 있어서의 여자의 동작은 평상시와 별로 다름이 없이 각종 노동에 종사한다. 육지인과 섬사람과의 출산행사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야기되는 점은 육지인은 출산 뒤에 즉시 대문입구에 고추와 숯을 교대로 꽂은 금줄을 다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유아인 때에는 양·산촌에서는 모친이, 해촌에서는 주로 부친이 봐주고, 7~8세가 되면 여자아이는 모친에게, 남자아이는 부친에게 딸려서 일을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남녀는 서로 정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제4장 초가족 집단의 연구

제1절 친족관계

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초가족적(超家族的) 집단 또는 관계집단의 하나는 친족관계집단이다. 이 관계집단의 일은 모임·방상·권당(眷堂)·친족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 즉 부자·형제로 시작하여 멀리는 아버지의 10대째 조상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친족관계에다 지역적제약이 가미(加味)되어 보통은 하나의 자연부락 중심으로 친족관계 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이사의 경우처럼 친족관계가 이동의 통로가 되는 일도 있으므로, 친족의 기능은 지역의 제약을 배재해서 때로는 본도로부터 일본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친족관계의 기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조상제사와 장례(葬禮)에 대해서 기술해보겠다.

(가) 조상 제사(싯게)

제주도에 있어서는 신분의 상·하나 빈부를 물을 것 없이 조상 제사는 엄격히 지켜진다. 그것이 섬사람들의 긍지였다. 그 제사 양식은 거의 유례풍(儒禮風)이지만 유례적 마을제(祭) 즉 포제(酺祭)에는, 육지부에서는 여자가 참가 않는 데 반하여 제주도에서는 남녀 모두 참가하며 오히려 여자쪽이 열심이다. 조상 제사는 오대십신(五代十身) 이내의

조상을 모신다. 또 섬에서는 추석과 동지(冬至)의 두 번에 걸쳐 오대십신의 조상 모두에 대한 제사를 관계자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집에서 모시고 그 때 친족관계자들은 모두 모여 조상 제사를 맡을 집들을 결정한다. 빈곤한 사람에게는 할당되는 조상의 수가 적고 부유한 자에게 많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날엔 또 가난한 친족의 구제·결혼·금치산자(禁治産者)의 처지 등에 대해서도 의논되어 뒷날부터 제빨리 실행된다. 조상 제사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같이 주부는 열심히 참가하지만 모시는 조상은 남편쪽(시댁)으로 한정되며 그 10대까지의 이름과 제삿날을 암기하는 일이 주부의 자랑으로, 주부와 첩이 구별되는 까닭이 되기도 한다. 조상 제사에 즈음해서는 해촌(海村)에서조차 가족 안의 남녀의 뒤틀림은 해소된다. 요컨대 제주도의 친조관계는 분명한 부계(父系)를 따르고 있어 그 일로해서 혼란해지기 쉬운 가족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결합의 질서를 세우고 있다. 조상제사와 묘제(墓祭)는 5대째의 조상을 함께 하는 문중회에서 모셔지는 것이 보통이다. 문중회는 「金海金氏○○代子孫門中會」…와 같이 불리운다.

추석과 동지의 모임에서 할당된 각 조상의 기일(忌日)에 모셔지는 조상제사에는 문중회의 전원이 모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될 수 있는대로 참가하는 것이 친족의 의무라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부조(扶助)라고 하여 제사를 중요한 사교(社交)로 생각, 많이 모이고 친족 사이의 특히 여성의 사회적 결합이 강화된다.

조상제사는 한밤중(오전 영시로부터 1시 사이)에 거행된다. 제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큰 온돌방의 서쪽에 병풍을 세워 그 앞에 큰 젯상과 작은 젯상을 둔다. 큰상에는 메밥·어육(魚肉)·떡·술을 올리고 작은 상에는 향로

를 두고 향을 피운다. 촛대의 양초에 불을 키고 모래를 담은 그릇을 작은 상 동쪽 끝에 놓고 그위에 모세(주 : 표준어는 茅沙)라고 하는 새(茅)뭉치를 모래 속에 묻는다. 병풍에는 <그림 25>에 표시된 것과 같은 모양이 종이로 마련되며 아랫쪽의 지방(紙榜)에 그 날 저녁 모시는 조상의 이름을 쓴다.

<그림 25> 祖上祭用의 屛風圖

이러한 준비는 그 날의 제사를 맡고 있는 가족의 주부 몫이다. 만일 그 여자가 월경일 때는 열석(列席)할 수 없을뿐더러 제물이나 그 밖의 준비도 할 수 없다. 조상 제사 때가 마침 주부의 월경 때라 해도 그 여자의 마음이 깨끗하고 조상에게 정성스럽다면 내조(來潮)는 늦어진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경우 늦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그 집이 주최하는 조상 제삿날에 주부에게 월경이 오는 경우에는 그 주부는 조상에게 정성스럽지 못한 여자로서 친족관계의 교제로부터 배제된다. 또 그날 밤 두 개의 상을 마련하여 양초에 불을 댕기기 전에 닭이 때를 알리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 때도 앞의 월경과 마찬가지로 책임은 그 집 주부에게 있는 것으로 치부, 마음이 좋잖은 여자라고 친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제사 준비가 다 되면 그 날의 조상에 가장 가까운 남자가 젯상 앞으로 나가 삼배(三拜)하고 큰 상의 술을 작은 상의 공기 속의 모세에 붙는다. 이것이 이른바 초헌(初獻)으로, 다음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자가 같은 동작으로 아헌(亞獻)을 하고 그 다음의 사람이 종헌(終獻)을 올려 제사를 끝낸다. 적어도 초·아·종의 3헌을 올릴 세가족이 모이

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제식(祭食. 주≡飮福)은 집합한 사람들이 함께 함과 동시에 뒷날 아침 이웃 또는 마을 안에 메밥 또는 밭벼밥을 나누는 것이 습관인데 그 즈음엔 이것을 허례(虛禮)로 여겨 폐지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었다.

(나) 장 례(葬禮)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에 「田頭起墳 治喪百日而除 略堀田頭以起墳 間或有行三年喪者. 俗不用地理卜筮 又不用浮屠法」이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무덤은 밭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지만(사진 23·48) 장례는 이것도 상당히 달라 육지부의 그것과 가까워지고 있다. 장사(葬事)의 결정, 실시는 거의 친족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물론 남자들도 참여한다. 또 소속되는 친족모임이 없을 때는 장사계(葬事契)나 청년회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자족을 돕는다. 장례는 대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해 치루어지지만 이 섬에 있어서 사람이 죽어서 3년상(喪)이 끝날 때까지의 장례의 실제에 대해서 기술(記述)해 둔다.

어떤 가족중의 한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다고 가정(假定)한다. 집안의 한 사람이 고인의 옷 한 벌을 들고 지붕에 올라, 이것을 흔들면서 죽은 사람의 본관과 성씨(예를 들어 濟州高氏·慶州金氏) 및 이름을 부르며 「復(혼보)」라고 세 번 외친다. 이 의식을 초혼(招魂)이라고 하는데 초혼이 끝날 때까지는 시체에 대해 사자(死者)의 예(禮)를 다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초혼의 보람이 없을 때에는 죽은 것으로 여겨 곡(哭)을 하며 옷을 벗

1)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겨 시체를 물로 씻고(이것을 小殮이라고 한다) 신전정와(伸展正臥)시켜 신체를 삼베로 단단히 싼다. 그 위에 새 옷을 입혀 입관(入棺≡大殮)한다. 초혼 때 썼던 옷은 「혼백상지」라는 종이상자에 놓는다. 한편 관은 큰 온돌방의 서쪽에 놓고 그 두껑을 조금 열며 관 위에 「혼백상지」를 올려 놓는다. 이런 작업은 모두 친족관계자, 즉 배우자를 포함한 부계(父系) 친족이 도맡으며 그 새 상복을 입어야할 근친자(사례편람에 따름)는 예복을 입는다.

한편 사람을 풍수사(風水師 번역자주=본도에서는 정시)에게 달려가도록 해서 망인의 생년월일에 따라 장사의 일시·묘의 방향을 정하며 또한 시체의 신장에 맞는 묘의 형태를 지정해 받는다. 앞에 인용한 글 중에 「俗不用地理卜筮」이라고 되어 있지만 1930년대에는 장례에 반드시 풍수사가 따랐다. 이래서 장사날에 맞춰 우선 방으로부터 혼백상지를 친족, 특히 손자가 집 밖으로 들어낸 후, 관을 상여(喪輿)에 태우고 선두에 본관과 성명을 쓴 명정(銘旌)을 내세워 장렬(葬列)은 묘지로 향한다.

묘지는 이미 준비가 갖춰져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섬에서는 1천6백m 부근의 산지로부터 밭에 이르기까지 묘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묘혈(墓穴)은 직경 4m약, 깊이 2.0~2.5m로 파고 그 바닥을 석회와 흙의 혼합물에다 물을 뿌려 단단히 다지고 관이 꼭 들어맞는 크기로 주중(柱中)이라고 하는 구멍을 판다. 장례행렬이 도착하면 친족의 손으로 곡물을 불태워 만든 재를 바닥에 깔아 거기에 근친자의 손으로 관이 내리워지고 망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명정으로 관을 덮는다. 그 위에 개판(蓋板)이라고 하는 관보다 약간 큰 널판지를 늘어놓고 그 위를 점토로 덮어 친족들이 다시 흙을 쌓아 봉분(封墳)을 만든 다음 그 둘레에 화산력(火山礫)의 돌담을 두른다(<그림 26>·사진 48)

<그림 26> 墳墓圖

개판은 될 수 있는대로 균질(均質)의 단단한 목재를 쓰는데 그 좋고 나쁨에 따라 망자에 대한 성실도가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나무는 원추리·소나무·모밀잣밤나무·벚나무·노가리 등으로, 이것들은 썩을 때는 한꺼번에 같이 썩으며 그 밑에 있는 시체의 부식도(腐蝕度)도 이에 따르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봉분은 발의 방향에 따라 달걀 모양으로 뻗치는 것이 보통인데 그 뻗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뻗쳐진 부분을 용미(龍尾)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장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혼백상지」는 봉분 앞에 묻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대로 갖고 돌아와(이것을 返魂이라고 한다) 3년상이 끝날 때까지 예배의 대상으로 한다.

상중(喪中)의 행사로 장사 후 잇따라 사흘 동안의 오전 중에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 등 세 번의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혼백상지 앞에 과일·고기·떡 세가지를 올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제(三祭)로부터 석달 후에 졸곡(卒哭), 1년기(忌)에는 소상(小祥) 2년기에는 대상을 치른다. 제물은 앞과 같으며 2년기에는 혼백상지를 청정한 장소에서 소각하고 그 후 1백일 이내에 담제(禫祭)를 올려 탈상한다. 이로부터는 고인은 조상제사의 대상이 되는데 망인의 자식들은 3년간

반드시 제사에 참가하고 그 밖의 사람은 졸곡후 상을 벗어버린다. 망인이 어린이인 경우는 에(禮)에 따라 부모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장사는 친족모임에 의탁되며 경비는 부모 및 형제가 부담한다.

탈상(脫喪)을 해도 무덤은 섬사람들이 매우 존경하는 곳임과 동시에 일족의 화복(禍福)이 걸려있는 곳임으로 때때로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어 악신(惡神)을 쫓는다. 제주읍의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산신기도법(山神祈禱法)」이라는 이날의 축문을 보면 이미 조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만일 집 안에 화(禍)가 이어질 때는 복서(卜筮) 또는 신방(神房)에게 맡겨 점을 친다. 이따금 무덤의 위치가 나쁘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山神祈禱法

業德高勝聖間閑寂山王大神拜
此山局內恒主大德山王
是力法界地靈至誠諸大山王拜
並徒眷屬靈山昔日初來如
爲進江山道象生生壽里白雲看
長里雲去鶴可任閑情吉我一心歸命定禮拜

또는

大山小山山王大神
大岳小岳山王大神
大畜小畜山王大神
大覺小覺山王大神
如山濟處山王大神
金●大德山王大神
玄武朱雀山王大神
二十六丁山王大神
上方下方山王大神
四海彼發山王大神
明堂土山山王大神
遠山近山山王大神
凶山吉山山王大神

御姓名三呼三拜

이 때는 시체에 악신(惡神)이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됨으로 그것을 악신이 모르는 적당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철리(주=遷移의 와전인듯)」라고하여 달이 없는 어두운 밤, 악신이 눈치 채지 않도록 한다. 그들은 친족과 의론하여 협력을 요청, 4~5명이 한 장의 개판 위에 설명자를 펴서 무덤에서 파낸 백골을 이 위에 원형대로 늘어 놓는다. 텅빈 무덤에는 날달걀을 묻고 원상대로 흙을 쌓아올려 그 위에 가는 버드나무를 심은 다음 새로은 묘지에로 향한다. 그 때 옛 무덤의 돌담은 헐어버린다. 날달걀과 버드나무를 남기는 의미는, 섬사람들의 전승(傳承)에 따르면, 밝은 다음 악신이 와서 「내 시체는 어디 갔나」고 들어도 달걀은 「눈이 없으므로 나는 모른다」고 말하며 버드나무는 매를 맞아도 쉽게 꺾어지지 않고 바람부는대로 흔들거려 말릴 수가 없으므로 새로운 묘지를 악신에게 들킬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분묘의 수리도 같은 이유에서 문중회에서 행해진다.

이상 제주도인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장사 및 이에 따른 행사 가운데서 친족이 맡은 역할을 말했지만 이 때 친족은 단지 장의사의 구실을 다할뿐 아니라 더욱 중대한 정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분명할 것이다. 한 집안의 화복은 그 시대의 친족전체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자는 이러한 유례적(儒禮的) 행사에 반드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제사나 장례에 있어 남녀가 제각각의 행위를 하는 일은 드물다. 만약 무속적(巫俗的) 행사를 하려고해도 시간적인 차가 있다. 폭풍 속에 명정을 앞세워 산길로 향하는 장례행렬을 나는 여러번 봤지만 여자나 남자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허곡(虛哭)이 아니라 배어나오는 듯한 「아이고」의 소리가 드높았다.

(다) 마을과 친족집단

자연부락 속의 친족관계집단의 수나 종류는 앞의 제2장 <그림 13>에서 제시한 이별(里別)의 성별(姓別) 비율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림 13>이 행정구획으로서의 이(里)가 단위가 되어 있다는 것과 본관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김씨라해도 본관에 의해 친족관계 집단이 이분(二分) 삼분(三分) 되어있는 경우, 또는 모셔야 될 조상의 세대(世代)에 의해 문중회가 다르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략적인 경향을 추찰(推察)할 수 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재료에 의해 마을 안의 친족집단의 수 및 종류를 살펴보자.

수기동(水基洞)은 불과 35가족의 작은 마을이지만 그 가운데 26가족은 경주김씨(慶州金氏)로서 하나의 친족관계 집단을 이루고 있어 조상제사를 함께하고 있다. 그 밖의 9가족은 갖가지 성이지만 거의가 마을의 경주김씨와 인척관계에 있어 이 김씨의 친족집단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의 온갖 의론은 김씨집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또 마을의 지역적 분환절(分環節)로서의 상·하동을 결부시키고 있는 것도 김씨 친족의 연결이다.

교래리(橋來里)[2]에는 다섯개의 친족관계집단이 있었다. 그것은 상동의 부씨(夫氏) 25가족·송씨(宋氏) 10가족·신씨(愼氏) 15가족 및 하동의 김해김씨 30가족·고씨 12가족의 집단으로, 각각의 집단은 조상제사를 공동으로 모시고 상호부조하고 있지만 거주지역이 한 군데로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말하는 전마(碾磨·연자방아·방언은 물방에) 집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2) 橋來里 이하의 가족수는 概略이며 한 두 가족의 증감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음에 와산리(臥山里) 마을은 동동(東洞)에 있어서의 4가족의 고씨, 서동은 15가족의 양씨가 지역적으로나 친족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조상제사도 함께 모시고 일부의 연자방아집단과 같이 중복되고 있다. 그런데 24가족의 한씨, 18가족의 구좌면(舊左面)에서 온 김씨, 8가족의 이씨 집단이 있지만 이들 가족은 새로 내촌(來村)한 것으로, 동·서동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친족집단은 연자방아 집단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대흘리(大屹里)에는 7개의 친족관계 집단이 있다. 즉 25가족의 부씨·15가족의 한씨·10가족의 고산김씨(高山金氏)와 강씨(康氏)·8가족의 문씨·6가족의 양씨·4가족의 송씨로 각 성씨의 통합은 약하다. 해촌에는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자연부락의 인구가 큼으로 친족관계 집단의 수도 많다. 북촌리(北村里)는 80가족의 이씨·30가족의 김해김씨 및 윤씨·10가족의 고·부 양씨·8가족의 한씨·5가족의 박씨·4가족의 장씨(張氏) 집단이 있다. 이들 친족집단은 동별(洞別)로 모여 전마(말방아)집단과도 일치하는 것이 많다. 말할 것도 없이 조상제사도 함께 모시고 있다.

신촌리(新村里)에는 6가족의 김해김씨·45가족의 고씨·30가족의 신씨(愼氏)·25가족의 강씨(康氏)·20가족의 이씨·15가족의 양(梁) 강(姜)씨·10가족의 홍씨의 친족관계 집단이 있지만 어느 쪽이냐면 지역적으로 통합되어 있진 않다.

마지막으로 화북리(禾北里)에는 김해김씨 21가족·경주김씨 18가족·이씨 양씨 40가족·고씨 32가족·강씨(康氏) 25가족·부씨 20가족의 친족관계집단이 있다. 김씨의 집단은 본관에 의해 경주김·김해김의 둘로 나눠져 있다. 여기서는 친족들은 지역적으로 모여있다.

이상과 같이 각 자연부락의 친족관계집단을 들어올리고 보면 몇 개

의 형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즉 (A) 수기동의 경주김씨 집단과 같이 한 마을의 거의 전부의 가족이 동일한 친족집단에 속해 있고 그속에 몇 개인가의 전마집단이 생겨 친족집단 안이 오히려 지역적으로는 둘 또는 셋으로 나눠져있는 경우 (B) 친족관계 집단의 성원(成員)이 지역적으로 동(洞) 또는 전마집단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경우 (C) 친족관계집단이 현저히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A형은 이른바 동성부락이다. B형는 동성집단이 부락의 지역적환절(環節)과 일치되는 경우이며 C형은 잡거(雜居) 상태로 제주도에서는 새로운 마을에서 보인다. 또 하나의 마을 안에서 B형과 C형이 혼재(混在)하고 있는 것도 적잖으며 이 경우 C형을 취하는 집단은 새로 이주해온 성씨에 많다. 지금까지 보아온 자연부락에서의 성씨를 친족관계 집단의 형태로부터 유별(類別)한 것이 <표 21>이다.

<표 21> 마을안 친족집단표

自然部落	親族關係集團의 形態		
	A 型	B 型	C 型
水基洞	慶州金氏		雜姓(集團을 이루지 않음)
橋來里	夫氏, 金海金氏, 高氏	宋氏, 愼氏	雜姓(集團을 이루지 않음)
臥山里	高氏, 梁氏		韓氏, 金氏, 李氏
大屹里		夫氏, 高山金氏, 康氏, 宋氏	韓氏, 文氏, 梁氏
北村里	李氏, 金海金氏, 尹氏, 高氏, 夫氏	韓氏	朴氏, 張氏
新村里	高氏, 李氏, 梁氏, 洪氏	金海金氏, 康氏, 姜氏	愼氏, 雜姓
禾北里	慶州金氏, 高氏, 夫氏, 梁氏	金海金氏	康氏, 李氏

제2절 수누름(두레) 및 계

제1절에서 말한 친족관계집단(모임)은 섬의 주로 자연부락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어서 간과(看過)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한편 이 절에서 말하려는 수누름(두레) 및 계(契)는 똑같이 주로 자연부락에서 볼 수 있는 협력의 방식으로 전자보다도 기능이 단순하며 특히 계는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 수누름(두레)

수누름(표준어=두레) 결합은 육지부나 일본에서도 가끔 보는 바와 같은 농촌에서의 노동의 협력·노동의 교환방법이다. 실제로는 파종기의 조·피의 파종, 수확기에 있어서의 곡식 베어들이기·운반, 돌담의 수리, 전마(碾磨)의 운전, 건축 등은 사람의 손이 일정수에 이르렀을 때 가장 높은 능률을 올리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족이 연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누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협력방안을 「유이(ゆい)」「에히(ゑひ)」「이이(いい)」「유에(ゆえ)」[3]라고 하며 육지에서는 「푸마시(남한)」「체(북한)」라고 부른다. 제주에서는 「수누름」외에 「초초(차례로)」「수눌품」또는 「수눔」이라고도 한다. 한편 노동의 교환·협력은 가족 사이뿐아니라 자연부락 사이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어 수기동(水基洞)에서는 물이 마를 때, 교래리의 물을 이용하는데 교래리의 돌담이 무너진 때는 수기동에서 사람을 내보내 이를 수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락간의 협력문제는 젖혀두고

3) 오노 다케오(小野武夫), 「日本村落史槪說」, 214쪽

가족간의 노동협력에 대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수기동에서는 이러한 수누름을 「초초」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차례 차례」라는 의미로 농번기, 특히 4월에서 5월에 걸친 파종기에 행해진다. 제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돌담으로 구획된 1구획의 밭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하루에 경작 파종을 마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려면 제주도와 같은 소가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으로 파종 준비가 갖춰지면 뜻이 맞는 2~3가족이 모여 각각의 밭을 차례로 경작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작업을 영위하는 가족수는 4가족을 넘는 일은 적다.

그래서 「식물(食物)」의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자기 밭을 경작하는 집에서 취사(炊事)를 맡아 대접을 한다. 여기 모이는 가족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지만 이전엔 어떠했느냐면 남편 쪽이나 처가쪽 근친과의 결합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근친이라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일을 부탁, 대접하질 않고 현금으로 노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상부상조의 정신은 근대적 고용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수확기에도 파종기와 마찬가지의 협력형태였다. 말방아로 곡물을 정백(精白)할 경우에는 두 가족이 공동으로 서로 같은 양의 곡물을 정백한다. 또 집 건축 때 손을 빌린 사람은 상대방의 집돌담 수리나 건축에 사람손을 필요로 할 때 도움으로써 신세를 갚는다. 이런 일은 모두 때에 맞춰 임의(任意)로 행해진다.

교래리에서는 수누름 또는 수눔이라고 하는데 동(洞)마다 또는 두개의 동이 결합해서 협동작업을 하는 일과 또는 임의로 4~5가족이 협력하는 일, 즉 모든 협동작업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시기는 역시 파종기와 수확기가 많다. 농사의 경우 그날 경작되는 밭주인이 대접

을 하는 것은 다른 데와 같다. 단지 이 마을의 특색은 수누름의 결합 범위가 수기동보다, 또 뒤에 말하려는 여러 마을보다도 커서 마을 전체의 협동작업도 수누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육지에 있어서의 푸마시는 제주도의 수누름과 대응(對應)하지만 교래리에서는 육지에서 두레라고 불리우고 있는 온 마을의 공동작업도 수누름이라고 부루고 있었던 것이다.

와산리(臥山里·문미)마을이나 대흘리(大屹里·하늘) 마을에 있어서도 꼭 같이 수누름이라고하여 협동하는 가족수는 둘 또는 네가족이다. 대흘리에서는 저녁 식사에 술을 곁들여 소연(小宴)을 베푼다. 이상 산촌(山村)과 양촌(陽村)의 수누름의 형태를 살폈으므로 다음에는 해촌(海村)으로 옮겨가 보자.

북촌리(北村里)에 있어서는 「수눌품」이라고 부르고 그 형태는 원칙적으로 양·산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해녀의 출가(出稼)가 많아져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안의 일꾼인 주부가 2월께로부터 육지 또는 일본으로 나갈 때는 다른 가족이 이 집의 파종·김매기를 돕고 주부가 가을, 수확 전에 돌아오면 도와줬던 집의 김매기·수확 등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해촌의 공동체의 유연성을 보이는 일례(一例)이다. 이 경우 협력하는 가족은 보통 2~3가족으로, 가족 전원이 심부름하기 보다는 가족중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신촌리(新村里)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수누름이라 하며 2가족에서부터 10가족까지가 협력한다. 협력관계가 일어나는 시기는 갖가지지만 이 해촌에는 해녀가 적기 때문에 북촌리와 같은 형태는 볼 수 없다. 다른 마을과 다소 다른 점은 남의 집에서 한 둘의 손을 빌릴 경우 이에

대해 식사를 마련하면 고맙다는 인사말도 필요 없고 일로써 갚을 필요도 없다.

화북리(禾北里·별도)에서는 「수눔」이라 칭하고 2~3가족이 서로 협력한다. 원칙적으로 형태는 다른 마을과 거의 비슷하지만 시기는 4~8월에 걸친 농번기에 행해진다. 이 부락은 제주읍에 가깝고 제주와 병행해서 오래된 마을인데 해녀나 원해어업자(遠海漁業者)로서 육지 또는 일본어선에 고용된 자도 많은 때문에 일손은 부족하지만 돈은 잘 돈다. 특히 산촌 여자들이 그녀들의 밭보다 달포 빨리 파종하는 이 마을에 일하러 온다. 이렇듯 임금을 지불한 경우라도 남을 빌어 밭을 가는 일, 또는 갈아주는 일을 수눔이라고 부르고 있다. 산촌 여인들의 임금은 식사를 시키고 그 당시 하루 20~30전(錢)이 시세였다.

이상 말한 것 외에 원야(原野)를 개간할 때의 협동작업이 있다. 이런 경우에 협력하는 가족수는 교래리에서는 많고 더구나 노동기간도 길다. 특히 남자가 성장하여 이미 개간된 땅 일부와 미개간지를 받고 분가(分家) 했을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근친들이 협력하여 미개간지를 개척해 준다. 이런 경우의 협동노동는 친자(親子) 형제 가족의 결합을 강고(强固)히 해준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서 일상 행해지는 수누름은 때와 경우에 응하는 자유스러운 결합으로 항구적집단과는 관계가 없다. 또 많은 인원의 협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일상의 수누름 결합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교래리와 같이 동 또는 친족관계집단이 협력단위가 된다. 즉 수누름과는 원칙이 다른 결합형태이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수누름은 농사 그 밖의 경제적요구에 의한, 자연부락 안에서의 2가족 이상의 수시적(隨時的)인 노동의 교환·협력이지 그 결합은 항상적·

조직적인 것은 아니다.

(나) 계 및 그 밖의 집단

계(契)는 유학적(儒學的) 합리성에 따른, 재물(財物)에 의한 협력방식으로 그때는 계의 성원의 출자가 요구되며 그 범위에서 성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계는 농촌의 자연부락을 기초로해서 조직된 경제적협력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일본의 강(講·주≡다노모시)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계는 유학적인 합리성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적인 특징은 적고 육지적이며 여성만의 계일 수는 없다. 본도에서 볼수 있는 계는 대강 다음과 같다.

애림계(愛林契) : 이 섬의 민유림이 차츰 황폐해가는 그 당시의 실정에 비춰보아 각 부락림 및 사유임야의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도청(島廳)에서 이(里)마다에 설치한 관설(官設)의 계는, 1937년도의 계의 수는 95, 계원수는 7천8백명[4]에 이르고 있다.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도청으로부터 장려금이 내려지는, 낙하산식 방식이 취해졌던 것은 그 당시의 전형적인 관청 방식이었다.

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계원은 산불 돌아보기, 도벌(盜伐) 감시 등의 소극적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그 밖의 경제적 기능은 각 계마다 정해져 있어서 내용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어떤 계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출자해서 모종을 구입, 조림하고 또 다른 계에서는 국유림을 불하(拂下) 받아 숯을 구워 공동으로 판매하는 등 갖가지이다. 계장(契長)은 임야소유자가 많아 구장(區

4) 「全羅南道濟州島」, 「昭和12年(1937) 濟州島勢要覽」.

長)과 같은 유력자였다.

마계(馬契) : 이것은 목축의 절에서 말한대로이지만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와산리). 그러나 계원이 공동책임을 짐으로 감시가 엄중하며 매매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직 아래서 우량한 종우마(種牛馬)를 구입, 계원의 암소·암말과 교배시켜[5] 가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장례계(葬禮契) : 이것은 육지에서도 흔히 보는 계로 자연부락 안의 유지가 계원이 되어 일정한 돈을 함께 거출(醵出), 장구(葬具) 일습을 갖추어 계원의 집에 불행이 있을 때는 이것을 빌려주는 것이다. 유지비는 각 계원의 부담이며 불행이 있었을 때의 향전(香奠) 기타도 또 계비(契費)로 부담한다. 이 계는 제주도에 있어서도 애림계에 이어 널리 각 마을에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지와 똑 같은 결혼계(結婚契)의 결혼의상이나 교자(轎子)를 계원의 출자에 의해 갖추어, 빌려주고 있다. 결혼계의 수는 장례계에 비하면 적다(와산리).

동계(洞契) : 자연부락 안의 각 동은 동비(洞費)를 필요로 함으로 이것을 계의 방식으로 지출·관리하고 있다. 동계는 섬에 널리 보이며 마을제(祭)나 영세한 면세(面稅) 등을 이것에서 지불하고 있다. 동계에는 동의 온 가족이 가입하고 있다. 신촌리의 동동계(東洞契), 수기동의 상동계(上洞契) 등이 적절한 예이다.

미계(米契)·**부조계**(扶助契) : 계원의 출자에 의해 기근(飢饉)에 대비, 특별창고에 쌀·보리·조·피 등을 저장하고 한편 현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저축한다. 그래서 계원 중에 필요가 발생했을 때, 곡

5) 마스다이치지(桝田一二), 「濟州島 牧畜의 地理學的硏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물이나 돈을 빌려 준다. 이식(利息)은 1년 20%로 대강 1~2년에 반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문미촌·하늘촌·별도촌).

전마계(碾磨契·연자방아계) : 이것은 전마집단의 계적(契的) 관리방식으로 와산리·신촌리·화북리에서 인지된 것이다. 전마(연자방아·말방아)의 유지비·신설비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계원이 연대책임으로 관리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 그 밖의 기능적 집단

청년회 : 연령집단으로서의 이른바 와카모노구미(若者組·일본고유의 청년집단)가 이 섬의 사회에 일찍이 존재했었는지 어떤지는 심히 의문이다. 그 당시 섬에 있던 청소년회의 수는 58단(団) 4천2백52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는 지덕(智德)의 수양·체육의 진흥·상호부조·폐풍(弊風)의 교정(矯正·주로 巫俗의 撲滅을 지칭한다)·교육의 보급·산업의 장려·저축의 여행(勵行) 등[6]이었지만 회원은 남자뿐으로 20~40세의 남성의 모임이다. 집회소로서는 특정한 가옥을 갖는 일 없이 마을의 중앙에 있는 거목(巨木·사진 49) 밑에 모여들어 힘을 겨룬다든지 잡담을 하는 모임이었다. 민족운동이 왕성해지면 청년회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와산리마을에서는 애림계와 같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매달 10원의 저금을 하며 마을제에 즈음해서는 심부름을 한다. 또 대흘리 마을에서는 청년계라고 칭하여 19세~40세 미만의 남자들이 모여 매달 10원씩 저금하고 회원 또는 회원의 부모가 죽었을 때 향전을 내기로 되어 있는 것은 장례계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 또 북촌리에서는 신성회(新成會·1927년 발족)라는 회가 있어 저금을 장려하고 서당 개수를

6) 「全羅南道濟州島」, 前揭書.

위해 1천원을 투자한 예도 있다. 청년계의 회장은 계원이 아니라 대개는 그 마을의 유력자로, 소정의 연령 이상이라도 상관 없는 것이다.

부인회 : 이것도 성별·연령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양·산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부인회는 해촌의 나잠(裸潛)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여자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회가 결성된 동기는 나잠어장의 옹호와 마을 안의 해녀의 내분(內紛) 조정이라는 내부적 요구에 의하는 것 같았다. 회는 마을 나잠어장이 나잠기간 즉 해금(解禁)을 정하며 다른 마을과의 분쟁에 대항할 때는 한 뭉치가 되어 결속한다. 또 어획물의 매매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부인회는 그 당시 강력한 조직이 되어 보통 2원 내외의 입회금을 징수하고 또 나잠수입의 일부를 갹금(醵金)하고 있으므로 명실 공히 그 마을의 나잠어장을 관리하고 있다. 북촌리에서는 이 회에서 용수정(用水井)의 수리비 전부를 지출한다. 북촌리·화북리와 같이 회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예도 적잖다.

조합 : 이것은 멸치잡이 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합(組合)으로서 어업분야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로작업도 조합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고 있다. 또 자리 그물에 있어서도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는 이러한 조합조직에 의해 그물을 만들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 열하나의 집단 가운데 그 역사가 비교적 뚜렷한 것은 애림계·부인회·조합의 세 집단과 같이 새로운 것으로 대개는 섬의 자연부락의 필요에 따라 조직된 것 같다. 마계·장례계·결혼계·동계·미계·부조계와 같은 계는 육지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유가(儒家)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 특히 재물에 의한 협력방식으로 아마도 중국

의 회합(會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도에서 계가 시작된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유학(儒學)과 더불어 육지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은, 계에 대해서 제주도방언이 전혀 없으며 육지와 똑 같이 「계」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것, 양촌에서 현저히 발달되고 있다는 것, 계라고 불리우는 집단에 공공연히 여자의 참가를 허용치 않는 것을 보아도 명백할 것이다. 계에 의한 협력방식은 형식·내용 모두가 육지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전마계(말방아계)와 같이 섬의 오랜 집단을 계 방식에 의해 조직화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한편 수누름은 노동의 협력·교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계와 상통하는 게 있지만 유사한 협력방식은 널리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다 토착적(土着的)인 관행으로 여겨진다. 계에 비하면 결합의 합리성이 약하고 협력의 조직은 임의적(任意的)이며 규모가 작고 공식(共食)이 따르는 점에서는 합리성이 결여(缺如)되나 사교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육지의 두레 곧 전촌적(全村的) 협력작업도 약간이긴 하나 산촌에서 볼 수 있다.

연령집단은 양·산촌에 있어서도, 또 해촌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기능이 별로 뚜렷하지 않아 조사되는 한에서는 거의가 합병 이후 조직된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해촌의 문화를 고찰(考察)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하고 싶다.

제3절 말방아집단(碾磨集團)

제주도 촌락의 경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는 마을 길모퉁이

에 있는 전마(碾磨·연자방아·말방아) 오두막과 마을 변두리에 있는 용수정(用水井)이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의 구조와 기능은 섬의 인류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연자방아 오두막은 반드시 도로에 면하고 그수는 마을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다르지만 가옥의 크기나 구조는 거의 일정하여 약 5m 사방의 것이 많다(사진 46A). 오두막의 중앙에는 연자방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한쪽 구석에는 용암(溶岩)을 에어만든 직경 75㎝ 높이 40㎝ 깊이 30㎝ 정도의 돌그릇(돌확)이 있고 속에 물이 들어있다. 연자방아를 본도에서는 「물방애」 또는 「물고레」라고 하는데 직역(直譯)하면 「마구(馬臼)」의 의미다.

구조는 <그림 27>과 같은데 그 중요한 부분은 지상으로부터 경(徑) 1m, 높이 60㎝ 정도의 크기로 쌓아 올려진 초석(礎石·드르목)과 그 위에 외경(外傾)해서 놓인 판석(板石·팡돌), 판석 위에 흩어진 곡물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창돌(枠石)」 및 판석 중심에 단단히 설치된 「중수리(立杖)」 또는 「입찬」이라는 막대로 지탱되어 판석 위를 자유로이 회전하는 「멧돌」이라고 하는 일본팽이 모양의 돌이다. 연자방아의 돌은 모두 섬의 용암이다. 연자방아로 정백(精白)할 때에는 멧돌 양쪽에 불어있는 「창경」이라는 손잡이를 사람이면 넷, 말이면 한 두필이 돌리므로써 멧돌을 판석 위에서 굴리면서 그 위에 놓인 곡물을 정백한다. 겉보리는 한 시간쯤 물에 담가두고 또 조·피는 그대로 연자방아에 올려놓는데 1시간에 20두(斗·朝鮮말) 정도 정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자방아는 제주도 독특한 것이 아니라 육지나 북지나(支那·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예를 들어 개성(開城)지방에서는 이것을 「돌방에칸」이라고 부르고 있다.[7] 단지 제

7) 柳洪烈씨 談.

<그림 27> 연자방아 구조도

주도에서는 각 자연부락의 조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연자방아(碾磨)와 방아(搗臼)와는 구조상 틀리지만 「가레(挽臼) 즉 「전구(碾臼)」와는 구조상 원리가 거의 같다. 어느 것이나 좌석(坐石) 위에 자유로히 회전하는 동석(動石)이 있어 두 개의 돌 사이에서 곡물이 정백된다. 「가레」쪽이 구체적인 구조는 간단하지만 일정한 크기를 넘으면 회전에 막대한 힘을 요함과 동시에 동석 위에 있는 구멍으로부터 곡물을 두 개의 돌 사이에 똑 같이 살포할 수가 없게 되므로 연자방아와 같은 형태로 발달했을 것이다.

그 당시 연자방아 한 개를 만드는 데는 1백원 걸리고 해마다 「중수리(立杖)」를 가는데 5~6원을 필요로 하며 3~4년 마다 팽이 모양의 돌에 붙어있는 목구(木具)를 모두 새로이 하고 오두막의 지붕을 새로 일기 위해서는 20수원을 요했다. 이와같은 지출은 하나의 가족에겐 상당한 출비(出費)일뿐더러 연자방아는 온종일 중 한 가족에 의해 쓰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5~6가족, 드물게는 수십가족이 공동으로 설비하여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방아 집단이란 이러한 연자방아를 공동으로 설비하여 관리하는 집단으로 자연부락 가

운데의 작으마한 환절(環節)을 이루는 것이다.

연자방아집단에 대해 섬의 방언에 의한 특별한 명칭은 없다. 그러나 이 집단을 성립시키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더구나 유력한 유대는 혈연관계로, 집이 아주 멀리 떨어져있지 않는 한 자식은 어버이가 사용하는 연자방아를 쓰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 다음에는 지역적 원근(遠近)의 관계가 문제이다. 연자방아는 특히 일상적인 일터임으로 여자들은 무거운 곡물을 들고 연자방아와 주거 사이를 왕복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에 가까운 연자방아를 사용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참고로 교래리 상동의 연자방아 사용자의 분포를 표시해 보면 <그림 28>과 같다.

사용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신(愼) ①은 신②의 아버지로 신③과는 숙질(叔姪) 관계에 있으며 신④는 신①의 조부이다. 또 신①의 누나는 박씨에게 시집가고 누이동생은 부씨에게 출가했다. 이(李)는 여자로서 부씨의 첩인데 그녀는 송(宋)①의 처형이며 송②는 송①의 동생이다. 한편 김과 강(姜)은 새로 이사온 사람으로, 이들의 혈연관계자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 연자방아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은 연자방아를 중심으로 반경 50m의 원고(圓弧) 속에 들어가버린다. 이제부터 앞의 각 마을에 대해서 연자방아의 수·명칭·사용자의 성 등을 알아 보기로 하자.

<그림 28> 연자방아 사용자 분포

수기동에서는 마을은 동·서 둘로 나눠져 있지만 가족이 불과 35호 밖에 안되는 때문인지, 연자방아는 하나뿐이며 따라서 명칭도 없고 오래된 동인 동동(東洞) 변두리에 있다. 사용은 각 가족의 선착순에 따르며 말은 사용자가 끌어오기로 되어 있지만 그 즈음엔 말을 쓰지

않고 사람 넷이 모여들어 돌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다. 인력(人力)으로 할 경우는 두 가족이 협동으로 하는 것을 상례(常例)로 한다.

이 마을의 유력자인 조합장이 중심이 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예년의 수리는 각 동의 가족으로 조직되어 있는 동계(洞契)로부터 출자되지만 3년에 한 번 있는 대수리 때는 별도로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금액 또는 재료의 출자가 요구되었다.

또 동계의 계약금도 낼 수 없고 임시수리비도 출자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마을 사람이라면 연자방아를 사용할 수는 있다. 이런 사람은 수리에 즈음하여 노력(勞力)으로써 봉사한다.

교래리는 상·하 두 동을 합쳐 모두 7개의 연자방아를 갖고 있다. 상동은 4개로 「웃물물방에(上水碾磨)」는 신(愼)씨 및 송씨 7가족의 집단이 사용하며 「웃물방에(上碾磨)」는 부씨 20가족, 「큰돌고리물방에(힘겨루기 돌의 연자방아)는 송·신씨 10가족, 「흠체무레방에(白碾磨)」는 김시 20가족이 사용하고 있다. 하동에는 합계 세 개로 「웃물방에」는 김씨 10가족, 「세미물방에(中碾磨)는 고씨와 김씨 8가족, 「알물방에(下碾磨)」는 양씨·송씨·고씨 그 밖의 27가족으로 쓰고 있다. 하동의 「알물방에」집단과 같이 잡성의 가족이 모여있는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 성립이 새롭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각 가족은 나름대로 정해진 연자방아를 쓴다. 형편에 따라 다른 연자방아를 사용할 때는 그 연자방아에 소속돼 있는 전 가족의 양해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관리방식은 대체로 수기동과 같지만 연자방아집단이 같은 성씨의 집단에 의해 거의 점유(占有)되어 있는 것과 여러 성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특히 정해진 관리상의 어른은 없고 각 가족이 의논하여 사용의 순번이나 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한다. 여기서는 수리에 금전을 쓰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력과 재료를 갹출한다. 그 때문에 보통 이틀 또는 사흘이 걸려, 수리가 마쳐지면 음식을 서로 마련하여 소연(小宴)을 베푼다. 각 연자방아집단은 그 마을의 행정상의 어른인 구장(區長)의 명령을 받는 일은 없다.

와산리의 원(院)은 목축의 대목에서 말한 바와같이 육지사람이나 섬사람에 의해 새로 구성된 소·말의 감시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10호 정도의 작은 마을이어서 예외적으로 내부가 동(洞)으로 나뉘어있지 않다. 모여있는 가족의 성·현연관계도 갖가지이며 연자방아는 하나, 명칭도 갖지 않는다. 사용형태·관리방법은 수기동과 같다.

와산리 문미마을은 동·서 2동으로 나눠져있고 계 조직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관계로 연자방아집단도 계조직으로 되어 있다. 동동에는 4개의 연자방아가 있어 「웃물방에」는 고씨 28가족, 「알물방에」는 양씨 20가족, 「동산가름물방에(비탈의 연자방아)」는 고씨 10가족, 「제비부리물방에(참새 혀연자방아)」는 혼합 7가족등 각각 계의 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다.

서동에는 합계 3개로, 「성물방에(서쪽연자방아)」는 혼합성씨 16가족, 「당카름방에(堂곁의 연자방아)」는 혼합성씨 11가족, 「종남방에(전나무 아래 연자방아)」는 혼합성씨 11가족에 의해 계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관리 및 수리는 계원 가운데서 선출된 인망(人望) 있는 계장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다. 계비(契費)로서 1가족 당 월 10전씩을 적립, 이것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노력은 각자 제공으로 수리한다. 계비의 잔금은 월 10%의 이자로 계원에게 빌려줌으로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동동의 「웃물방에」 「알물방에」 「동산카름물방에」계의 계장은 각각 친족관계단체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마을에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 세력가였다.

대흘리 하늘마을은 동·서 2동으로 나눠져 있어 각 동에 두 개씩의 연자방아를 갖고 있지만 그것들에는 명칭도 특정의 운용상 집단도 없이 각 가족이 근거리의 것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지역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집은 매우 칠칠치 못해 마을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요컨대 매년 하나의 연자방아에 대해 4가족, 합계 16가족이 순번으로 수리에 배정된다. 배정된 자는 재료와 노력의 모든 것을 맡게 되므로 부담도 크며 특히 3년에 한 번 있는 대수리 때 배정되면 큰일이다. 그러나 구장에 의한 할당이 적당한 때문인지 불평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양·산촌(陽·山村)의 연자방아집단의 예(例)는 끝내고 다음에는 해촌(海村)으로 옮겨보자. 해촌은 양·산촌에 비해서 자연부락이 보다 많은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洞)의 인구는 양촌의 그것보다 적은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의 동에 있는 연자방아의 수도 적지 않은 셈이다.

북촌리에는 7개의 동이 있어 동동(東洞)에는 「동동방에」, 광석동(廣石洞)에는 이름 없는 연자방아가 하나, 상동·흥례동(興禮洞)에도 똑 같이 이름없는 연자방아가 하나씩, 서동에는 2개, 해동(海洞), 억수동(億水洞)에는 각기 이름 없는 것이 하나씩 있다. 대부분의 동은 같은 성씨집단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동동연자방아 집단은 고씨, 광석동은 김씨, 상동은 윤씨 및 부씨, 흥례동은 김씨, 서동은 이씨, 해동는 한씨, 억수동은 혼합성씨에 의한다. 연자방아의 관리는 각 동에 맡겨져 수리 때는 각 가족이 정해진 돈을 갹출하고 그것으로 재료를 구입, 가난한 사람은 노력으로써 이 수리에 당한다.

신촌리는 5개동으로 나눠져 있어 연자방아는 친족관계집단 또는

연자방아의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연자방아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즉 동동내는 이름없는 연자방아가 셋이 있는데 그것들은 고씨가 하나, 양씨가 하나, 혼합성씨에 의해 다른 하나가 쓰여지고 있다. 중동동(中東洞)의 연자방아도 명칭불명으로, 홍씨 1, 이씨 두 개, 상동에서는 김·강(姜)·혼합성씨의 세 개. 중서동(中西洞)에서는 김·강(姜)·혼합성씨의 세 개. 인수동(人水洞)은 홍·신(愼) 두 성씨의 2개이다. 수리는 계의 적립금으로 재료를 사서 계원은 서로 노력을 제공하여 행한다. 잔여금은 와산리와 같이 금융 때문에 쓰여지고 있다. 계원이 아닌 사람으로 연자방아를 쓰려면 매년 지붕을 이는 띠 두 묶음을 납부토록 되어 있다. 그 당시 이 마을에 이사해온 사람 가운데는 디젤발동기가 달린 정미기(精米機) 공장이 생긴다는 소문 때문에 계에 가입하지 않고 해마다 띠 두 묶음을 납부해서 연자방아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화북리는 동·중·서 및 「고니모을」의 4개동으로 나눠져 연자방아 집단은 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동에는 4개, 중동에 1개, 서동에 4개, 고니모을 동에 1개의 연자방아가 존개하고 있었는데 김성순(金盛順)이라는 마을 사람이 정미소를 세운 때문에 연자방아는 거의 황폐하고 말았다. 정미소에서는 보리 또는 조 15두에 40전의 삯을 받고 있었다. 그 당시 이런 현상이 해촌에서는 차츰 눈에 띄게 되었다. 노인층에서는 정미기로 정백한 곡식은 단맛(甘味)이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낡아빠진 연자방아를 수리해서 다시 쓰자는 운동도 보였으나 오래 가지는 않았다.

이렇듯 연자방아집단의 변천을 살펴 오면 섬의 문화사의 일면을 알 수가 있다. 요컨대 친족관계집단과 지역관계가 모태(母胎)가 되어 발생한 연자방아집단이 양촌에서 차츰 육지적 유가적(儒家的) 계 방식에 의

해 관리되고 거기에 근대적 기계정백기가 들어오자, 그 연자방아 자체도, 또 그것을 중심으로 나타난 기능적 집단도 눈 깜짝할 사이 붕괴의 길을 더듬어 갈려고 했다. 아마도 새로 생긴 정미소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할을 현재의 자연부락 안에서 다하고 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제4절 물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제1장과 제2장에서 자연환경으로서의 물 및 물과 부락의 생태학적 관계를 기술했지만 여기서는 제주도에 있어서 이용되는 용수(用水)의 형태와 용수의 관리를 둘러싸고 자연부락 안에서 보게되는 사회집단에 대해서 말해보자.

(가) 이용되는 물의 종류

1) **화구호(火口湖)의 물** :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장올악(長兀岳)의 화구호를 비롯해서 섬에는 많은 화구호가 있다. 이것들은 거의 사람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있지만 산촌형(山村型)의 방목에 의한 소·말이 때때로 이용한다. 화구호가 있는 산은 대개 울창한 숲에 덮여 있어 인간의 접근을 허용 않는다. 그러나 소·말은 덤불을 먹으면서 정상으로 올라가 눈이 쌓일 때까지 그 물을 마시며 생활하고 있다.

2) **하천원류(源流)의 현류지대(現流地帶)에 있어서의 유수(流水)** : 이것도 화구호와 더불어 거주지보다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물이다. 날카로운 V자 계곡의 바닥을 흐르는, 아주 청렬(淸洌)하며 양도 풍부

하지만 일부의 목축우마와 여행자 및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녀의 물맞이용 약수로 이용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 지대는 도내의 심설(深雪)지대이다.

3) 하천 중류(中流)의 유수(溜水)와 용수(湧水) : 이것도 현재의 부락 위치로부터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해녀의 물맞이 또는 일부 방목우마에게 이용되는데 불과하다. 그 당시 이런 유수(流水)를 방죽으로 막아 커다란 유지(溜池)를 만들어 이것을 중심으로 소·말을 방목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었다(淵外川中流). 이와같은 중류지대에 솟아오르는 물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백두화산대(白頭火山帶)에 있어서도 가끔 「트랜스(trans)」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표고가 높은 곳에 있는 때문인지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4) 하천하류의 현수(現水) : 제주도의 하천은 항시 그 하류에서 유수를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만큼 건천(乾川)도 많다. 그러나 해안에서는 냇가의 유수(流水) 또는 용수(湧水) 곁에는 반드시 가옥이 밀집하여 마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병문천(屛門川) 하구(河口)의 용담리(龍潭里), 송천(松川)유역의 토산리(兎山里), 연외천(淵外川) 하구의 서귀리, 창고천(倉庫川) 하구의 화순리(和順里) 하동, 도근천(都近川) 하구의 내도리(內都里) 등과 같은 것들이다. 물을 이용하는 일상적인 생활은 이러한 용수 부근에서 영위되지만 한 번 호우(豪雨)가 내리면 이러한 물은 전혀 쓸 수 없을만큼 혼탁해지고 건천에는 유수가 엄청나게 넘쳐 가까이 갈 수도 없으므로 한동안 물의 사용도 중단되고 만다. 그 때문에 예비의 용수를 발견해둘 필요가 있다.

5) **양·산촌지대의 유수(溜水·고인물) 및 용수(湧水·솟는 물)** : 제1장에서 말한 바와같이 제주도의 부락은 양·산촌에 있어서는 하천을 따라 밀집하는 일이 없이 주로 소량의 물이 기암(基岩)의 약점(弱點)으로부터 새어나오는 움푹 패인 곳에 1m 사방으로부터 5m 사방쯤의 구멍을 파서 그 주위를 돌로 두르고 바닥에 현무암사(玄武岩砂)를 깐 용수(用水) 또는 못을 만든다. 이런 용수를 중심으로 가옥이 모여든다. 따라서 그 수리·사용에는 일정한 통제를 요한다. 여기에서 용수관계의 조직이 태어난다. 감수기(減水期)에는 이 유수(溜水)가 말라버리는 일이 있어 용수난(用水難)에 즈음해서는 기우(祈雨) 행사가 행해진다.

6) **양·산촌의 우물** : 양·산촌에 있어서의 용수(用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웅덩이뿐아니라 얼마만큼이나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수와 해촌의 우물과를 구분해야 할 점은 산·양촌에선 현무암층을 뚫어 그 바닥에 있는 물을 이용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물은 구경(口徑)에 비해서 심도(深度)가 얕다. 예를 들어 수기동(水基洞)의 전형적 우물인 「셋동물(東洞水)」은 주위 1백32㎝ 사방, 깊이 63㎝이다. 한편 솟아오르는 지하수가 풍부한 마을에서는 마을사람의 갹금(醵金)에 의해 이를 수도조직으로 해서 마을의 각처에 분배하고 있다(吐坪里). 자연히 솟아나는 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금기(禁忌)가 없지만 새로 우물을 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금기가 지켜진다.

(i) 마을의 남쪽에 우물을 파면 그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ii) 우물을 파는 날은 천기대요(天機大要)에 의해 천감일(天監日)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iii) 우물을 파는 날에는 지진제(地鎭祭)를 올려라. 그렇지 않을 땐 물은 다른 마을로 도망칠 것이다.

(iv) 지진제에는 밥과 술을 우물을 팔 예정지에 올리고 밥을 술 속에 넣어 삼배(三拜)해서 다음의 경문(經文)을 낭독한다.

土地之神今爲姓各八於叅三靈薦
以湯達浪旣蒙幽贊惟神
慈悲眷玆閣諸不受薦恠註生
功德在家産業耶願就出他營業
取求皆得時乘汞駃報賽無疆
敢薦菲薄伏願尙
饗

(v) 역시 우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똑 같은 제사를 올려야 한다. 만일 불이행 시는 물은 다른 마을로 도망칠 것이다.

7) **해안지대에 있어서의 지상용수(地上湧水)** : 이것은 하천의 하류에서 잠류(潛流)한 물이 여러 가지로 분산하여 복잡한 물길을 더듬어 해안지대에 솟아오르는 것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더구나 한곳에서 용출하는 양이 양·산촌에 비하면 다량임으로 돌을 둘르고 바닥에 모레를 까는 것은 양·산촌과 같지만 주위를 너무 널리 파서 물을 고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물의 형태는 작다. 또 해촌의 윗쪽 1백m 안팎의 곳에 흔히 보이는 물은 현무암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청정한 물이지만 다른 조건과의 관계도 있어 별로 이용안되는 것은 유감이다.

8) **해촌의 우물** : 이 종류의 우물은 깊이가 북촌리의 「우완물」 같

은 것은 15m나 되고 수심(水深)은 2m 안팎이다. 이런 우물은 해변에 파지는 수가 많으며 표층(表層)의 엷은 현무암층을 뚫어 암층 사이의 틈의 지하수를 포착하는 것이다. 곳에 따라서는 만조(滿潮) 때 바닷물이 역류(逆流)하는 곳도 있어 그 당시로서는 아직 그다지 양질의 물을 얻을 수는 없었다.

9) 해중용수(海中湧水·솟는 물) : 이것은 섬 독특한 용수로, 산중에서 잠류(潛流)한 복수(伏水)가 해중에 용출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용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안을 작은 배로 돌아다닐 때 해면(海面)의 일부가 부풀어오른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곳이 있다. 이것이 「솟는 물」인 것이다. 간조 때는 바닷물이 싸면 담수(淡水)가 솟아오르는 곳도 종종 보인다.

이러한 용수는 전도에 걸쳐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 이런 물만을 사용하고 있는 용담리와 같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조천리의 일부와 같이 지상수(地上水)와 병용(倂用)하는 곳도 있다. 해중용수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간조 때 지상에 나타나지만 만조시에는 해수로 덮여짐으로 특별한 시설이 만들어져 빨래터로 쓰이고 있다(사진 51).

(나)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제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긷기는 여자의 대표적인 일로 남자는 결코 이에 종사하지 않는다. 물을 긷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여자들은 「물허벅」이라는 현무토(玄武土)를 구워서 만든 물동이를 「물구덕(竹籠)」에 넣어 등에 십자로 교차시킨 끈으로 짊어지고(사진 53·a·b) 용수를 찾아가는 것이다. 비슷한 시간에 여자들이 물 가로 모여들지만 바쁜 때인만큼 지나치게 지껄이는 일 없이 길 위를 전후해서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요건(要件)을 얘기한다.

용수의 관리는 그 용수를 항상 쓰는 사람들 또는 동이나 마을에서 맡지만 남자들의 애기로 방침이 결정되고 실제의 수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다. 앞 절에서 예시한 각 마을에 대해서 이러한 용수관리집단을 살펴 보자.

水基洞 : 동동에는 「셋동물」이라는 우물이 있고 서동에는 「버들못(柳池)」이라는 고인 물(溜水)이 동민의 용수가 되고 있다. 물이 귀한 지대임으로 달리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 관리는 동(洞)마다에서 맡고 비용 및 노력은 각 가족의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다. 각 동의 물은 그 동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의 물이 말랐을 때는 다른 동의 것도 쓸 수 있도록 한다. 그 대상(代償)으로서 상대 동이 돌담을 수리할 때는 노력을 제공한다. 이와같은 용수집단의 통제를 나타내는 예로서는 「셋동물」곁에 서있던 팻말을 제시한다.

一. 飮料水給水에 對하야 비누를 타거
나 양잿물을 使用하는 사람에게는
罰金壹圓을 徵收함
巡還番은 一日二人으로 定함

그런데 이 두 개의 용수가 함께 말라버리는 일이 몇 해에 한 번쯤은 있다. 그 때는 마을에서 5㎞쯤 산쪽으로 있는 교래리에 물을 얻으러 간다. 아래쪽에도 4㎞쯤에 대흘리가 있으나 그곳으로부터는 물을 얻지 않는다. 행정상 수기동은 대흘리에 속하지만 이런 관계는 행정구획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교래리로부터 물을 빌린 때의 대상(代償)은 역시 돌담을 고칠 때 노력을 지불한다.

교래리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산촌으로, 상·하 2개

동으로 나뉘어 있고 두 동은 약 1㎞ 떨어져 있다. 그런데 용수는 「뒷냇물(後川水)」하나로, 위치는 상동에 있으며 깊은 덤불에 쌓여있다. 이 고인물은 마른 일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을사람들이 물을 애끼는 것은 대단하여 관리는 마을에 맡겨지고 매일 각 가족이 주변 청소·수리에 나서고 있다.

원리(院里)는 「본원물」이라는 용수(湧水)가 있어 그 사용·관리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각 가족 공동으로 하며 수리는 생각이 미친 사람이 맡는다. 와산리는 동·서 2개동으로 나눠져 있지만 용수는 고인물로, 「당샘(堂泉)」은 사람이 사용하는 유일한 고인물로 두 동의 중간에 있으며 소·말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목책이 둘러져 있다. 「사세미」는 소·말을 위한 웅덩이로 두 마을의 훨씬 남쪽에 있다. 관리양식은 역시 마을 전체의 공동관리로, 수리에는 미을사람 모두가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친족관계 집단이나 연자방아집단이 차례 차례로 이에 당한다. 종종 파손되는 곳은 물 긷는 장소의 돌팡(石疊)이다. 청소 그 밖의 일상의 관리는 수기동과 마찬가지이다.

대흘리는 동·서동으로 나뉘어 있지만 역시 그 중간에 「하늘물」「본원물」의 두 웅덩이와 「대출물」이라는 인공유지(人工溜池)가 있다. 앞의 두 개의 웅덩이는 종종 마르므로 이 마을 출신으로 일본에 가서 출세한 김모라는 사람이 6백원을 기부해서 인공유지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만 있으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쓰고 있다. 자연의 웅덩이는 생각이 미친 사람이 자발적으로 청소나 작은 수리를 하지만 해마다 한 번의 대수리는 구장의 지시에 의해 각 가족으로부터 1인씩 사람을 내어 실시한다. 한편 인공웅덩이 「대출물」의 수리는 역시 매해 1회, 마을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걷워 기술자에게 의뢰한다.

양·산촌의 용수는 이처럼 마을마다에 갖춰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지고 관리도 따라서 동(洞) 또는 마을 전체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는 해촌으로 옮겨보자.

북촌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7개동으로 나눠져 있어 용수(用水)는 광석동에 1개소 「충지」, 억수동과 해동과의 중간에 「산리물」과 「도와치물」의 합계 3개의 솟는물(湧水)과 해동에 「우완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있다. 그 가운데 「충지물」이 가장 좋아 마르는 일도 적기 때문에 동동·광석동·상동·흥례동·서동의 5개동이 이것을 사용하고 「산리물」 「도와치물」의 둘은 보통 억수동 만이 사용하며 해동은 거의 「우완물」을 쓴다. 이 우물은 때때로 마르므로 그런 때는 앞의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용수의 사용구분이 정해져 있긴하나 관리는 마을 전체에 의해 행해지며 수리도 완전히 공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용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리의 요구는 더 강함으로 자발적으로 수리에 당하는 사람이 많아 사용자가 단위가 되어 작업에 종사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래도 한도가 있어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마을 전체의 사활(死活)문제가 됨으로 대규모의 수리는 마을전체에서 한다. 요컨대 수리비의 지불과 수리방법은 구장을 비롯해서 유력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마을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촌리 잠녀(潛女) 부인회가 1백수십원을 갹금해서 「충지」용수를 수리한 일이 있는데, 부인회가 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주목할만한 사건이었다.

신촌리는 5개동으로 나뉘어 있고 동동에는 「감원물」 및 「동물(洞水)」, 동중동에는 「초파물」, 상동 및 서중동에는 「구름물(雲水)」, 동수동(東水洞)에는 이름 없는 우물이 있다.

이 마을에는 또한 10수개소의 지상용수(湧水) 및 해중용수가 있지만

그 당시 용수(用水)로서 사용되고 있던 것은 이상의 4개소 물이었다. 물이 풍부한 관계에서 그 관리는 각 동에 맡겨져있어 거의 수리비는 필요 없으며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제공함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화북리는 4개동으로 나뉘어 동동에는 명칭불명의 용수(湧水)가 2개소, 중동에는 3개소, 중동에는 용수(用水)가 없어 중동의 것을 사용하며 고니모을동에는 1개소가 있어 관리는 동에 맡겨져 있지만 마을은 향약(鄕約)에 의해 수리·청소 등에 대한 명령·독촉을 하는 수가 있다. 수리방법은 신촌리의 그것과 변함이 없다.

이와같이 용수의 사용관리에 대해서는 각 마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마을이 나름대로의 전통이나 환경에 따라 「자기의 물」을 지켜나가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다.

(다) 용수권(用水圈)과 전마(碾磨·연자방아) 집단

하나의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관리하는 집단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말해온 친족관계집단·수누름·계·각종의 회(會)·연자방아집단 등도 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紐帶)에 의해 종종 강화되어 통일성 있는 자연부락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는 이와같은 집단의 범위, 즉 용수권과 전마집단의 크기와를 비교하면서 해촌과 양·산촌과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22>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용수권은 전마집단보다 평균 2배강(强)의 가족수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해촌 및 양·산촌을 비교할 때 전마집단의 가족수는 거의 변함 없지만 용수권(用水圈)은 양·산촌이 해촌보다 크다. 전형적인 양·산촌, 즉 와산리·교래리의 두 마을을 보면 하나의 용수권에 포함되는 가족수는 모두가 1백가족을 넘어

<표 22> 碾磨集團과 用水圈比較表

	碾磨集團의 家族數	陽·山村, 海村別平均	平 均	用水圈의 家族數	陽·山村, 海村別平均	平 均
水基洞	36.0	ㄱ		18	ㄱ	
橋來里	16.0	ㅣ		112	ㅣ	
院	10.0	ㅣ 19.7		10	ㅣ 54.4	
臥山里	14.7	ㅣ		103	ㅣ	
大屹里	22.0	ㄴ		29.3	ㄴ	
北村里	22.1	ㄱ		44.2	ㄱ	
新村里	17.6	ㄴ 19.8	19.7	46.0	ㄴ 45.6	50.0

해촌의 50가족 이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마(연자방아)는 친족관계를 모태(母胎)로 하는 집단에 의해 관리되며 마을은 이에 하등의 관여를 않는 경우가 많다. 연자방아가 파손됐을 때 다른 연자방아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전마집단에 속하는 각 가족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연자방아의 결합은 강하고 종종 계에 의해 조직되며 금융기관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기능은 다기(多岐)에 걸쳐 있어 집단 속에서 지배적인 힘(力)관계가 보인다. 이에 대해 용수는 대개의 경우 마을 또는 동에서도 관리되고 있어 자연부락의 주민은 용수에 대해서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요컨대 용수권은 단순히 사용자의 지역적편의에 바탕을 둔 범위로 물이 마를 때는 자연부락 안에서 자유로이 다른 물을 쓸 수가 있다. 전마집단·용수권·마을의 삼자(三者)관계를 도시(圖示)하면 <그림 29>와 같다.

다음으로 양자(兩者)에게 붙여져 있는 명칭을 검토해 보자. 연자방아·용수(用水) 모두 이름 없는 것은 양촌 및 해촌에 많으며 해촌의

그것들은 명칭에 있어서도 그 당시 이미 의미가 불명해 진 것이 적지 않았다.

요약하건대, 전마집단은 해·양·산촌 모두가 거의 비슷한 가족수로 이뤄져 있지만 용수권의 너비는 해촌보다 양·산촌쪽이 크다. 전마집단은 친족관계를 모태로 해서 성립하여 자연부락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소 폐쇄적인 집단이지만 용수는 자연부락의 통제 아래 두어지고 있어 모든 마을사람들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림 29> 마을안에 있어서의 用水圈과 碾磨集團關係圖

제5절 종 합

제주도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족인 인간관계의 하나는 친족관계로, 자연부락 안에서는 친족관계집단이 본관과 성씨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요컨대 10대(代) 전까지의 부계(父系) 조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세대(世代)에 따라 틀리게 마련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한정하면 실제로는 앞과 같이 격차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면 실제로 자연부락 안에서는 10대 전까지 소급(遡及)해 갈 수 있는 친족은 없고 수대(數代)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친족관계집단의 기능은 복잡하지만 그들 기능을 단적(端的)으로 볼 수 있는 조상제사와 장례식을 예(例)로 들었다. 친족관계집단

의 정신적 중핵(中核)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남편)쪽의 조상이다. 그들 조상의 제사는 유례적(儒禮的)인 것이지만 주부가 참가하여 준비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녀들은 그들 조상을 모두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조상제사에 즈음해서는 가족중의 남녀 대립은 해소되고 열심히 행해진다. 추석과 동지에는 5대(代) 10신(身)의 조상 모두에 대한 제사가 친족관계자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올려지는데 이 때 앞으로 반년간에 걸친 각 선조제사에 대한 분담과 협력에 대한 의논이 이뤄진다. 이렇게해서 각 가족에게 할당된 조상제사에 대한 책임은 각 가족의 주부에게 짊어지워진다. 제사에 있어서 월경 그밖의 것에 대한 금기(禁忌)는 초자연적인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부는 친족관계집단으로부터 사실상 추방 당한다. 한편 이러한 하나 하나의 조상제사도 친족 사이의 사교(社交)이며 주부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그 당시 섬에서 행해졌던, 죽은 사람에 대한 행사는 옛 기록에 기재된 것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육지화(陸地化) 즉 유례화되어 있다. 육지와 다른 점은 친족관계자의 거의가 형식적이 아닌 슬픔에 젖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친족관계자들이 남녀 구별없이 강렬한 혈연의식에 의해 꿰뚫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무덤에 대한 신앙은 육지에서도 강하지만 섬에서는 더욱 강하여 종종 친족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무덤에 대한 행사도 엄격히 지켜져 화가 일족간에 잇따르면 풍수사의 복서(卜筮), 신방 등의 신탁(神託)에 의해 이묘(移墓)를 한다. 이 경우의 의논상대는 아버지쪽의 친족관계 유력자이며 또 손을 빌리는 것도 아버지쪽 친족이다. 자연부락 안의 친족관계 집단의 크기는 갖가지지만 (A)지역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과, (B) 산재해 있는 것 및 (C) 그 중간형이 있다.

한편 제주도의 촌락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임시적인 노동협력 수누름은 조선의 육지에서는 보봉 푸마시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이(ゆい)」라고 불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자유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동에 의한 협력은 세계의 농촌에서 널리 볼 수 있지만 제주도의 해촌에서는 특히 유연성을 갖고 있어 해녀들이 출가한 사이에 부족되는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도 수누름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반적인 경향으로 그러한 결합은 차츰 임금에 의한 고용관계로 바뀌져가고 있었다.

계는 주로 농촌에 있어서 유례적(儒禮的) 합리성을 지닌, 재물에 의한 협력방식으로, 분명히 육지로부터 유교와 함께 이입(移入)되어진 것일 것이다. 그러나 육지의 그것에 비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약하다. 또 계의 방식이 섬의 지금까지 있었던 집단을 조직화하고 있는 예로서 전마계(연자방아계)를 들었다.

성별·연령별 집단이 이 섬에 일찍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그 당시부터 10수년 이전까지 있었던 「외입(오입)」와 깊은 관계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그 당시 청소년회가 뚜렷한 조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다. 부인회는 잠수하는 해녀의 집단으로 성립연대는 아직 얕으지만 경제적으로 유력한 조직이다. 나잠(裸潛)어장의 주체로서 해녀들이 조직화되지 않는 집단이 이전부터 있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제주도의 촌락에는 반드시 한 채 이상의 연자방아가 있다. 이것이 섬 독특한 도구는 아니지만 그 소유·관리를 둘러싸서 특수한 조직이 보인다는 것은 이 섬의 특징이다.

이런 집단에는 특별한 호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마집단이라

고 가칭(假稱)했다. 그 관리는 집단의 각 구성원 공동책임으로 행해지며 수리도 노력·재료 및 금전의 갹출로 이루어진다. 사용에 있어서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가족 사이의 수누름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미조직의 집단은 종종 계의 방식에 의해 조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해촌의 곳곳에 디젤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정미소가 만들어져 연자방아를 사용하는 일이 적어지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물이 귀한 곳이다. 따라서 물을 중심으로하는 생활을 간과(看過)할 수는 없다. 물긷기는 여자의 일로 남자는 결코 이에 종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수장의 왕래에 즈음해서 여자들은 애기를 나눌 수도 있다. 한편 용수의 관리는 주로 동 또는 마을에 의해 실시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 앞의 친족관계 집단이나 수누름·계·전마집단보다는 보다 포괄적·개방적이다. 또 전마집단의 크기는 해·양·산촌 모두 커다란 차이는 없지만 용수권(用水圈)은 물이 귀한 탓인지, 양·산촌이 크고 해촌은 작다.

그런데 전마집단은 기계정미기의 도입으로 간단하게 파괴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46b·47b) 용수의 조직은 자연부락에 의해 유지되는 한, 수도가 설치되어도 파괴되는 일 없이 오히려 마을의 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제주읍과 같은 도시에 있어서는 그 즈음 육지로부터의 자유노동자가 많아지고 더구나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고 우물로부터 물을 길어오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시 밖에서는 전마집단이 근대적인 기계정미기의 도입에 의해 파괴되어가고 있는데 대해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바꿔 말한다면 물긷는 여자들과의 접촉, 용수의 공동관리에 나타나는 마을의 기능 등은 거의 변화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제5장 제주도의 종교

제1절 섬의 성소(聖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에 「俗尙淫祀。乃於山藪川池丘陵墳衍木石。俱神祀」라고 적혀 있어 옛부터 갖가지의 성소(聖所)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당시도 아직 섬에는 갖가지 성소를 볼 수 있었다. 섬의 성소를 대별하면 우선 각 가족, 각 동 및 각 마을에 속하는 것과 그러한 특정의 집단에 관계없이 제주도인에게 일반적인, 예를 들어 한라산·삼성혈·그 밖의 것과 같은 성소의 둘로 나눌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전자(前者)라고 해도 그 가족·그 동·그 마을의 성원(成員)만에 의해 신성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신성시되고 있지만 주로 각각의 가족·동·마을에 의해 개별적인 행사가 이뤄져 일반적으로 당(堂)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후자는 전 도민에 의해 거기에밖에 존재하지 않는 성소로써 일반적으로 신성시되며 「당」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지금 편의상 전자를 개별적 성소, 후자를 보편적 성소라고 명명해 둔다.

Ⅰ. 보편적 성소(普遍的 聖所)

(가) 성소로서의 산

(a) **한라산** : 제주도의 산악 중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한라산(사진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Ⅰ)으로, 도민은 모든 길흉(吉凶)을 이 산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1936년 1월 3일 필자의 외우(畏友) 마에카와 도모하루(前川智春)군이 이 산의 눈보라 속에서 죽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섬사람은, 그의 사인(死因)은 그 전년 가을, 한라산정(山頂) 바로 밑의 대석택(大石澤)에 오두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신이 노(怒)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그 당시, 시체의 발견이 늦어지고 있을 때 제주의 어떤 신방(무당)은 누군가의 의뢰로 굿을 하더니 「마에카와씨는 오두막을 피해서 대석택의 막다른 곳에 지금도 안주(安住)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가 한라산을 신성시하여 거기에 속된 오두막을 지은 때문에 마에카와군의 불행이 일어났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말을 찾는다든지 식물을 캐기 위해 한라산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1935년까지 한라산의 높은 지대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인공에 의한 공작물은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산에 머무는 신의 성격은 반드시 하나는 아닌 것 같다. 한라산 여장군(女將軍)은 뒤에 말할 오백나한(五百羅漢·사진 14)과 더불어 섬을 외적(外敵)으로부터 구한다고 믿어, 외국선이 가까이 오면 순식간에 운무(雲霧)를 일으켜 섬을 덮어 버린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 서귀본향당본해(西歸本鄕堂本解)[2]에 나오는 인문관풍신(印文官風神)도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다. 본도 가운데서도 특히 남면(南面)에 있어서는 섬의 탁월풍(卓越風)인 북북서 또는 북풍이 한라산에 부딪쳐 여기서 단열팽창(斷熱膨脹), 남쪽의 산악지대에 눈을 내리게 하면서 평야에 흘러드는 이른바 푄(Fühn)현상이 현저한데 이 바람은 겨울에 산으로부터 불어내리는 생각치도 않는 온풍(溫風)이다. 그것은 계절적인 주기율(周期率)을 지

2) 赤松智城·秋葉隆, 『朝鮮 巫俗의 硏究』, 上卷.

니고 있지만 이상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또 제2장에서 말한 「환구(Fangu)」는 전설에 따르면 한라산신이며 더구나 달 속에 살고 있다. 여기서는 월신(月神)과 산신(山神)이 융합해서 일체(一體)가 되어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

또 제주읍에서 남쪽 4㎞의 삼의양악(三義讓岳) 기슭에 산신당(山神堂)이라고 부르는 신당이 있고 그 당시는 윗쪽에 있는 관음사(觀音寺)의 부처가 모셔져 있었는데 옛날에는 역대의 목사(牧使)가 여기서 한라산신을 모셔 오곡풍양(五穀豊穰)을 빌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여지승람[3]에 제주의 남쪽 3리(朝鮮里)에 한라호국신사(漢拏護國神祠) 광양당(廣壤堂)이 있다는 것을 게재하고 속전(俗傳)으로 다음과 같은 애기를 전하고 있다.

> 漢拏山神之弟. 生有聖德. 歿爲神. 高麗時. 宋胡宋朝. 來壓此土. 浮海而返. 神化爲鷹. 飛上穡頭. 俄而北風大吹. 擊碎宋朝之舟. 沒于西境飛揚島巖石間. 朝廷褒其靈異. 賜之食邑. 封爲廣壤王. 歲降香幣以祭. 本朝令本邑致祭.

이 속전(俗伝)은 그 당시 남아있던 한라산 여장군의 신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또 풍속의 강(綱)에는 이 당에 봄·가을 두 번 남녀가 주육(酒肉)을 갖고 모여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두 개의 당은 모두 한라산신을 모신 제장(祭場)의 예이지만 1935년경 이미 제장은 모두 파괴되고 혹은 왕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라산신에 대한 신성관념(神聖觀念)의 내용은 구구하며 행사의 상세한 부분도 분명치 않으므로 자세한 분석은 할 수 없지만 한라산신과 육지에 있어서의 산신은 확실히 이질적(異質的)인 것이라는 것은

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육지의 산신인 「호랑이」와 한라산신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승람[4]에 「無虎豹熊羆豺狼害人之獸」라고 되어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육지의 호랑이에 의해 상징되는 산신의 관념이 이 섬의 그것에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b) **오백나한**(五百羅漢) : 일명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이 산은 한라산의 서쪽에 치솟은 거대한 현무암의 봉오리(사진 14)로, 표고 1천6백40m에 이르러 섬사람들은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지키며, 바꿔 말하면 운무(雲霧)를 불러 섬을 감춰버리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고기(古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섬사람들의 이 산에 대한 행사는 알 수가 없다.

(c) **수장올악**(水長兀岳) : 이 산은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석파로(石坡路) 마루턱의 남쪽에 있어 표고는 9백62m, 그 화구호(火口湖)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으며 주위가 항상 운무에 덮여 있는 신선경(神仙境)이다. 또 저 「설문대할망(제2장 참조)」이 머무는 곳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부정(不淨)한 사람」즉 전날 밤에 음주·성교한 자와 이 오름에 오는 산길에서 장(葬)을 본 사람이 산꼭대기에 서면 운무 때문에 화구호를 볼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기적인 행사는 없지만 큰 일을 바랄 때는 몸을 청정히하여 밥과 술을 갖고 이 산에 올라 제물을 바쳐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날 때까지 운무가 피어오르지 않으면 바라는 일이 성취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산에 대한 신앙은 막연한 것으로, 그 당시는 정기적인 행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사는 볼수 없었다. 특정의 산은 모든 도민의 신이긴 하지만 어느쪽이냐면 오백나한·수장올악에 대한 신앙심은 양·산촌이 강하고 해촌인에게 약하지만 한라산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이 외경(畏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나) 시조(始祖)전설에 얽힌 성소(聖所)

도민의 시조전설에 얽힌 성소는 섬 가운데 셋을 헤아린다. 첫째는 삼신이 용출(湧出)한 삼성혈, 둘째는 궁시(弓矢)로써 땅을 정했던 터라고 전해지는 「사시지(射矢址)」, 셋째는 삼녀(三女)가 상륙했었다는 연혼포(延婚浦)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셋 가운데서 둘째와 셋째는 현실적으로 성소로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첫째인 삼성혈(사진 54)만을 살펴 보자.

삼성혈은 제주읍의 성밖 2㎞쯤에 있어 주위는 정정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 싸이고 돌담이 겹으로 닿아져 있는데 바깥쪽 담을 지나면 관리인의 주거와 회합소(會合所)가 있고 내벽(內壁)의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허가를 받고 그 문짝을 여니 서면(西面)에 당우(堂宇)가 있으며 그 북쪽에 직경 1m, 깊이 50㎝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속에 더욱 작은 구멍 세 개가 입을 벌리고 있다(사진 55). 당의 서쪽에는 세 개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데 각각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의 것이다. 그 앞에는 향로와 촛대가 놓여 있다.

이 삼성혈은 제주 고·양·부(濟州高·梁·夫) 삼씨에게 있어서는 그들 조상의 발상지로써, 도민 전체로부터는 섬의 시조신(始祖神)이 솟아난 땅으로써 신성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구멍에 대한 제사는 제주가 가까웠다는 것과 무속(巫俗)에의 대항상(對抗上)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례화(儒禮化)되어 마을들의 조상제사와는 달리 전혀 여자가

참여 않는다. 따라서 이 구멍에 대해서 여성들은 관심이 없다. 또한 그 당시 전도의 고·양·부 성씨의 사람들과 유력자를 규합해서 8만1천9백원을 모아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삼성시조재단법인(三姓始祖財團法人)을 조직하여 유지해오고 있다.

행사로서는 삼성의 자손에 의해 올려지는 제사를 「사제(祠祭)」라고 해서 음력 4월 10일과 10월 10일의 춘추 2회의 대제(大祭)와 매월 삭망(朔望)에 치러지는 소제(小祭)가 있다. 대제에 즈음해서는 전도의 삼성씨 중에서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의 삼헌을 올리는 제관을 고른다. 제물의 주된 것은 일곱 마리의 소—그 당시는 비용 절약을 위해 돼지를 대용하고 있었다—와 이 성지(聖地)에서 빚은 「헌주(獻酒)라고 일컬어지는 소주, 그위에 계절의 것—가을제사 때 내가 본 것은 과일·표고·대추·은행·건육(乾肉)·장어 등이었다—을 올린다. 제물인 소 또는 돼지는 내장을 꺼내고 털을 뽑아 생채로 한 위(位)에 대해 두 마리씩 올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제사 뒤의 제식(祭食)을 위해 준비된다. 제사는 그 날 오전 중에 행해진다. 그 순서는 문서화되어 있어 한 구절, 한 구절 제관에 의해 낭독되며 기복(起伏)은 그 소리에 따른다.

三姓祠祭笏記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半身.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各就位. 謁者引獻官. 入就拜位.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有司謹具請行事.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竹尊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西向位. 搢笏. 盥手. 執笏. 引詣屯羅始祖. 三乙那神位前. 西向立. 跪. 搢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興平身. 引詣耽羅星主高氏神位前.

跪. 措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耽羅徒內高氏神位前. 跪. 措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尊所. 西向立. 執尊考擧冪酌酒. 引詣三乙那神位前. 西向立.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小退跪. 讀禮. 俯伏興平身. 引詣星主高氏神位前.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王子高氏神位前.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徒內高氏神位前.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諸盥洗位. 西向立. 搢笏. 盥手. 執笏. 引詣尊所. 西向立. 執尊者冪. 酌酒. 引詣三乙那神位前. 西向立.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詣星主高氏神位前.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王子高氏神位前.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徒內高氏神位前.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諸盥洗位. 西向立. 搢笏. 盥手. 執笏. 引諸尊所. 西向立. 執尊者擧冪酌酒. 引詣三乙那神位前. 西向立.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詣星主高位前.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王子高氏神位前. 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飯福受昨. 謁者引初獻官詣飮福位. 南向立. 跪. 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受爵. 飮啐爵. 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爵. 執事者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授虛俎. 執笏. 俯復興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諸位者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撤邊豆. 四拜. 獻官及諸位者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望燎. 謁者引初獻官諸望燎位. 西向立. 蓋燎. 謁者進初獻官. 左. 面. 禮畢出. 初獻官以下次次出. 諸執事俱復拜位. 四拜. 鞠躬拜. 興. 平身. 祝以下次次出.

또 축문은 다음과 같다.

祠 祭 祝

屯羅始祖三乙那伏三神首出以開天
荒澤溢南瀛永奠東方爰及苗裔
崇奉禴嘗謹以牲幣醴齊粢盛庶
邑式陳明薦以. 耽羅星主高氏耽羅王子高氏耽羅徒內高氏配尙
饗

三姓詞祝文

三神首出澤溢南瀛爰苗裔
以開天荒永尊東方崇奉禴嘗

三高氏祝

靈 三秀過于大邦國功躋享一禮祝祭
克配厥祖膺此嘉號洞酌行潦永世勿替
謹以牲幣醴齊粢盛庶邑式陳明薦尙
饗

대제가 끝나면 열석자는 내벽 밖의 회합소에 모여 헌주를 따라 마시고 제물을 내려 미리 준비해뒀던 소 또는 돼지 한 마리를 삶아서 제식한다. 그리고 6두의 소 또는 돼지는 제관에게 나뉘어진다.

소제를 일명 혈제(穴祭)라고도 한다. 특별한 제관이 선출되질 않고 구멍지기가 시절의 제물과 헌주를 바치고 양초와 선향(線香)을 올릴 뿐이다. 그러나 당수(堂守)는 제관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 전 도민에 의해 매년 한 번 동지날에 혈제가 행해진다. 제물이나 제사의 순서는 같지만 이 때에도 제관으로 세 성씨가 선출된다. 한편 축문이 달라 있으므로 이것에도 언급해 두겠다.

三姓穴祭祝

天啓三聖猗歟那歟節屈一陽
宣朗八文厥初生民追遠之辰

이상과 같이 삼성혈에 대한 행사는 모두 유례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관에 뽑히는 사람은 대개는 문자에 밝은 양·산촌 사람, 또는 제주읍과 같은 도회인이었다.

Ⅱ. 개별적 성소(個別的 聖所)

개별적 성소는 일반적으로 당(堂)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제주도에 있어서의 당은 당우(堂宇)란 의미가 아니라 대개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신성한 지역이다. 개별적 장소는 그곳에 머무는 신통(神統)에 의해 둘로 분류된다. 즉 사귀적 신령(蛇鬼的 神靈)과 비사귀적 신령—제신(祭神)의 본체에 대해서는 뒤에 말하겠다—과의 이자(二者)이다. 이밖에 마을마다에 반드시 하나의 유례적촌제(儒禮的村祭)의 제대(祭台) 즉 포제당(酺祭堂)이 있지만 그것은 앞의 이자(二者)와는 범주를 달리하며 그곳에 특정의 신성한 것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장(祭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제시하는 성소는 표본으로서, 자연부락의 것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을 추가했지만 이것들이 제주도에서의 무속적인 성소의 모두는 아니다.

(가) 사귀적 신령(蛇鬼的神靈)의 성소

여지승람[5]에 「又地多蛇虺蜈蚣, 若見灰虵, 則以爲遮歸之神, 禁不殺」,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6]에 「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또 제주풍토기[7]에도 「섬 안에서 두려워해야할 것은 망사(蟒蛇·구렁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겨울과 여름을 가릴 것 없이 도처에 이것이 있다. 여름날 풀이 깊고 습기 찬때에는 마구간·살림집·마루방·자리 밑등 기어들지 않는 곳이 없어 깊이 잠들 때 쯤은 이를 피하려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섬사람들은 어떤 뱀이든 간에 이를 보면 「부군신령(府君神靈)」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정미(精米) 정수(淨水)를 뿌리며 기도하고 정성껏 이를 죽이지 않는다. 만일 이를 죽이면 사람에게 반드시 재앙이 내려 발 돌릴 새도 없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 옛부터 제주도에는 뱀이 많으며 그 뱀이 섬사람들에 의해 신성시(神聖視)되어 왔음을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귀에 대한 신앙은 그 당시까지 고집스럽게 지켜져 왔으나 그 강도(强度)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 당시의 섬사람들은 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었다. 즉 「돗줄레」「돗초리」(구렁이), 「부근」(번역자 주 : 옛날에 관청등에서 모시던 신위를 「府君」이라고 했는데…) 「물페기」(살무사), 「데멩기」(큰 뱀)[8]이며 이 가운데 구체적인 종교적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근」으로 이것은 육지부의 「업(業)」과 같이 집안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믿어져[9] 이른바

---

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6) 金淨, 『濟州風土錄』.
7) 李健, 「濟州風土記」, 『朝鮮學報』, 第一卷 第二號.
8) 秋葉隆, 「濟州島에 있어서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9) 秋葉隆, 「濟州島에 있어서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삼업(三業)」중의 일업(一業)이다. 삼업이란 가부(家富)의 길로 하나는 「도깨비」를 모시는 인업(人業), 둘째는 이뱀 즉 「부군」을 모시는 사업(蛇業)·셋째는 7월 14일의 배종제(百種祭) 때 행해지는 우업(牛業)이다. 수기동에서 고로(古老)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집안이 부자되길 바라는 사람은 사업(蛇業)을 행한다」고 전제,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선 몸을 청정히 해서 한라산으로 가 「부군 나오라」고 열심히 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려 할 때 노란 귀가 달린 뱀을 보게 되면 그것은 「부군」임으로 정중히 붙잡아 집에 갖고 돌아와 「장항 굽(장독을 넣어 두는 곳)」에 모신다. 그렇게 하면 모르는 새에 재물이 모일 것이라……」고.

다음에 뱀에 관한 문서기록과 전승(傳承)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신앙의 격차를 살펴보자. 탐라기년(耽羅紀年)에 실려있는 유명한 김녕의 사혈(蛇穴), 일명 김녕굴(金寧窟)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 中宗十年春三月判官徐憐殺妖蛇于金寧窟先是有一妖蟒大如五石缶工常居窟中作妖興凶土人每於才初 云穢具酒食祭之供一處女年滿十五者以代牲否則盲風怍雨終才不止徐憐年少有胆力吏以故事白徐日豈忍以妖物殺無辜乎擇軍校數十人持鎗刀備薪炭焰硝依前設祭大蟒果出頭將噉處女徐手鎗從高刺下令諸校亂槊曳出置火燒之腥穢不可近自此蛇妖遂絶

그런데 이러한 공포의 큰 뱀은 없어져 줬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터인데 전승에는 기년(紀年)의 기사와 달리 좀처럼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곧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서씨는 창도(鎗刀)로 죽인 큰 뱀을 커다란 항아리 속에 넣어서 두껑을 덮어 밀봉해두었던 바 큰

뱀의 신체가 산산히 헤체되어 무수의 작은 뱀이 되더니 드디어 밀봉한 것을 찢어 전도에 가득 차고 서씨의 주위를 둘러쌌다. 그런데 마을사람이 알고 서씨에게 충고한 때문에 그는 배를 타서 섬으로부터의 도망을 시도했는데 작은 뱀은 큰 뱀의 복수를 하려고 바다를 가득히 매워 해면은 은판(銀板)을 깔아놓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도 서씨는 힘껏 배를 저어 전라남도의 모처에 상륙했지만 바다에서 뛰어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뱀이 그의 몸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몸이 부어올라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은 뱀들이 섬에 넘쳐 혹은 모습을 나타내고 혹은 화신(化身)이 되어 여기 저기 나타나 이것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행운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혼식과 같은 반가운 날에는 반드시 칠사(七蛇)가 나타난다고 전해지고 있다. 다음에 유명한 사귀신당(蛇鬼神堂)을 들어보겠다.

(a) **차귀당**(遮歸堂) : 여지승람[10]에 차귀(遮歸)는 사귀(蛇鬼)의 오자(誤字)라고 되어 있지만 아키바 다카시(秋葉隆)[11]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더욱 면밀한 지명의 고증(考證)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승람[12]의 대정현 성황당(大靜縣城隍堂) 즉 차귀당(遮歸堂)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차귀」는 「사귀」를 짐작케 하는 것이있다. 또 「사귀」를 어원으로 하는 지명이 섬에 상당히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데서 옛날에는 사귀신당(蛇鬼神堂)의 수는 엄청났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그 당시 차귀당이라는 명칭을 갖는 당은 대정의 차귀악(遮歸岳) 아래의 차귀당 이외에는 없고 그곳에는 당우(堂宇)도 살아있는 뱀도 보이지 않는다.

---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11) 秋葉隆, 前揭書.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b) **토산당**(兎山堂) : 이 당은 옛 정의현(旌義縣) 사귀신앙의 본산일뿐더러 전도 사귀신앙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 제신은 나주(羅州) 교외에 칫솟아 있는 금성산(錦城山)으로부터 날아와서 세 개의 금 구슬로부터 태어난 삼여신이라고 토산당본해(兎山堂本解)[13]는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삼여신의 본체가 사귀란 것은 섬에서 뱀을 가리켜 토산당귀신 또는 토산할망당이라고 칭하는 일 및 차귀당의 대사퇴치(大蛇退治)의 전설로부터도 분명할 것이다[14].

이 당에 대한 제사는 1년 3회, 3월 8일·6월 8일·11월 8일에 닭·떡·밥·감주(甘酒)를 올려 토산리의 남녀들이 모여 무당(신방)이 이를 사제(司祭)하는 것이지만 일반의 제사와 달라 돼지는 제물로서 절대 금물이다[15].

(c) **돗당**(豚堂) : 앞에서 말한 큰뱀 전설로 유명한 김녕굴의 한녘에 있는 동해용녀(東海龍女)의 세 딸을 모신 대·중·소당(堂)의 세 성소 중의 중당으로 정면 폭 3간정도의 휼륭한 동굴을 이루고 있어 그 당시 이미 사귀와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키바교수는 이것을 사귀당의 범주에 집어 놓고 있다. 행사는 1년 1회, 돼지를 올린다는 점에서는 토산당과는 대차적(對蹠的)인 당이다.

(d) **고차당** : 옛 정의면 신천리(新川里)에 있는 당으로 사귀당이라고 무서워하고 있다. 전날 밤에 음주하던지 성교를 한 사람이 당의 윗쪽을 지나면 병으로 죽는다고 믿어지고 있어 위쪽의 큰 길을 피하고 아랫쪽에 가는 길이 스스로 개통하게 되었다. 이 당에 대한 행사로서는

---

13)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硏究』, 上卷, 濟州島神歌.
14) 秋葉隆, 前揭書.
15) 秋葉隆, 前揭書.

신천리 여자들이 「8의 날」에 쌀밥·폐백을 갖고 참배할 뿐이다.

(e) **피지남팟당** : 옛 제주목대흘리(濟州牧大屹里) 제2구 하늘촌에 있는 당으로 제신은 「피지남파 할망」이라고 칭하는 눈이 푸른 사귀이다. 당에는 커다란 팽나무가 있고 그 뿌리에는 덤불이 있으며(사진 56a), 덤불 속에는 널판지 모양의 용암이 冂형으로 놓여져 있다. 이 당의 특별한 영험(靈驗)은 돌계집을 임신케하는 일이다. 보통 마을 여자들은 자식의 건강을 빌어 월 3회, 만월(滿月)의 날과 1일, 월말에 밥과 향로를 들고 이 당에 참배하는 것이다. 대원(大願)이 있을 때는 이밖에 폐백을 갖고가 덤불에 매어 놓는다(사진 56b). 옛날엔 이 당에서 신방에 의해 새신(賽神·푸닥거리·사진 59)이 행해졌지만 그 당시는 이미 정기적인 그런 것은 볼 수 없었다.

(f) **칠성당**(七星堂) **또는 뒷당**(後堂) : 이 당은 각 가족이 뒷뜰에 모시는 것으로 입구에서 향해 왼쪽에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육지에 있어서 「장항 뒤」에 만드는 기주가리(基主嘉利) 또는 대감주석(大監主席)[16]과 형태는 아주 비슷하다. 뒷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집 뒤에 모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셔지는 사귀(蛇鬼)는 업(業)이 아니라 칠성 즉 북두칠성신앙[17]과 사귀신앙이 습합(習合)한 제주도적 「칠성」이다. 앞의 김녕굴 전설 또는 차귀당전설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진 뱀 가운데 일곱 마리의 뱀이 일단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서는 북두칠성이 되고 땅위에서는 7인의 사람이 되어 길사(吉事)가 있는 집에 잠입하여 못된 장난을 함으로 천상(天上)의 칠성을 모시면 지상의 칠인의 해로부터 피하고 복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칠성신은 가정의

16)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族에 대해」, 『社會學硏究』.
17) 秋葉隆, 「朝鮮의 星祭」, 『旅行과 傳說』.

화복(禍福)을 맡는 신으로 전하여, 집안에 화가 없고 복이 오도록 1년에 1회, 음력 3월의 길일을 골라 칠성제를 올리는 것이다. 이때는 노루·꿩·상어의 세 종류의 동물 중 어느 것이나 두가지의 머리와 쌀을 헌상물로 하고 무명에 다음과 같은 축사(祝詞)를 써서 함께 올려 신방을 불러와 푸닥거리를 하는데 신방이 없을 때는 주부가 헌상물에 삼배(三拜), 그 뒤에 축사를 낭독한다. 축사를 쓴 포목은 그 자리에서 불태운다.

祝　詞

第一北斗 大星君
第二北斗 元星君
第三北斗 直星君
第四北斗 繆星君
第五北斗 罡星君
第六北斗 紀星君
第七北斗 開星君
今爲姓名天經地緯護我象生年去年來
面祥畢臻神之靈矣靈之感矣昭告
百拜感我稜哉謹以脯幣醴果粢
盛祗薦于神尙
饗

칠성당을 모시는 집은 제주 이서(以西)로부터 옛 대정군에 걸쳐 특히 많으며 제주 이동(以東) 정의군에는 적다. 이와같은 사귀신앙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것은 북촌리(北村里) 이동 성산포(城山浦)에 이르는 사이는 우도(牛島)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할 우도

와 북촌리 부근의 주민은 이와같은 사귀신앙을 싫어해서 뱀을 아예 죽이는 일도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더욱 유의할 일은 사귀신앙의 중추라고도 할만한 옛 정의군의 여성은 토산당의 사귀를 갖고 있어 이를 집안에 모시기 때문에 타군(他郡) 사람들은 정의의 사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녀들과의 결혼을 극단적으로 피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정의군의 사귀는 타군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주목해야할 것은 이들의 사귀신앙은 바다에 관한 여러 신앙과는 별개의 것으로, 주로 뭍에서의 일 즉 농업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다) 비사귀적 신령(非蛇鬼的神靈)의 성소(聖所)

지금까지 서술해온 성소는 그 제신(祭神)이 그 당시 분명히 사귀라고 믿어지고 있던 것 및 사귀일 것이라고 거의 추찰(推察)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만일 앞의 토산사귀를 일반적으로 「토산할망(兎山姥)」또는 단지 「할망」이라고 부르는 데서 신명(神名)에 「할망」이란 말이 붙은 것을 모두 사귀적신령으로 간주(看做)하는 설(說)을 채택한다면 사귀적 신령의 성소는 더욱 그 수를 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귀적신령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지역의 성소의 제신의 이름에도 「할망」이름이 붙는 것도 있다. 이들 제신의 본체는 까마득한 옛날에 잊혀져버렸다는 해석도 일단은 성립되지만 만일 이러한 설을 채택한다면 「연등할망(燃燈姥)」과 같은, 사귀와 서로 대립하는 신격(神格)까지를 사귀신령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므로 「할망」을 모두 사귀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컨대 제주도 및 남조선의 무속(巫俗)의 신통(神統)에는 「할망」또는 「하루방(爺)」의 미어(尾語)를 갖는 것이 많다. 「할망」또는 「하루방」

은 본디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경어이다. 따라서 만신(万神)이라고도 말해지는 조선의 무속[18]의 신통 명칭에 붙여지는 경우는 오히려 신통의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사귀에 할망이라는 미어가 많은 것은 토산당본해(兎山堂本解)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귀신은 여신이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할망」이 곧 사귀는 아닌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서 할망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신 가운데서 특히 사귀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범주에 수록했다.

(a) **용왕부인당(龍王夫人堂) 및 용등당(龍燈堂)** : 이것은 전도 각 해촌의 바닷가 또는 바다가 잘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성소[19]이다(사진 58). 모두가 어행(漁幸)과 해상평온을 관장하는 신이다. 행사는 대강 각 달 가운데의 정해진 날 및 이월삭(二月朔·음력 초하루)의 용등제(龍燈祭), 7월 14일의 백종제(百種祭) 등에 행해져 남녀가 함께 참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여자만의 제사이다. 용등 및 신방의 제사는 신방이 맡는다. 제물은 이 계통의 신당(神堂)에서는 돼지를 피하고 닭이 중심이 된다. 아카마쓰(赤松智城)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동문 밖의 용등당에는 주로 해녀들이 모여들어 용등제의 제물로는 돼지와 소주를 금하고 월경중인 사람·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장례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 푸닥거리(또는 굿)에 참여할 수 없다.[20] 또 이월삭(二月朔)의 푸닥거리에 앞선 용등의 달에는 바다에서의 일체의 행위가 금해진다. 승선은 물론 해녀의 잠수·해변에서의 빨래까지 금지된다.[21]

---

18) 赤松智城, 前揭書.
19) 秋葉隆, 「濟州島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20) 秋葉隆, 「濟州島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21) 秋葉隆, 「濟州島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용등할망(龍燈姥)은 용등풍(龍燈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풍신(風神)으로 제주도에 있어서는 바다를 건너 1월15일에 와서 2월15일에 돌아간다고 믿어 그 사이를 앞에 말한 「용등의 달」이라고 부르며 바다 속에 숨어서 조개류를 먹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따라서 용등의 금기(禁忌)가 풀린 직후의 조개류는 말라빠져있다고 해녀들은 말하고 있다. 또 용등할망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우도에 전해지고 있다. 용등할망은 매우 광폭한 남조선의 신으로 그가 수사인(水死人)을 가장하여 김녕의 해안에 떠올려졌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무튼 용등할망은 바다 저쪽에서 건너오는 풍신이지만 이를 모시지 않으면 광풍이 일어 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논·밭에도 피해가 미침으로 양·산촌 사람들도 이 제사를 지낸다. 또 용등계의 신당은 육지로의 출가(出稼)가 늘어난 다음 해외제주자(海外在住者)의 무사안녕을 비는 신이 되어 섬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첫째 선물은 이 신당에 바치는 포목이다(북촌리). (번역자 주≡ 「용등할망」을 현재는 「연등할망(燃燈姥)」으로 많이 쓰고 있음).

(b) 당구두리당(堂) : 이것은 북촌리에 있어서 용왕부인당과 맞먹는 당으로 용암을 겹친 석단(石壇)과 신수(神樹)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신은 「당케들이하루방」이라고 칭하는 신으로 본체는 분명치 않지만 뭍의 일, 즉 농업과 어린이의 건강에 관한 기도가 행해진다. 정기적인 제일은 없지만 일 있을 때마다 여자들은 밥과 폐백을 지참해서 여기에 빈다. 또 그 위에 심각한 사태에 즈음해서는 신방의 푸닥거리가 행해진다.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뒤에 말할 포제(酺祭)에 즈음해서 이 당이 제장이 된다는 것이다.

(c) 당치동산동(堂置山堂) : 조천면 특유의 당이다. 이 신당의 제신인

「당치동산 하루방(堂置山爺)의 본생담(本生譚)은 다음과 같다. 옛날 수기동의 남쪽에 가로놓인 당치산(堂置山)은 조천면에서 표선면으로 이르는 통로였다. 그곳에 아내를 잃은 어떤 표선면의 남자가 생활에 괴롭고 쓸쓸함을 견딜 수 없어 표연히 산을 넘어와서 산 꼭대기에서 죽고 말았다. 그 때부터 이 산을 지나는 자는 종종 화를 입었다. 누가 말한 것인지는 모르나 「당치동산 하루방」의 지벌이라면서 그곳에 당이 세워졌다. 그것은 수기동이 생기기 이전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래서 이 당의 앞을 지나는 사람은 「여행자의 의례」로써 반드시 도시락을 열어 그 첫 술을 당에 반드시 바치고 점심을 먹었다. 수기동의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에 따랐다.

그런데 수기동의 바로 밑에 있는 대흘리 제1구에서는 옛부터 마을 신이 없어 섭섭해 했던지라 이 당의 양도를 수기동에 교섭한 바 마을사람들은 무서운 황신(荒神)이 마을에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승낙했다. 그래서 1구에 사는 신방은 신(神)을 얻으러 와서 이것을 자기마을의 팽나무 밑에 모시고 주위에 돌담을 만들었다. 그 때부터 수기동의 당치동산당은 그 영력(靈力)을 잃어 당치산이라는 산 이름만 남았고 대흘리 제1구 어느 마을의 당치산당이 고명해졌는데 지금도 돌담 안에 자라있는 띠를 베어서 밖으로 내어 가려면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동계(動悸)가 심해지지만 이것을 버리면 원상대로 돌아간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와 꼭 같은 당이 구좌면 우도에도 삼개소 있으며 더구나 앞의 용왕부인당과 같이 바다에 관한 사상(事象)을 관장하고 있다. 제신은 말할 것도 없이 당치산 하루방이다. 신당은 석단과 덤불로 이루어져 있어 1월 14일의 당치당동산당 푸닥거리, 2월 15일 용등제, 7월 14일의 당치동산당 푸닥거리 등이 여기서 치뤄진다.

(d) 수덕당(水德堂) : 이것은 우도에 있어서 당치동산당과 맞먹게 물의 일(농사)를 모시는 당으로 온 섬에 당치동산당과 마찬가지로 삼개소가 보인다. 당의 형태는 당치동산당과 거의 닮았으며 제신은 「수덕할망(水德姥)」이라고 전해지는데 제신은 사귀가 아니라고 마을사람은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체는 잘 모른다.

제일은 「8」의 날, 즉 8일·18일·28일로 이밖에 1년에 1회, 수확후의 8의 날에 큰제사가 행해지고 있다.

(c) 이레할망당(七日姥堂)」 : 서귀포의 해변에 있는 신당(사진 57)으로 울창한 활엽수의 숲 속에 석단이 있어 제신은 「이레할망(七日姥)으로 물일(농사)을 관장하고 있으나 제신의 본체는 분명치 않다.

제일은 매월 7의 날, 즉 7일·17일·27일로 대원(大願)이 있을 때는 신방을 곁들여 푸닥거리를 한다. 그 당시 섬의 관권(官權)에 의해 신방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의 주위에 여러 개의 칠일할망을 모시는 소신당(小神堂)이 만들어져 갔던 일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다) 유례적 제장(儒禮的 祭場)

이른바 포제당(酺祭堂)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한 마을에 반드시 한 군데씩은 있다. 석대(石台)와 그 옆에는 반드시 큰 나무가 있어(사진 49) 장소에 따라서는 돌담을 둘러있다. 그 형태는 무속의 신앙과 변함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단구두리당」과 같이 무속의 성소와 습합(習合)한 바를 제외하면 그곳에 특정의 신통(神統)은 모셔져 있지 않다.

이 당에서는 1년에 꼭 한 번, 1월 중순의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

에 유례적 마을제, 포제가 행해질 뿐으로 그 밖의 날에는 청년회의 집회장으로 쓰여지고 있음에 불과하다. 말할 것도 없이 마을사람들은 포제당에 대해 외경(畏敬)의 뜻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제2절 우도(牛島) 도네촌의 행사

우도는 제주 본도의 동쪽 끝 성산포에서 4㎞ 떨어진 바다 위에 가로놓여 있다. 주위 6㎞ 남짓의 속도(屬島)이다. 그 남쪽 끝에 우두산(牛頭山・표고 1백32m)이 솟아있고 이 산의 남녘은 단애(斷崖)를 이루어 바다에 떨어지며 북쪽 경사는 완만히 길게 꼬리를 뻗어 바다에 이르는 등, 마치 와우(臥牛)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구좌면에 속하여 섬의 마을을 총칭해서 행정상 연평리(演坪里)라고 부르고 있다. 인구는 통계[22]에 따르면 4백72호, 2천3백11명으로 그 중 남자는 1천27, 여자는 1천2백84명, 제주도의 일반적 현상 즉 「여다남소」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 성년여성은 모두 나잠(裸潛)에 종사하여 제주도 가운데서 가파도(加波島)와 더불어 해녀가 가장 조밀한 지대이다. 섬에는 8개의 자연부락이 있다. 즉 천진동(天津洞)・후해동(後海洞)・우목동(牛目洞)・비양동(飛楊洞)・주흥동(周興洞)・고수동(古水洞)・삼양동(三陽洞)・전흘동(錢屹洞)이 그것이다.

동국여지승람[23]에는 「주백리(周百里)」라고 전제, 「人馬喧則有風雨云云七八月間漁舟不可往, 往則大風雷雨拔木損禾」라고 되어 있어 그 땅

22) 島廳統計에 따름.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의 변두리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같은 글「토산(土産)의 강(綱)」에는 섬 부근에 무회목(無灰木)·앵무새·소라 등이 생산된다고 쓰여져 있다. 또 탐라지도 서(序)[24]에는「주위 이십여리」라 하고「擇放良馬, 爲之國屯·鸚鵡·無灰蘆·寃貝·玳瑁等物元非此島之産, 而浮流掛 必由牛島, 海獺可支之屬本在中」이라고 되어 있어 국영목장이 됐다는 것과 연해에 해산물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연평진술서건(演坪陳述書件)[25]에 따르면「천년 황무(荒蕪)해서 아직도 사람이 없다」고 되어있다. 한편 우두산 남쪽에「절터(寺址)라는 장소가 있어 옛날에 절이 있었던 것이 숙종(肅宗) 28년(1702), 목사 이형상(李衡祥)의 음사·불우박멸정책(淫祠·佛宇撲滅政策)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분명치 않다. 또한 이 섬에 처음으로 말이 놓아진 것은 숙종24년(1698)[26]이지만 소·말의 감시인은 1년에 한 두 번 돌보러 왔을뿐 언제나 살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옛부터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섬이었다는 것은 틀림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앞의 연평진술서건에 따르면 제주의 김상령(金傷羚)이란 인물이 이 섬에 빈궁한 백성을 이주시킬려고 해서 순조 무자(純祖戊子·1828)부터 운동을 일으켜 헌종 신축(憲宗辛丑·1841년)에 도관거(島官据)가 우도의 말을 반출하고 뒤해 일반인의 이주를 허용했던 바, 어획이 풍부한 곳이었으므로 빈궁한 백성들이 운집해서 우선 그 해에 천진·고수·후해의 3개동이 생겨나고 뒷해에는 우목·주옥(珠玉·지금의 삼양동)·전흘·비양의 여러 동이 새로이 열렸다. 그래서 영국선「사마랑(Samarang)호」[27]가 이 섬에 닻을 내린 것은

24) 李某,『耽羅地圖』.
25) 演坪陳述書件, 牛島의 緣起를 쓴 것.
26) 金錫翼,『耽羅紀年』.
27) Captain Sir Edward Belcher : Narrative of Voyage of H. M. S. Sammarang, 1848. 2 vols 및 小倉進平「濟州島의 異名」,『大學新聞』, 昭和 十年 四月 八日.

1845년이었다.

따라서 이 섬의 주민의 역사는 아직 젊고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 낼 여가는 없었을 터이지만 본도에 있어서의 무속에 대한 탄압이 그 때까지는 이섬에 아직 미치지 않고 있었음으로 무속에 관한 한 우도는 가파도와 더불어 제주도의 고속(古俗)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도에 이주한 주민은 거의 조천면과 구좌면의 주민이 많지만 온 섬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섬에는 우도 자체를 모시는 신당은 없고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당치산당과 수덕당이 합계 여섯이 있어 그것들의 본당은 양자 모두 삼양동(도네촌)에 있고, 다른 것은 그 분사(分社)이다(그림 30). 삼양동의 창설은 천진·고수·후해의 3동에 비하면 1년 늦어져 있지만, 역사적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이주 당초부터 우도인의 정신적 지도자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는 도네촌에서 조사한 여러 행사를 제시하고 나아가 본도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그림 30> 牛島

(가) 정기적 행사(날짜는 음력임)

1월 14일 당치동산당(堂置山堂) 푸닥거리 및 제사 : 이날은 해사(海

事)에 대한 기원(祈願)과 제사가 행해지는 날로 마을의 집마다에서는 당치동산떡(堂置山餠)을 만들어 당앞에 모여든다.

이 땅의 당치동산하루방은 다른 이름을 「동지」라고도 해서 성장(城張) 속에도 머물어 있다고 믿어지는 해사(海事)의 수호신이다. 한편 마을의 신방은 당 앞에 백미·당치동산떡·소주 및 살아있는 닭을 바쳐 요령(搖鈴)을 흔들면서 푸닥거리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춤을 추면서 닭을 손에 잡아 그 가랭이을 찢고 조금 높은 해변의 현애(懸崖) 위로부터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이 푸닥거리를 「당동굿」이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떡을 당 앞에 바치며 해사다행(海事多幸)을 비는데 이것을 「당동제」라고 한다. 이날의 행사는 무속에 의한 것이지만 남자도 이에 참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한편 이날은 용등할망이 제주도에 오는 전날에 해당된다.

1월중순 정일(丁日) 또는 해일포제(亥日酺祭) : 포제는 완전히 유례적 마을제로 이 섬에서는 각 자연부락별이 아니라 행정구획으로서의 연평리가 하나가 되어 행한다. 포제당(酺祭堂)은 <그림 3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행정구획으로서의 연평리에 다른 당과는 별도로 한군데만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도에서는 거의 때를 같이하여 자연부락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정리된 사회를 이룬 것에 따른 것일 것이다. 다른 본도의 여러 마을에서는 자연부락이 단위가 되어 이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일(祭日)은 정일(丁日)이 이상적이지만 이날 사자(死者) 그 밖의 불길한 사상(事象)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해일(亥日)에 행한다. 제물은 돼지이며 제사의 순서, 초·아·종의 삼헌(三獻)을 올리는 일 등은 조상제사·혈제(穴祭)와 같으며 이 제사에는 여성이 참가 않는다.

2월 15일 용두푸닥거리 및 제사 : 1월 15일에 와서 2월 15일에 떠나는 이국(異國)의 풍신, 「용등할망(龍燈姥)」을 모시는 이 제사(祭事)는 제주도에서는 널리 각지에서 볼 수 있다. 대제(大祭)는 할망이 죽은 사람을 가장하여 상륙했다고 하는 김녕의 승당(枡堂)에서 행해진다. 마을의 신방은 포목반(匏木盤) 또는 바가지에 대나무 막대(龍燈竿)를 세운 도고리 또는 용등배(龍燈船)라는 배를 만들고 그 안에 쌀·김·심태초(心太草)·마미초(馬尾草)·돈 등을 싣고 2월 13일에 신방집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14일에는 용등간을 받들어 요령을 흔들며 마을 안을 돈 다음[28] 15일에는 그것을 당치동산당으로 가져간다. 이날 마을의 선녀(善女)는 당치동산당에 밥 한공기를 갖고 모여 푸닥거리 후 배에 살아있는 숫닭을 싣는다. 이것을 선두(船頭)라고 부르며 반드시 천진동의 한리케항구로부터 이 배를 물 위로 떠나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용등굿」이라고 하며 방수(放水)와 동시에 여자들은 저마다의 공기 속의 밥을 바다로 던진다. 이것을 용등제라고 칭한다. 이 행사는 지방에 따라 그 세부(細部)를 달리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가족의 제사로 여겨지고 있지만[29] 우도와 같이 마을제사로 간주되는 것도 있다.

또 양·산촌에 있어서도 신방은 똑 같이 용등선을 만들어 이날 용등제를 지내는데 배는 하천 또는 웅덩이(水溜)에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는 바람이 거센 산상(山上)에 배를 안치(安置)해서 돌아가는 일도 있다.

2월 또는 3월 한식일(寒食日) 조상제(祖上祭) : 이 날의 조상제는 완전히 유례적인 것으로 6대조 이전의 조상만을 모시는데 무덤 앞에서 행해진다. 친족관계집단에서 제사에 앞서 가정마다 각각의 조상의 묘

28)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硏究』.
29)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硏究』.

담당자를 할당한다. 행사의 진행방법은 본도와 다름 없어 쌀밥·술·바다고기 등의 제물을 올려 축문을 읽는다. 이러한 제사(祭事)에 앞서 무덤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행사의 하나인데 어느 것이나 여성들이 열심히 참가한다.

5월단오(端午) 조상제 : 각 성씨마다 집에서 올리는데 상세한 것은 친족관계의 대목에서 서술한대로이다.

7월14일 백종제(百種祭) 및 당치산당(堂置山堂) 푸닥거리(굿) : 백종일은 거의 「이백십일(二百十日·번역자 주≡立春으로부터 2백10일째 되는 날, 즉 9월1일경을 일본에서는 「니하쿠도오카」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태풍내습철이란 데서 경계한다)」에 해당되는 날인데 이날 제주도에서는 소·말을 가진 자는 그 안태(安泰)를 빌며, 소·말이 없는 자는 소·말을 얻게되길 기원한다. 이것을 앞에 말한 우업(牛業)이라고 한다. 이 제사는 그 즈음엔 신방이 관계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로 백종제라고도 하지만 「백종굿」이라는 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엔 신방이 이를 행했을지도 모른다.

이날 주부는 쌀밥·소주·떡·폐백 등을 마련하여 달이 오른 다음 일가족 모두가 자기들의 소·말이 방목되어 있는 목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달빛이 비쳐대는 원야(原野) 속의 목장에 도착하면 약간 높은 곳에 임시의 제대(祭台)를 만들어 앞의 제물을 바쳐 산신·지신에 삼배하고 폐백을 그 자리에서 불태운다. 이래서 제사는 끝나고 올린 제물을 내려서 음복(飮福)한다. 이날의 날씨가 나빠 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사는 효과가 없어진다고 믿어 그런 때는 목장까지 가질 않고 제물을 먹어버린다.

제사는 그 즈음부터 우도와 같은 해촌에서는 이를 올리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해촌에선 우마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양·산촌, 예를 들어 수기동·교래리·와산리·대흘리 등에서는 우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 저녁엔 달빛에 비춰진 암록색(暗綠色)의 측화산(側火山) 여기 저기로부터 붉은 불이 타 올라 대단한 조망(眺望)을 이룬다.

우도에서는 이날, 백종제에 앞서, 즉 오전중에 1월 14일과 똑 같은 당치산당굿(푸닥거리)과 제사도 행해진다.

8월추석 조상제(祖上祭) : 유례풍(儒禮風)의 조상제로, 5대째 까지의 친족집단 가운데 유력자의 집에서 행한다. 제사양식은 제4장에서 말한대로이다.

10월 입동(立冬) **조상제** : 한식일과 똑같은 제사이다.

10월 8의 날의 길일(吉日) **수덕당**(水德堂)**굿 또는 제사** : 가을 수확후의 농한기에 뭍을 모시는 수덕당 굿 또는 제사를 행한다. 이것은 마을 여자들이 의론하여 날짜를 잡아 떡 그 밖의 제식(祭食)을 갖고 수덕당 앞에 모여들어 신방으로하여금 굿을 하게 하고 각자의 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내려서 모여앉아 음복한다. 이는 수확기의 바쁨에서 해방된 여자들의 위안일(慰安日)임과 동시에 수확제(收穫祭)이기도 하다.

수덕당에서 행해지는 정기적인 행사는 이 밖에 「8의 날 참배(參拜)」가 있다. 이날 가정주부는 실·포목 또는 조선지(朝鮮紙)를 갖고 당에 모여 「육사다행(陸事多幸·어린이 안전에 대한 기원도 포함돼 있음)을 비는데 이날 이외의 날에 당에 참배하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고 믿어지고 있다.

11월 동지(冬至) **조상제** : 각 가정에서 5대조상까지를 모시고 팥죽을 먹어 감기를 예방한다.

(나) 임시적 행사

(a) **당동산제**(堂置山堂祭) : 당동산당(堂置山堂)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해사를 관장하는 신의 좌소(座所)인 동시에 해상무사를 비는 성소이다. 따라서 이 섬으로부터 먼 바다에 나간 사람의 가족은 배가 출범함과 동시에 이 당에 포목·실·조선지 등을 갖고와서 해상무사를 기원하는 것이다.

(b) **잠수굿**(潛水賽神) : 이것은 해조(海藻)가 잘 채취 안될 때, 해녀들이 당동산당 앞에 모여 올리는 제사인데 이 섬에서는 성인여성은 모두 해녀임으로 일종의 여성이 주최하는 임시적마을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굿(푸닥거리)의 주지(主旨)는 당 앞에서 행하는 행사의 막판에 신방이 「가는 대 구덕(手籠)」에 조를 채운 것을 한 손에 들고 해변에 이르러 달려가면서 그 조를 바다에 뿌리는 것이다. 조는 바다 밑에서 발아(發芽)하여 해조가 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c) **말축굿**(蝗賽神) :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메뚜기(방언·말축)의 피해가 심했다는 것이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에서도 밝히고 있다. 메뚜기 발생이 심했을 때는 수덕당(다른 당에서는 각기 陸事를 빌었다)에서 굿을 한다. 제사의 모티프는 살아있는 닭을 신방이 끌고 다니는 것이다. 그것은 닭에게 벌레를 잡아 먹으라는 주술(呪術)인 것 같다. 당동산당 굿(푸닥거리)에서 닭을 찢어발겨 바다에 던지는 일, 용두선에 닭을 태워 방수(放水)하는 일 등을 합쳐 생각해보면 닭은 제주도의 무속적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연출한다. 한편 유례적인 포제에 있어서의 돼지 희생에 비해 재미있는 대조이다.

(d) 기우(祈雨) : 제주도에서는 한발은 커다란 공포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선 임시의 포제(酺祭)를 지냄과 동시에 기우(祈雨)의 굿도 하는데 행사의 상세한 부분을 알 수 없다.

(e) 고사(告祀) : 제주도에서 고사(告祀)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은 육지의 개념과는 달라 그 당시 양·산촌에서는 성행했는데 해촌에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말의 성년식(成年式)에 관한 행사이다. 우도에서는 노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수기동(水基洞) 및 교래리 등에서는 그 당시도 아직 고사를 하고 있었다. 섬의 말·소에 대한 수호신은 목사(牧使)라고 칭하는 신인데 고사는 이 신에 대해서 행해진다.

새끼말이 두 살이 되면 대개는 이를 뜰 앞에 끌어내어 발을 밧줄로 묶고 미리 준비해둔 쌀밥·소주·날고기를 각각 보시기에 담아 조금 높은 곳에 바친다. 그 집 주인이 우선 밥에 숟갈을 꽂아 그 숟갈로 밥덩어리를 떠내 술 속에 놓고 두 손으로 두 개의 보시기를 들어 배례한 다음 원위치에 돌려 놓는다. 그래서 주인이 말의 두 귀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발의 밧줄을 끌어당겨 말을 쓸어뜨린다. 주인은 허리에 찼던 식칼로 재빨리 그 귀를 마을에서 정해진 모양으로 자르고 말을 풀어준 다음 제물을 내려 음복한다.

이 제사는 대개 백종일에 행해지지만 반드시 이 날에 한한 것은 아니라 두 살의 망아지라면 언제라도 괜찮은 것이다.

(f) 백일잔치 : 이 제사는 말이 새끼 낳아 백일째에 육도(陸稻)를 끓이고 돼지를 죽여서 이웃을 초대하는 행사이지만 그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단지 이 제사가 치루어지는 곳에서는 고사를 하지 않으며 백일잔치 뒤에는 아무 때나 말의 귀를 자를 수가 있다.

그밖에 질병에 대한 용왕제(龍王祭),[30] 사령제(死靈祭)로서의 산왕제(山王祭)[31] 등은 이미 자세히 서술했음으로 생략하지만 본도에서도 다른 마을에 질병이 유행했을 때는 그 마을에 통하는 길 위에 금줄(禁繩)을 쳐서 악신(惡神)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육지와 똑같다.

마지막으로 출산의 행사를 덧붙이겠다. 제주도에는 「삼신(三神·産神)할망이라는 출생 전문의 무녀(巫女)가 있어[32] 그녀는 출산에 즈음해서 산파로서의 역할도 다함과 더붙어 종교적인 행사도 함께 맡는다. 무녀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조차 주문(呪文)을 외는 사람이 있지만 신방과는 계통이 다른 별도의 존재이다. 출산의 행사는 우선 진통이 일어나면 이 할망이 와서 임산부가 있는 온돌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옷장 위에 쌀·실·돈 등을 바치고 기름등잔에 불을 당긴다. 다음에 선향(線香)을 피우면서 산신(産神)에게 「감사합니다(어린이가 생겨서)」, 「고쳐 주십시요(진통을)」라는 말을 교대식으로 외우며 분만이 가까워지면 산파구실을 한다. 답례는 금전으로 하질 않고 쌀로 하는 것이 상례이다.

제3절 종 합

제주도의 종교는 산·양촌 및 남자들에 의해 대표되는 유례적인 것과 해촌 및 여자들에 의해 대표되는 무속적인 것과의 이원적(二元的)존재이다. 이러한 이원적인 현상은 이미 말한 사회조직이나 경제에서도 보이지만 특히 종교적인 현상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

30) 秋葉隆, 「濟州島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31)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硏究』.
32)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硏究』.

조선민족의 기층적 종교(基層的 宗教)[33]라고 여겨지는 샤마니즘(巫俗)의 사회에서 다른 종교가 촌락의 레벨에까지 침투한 것은 이조(李朝)시대의 유교 특히 주자학(朱子學)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점은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섬의 역사에 나타나는 목사 이형상(李衡祥)은 숙종28년(1702)부터 29년에 이르는 2년의 재도(在島) 기간중 무속의 성소인 음사(淫祠) 및 불우(佛宇)를 철저히 파괴했다. 이 파괴에 앞서 그는 삼을나묘(三乙那廟·삼성혈)를 모 장소(그것은 불명)로부터 현재의 위치(사진 55)로 옮겨 무속적인 조상숭배를 유례적인 것으로 전환시킬려고 한다든지 또 별도로 교련청(教練廳)을 설치하여 유학(儒學)을 넓히는 등 주의깊게 준비 공작을 한 것 같다.[34] 제주도 사회에 유교가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육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촌락·레벨에서는(때로는 宮廷에서도) 유교와 무속은 제각기 각 가족 안에서도 남녀의 성에 따라, 따로 따로 지지받기에 이르는 것이다.

제주도의 성소는 보편적성소(普遍的聖所)와 개별적성소로 대별된다. 전자는 도민 전체의 신성자(神聖者)가 머물고 있는 장소이다. 후자는 마을·동·가족에 의해 모셔지고 있는 신성자가 의탁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당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보편적 성소 가운데 한라산은 제주도의 심벌로, 섬의 어디에 서 있어도 높이 구름을 불러 치솟아 도민이 가장 존숭(尊崇)하고 또 기피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산에 대해 품어지고 있는 신성감(神聖感)의 내용은 실로 다양하여 무가(巫歌)[35]에 따르면 그것은 신들이 머무는 신역(神域)이기도 하지만 옛날

33) 赤松智城,「朝鮮巫俗의 神統」,『宗教研究』, 昭和 10年 1月.

34) 金錫翼『耽羅紀年』卷之三에「牧使李衡祥移建三乙那廟於嘉樂川東以三高氏從尙. 別設教練廳. 撤廣壤堂毁焚三邑淫祠佛宇百三十余所杖巫四百余名各歸農云云」이라고 되어 있음.

엔 광양당(廣壤堂), 산신당(山神堂)과 같이 한라산신을 모신 특정의 성소가 존재하여 여기서 일정한 행사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당은 유학적위정자(儒學的爲政者)의 종교정책, 그 밖의 원인에 의해 그 당시 모두가 파괴되어 구체적인 행사는 치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라산 외에 섬에서 신성시되는 산으로 오백장군 및 수장올악(水長兀岳)의 두 봉우리가 있다. 한라산의 산신은 범에 의해 상징되는 육지의 산신과는 달리 바람과 기암(奇岩)의 상징처럼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제주삼다(濟州三多) (사진 2·3·4) 가운데 바람과 바위가 도민의 정신구조 속에서 점유하는 의미는 크다.

전 도민에게 널리 신성시되고 있는 것에는 그 위에 삼성 발상의 삼성혈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고·양·부 삼씨의 조상이 솟아난 장소임과 동시에 도민 전체의 시조발상의 성지(聖地)로, 이들 두 개의 신앙은 사제(祠祭)·혈제(穴祭)의 두 행사에 의해서도 분명하다. 그러나 앞의 종교개혁 이래 삼성에 대한 행사가 완전히 유례화(儒禮化)된 때문에 이에 수반하여 신성관념의 내용도 무속적인 것으로부터 유교적조상관(祖上觀)으로 옮긴 것 같다. 그 때문에 삼성혈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줄어들고 말았다. 대제(大祭)에 있어서는 사제(司祭)인 삼헌(三獻)을 올리는 자는 문자를 해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으로 해서 제사(祭事)의 중심은 자연히 산·양촌 사람 또는 제주읍과 같은 도시인이 되었다. 그래서 유교의 대표자로서의 관권(官權)과 이어져 제사는 형식으로 줄달음질 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섬의 개조(開祖)인 삼성에 대한 신앙이 유례적으로 형식화된 것에 반해 그 당시 아직도 도민의 정신생활의 근거가 되어 있던 것은 마을·동·가족에 의해 각각 모셔졌던 개별의 신통(神統)이었다.

35) 赤松智城·秋葉隆,『朝鮮巫俗의 硏究』, 上卷, 濟州島神歌.

개별신(個別神)이 머무는 지역, 또는 모시는 지역 곧 성소는 신통의 성격에 의해 사귀적신령(蛇鬼的神靈)의 성소와 비사귀적신령의 성소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유례적 마을제—제주도에서는 이것을 포제라고 함—의 단(壇)과는 별개의 것이다.

제주도의 무속의 특징은 고서(古書)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과 더불어 그 당시로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귀정령(蛇鬼精靈)에 대한 신앙이다. 많은 도민들은 사귀를 존숭함과 함께 사귀령(蛇鬼靈)의 구체적 나타남으로써 뱀 그 자체까지를 신성시한다. 따라서 뱀을 죽이는 일을 꺼려 여기에 제물을 바치고 어떤 종류의 뱀은 집에 갖고와서 기른다. 또 문헌에 따르면 옛날의 사귀적 신당에는 많은 뱀이 길러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사귀에 대한 신앙은 전도에 걸쳐 같은 정도로, 같은 양식으로 분포했던 것은 아니다. 오래된 전승(傳承)에 따르면 섬의 사귀신령의 조선(祖先)을 김녕동굴의 대사(大蛇)로 하는 것과 대정 차귀당(大靜遮歸堂)의 대사로 하는 것의 이자(二者)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반의 도민들은 사귀의 조선은 정의(旌義)의 토산당(兎山堂)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김녕의 땅은 사귀정령 발생지가 아니라 용등할망(龍燈姥)이 죽음을 가장하여 떠올려진 장소로서 용등대제(大祭)의 중심이 되어 있다.

사귀신앙에 관련되는 성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거의 다음과 같다. 즉 대정의 차귀당·정의의 토산당·고차당·제주의 돗당·피지남파당 그밖에 대정의 각 가정에서 많이 보이는 칠성당 등으로 이들 당에서 치러지는 행사는 농업 및 가족에 대한 희구(希求)의 표현이다. 사귀신앙을 극단적으로 꺼려 뱀을 아예 죽이기까지 하는 지역은 조천면의 북촌리로부터 성산포에 이르는 사이로 가장 사귀적신앙이 강렬한

정의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사귀신령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아, 역시 사귀를 수반해서 온다고 전해지는 정의의 여자와 결혼하기를 꺼리고 정의의 사귀당인 고차당 앞을 지날 때는 그 금기를 지키는 것이다. 아마도 섬의 동·서의 끝인 차귀·김녕의 두 곳에서 일어난 사귀신앙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전파해가서 한 때는 전도를 휩쓸었을 것이다. 그 당시의 사귀신앙은 일반의 무속과 같이 해촌에 강하고 산·양촌에 약하며 여자에게 강하고 남자에게 약했다. 그래서 제주·대정의 사람은 모두 사귀를 두려워하지만 집안에 모시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의 사람은 뱀을 모시고 있어 결혼할 때는 뱀이 따라옴으로 화를 입는다고 믿어 통혼(通婚)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속담에 「제주와 대정과는 언어는 다르지만 신은 같고, 제주와 정의는 언어는 같지만 신은 다르다」는 게 있다. 이것은 섬 안에 있어서의 부차적(副次的) 문화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귀 또는 뱀을 「할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섬의 풍습이지만 모든 「할망」이 반드시 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섬에서는 뱀을 여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에 대한 경칭으로서 「할망」이 끝에 붙여진 것 같다. 따라서 그 신체(神體)가 「할망」이라는 명칭을 갖는 성소도 분명히 사귀로 간주(看做)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나는 사귀적신령의 성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사귀적 신령 성소의 전형적인 것은 각 해촌에 모셔진 용왕부인당(龍王夫人堂) 또는 용등당(龍燈堂)으로 이 당 앞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이국풍우신용등제(異國風雨神龍燈祭)라고도 불리어 일반적으로 해사다행(海事多幸)과 합쳐 해상무사가 빌어진다. 양·산촌에도 용등당이 있어 풍신이 모셔져 있다. 또 질병을 쫓아내는 굿(푸닥거리)·기원도 이 당 앞

에서 행해진다. 한편 해촌에도 육사(陸事)를 비는 당이 있어 어떤 마을에서는 사귀를 그 제신으로 삼는 곳도 있지만 본체가 불명인 것이 많다. 북촌리의 단구두리당·우도의 수덕당·성산포의 칠일할망당은 그 예이다. 또 조천면의 당동산당과 같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양도되어 이로부터 분사(分社)를 낸 것이 어느 새엔가 그 신성관념의 내용이나 기능을 바꿔, 마치 용당부인당 또는 용등당과 같이 해사(海事)를 관장하는 신이 되어 있는 예도 있다.

유례적 마을제(儒禮的村祭)의 제장인 포제당의 구조는 무속의 그것과 아주 비슷하지만 포제날에만 제장(祭場)이 되고 있어 외경의 염(念)을 갖지 않는다. 북촌리 단구두리당(사진 58a)과 같이 무속의 신당과 포제당이 동일한 것은 특이(特異)한 예이다.

섬의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그 포괄적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주도 가운데서 그 고속(古俗)이 전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우도의 「도네촌」의 행사에 대해 말하겠다. 이 마을의 성소인 당동산당 및 수덕당의 두 당은 각기 제신(祭神)과 기능을 달리하여 전자는 해사를, 후자는 육사를 모시고 있다. 해사에 관한 마을제는 1월14일·2월15일·7월14일의 사흘인데 1월은 계절풍이 심한 달, 2월은 똑같은 용등달(龍燈月), 7월은 섬에 태풍이 곧잘 내습하는 달이다. 또 수덕당에서 행해지는 마을의 수확제(收穫祭)는 1년에 한 번의 수덕당제로, 개인의 농업이나 자식의 건강을 비는 것은 「8의 날」로만 한정되고 있다. 임시적행사로는 「말축제(蝗祭)」·기우제·잠수제(潛水祭)·백종제·고사제 등이 있다. 이들 무제(巫祭)에 섞여 유례적 조상제·마을제가 점점이 행해지는 것을 보아도 마을사람 정신생활의 이중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제사를 상세히 분석하면 전형적인 해촌인 「도네촌」가

운데도 양촌적요소가 적잖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무속행사 가운데 해사에 속하는 당동산당의 제사, 잠수제 등에 있어서의 제물은 닭·조밥 등 농업적요소가 많다. 한편 해사와 관련이 깊은 용등제는 양·산촌에 있어서도 풍제(風祭)로서 행해져 보리 수확 직전의 폭풍을 막는다고 믿어지는 작용이 주목된다. 잠수제의 주지(主旨)인, 바다에 조를 뿌리는 행사만해도 농업과 무관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신앙과 행사는 근본적으로는 농업적인 것으로, 그것이 모태가 되어 어로적(漁撈的) 종교현상이 성장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제6장 제주도 민구(民具) 해설

그 당시 제주도의 도시지방을 제외한 일반의 사회에서 쓰이고 있던 민구(民具)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하겠다.

제1절 의류(衣類)

전승에 따르면 옛날 제주목(濟州牧)의 주민은 말총으로 관(冠)을 만들고 무명(綿布·文綿의 뜻인데 文益漸이 중국으로부터 재배법을 배웠다고 전해지고 있다)와 베(大麻·육지에서는 삼베라고 한다)를 사들여 대정현 사람은 무명을, 정의현에서는 베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므로 의류도 섬에서 자급자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포목은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합병 후는 오사카(大阪)로부터 값싼 포목류가 수입된 때문에 이미 방직기(紡織機)조차 거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가) 갈옷(柿澁衣類)

여름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산뜻한 의복이다. 이러한 옷을 총체적으로 갈옷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감(柿)으로부터의 전음(轉音)으로 피륙을 감물로 염색하는 데서 유래하고 있는 것 같다. 푸른 감을 돌 위에서 빻아 물을 약간 섞은 것에 무명 또는 삼베를 담가 염색한 것이 갈옷감인데 더러움을 타지 않고 빨래가 잘 되며 땀을 빨아들이지 않

음으로 남국(南國)에 알맞는 천이다. 이제 그 피륙으로 만들어진 의류를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갈적삼(柿澁襦衣) : 만드는 방법은 남녀 모두 육지의 적삼과 다른 바 없다.

(2) 갈중이(柿澁男子袴衣·中衣라고도 하는 홑바지) : 이것은 육지의 그것과 만드는 방법이 달라 슬관절(膝關節)부분에서 굵기가 갑자기 좁아지고 슬관절과 복사뼈가 있는 곳을 끈으로 묶는다.

(3) 갈 굴중이(柿澁女子袴衣) : 이것도 육지와는 취향을 달리하여 허리부터 슬관절까지는 몸폐(주·밭 일 등에 여성들이 입는 일본 특유의 여성용 바지)와 같이 주름이 바로 잡혀있어 무릎부터 밑으로는 매우 좁아지고 두 곳을 끈으로 묶는 것은 전자와 같다. 굴중이 모습으로 농사 그 밖의 노동에 종사할 수는 있지만 공도(公道)에서는 반드시 이 위에 희거나 검은 치마를 입지 않으면 결례가 된다. 그러나 조천면 함덕리로부터 동쪽의 해촌 여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갈옷은 말하자면 섬에서의 노동복으로 외의류(外衣類)는 갈옷으로 만들어지는 일은 없다. 또 갈옷 위에 두루마기를 입지 않는다. 정장(正裝)의 의복은 육지와 바뀌는 게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종류의 옷은 모두 홑옷인지라 따뜻한 기간에만 입게 된다. 그러나 1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옷이란 것도 사실이다.

(나) 가죽옷(裘類)

제주도의 가죽옷(사진 36)도 또한 유명하여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몽고

풍속의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설(說)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제시한 바와 같다. 또 여자는 가죽옷을 입지 않는다. 전승에 따르면 이런 가죽옷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렵 때 멧돼지가 무섭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든 가죽옷이 털이 붙어있는 쪽을 바깥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섬의 습도(濕度)가 높으며 겨울철의 눈도 또 습윤(濕潤)하여 유피(輮皮·다룸가죽)을 외부로 드러냈을 때는 헛되게 가죽이 경화(硬化)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병 전까지는 해촌에서도 겨울에 배에 타는 경우에는 가죽옷을 썼으므로 에스키모의 의류를 결부해서 생각해보면 털쪽을 노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가죽옷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죽두루마기(皮周衣) : 만드는 법은 두루마기보다 간단하지만 길이 및 형태는 두루마기와 비슷하다. 단지 두루마기와 같이 끈으로 앞을 메는 것이 아니라 가는 가죽끈으로 안쪽에서 묶는다. 개가죽이 흔히 사용된다.

(2) 가죽바지(皮袴衣) : 육지의 바지보다 아주 가늘고 길이는 복사뼈가 감춰질 정도이다. 가죽은 똑 같이 개가죽을 쓴다.

(3) 가죽감테(皮冠套) : 모양은 태형(台形)으로 옆으로 퍼지고 있어 목덜미로부터 눈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흘림이 붙어 있다. 가죽은 옛날에는 반드시 지다리(地獺)를 썼지만 그 당시는 이미 적어졌기 때문에 노루가족으로 대용하고 있었다.

(4) 가죽보선(皮襪) : 형상은 보통 보선과 같다. 북조선의 그것과 같이 긴 것이 많다. 무릎까지 온다. 그리고 어떤 것은 털가죽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5) 가죽신(皮鞋) : 이것은 가늘게 찢은 유피(輮皮)를 보통 조선초신을 엮듯이 엮은 것으로 구조는 똑 같다. 이들 가죽옷류에 사용하는 가죽은 가죽신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다룬 가죽이지만 옛날엔 백정(白丁)에게 다루도록 했다고 한다. 만일 다룰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가정에서 다룬다. 가죽을 다루는 방법은 생피(生皮)를 소금에 절이고 그 위에 재를 뿌려 2~3일 있다가 그늘에서 말리는데 덜 말린 다음 「가라미」라는 대(台)에 올려놓고 「무기」라는 날붙이로 깎는 것이다(그림 31).

<그림 31> 가죽 다루는 用具

(다) 관 류(冠類)

(1) 감테(冠套) : 어린이용 모자이지만 형상은 분명치 않다.
(2) 가죽감테(皮冠套) : 육지의 것과 모양은 전혀 차이가 없고 갓(黑笠)—이곳에는 말총으로 만든 것보다 대를 엮어 만든 것이 많다—탕건(宕巾), 망건(網巾)의 삼자가 1조(組)가 되어 서당의 선생, 양촌남자가 상용(常用)하며 그 외에는 제사 때만 쓴다.
(3) 방립(方笠) : 대로 엮은 방추형(紡錘形)의 갓으로 남녀 모두 상용한다(사진 22).
(4) 농립(農笠) : 방립과 거의 같은 모양이지만 다소 크며 야외에서 일할 때의 비막이, 차일(遮日)용 갓으로 남녀 모두 사용한다.

이상 세 개의 갓은 모두 방추형으로 섬 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양·산촌에 많아 농사에 즈음해서 착용한다.

(5) 수건(帨巾) : 여자가 외출할 때 머리에 두루는 천으로 두루는 법은 일본의 「아네사마가부리(주≡일본여자가 청소 따위를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방식)」나 「호호가부리(주≡수건 따위로 얼굴이 가려지도록 뺨을 푹 싸는 일)」와는 달리 이마쪽을 덮은 천의 양끝을 뒷머리부분에서 완전히 묶지 않고 한쪽을 원형으로 묶는다. 이것은 육지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치마를 입지 않은거나 마찬가지로 일종의 비례(非禮)가 된다.

(라) 우의류(雨衣類)

(1) 우장(雨衣·大靜郡에서는 자부세기·표준어는 비옷) : 기다란 띠(萱)의 뜸으로 육지에서도 보편적이다. 일본의 뜸과 같은 계통의 것이다(사진 61).

(2) 두레기(短雨衣) : 우장의 짧은 것으로 이것은 비 속에서 제초(除草)할 때 주로 쓰인다.

(마) 신 류(鞋類)

(1) 나막신(木鞋) : 나무를 도려내어 만든 것으로 밖으로 뻗힌 두 개의 굽도 역시 하나의 나무로부터 돋혀진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지만 육지에서는 가끔 눈에 띄었다.

(2) 초신(草鞋) : 이것은 육지의 초신과 꼭 같으며 각 부분을 굵게 만든 노동용의 것을 「북닥신」이라 하고 점잖게 만들어진 것을 「미투리」이라고 한다. 각부의 명칭은 <그림 32>와 같다.

(3) 가죽신(皮鞋) : 앞의 것 참조

(4) 테월(輪樏 · 표준어 동철) : 깊은 눈 속을 걷는데 쓰이는 동철로 모양은 직경 40㎝의 정원형(正圓形)으로 관목(灌木)을 꾸브려 여기에 「井」형으로 가는 가죽을 엮은 끈을 달아 그 교차점에 가죽신을 신은 발을 놓고 끈으로 고정한다(사진 36). 설구(雪具)로서 중 · 북조선의 산악지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설매(雪馬 또는 雪鷹)[1]는 무가(巫歌)[2] 속에 그 이름을 남기고는 있으나 이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그림 32> 초신(草鞋)

그 당시 가장 많이 쓰이던 신을 것은, 고무신 「지카타비(地下足袋 · 주≡일본 고유의 노동자용 작업화)」로 이것들은 거의 오사카(大阪)로부터의 직수입품이었다.

제2절 식기류 및 그 밖의 생활용구

(가) 식기류

섬의 식사에 대한 관습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사람 또는 두

1) 拙稿, 「東亞大陸의 스키」 미네르바, 昭和 11年 12月.
2) 赤松智城 · 秋葉隆, 『朝鮮巫俗의 硏究』 上卷, 西歸本鄕堂本解.

사람마다 한 상을 차리질 않고 밥·국·야채절임(김치 등) 등 각각 한 그릇을 갖고 가족 모두가 함께 먹음으로 일반적으로 식기류는 대형이다.

(1) 상 : 네발이 달린 육지풍의 작은 상과 오사카(大阪)에서 만들어진, 여럿이서 사용할 수 있는 둥근 것이 이용되고 있었다.
(2) 밥사발 : 밥을 뜨는 그릇으로 그 당시 상용(常用)하고 있었던 것은 직경 30㎝, 깊이 8㎝의 세면기(洗面器)로 육지풍의 직경 15㎝, 깊이 10㎝ 크기의 오지그릇은 손님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
(3) 대접 : 앞의 밥사발보다 직경은 약간 작지만 보다 깊으며 역시 오지그릇이 많다. 이것은 가족 한 사람마다 하나씩 준비되어 있다.
(4) 접시 : 오지그릇접시로 직경 10㎝ 보다 큰 것은 적고 고추장 등을 담는다.
(5) 장물종지(醬油碗·간장종지) : 직경 4㎝, 깊이 3㎝의 오지그릇으로 참깨 가루를 섞은 간장을 넣는다.
(6) 젓가락(箸) : 주로 대로 만들어져 모양은 육지·일본·중국의 것과 변함 없다.
(7) 숟가락 : 육지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속제품이다.

(나) 두껑 없는 대구덕(竹籠 표준어≡바구니)류

제주도에는 남조선보다 대가 풍부하여 많은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구니류이다.

(1) 가는대 구덕(手籠·가는 대나무 바구니) : 직경 30~40㎝, 깊이 25~30㎝ 정도의, 눈을 가늘게 엮은 아름다운 바구니로 여자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이것을 겨드랑이에 낀다. 제주도의 진기한 풍속

의 하나이다.

(2) 송키구덕(野菜籠·야채를 담는 바구니) : 앞의 가는대구덕보다 눈이 굵고 조작(造作)도 거칠며 크기는 갖가지이다. 야채를 담는다.

(3) 서답구덕(洗濯籠·빨래바구니) : 송키구덕과 거의 같은 것으로 빨래터의 왕래때 사용한다.

(4) 물구덕(水籠·물 길러다릴 때 쓰는 바구니) : 허벅(水甕)을 담고 우물로부터 집까지 왕복하기 위해 쓰는 바구니(사진 53b)로 크기는 (1)과 같지만 바닥에 널판지가 깔려있어 이것으로 무게를 견뎌낸다. 조작은 (1)에 비하면 조잡하지만 (2)·(3)보다는 정성스레, 특히 단단히 만들어져 있다.

(5) 애기구덕(搖籃) : 길이 1m, 너비 50㎝, 깊이 40㎝의 대바구니로 조작은 (1)과 같이 아름다우며 속에 이불을 깔아 젖먹이를 눕힌다(사진 63). 특히 어머니가 끈을 십문자(十文字)로 걸어서 등에 업어 들에 나간다. 이것을 몽고의 유풍(遺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끈을 걸치는 법은 완전히 제주도식 물구덕과 마찬가지로 끈의 양 끝을 묶어 큰 원을 만들고 이를 바구니에 걸어 등에서 십문자로 교차시켜서 업는 것이다.

(6) 고기구덕(魚籠)·멜구덕(鰯籠) : 해촌에서 출어(出漁) 때 뗏목에 싣고 어획물을 담는 바구니인데 크기는 직경 1백50㎝에 이르는 것도 있다.

(7) 골체(鹿籠·표준어 삼태기) : 주로 연료로 쓰기 위해 말린 말똥 같은 것을 나르는 바구니로 그 직경은 1m나 되는 것이 있지만 깊이는 비교적 얕다. 그러나 대개는 (2)·(3)의 낡은 것으로 대용한다.

(다) 차롱(두껑 달린 대바구니)

구덕(바구니)에 대해 차롱은 보다 정성스리 만들어져 있으며 도민이 애착을 갖는 기구이다. 구덕(바구니)은 원형의 것이 많은데 반해 차롱은 장방형(長方形)의 것이 많다. 두껑을 「두께」라고 하며 이것을 받는 쪽을 「알착」이라고 한다.

(1) 밥차롱(弁當籠) : 「칸막이 도시락(破籠)」과 비슷한 대바구니(사진 64)로 농번기에 멀리 떨어진 밭에서 일할 때는 이것에 밥을 담아 들고 간다. 크기는 길이 35㎝, 너비 28㎝, 깊이 13㎝의 것이 애용된다. 그 용도에 따라 떡차롱(餠籠)·독차롱(燒魚籠) 등으로 불리운다.

(2) 이보지초롱(이바지를 담는 바구니) : 이것은 특히 정성스리 만들어진 바구니로 결혼 때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친족에게 나누는 음식(이바지)을 담는 그릇이다.

(3) 상지차롱(옷 등을 넣어두는 바구니) : 옷 또는 여자들이 가까이 쓰는 물건을 넣는 바구니다. 크기는 갖가지이며 일본의 고리짝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섬의 대는 살이 엷으므로 무거운 것을 넣고 운반하기에는 불편하다.

(라) 옹기그릇(素燒甕)류

제주도에는 제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무토(玄武土)가 많아 이것을 원료로 해서 섬사람들은 옛부터 풍아(風雅)한 회색의 옹기그릇을 만들어 일상 쓰고 있다.

(1) 물허벅(水甕) : 보통 용수(用水)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정으로 물을

나르는 물동이로 크기는 높이 40㎝, 목의 구경(口徑) 12㎝,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직경 30㎝로 물구덕과 함께 쓰인다.

(2) 단지(작으마한 항아리) : (1)보다도 구경이 넓은 호리병으로 이것에 국을 넣고 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점심을 나른다(사진 65). 크기는 길이 20㎝, 구경 10㎝, 가장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의 직경이 15㎝ 정도의 것이 가장 널리 쓰인다.

(3) 장항(장독) : 육지에서도 쓰이는 장독과 모양이나 크기는 같지만 잿물(釉藥)을 뿌리지 않고 구운채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육지풍의 굽는 법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4) 항 또는 도가지(米甕·쌀독) : 쌀 또는 물을 저장해두기 위해 쓰는 토기로 육지에서는 유약(잿물)을 뿌려 굽지만 섬에서는 그대로 굽는다. 크기는 구경 30㎝, 높이 60㎝,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68㎝이다.

(5) 오줌단지 : 이것은 해촌의 일부에서 쓰이고 있을 뿐으로 완전히 육지풍이다. 섬 사람의 거의는 돼지가 있는 「통시(변소)」에서 용변을 본다.

제3절 농 구 류(農具類)

(가) 경작농구(耕作農具)

당서동이전(唐書東夷傳)에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3]라고 되어 있으나 그 당시는 이것과 취향을 달리하여 거의 신간(新墾)과 야채를 심을 때 이외는 소 또는 말에 쟁기를 매어 경작한다.

3) 唐書東夷傳, 『朝鮮史』, 第一編 第三卷 中國史料別錄.

(1) 쟁기 : 재래의 것은 사진(66·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지의 쟁기와는 구조가 다소 다르지만 그 당시 육지의 쟁기가 계속적으로 수입되고 있었다.

(2) 비창(三叉鍬) : <그림 33>과 같은 모양으로 부드러운 흙을 갈 때 사용한다.

(3) 광기(太三叉鍬) : (2)와 같은 모양이지만 날이 굵고 두텁다.

(4) 따비 : 개간 때 쓰는 커다란 날이 두 개의 가래로 전장 1백90㎝, 날의 길이 65㎝에 이른다(사진 68, 69)

(5) 곰배(碎土具) : 소쟁기로 갈아엎은 다음 흙덩이를 부수는 도구로 막대기 끝에 사각의 목편(木片)이 붙어 있다(<그림 34>, 사진 31).

<그림 33> 三叉鍬(pi-chang)

<그림 34> 碎土具(kombe)

(나) 제초(除草) 또는 수확(收穫) 용구

(1) 큰 호미(大鎌·큰낫) : 자루의 길이 1백60㎝, 날의 길이 60㎝에 이르고 큰 낫으로 제초·띠베기·목초베기 등에 쓰이지만 성산면·남원면·서귀면 등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사진 67).

(2) 골갱이(除草鎌·표준어 호미) : 풀뿌리를 파내는데 쓰는 것으로 날이 없다. 전장 30㎝, 금속부 18㎝(사진 70a).

(3) 호미(鎌·표준어 낫) : 보통 낫으로 전장 30~35㎝, 날의 길이 20~23㎝의 것이 애용된다(사진 70b).

(4) 도께(連枷) : 보리 또는 조를 제곡(除穀)할 때 쓰이는 게 도께인데 회전하는 부분의 길이 1백30㎝, 자루 1백40㎝(사진 69).

(5) 글겡이 : <그림 35>와 같은 모양으로 곡물이 떨어진 것을 모은다. 목제품이다.

(6) 비(빗자루)

<그림 35> 글갱이

(다) 정백용구(精白用具)

(1) 말방아(물방에·물가레) 제4장에서 상술(詳述)했음.

(2) 방아(搗臼) : 직경 1백20㎝ 정도의 목기(木器) 중앙에 내경(內徑) 20㎝, 깊이 17㎝의 돌그릇을 박아 놓은 것으로 주로 조를 찧는다. 절구공이를 「방애귀」라고 한다(그림 36).

<그림 36> 방아

(3) 맷돌(挽臼·방언은 고레) : 직경 45㎝ 크기의 돌 두장을 합친 것으로 (2)와 함께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쓰인다(그림 37). 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맷돌을 「고레」라고 한다.

(4) 도고리 : 맷돌(고레)을 드려놓는, 나무를 파서 만든 원형의 그릇. 크기는 직경 60㎝, 깊이 50㎝.

<그림 37> 고레(맷돌)

(라) 잡구(雜具)

(1) 낭그릇(木器·나무그릇) : <그림 38>과 같이 나무를 파낸 것이 많으며 잡물(雜物)을 넣어 둔다.

<그림 38> 목기(낭그릇)

(2) 멕(蒿器·보릿짚으로 만든 그릇) : <그림 39>와 같은 형태의 것으로 직경 50㎝, 높이 40㎝ 크기의 것이 애용되며 주로 겉겨 등을 넣는다.

<그림 39> 멕

(3) 됫박세기(枡·표준어 되) : (1)과 같은 크기로 최단부(最短部) 12㎝, 최고부(最高部) 18㎝, 깊이 5㎝. 이것이 곡물을 재는 단위이다.

(4) 체(篩) : 틀은 나무로, 눈은 대로 만들어져 있다. 직경 35㎝ 크기의 것이 많다.

(5) 가는체(篩) : 눈이 가는 것으로 피(稗)를 칠 때 쓴다.

(6) 덩드렁(藁打台) : 직경 30~40㎝, 높이 20~25㎝ 크기의 돌로 집

안에서 쓰는 일은 거의 없고, 이 위에서 보리짚을 두드린다.

(7) 막게(나무로된 망치) : 직경 15㎝, 전장 32㎝ 크기의 나무망치(그림 40)이다.

(8) 도치(斧·표준어 도끼) : 날의 길이 19㎝, 너비 5㎝, 자루 길이 77㎝의 것이 많다.

(9) 자귀 : 장작 쪼개는데 쓴다.

(10) 호롱기 : <그림 41>과 같은 구조로 죽통(竹筒)을 잡고 손잡이를 회전시켜 끝의 일단(一端)에 고정된 밧줄을 꼰다.

<그림 40> 마께 (다듬잇방망이)

<그림 41> 홀갱이

(11) 뒤치기 : (10)과 같은 형태지만 두줄의 밧줄을 하나로 꼴 때 쓴다.

(12) 안반(砧台·표준어 다듬잇돌) : <그림 42>와 같은 것으로 발이 네 개 있지만 그것들은 거의 같은 목재에서 도려낸 것이다. 망치는 「마께」라고 한다.

<그림 42> 안반과 마께(다듬잇돌과 방망이)

(13) 안장(鞍) : 이것은 형상과 구조가 대륙의 그것과 비슷하다. 각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사진 72).

(a) 타레(廣皮)

(b) 퉁지(鐙·표준어 등자)

(c) 퉁지끈(鐙紐·등자끈)

(d) 밀취(꼬리에 거는 끈)

(e) 칠차(물건을 안장에 매는 끈)

(f) 마함(轡·표준어 재갈)

(g) 갈달석 또는 마함석(手綱·표준어 고삐)

섬사람들은 승용마(乘用馬)를 「승마」, 짐싣는 말을 「셍메」라고 한다.

제4절 어 구(漁具)

(가) 선류(船類)

제주도에서는 원해어업(遠海漁業)이 발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큰 배는 적고 그 당시 일본식 전마선(傳馬船)의 수가 늘고 있었으나 그때까지는 조선식 노선(櫓船)과 뗏목(筏舟)밖에 없었다. 조선배도 전라도의 것과 구조는 같지만 형체는 작다.

(1) 떼배(筏舟·뗏목) : 직경 20㎝, 길이 4~5m 정도의 통나무를 6~8본 옆으로 나란히 늘어 놓고 이것을 수피(樹皮) 또는 삼밧줄로 단단히 연결시켜 그 위에 장방형의 나무테두리를 붙여 있다. 노를 저어 나간다. 격랑(激浪)에 약하고 형태가 장방형인 때문에

저항이 강하고 속도도 무디다. 그러나 옛부터 도민들에 의해 가장 애용되어온 것이다(그림 20, 사진 40).

(2) 조선배 : 이것은 육지의 것과 하등의 변화가 없고 돛도 또한 같다. 이들 어선은 각자의 목적에 의해 「자리배」「술낙배(一本釣船)」「주낫배(延繩船)」 등으로 불리운다.

(나) 망류(網類)

동국여지승람[4]에 「不用網罟(그물을 사용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섬사람의 상식물(常食物)임과 동시에 낚시의 모이가 되는 「자리」는 그물없이는 잡을 수 없는 고기이다. 대형 그물은 없었겠지만 자리그물이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1) 자리그물 : 직경 1.5m, 길이 3m, 눈의 크기 주위 2㎝ 크기의 그물(그림 21, 사진 41)로 이것을 나무로 된 테두리에 달아 놓는다(사진 40). 어법은 제3장에서 말한대로이다. 그물의 실은 면사(綿絲)로 이것을 「바늘대」로 그물을 짜, 완성된 것에 감물(柿澁)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한 의복의 경우와는 방법이 다소 달라, 으깬 푸른 감에 물을 첨가하지 않는다. 물을 첨가하면 그물이 약해진다고 전해진다.

(2) 지레망(地曳網·후릿그물) : 이것은 모두 오사카(大阪)로부터의 직수입에 의한 것으로, 지방적인 특징이 없지만 해저(海底)나 해안으로부터 끌어올릴 때는 도르레를 사용한다. 그물을 넣는 창고를 「그물막」이라고 하는데 해안에 4본의 돌기둥을 세워 기둥 상단에 나무 또는 양철의 지붕을 매고 그위에 그물을 넣는다(사진 72).

---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다) 조구(釣具)

(1) 술낙기(一本釣具) : 섬에 있어서는 낚시대에 의한 낚시는 볼 수 없고 모두 낚시대 없이 낚시줄을 손에 잡고 하는 낚시질 뿐이다. 낚시에 10발(尋) 정도의 술(낚시줄)을 달리게한 것으로 이것은 「가는대 구덕」에 넣어 뗏목에 타서 난바다로 나간다. 술은 자리그물과 마찬가지로 감물을 드린다.

(2) 주낫(延繩 · 주낙) : 길이 50발의 줄에 한 발에서 세 발 정도의 낚시가 달린 낚시줄은 2백 내지 3백쯤 달고 이것을 「훈박」이라는 대바구니 또는 널판지 상자에 넣고 출어한다. 드디어 사용하게될 때에는 줄의 양 끝에 「퉁박」이라는 부표를 달고 낚시 하나 하나에 모이를 꿰고 바다에 넣는다(그림 43).

<그림 43> 주낙

(라) 마미초채집구(馬尾草採集具)

폭풍 뒤에 해변에 해조(海藻)가 표착한다. 그 가운데 둠북(馬尾草)은 비료로서 중시되어 남녀가 섞여 해변에 이르러 이것을 채집한다.

(1) 장호미 : 길이 5m 정도의 막대에 낫을 묶은 것(그림 44a).

(2) 곤체기테 : (1)과 같은 길이의 막대로 <그림 44a>와 같이 끝이 두갈레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 44> 장호미(a)와 곤체기테(b)

(마) 나잠구(裸潛具)

(1) 소중이(해녀가 잠수할 때 입는 옷) : 제주도의 뭍의 노동복은 갈색의 갈옷이지만 「소중이」는 남빛의 천으로 만들어져 전면은 넓적다리로부터 젖까지 감추고 뒷면은 허리부분을 덮고 배부(背部)에 있어서 천은 가늘어지면서 열십자로 교차해서 어깨를 넘어 흉부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2) 테왁 : 일본의 뜸통(浮樽)에 상당하는 것으로 대형 바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부착되어 있는 수확물을 넣는 그물을 「망사리」라고 한다.

(3) 호미(표준어 낫) : 농사에 쓰는 것보다 소형으로 해조를 베는데 쓴다.

(4) 비창 : 점복을 떼어내는 철제의 편평한 작은 지레.

(5) 눈(水中眼鏡) : 눈이란 「眼」의 의미로 바닷 속에서의 바로 해녀들의 눈이다. 그 당시 일본제를 쓰고 있었지만 옛날엔 유리를 사서 스스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옛 것은 볼 수가 없었다.

제5절 가옥(家屋)

조선의 민가를 그 방의 배치로부터 둘로 분류하여 일반형과 북조선형으로 할 때[5] 제주도의 민가는 북조선형에 속한다. 즉 섬의 전형적 가옥인 삼간집의 방 배치를 제시한 것이 <그림 45>로 각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그림 45> 삼간집의 방 배치도

(a) 큰 구들(大溫突)…부모의 방
(b) 작은 구들(小溫突)…젊은 부부 및 그 자식들의 방
(c) 굴묵(溫突焚口)…각 온돌마다 따로 따로 있다.
(d) 상방(上房)…마루방
(e) 고팡(庫房)…토방으로 곡물창고가 된다.
(f) 벽(壁)
(g) 문…주방의 문을 「이문」, 바깥문을 「대문」이라고 한다.
(h) 낭간(廊間)…낭하

5)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硏究』.

(i) 정지(廚房)…부엌

(j) 솟덕…아궁이·불을 지피는 곳을 「솟강알」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곳은 큰구둘·작은구들·상방 및 정지로 산촌의 민가에는 정지(부엌)에 50~60㎝ 정도의 「봉덕」이라고 칭하는 노(爐)가 있고 그 위에 「고리틀」이라는 목제의 테두리가 걸려 있어 여기에서 옷을 말린다(그림 46).

<그림 46> 山村家屋의 廚房

집촌(集村) 형성시대 이전에는 온돌이 섬의 일반가정에는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으며 이 부엌의 「봉덕」은 그 당시의 흔적인 것 같다. 말할 것도 없이 제주도와 같이 습윤(濕潤)한 곳에서는 옷을 말린다든지 뱀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봉덕이 필요한 것이다. 뱀은 불을 싫어하기 때문에 산촌사람들이 밤길을 걸을 때엔 「방사(防蛇)」로서 억세 이삭을 단단히 묶은 화심(火心)에 불을 부쳐 갖고 다닌다(사진 76).

<그림 47> 家屋配置圖

섬의 민가는 방의 배치에 있어 북조선형이지만 재료는 전혀 취향을 달리 한다. 즉 북조선에 있어서는 외벽에 굵은 통나무를 쓰고 이것을 찰흙으로 굳혀 지붕에는 자작나무거죽 또는 할판(割板)을 쓰는 등, 민가의 중요한 재료는 목재와 찰흙(점토)이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민가의 외벽은 밭이나 목장을 구획하고 있는 돌담과 마찬가지로 용암(溶岩)을 쓰고 안쪽으로부터 띠 또는 짚을 썬 「수세」를 섞은 찰흙을 바르며 띠로 나즈막하게 일어 이것을 굵은 밧줄로 눌러댄다(사진 27·75). 그 위에 북조선과의 차이는 상방이 마루방으로, 집 안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채와 부속건축물과의 배치 및 뜰과의 관계는 <그림 47>과 같으며 각부 명칭은 다음과 같다.

a) 막(퇴비저장소)…돌담을 둘러 그 위에 지붕을 덮고 변소의 짚과 돼지분뇨와의 혼합물을 퇴비로서 저장한다.
b) 곳간(倉庫)…집과 거의 같은 구조지만 습기가 차지 않도록 지붕과 벽사이가 비어 있다.
c) 안거리…안채
d) 통시(厠)…이미 말한대로

e) 장항굽…장물항아리를 두는 곳

f) 앞마당(前庭·앞뜰)…뒷뜰에 비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g) 뒷마당·우영팟(後庭)…뒷뜰

h) 올레(入口)…가축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목책(정낭)이 달려 있다.

i) 돌담

이러한 전형적인 삼간가옥 외에 산촌의 외딴집에는 막사리라는 가옥이 있다. 벽과 지붕은 삼간가옥과 구조가 같지만 내부는 매우 원시적이며 온돌이 없는 것도 있다. 단막사리(單幕居)와 일간막사리(一間幕居)의 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방 배치는 <그림 48>과 같지만 삼간가옥·일간막사리·단막사리의 셋을 비교하면 섬에 있어서의 민가의 발전의 흔적을 더듬을 수가 있다. 즉 원시적 초옥적(草屋的) 단막사리에 육지의 온돌을 첨가하면 일간막사리가 되고 이것을 더욱 충실케 함으로써 현재의 삼간가옥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림 48> 單幕居와 一間幕居와의 방배치

第 2 部

東京에 있어서의
濟 州 島 人

(1950年 現在)

1. 머 리 말

1933년의 제주도의 인구는 약 18만8천명으로 그 당시 조선반도의 총인구 2천2백89만9천의 약 0.8%강(일본인 제외)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에 비해보면 완전 추향을 달리하며 특히 오사카·도쿄 등의 대도시 거주자의 절반 가까이는 제주도 출신이었다.[1] 따라서 일본의 대도회지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은 현해탄(玄海灘)의 거친 바다에 고립당하고 있던 그들의 문화를 눈부신 도시생활의 한복판에서 이질적(異質的)인 일본문화와 접촉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도시화(urbanization)와 변용(變容·acculturation)이 동시에 평행해서 발생했던 것이다.

도쿄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을 대상으로 삼은 의미도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실태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발발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정세가 핍박하여 끝내 조사를 중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술하는 바와 같이 자료상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것을 보정(補整)할 수도 없게 돼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가운데서 이런 종류의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바라고 싶어서이다.

조사의 대상은 도쿄 X지구의 제주도인으로 이 지대에 약 5백세대,

---

1) 오사카시에 있어서는 조선인의 90%까지가 제주도인이라 일컬어진다. 일찍이 섬남부의 서귀포항과 오사카를 잇는 아마가사키기선(尼ヶ崎汽船)의 판제선(阪濟線)이 존재했던 관계상, 제주도에는 조선본토는 모르면서 오사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약 2천명(정확한 수자는 불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 반수인 2백50세대에 대해 면접(面接)조사를 하기로 했다. 1950년 5월부터 작업에 착수했는데 오카(岡) 및 도쿠야마(德山)군이 이 곤란한 작업에 종사했다. 6월말에 이르러 한국전쟁이 시작하자 조사의 능률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 9월 중순에는 면접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 면접을 끝낸 것은 겨우 73세대로 예정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였다. 더구나 이 73세대도 엄밀한 표본추출법(標本抽出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X지구에 사는 제주도인의 총세대수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직 대장(臺帳) 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면접하기 쉬운 사람을 좇아서 작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중(偏重)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면접법에 의한 양적(量的) 조사와 병행해서 이 사회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사람들로부터의 질적(質的)인 청취조사, 여러 행사의 관찰 등을 이즈미(泉·저자)가 주로 맡았다. 여기까지가 본론의 「2」에서 「8」까지에 정리되고 있다.

다음에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서 이 지구의 초등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의 로르샤하 테스트를 했다(주·Rorchach teat란 스위스의 정신과의사 로르샤하가 고안해낸 인격진단 테스트의 하나). 이 테스트에 의해 나타난 아동의 성격을 통해 도시화와 문화변용의 정도를 측정하고 더 나아가 「도쿄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문화형태를 그려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로르샤하 테스트만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테스트나 정신분석, 혹은 생활력(生活歷)의 조사 등을 종합해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었지만 본 테스트가 조사의 말기에 실시된 때문에 더 나아가 갖가지 연구를 거듭해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테스트의 비교 대조로 한 자료는 모두 일본인에 대한 자료로 제주도에 있어

서의 제주도인의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큰 타격이었다. 성격에 관한 연구는「9」에 종합되어 있다. 소후에(祖父江), 오규(大給)군이 조사에 종사, 소후에군이 본고(本稿)를 위해 1965년에 개서(改書)한 것을 여기에는 싣고 있다.

東京 X지구
2. 濟州島人의 移住經過

도쿄에 있어서의 제주도인 내주(來住)의 경위는 분명치 않지만 1920년대에는 이미 상당수의 제주도인이 닛포리(日暮里), 미카와지마(三河島)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해마다 늘어 1927년부터 1936년대까지 제주도로부터 일본에 도항(渡航)해온 사람은 1만5천9백54명으로, 이들이 모두가 일본에 정주(定住)하지는 않았다해도 많은 제주도인이 이 기간에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이다.[2] 이러한 일본으로의 이주자의 증가는 말할 것도 없이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증가를 뜻했다.

그들이 일본에 이주함에 있어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은 매우 적고, 대다수는 막연히「일하기 위해」라든지「공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밖에 지닐 수 없었다는 데에 신천지를 찾아서 생활의 전환을 서두는 이민(移民)의 특질(特質)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일(渡日)의 목적이 매우 막연하다고는 하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크다. 남자의 경우는 어떻든 간에 자신이

2)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 그 당시의 조선총독부가 소화10년(1935)에 일본으로의 출가(出稼) 방지조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일할 장소를 찾는다든지 혹은 생활의 근거를 구하려는 적극성을 갖고 있지만 여자는 누군가에게 끌려온다든지 부름을 받고 온다……고 하는 소극적인 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제주도의 여성은 육지에 비하면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에 즈음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이나 공부를 목적으로 한 것은(특히 공부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대단히 적고 동반(同伴)이나 연고(緣故)에 의지하여 도일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 가운데 해촌에 널리 보이는 해녀가 한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것은, 남자의 경우는 출가(出稼) 한채 정착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반해 해녀의 출가에서는 한정된 기간 일본에 건너가고 다른 계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해녀질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녀 사이에서 보게되는 도일동기(渡日動機)의 차이는 남녀의 도일연령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도일연령이 13~14세쯤까지는 여자가 많고 15~16세에서 22세 사이는 남자쪽이 많다. 그로부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여자가 많아져온다. 그래서 남자의 도일평균연령 보다 여자의 그것이 훨씬 높다. 13~14세 이전에 여자가 많은 이유는 잘 알 수 없는 점이지만 14세부터 22세까지는 남자가 많다는 것은 마침 이즈음이 직업에 붙는다든지 혹은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가장 적당한 연령이기 때문일 것이다. 남자가 이 시기에 보다 나은 생활을 적극적으로 찾는 데 대해 여자가 이러한 관심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다. 22세를 넘으면 여자의 도일자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이주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는 남자들이 고향으로부터 아내를 맞이하는 결과라고 추측된다.

구청(區廳)의 자료(이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로부터 세대주의 상륙

지를 정리해 보면 <표 23>과 같다. 즉 상륙의 첫발을 오사카(大阪)에 딛게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주가 가장 왕성했던 1929~1939년에 제1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서귀포와 오사카와의 사이가 아마가사키기선회사(尼ヶ崎汽船會社)의 판제항로(阪濟航路)에 의해 연결돼 있던 결과일 것이다.

<표 23> 日本在住者의 上陸地

大 阪	304人	下 關	63人
神 戶	4	福 岡	1
東 京	1	不 明	24
未調査	77		

오사카에 상륙한 제주도인은 잠시 여기에 거주한 뒤에(짧은 경우는 1~2개월, 긴 경우는 수년, 말할 것도 없이 오사카에 정주(定住)하는 사람도 많다) 일부의 사람은 교토(京都), 고오배(神戶), 그 밖의 지역을 거쳐, 그러나 대부분은 곧장 도쿄(東京)로 일을 찾아내어 이주한다. 그 도쿄에서도 제주도인이 많은 X지구, Y지구 등에 집중한다. 상경(上京)한 신이주자(新移住者)는 그 친족 또는 같은 고향 출신의 유력자를 찾아 인사하고 도와주길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주거도 얻게 된다. 이 때 가장 가까운 집에 인사하는 습관은 별로 없고, 때로 일본식으로 국수·성냥 등을 돌리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친한 사람이 환영의 뜻으로 새로 온 사람에게 한 턱 내는 경우가 많다.

X지구

3. 濟州島人의 分布·社會結合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정확한 인구통계를 구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구청에도 자료가 없고 조선인의 자치기관으로

부터도 정확한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대강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1946년 초에 실시된 옛「외인등록신입표(外人登錄申込票)」를 구청에서 열람했다.[3]

그런데 이 자료는 전혀 정리 안되고 있는 위에 실제로 면접해서 얻은 73호의 세대주의 주소성명을 이「등록신입표」에 있는 제주도인 세대주의 4백81명과를 조합(照合)했던 바, 73호 가운데 겨우 40%가 등록자료와 일치하는데 불과했다. 더구나 생년월일·직업·그 밖의 기입되어 있는 항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73호 가운데 30%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유동성이 심하다는 것이나 그 당시의 미묘한 정치정세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든 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이미 이러한 것이었다.

일반의 경향을 알기 위해 이러한 구청의 자료에 의해 X지구에서의 제주도인의 세대수와 그 분포상태를 분명히 해보자. 총세대수는 4백81세대로 동 지구의 전 조선인 9백21세대의 거의 52%를 점유하고 있다.[4] 이 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분포는 <그림 49>에서도 분명한 것과 같이 X지구 전체에 빠짐없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X지구 가운데서도 a정(町, 39·6%) b정(44·4%)에 특히 집중하고 있고 더구나 그것은 국철(國鐵)의 C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아진다.[5] 이것은 제2차대전 중에 C역 부근은 타다 남은 곳이기 때문이다.

---

3) 그 당시로서 가장 새로운 것으로는 1947년 8월의 등록카드가 있지만 이것에는「조선인」또는「한국인」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출신지는 명기(明記) 안되고 있다.

4) 대정10년(大正·1921)에 X지구로 이주해온 고로(古老)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이미 X지구 뿐아니라 도쿄 전반에 걸쳐 제주도인이 조선 본토 출신보다 많아 츠키시마(月島)·오오지마(大島·城東區)·미카와지마(三河島)·닛포리(日暮里)가 그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5) a초(町)은 국철(國鐵)의 C역과 D역 사이에 있는 곳인데 제주도인은 도심에 보다 가까운 D역부근 보다는 C역 가까이에 훨씬 많이 살고 있다.

<그림 49> X지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의 분포

불 타기 전에는 오히려 A역 부근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전재후(戰災後) 불타지 않은 C역 부근의 연고를 찾아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X지구의 제주도인은 이러한 C역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모촌(母村)의 촌락조직을 이 땅까지 갖고 오지는 않았다. 즉 마을의 기능적인 조직(친족조직·계나 수누름과 같은 경제조직·동회와 같은 자치조직·각종 神堂이나 용왕부인당을 중심으로 한 祭祀의 조직 등)은 거의 볼 수 없었다.[6] 친족관계집단

6) 자치조직으로서 대한민국재일거류민단 혹은 조선인연맹이 있지만 이것은 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조직으로 제주도인만의 이러한 조직은 없다.

은 고리(故里)의 그것에 편입되어져 있는 외에 촌락적 조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뒤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조선본토인에 비하면 또 다른 단결양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제주도인은 그 출신의 향리 혹은 본관·성씨가 달라 있어도 서로는 친척과 같이 사귄다. 인사도 않고 서슴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암묵리(暗默裡)에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사회결합의 양식 중에서도 지연적(地緣的)조직이 도쿄의 X지구에 있어서 거의 붕괴해 버리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다고 생각된다. 본도(本島)에서는 그들의 생활은 자급자족적인 전작(田作)작업 또는 여자의 잠수어업과 전작농업의 짜맞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더구나 이와같은 생산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갖가지의 협력이나 협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협동의 조직은 구체적으로 경지(耕地)나 어장과의 관계에 의해 성립되고 있다. 그 위에 마을의 근간(根幹)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이동 않는다.

이에 반해서 X지구는 대도회의 일부이며 그들의 생활은 경지나 어장의 위에서 영위되는 노동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직업(後述)에 의해 영위된다. 따라서 고향의 생활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했던 여러 조직, 사회유대(紐帶)는 저절로 도쿄에 이주하면서부터 잊혀져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이나 사회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X지구의 제주도인이 서로 관계없이 고립하여 단지 우연히 집중해서 살고 있느냐면 결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림 50>은 C역을 중심으로 해서 X지구를 2백m 사방(四方)의 정

고로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친족조직이 오사카에는 있지만 도쿄에서는 전쟁에 의해 완전히 붕괴했다. 또 금융조직으로서의 계는 오사카에서는 「다노모시(賴母子講)」라는 일본인 명칭을 갖고 발달하고 있지만 도쿄에서는 볼 수 없다.

---- 區劃線　　——— 主要道路

----- 町界線　　3 0 數字는 200m 四方에 居住하는 濟州島人 密度

<그림 50> X지구濟州島人의 거주밀도

방형으로 구획, 제주도인의 거주세대수를 각각의 정방형 안에 기입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해 각각 C역과 D역을 중심으로 한 거주세대수를 비교해 보면 우선 C역을 중심으로 한 4백m 사방에는 96세대의 제주도인의 세대가 있는 것에 대해, D역 동구(東口)를 둘러싼 4백m 사방에는 6세대의 제주도인 세대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밖에 어떠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4백m 사방의 지역을 선정해도 그 안에 포함되는 세대수는 C역 중심의 그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즉 X지구 재주

(在住)의 제주도인 세대의 약 20%가 C역을 중심으로 한 4백m 사방에 거주하고 있고 더욱이 8백m 사방 안에는 1백80세대, 즉 38%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래서 적어도 4백m 이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제주도인의 세대는 4백81세대 가운데 겨우 2세대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집중은 결코 우연에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타향 땅에서의 미덥지 못함이나 출신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편한 삶 등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가를 73호의 면접결과로부터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ⅰ) 37호(50%)까지가 아버지쪽의 본관성씨를 같이 하는, 몇 세대씩 접근해서 거주하고 있다.
(ⅱ) 38호(52%)가 아버지의 출신「리(里)」(부락 또는 여러 부락의 행정상의 구획)를 같이하는 사람과 접근해서 살고 있다.
(ⅲ) 47호(64%)가 아버지쪽의 출신「면(面)」(몇 개의 행정촌의 집단)을 같이하는 사람이 서로 몇 세대씩 접근해서 거주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출신지에 있어서의 혈연적 및 지연적유대(地緣的紐帶)의 범위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겨우 11세대(15%)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 처가의 여러 관계에서 보자.

(가) 본관성씨를 같이하는 것은 11세대(15%)
(나) 출신리를 같이 하는 것은 13세대(19%)
(다) 출신면을 같이 하는 것은 34세대(46%)

가 몇 세대씩 서로 접근해서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쪽 처가쪽의 쌍방을 종합해 보면 73세대 가운데 64세대(87%)가 모촌(母村)으로부터 들어

온 혈연적·지연적 여러 관계에 의해 도쿄에 있어서의 근린관계(近隣關係)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처가쪽의 선에 따르는 근린관계가 아버지쪽의 그것에 비해서 적은 것은 제주도 아니 조선 전반에 있어서의 아버지쪽 중심의 친족제도가 아직 뿌리 깊이 남고 살아서 기능(機能)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도쿄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사회결합은 고향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이 정형화(定型化)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아버지쪽의 선에 따르는 혈연적·지연적 여러 관계의 기초 위에 서 있다. 그것은 가끔「부근에 산다」는 형태를 취하여 근린적인 협력·화교(和交) 등의 일상적 관계를 통해서 뚜렷한 조직을 갖지 않는 집단에로 발전하고 있다.

4. 가족의 構造

(ⅰ) 가족 구성원수

면접에 의한 73세대의 총인구는 3백20명임으로 1세대당 평균인구는 4·3명이 된다. 이러한 구성원수가 향리인 제주도 및 일본 전국과의 비교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 <표 24>와 같다.

현저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수는 시골에서 도회로 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지만 제주도인 가족의 경우는 제주도(시골)쪽이 X지구(도회)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는 역현상(逆現象)을 나타낸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가족이 출가(出稼) 때문에 그 구성원수를 급격히 감소시킨 결과란 것을, 1928년대 4.8명(조선의 농촌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을 보이던 평균세대원수가 1936년에는 4.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서

도 수긍(首肯)이 간다.

한편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그것이 동 지구의 구민(區民)의 평균과 같다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에 있어서는 일본의 도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세대원수의 비율로부터도 분명히 할 수 있다.

<표 25>는 세대원수별 가족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X지구에

<표 24> 平均世帶員數地域別比較

X地區濟州島人 (73戶調査)	4.3名
同 朝鮮人 ┌ 濟州島人 포함 └ 1947. 9. 1 現在	3.4
X地區區民平均	4.3
濟 州 島 ┌ 1928	4.8
└ 1936	4.0
朝鮮農村 (濟州島人 포함)	4.7
日本全國	4.5
日本郡部	4.7
日本東北5県	5.7
日本京阪郡部	4.4
日本都市	3.8
中國農村(北支)	5.8
美合衆國(1940)	3.8

<표 25> 世帶員數別 家族數(%)

地域 / 世帶員數	X 地 區 濟州島人	日本全國	濟州島 (1965)	中 國 (北 支)	朝 鮮	美 國
1	4.1	5.5	6.5	3.5	0.8	
2	14.9	11.8	11.7	7.2	8.2	28.6
3	27.0	14.8	15.0	12.2	16.1	24.4
4	14.9	15.5	15.4	15.4	20.8	19.5
5	12.3	14.5	15.1	14.0	20.8	11.8
6	9.5	12.9	13.3	12.0	15.8	6.9
7	6.8	9.9	10.1	9.6	10.2	3.9
8	6.8	6.8	6.3	5.9	4.9	2.2
9	4.1	4.1	3.5	3.6	1.0	] 2.7
10		2.4	1.7	2.8	0.5	
11 以上		2.5	1.7	8.2		
總 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의 제주도인의 가족은 2~5명이 가장 많은데 그것은 일본 전국과 똑같은 경향으로, 조선의 그것과 심히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ii) 혈족관계의 구성

제주도에 있어서의 가족은 그 구성원상으로 다음의 네가지 형(型)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1)형…부모와 자식 2대(代)까지의 가족—가장 많다.
(2)형…부모・자식・손자 3대까지의 공주(共住)가족—다음으로 많다.
(3)형…어버이 부부, 두쌍의 남자의 부부, 그밖에 소박데기・조카 그밖의 부계(父系) 친족.
(4)형…주부측의 친족 혼입—극히 드믊.

X지구에 있어서는 여기에 제(5)형(혈연관계가 없는 친지의 동거)을 첨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조사세대를 이렇게 유형(類型)으로 분류하면, <표 26>과 같이 된다.

<표 26> 家族類型

(1) 型	(2) 型	(3) 型	(4) 型	(5) 型
50世帶 (2)(3)型 1	3 (2)(4)型 1	9 (3)(4)型 1	4 (2)(4)(5)型 1	2

결국 (2)형이 적은 것은 조부모, 또는 손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조부모의 대개는 고향에 남고 내주(來住)해서 세월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손자를 가질 연령에 이른 사람이 적은 것이

원인일 것이다. (3)형이 (2)형을 3배나 웃돌고 있는 것은 연고를 의지하며 잡다한 친족이 도일(渡日), 그대로 잠시동안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친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도덕이 용서하지 않는다. (4)형이 제주본도에 비해 증가한 것도 앞과 같은 이유에서지만 그것이 (3)형보다 적은 것은 역시 부계(父系) 중심의 가족제도가 이주지(移住地)에 있어서도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5)형의 출현은 이주시대(移住時代) 또는 일본에 있어서의 주택난의 특이(特異)한 현상으로, 그들의 사회에 있어 결코 안정된 가족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다.

73세대의 조사세대의 각가족 혈연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27>이다.

<표 27> 가족구성비교

	X地區濟州島民	日本全國	日本郡部	京阪郡部
世帶主	1000.0	1000.0	1000.0	1000.0
配偶者	822.0	799.0	801.8	799.3
配偶者의 血族	137.0	10.9	10.2	12.8
아들	208.0	1892.0	1979.2	1922.2
아들의 配偶者		122.3	141.3	90.6
손자	95.9	240.0	277.2	148.7
손자의 配偶者		2.7	3.3	
曾孫		3.1	3.8	
父	13.7	69.9	79.1	69.7
母	27.4	194.5	208.0	209.1
兄弟	68.5	59.5	62.1	47.6
姉妹		52.8	55.1	44.1
그밖의 父系親族	68.5	58.6	61.2	34.9
親知	68.5	?	?	?
平均世帶員數	4.4	4.5	4.7	4.4

본표는 세대주를 1,000으로 했을 때, 이에 대해 각종 가족원이 어

떠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각 성원(成員)의 비율의 합계를 1,000으로 나누면 평균세대원이 된다.

이에 따르면 X지구의 제주도인 가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가족이 일본의 어떤 경우보다 극히 많은 것. 이 일은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도쿄에서는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아들의 배우자가 일본의 경우보다 적잖다는 것.
(3) 손자가 일본의 경우보다 적잖다는 것.
(4) 부모가 일본의 경우보다 적다는 것.
(5) 형제는 일본의 경우보다 오히려 많다는 것.
(6) 자매가 일본의 경우보다 극히 적다는 것.
(7) 그 밖의 친족이 일본의 경우보다 오히려 많다는 것.
(8) 혈연관계가 없는 친지가 일본의 경우보다 많다는 것.

이상은 앞서 가족의 유형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말해주는 것이다.

5. 姓氏와 이름

제주도에 있어서의 성씨와 이름에 관한 관행은 원칙으로서는 조선본토의 그것과 거의 다르는 바 없이 유례적으로 정돈(整頓)되고 있다. 조선본토의 성명에 대해서는 김두헌(金斗憲)의 「조선가족제도의 연구」나 젠쇼 에이스케(善生英助)의 「조선의 성씨와 동족부락」에 상세함으로 중복 설명을 피하겠다.

조선사회에서도 광의(廣義)의 성씨는 성과 본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같은 김성(金姓)일지라도 각각 그 조상의 출신지에 따라 고산김(高山金・고산출신의 金), 김해김(金海金・김해출신의 김)이라고 부르며 동성의 사람이라도 출신지에 따라 계통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씨의 출신지를 본관이라고 한다. 같은 본관 같은 성씨에는 족보(族譜)가 있는데 그것은 매년 간행되며 족보에 따라 개인의 장유(長幼)의 서열이 정해짐과 더불어 새로 태어난 자식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 혼인에 관한 규제는, 동성자(同姓者)는 혼인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히 동성동본자의 혼인은 엄중히 금지된다.[7]

(ⅰ) 성씨의 變容

그런데 X지구의 제주도인의 성씨에 관한 관행(慣行)은 다음의 제28표에서 알 수 있듯이 완만히 붕괴해가고 있다. 즉 1921년의 조선 본토에 있어서의 조사에 따르면 동본동성혼(同本同姓婚)은 도회에 있어서 0.2%로 확인됐으나 시골에서는 전혀 볼 수 없어 지금까지의 관습이 비교적 엄중히 지켜지고 있었다. 이본동성혼(異本同姓婚)이 오히려 시골에 있어서 고율이었다는 것은 특히 하층계급에 있어서는 멀리 이성(異姓)을 찾을만한 생활상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8]

---

7) 동본동성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보면 금기(禁忌)지만 예를 들어 김해김(金海金)과 김해허(金海許)는 각각 조상이 형제였기 때문에 성이 달라도 결혼 않기로 되어 있다. 제주의 高・良(梁)・夫도 조상이 형제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인구가 가장 많은 「김해김」에 있어서는 그 안에 일곱 개의 계통이 있어, 다른 계통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다……는 일종의 허용사항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이 점 더욱 상세한 연구가 기대된다. 동본동성혼(同本同姓婚)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한층 연구를 더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8) 조선농촌에서는 상류계급일수록 멀리서 색시를 맞이하고 신분이 낮아질수록 지역적인 내혼률(內婚率)이 높아진다.

<표 28> 同姓氏婚姻

	X 地 區 濟州島人	朝鮮都會 (1921年頃)	朝鮮시골 (〃)
同本同姓婚	4.1%	0.2%	0%
異本同姓婚	2.7	5.2	6.5
異 姓 婚	93.2	94.6	93.5

이에 반해 X지구의 제주도인에 있어서는 겨우 73세대의 표본중 4.1%의 동본동성혼이 확인되고 오히려 이본동성혼은 저율(低率)이 되고 있다. 동성동본혼의 증가는 조선가족의 기초구조를 이루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의 붕괴를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9)]

이러한 동본동성혼의 증가 경향은 성씨·본관에 대한 의식과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다. 면접조사를 함에 있어 자기의 조선성을 모르는 사람은 만나 볼 수 없었지만 본관에 대해서는 연소자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남자의 4.9%, 여자의 37.7%까지가 자기의 본관을 잊고 있다. 주부에게 있어서는 시댁조상의 이름과 기일(忌日)을 외는 것이 중대한 책무로, 조상에의 관심을 강하게 요구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관을 모르는 여자가 많은 것은 주목할만한 현

9) 제주도에 있어서는 혼인에 두 가지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동성(同本同姓) 불혼(不婚)의 제약으로 이것은 금기로서 강하게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제주도인 이외의 사람과의 결혼이 드물다는 것이다. 한편 도내에 있어서의 통혼(通婚)관계를 분석해 보면 옛 정의군(旌義郡)과 옛 대정(大靜)·제주 양읍(兩邑)과의 불혼, 또 같은 군 안에 있어서도 마을에 따라서는 「불혼의 마을」이 생기고 원칙으로서는 해촌(해녀촌)과 양촌(농업촌) 산촌(牧畜村)과의 사이에 통혼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의 혼인은 「동면혼(同面婚)」이 고율로 X지구에 있어서도 제주도에서 결혼한 사람의 66.1%까지가 동면혼이다. 그것이 도쿄에서 혼인한 사람에 있어서는 50.3%로 약간 내려가고 있긴 하나 조선본토인과의 혼인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과의 통혼예(通婚例)가 가끔 나타나, 현재 8.3%까지가 일본인처를 갖고 있지만 거꾸로 일본에게 시집간 예는 한 건도 없다.

상으로, 동성동본혼인의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기(豫期)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보수적인 여성에게 있어서 어째서 이러한 붕괴가 조급히 발생했느냐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인 사회가 조상제사나 묘제를 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주부에게 과(課)해졌던 시댁의 조상에 대한 의무적인 관심을 잃게 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경향은 교육정도가 낮은 것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의 성씨에 대해서는 더욱 커다란 변화가 외력(外力)에 의해 가해졌다. 조선에서는 성씨는 개인의 혈족계통을 표시하는 전칭(專稱)으로, 가족의 표지(標識)는 아니다. 그것이 1939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각 가족에 일본식 성씨를 칭호(稱號)하는 것을 반 강제적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이 이른바「창씨개명(創氏改名)」이다.

그 때문에 1940년 이후의 거의 대부분의 조선인이 일본식「성씨」를 갖게 되었지만 전후(戰後), 조선이 해방되면서부터는 조선에 사는 조선인으로부터는 이러한 강제된 일본식 「성씨」는 소멸되어 버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재주(在住)의 조선인은 오늘날도 아직 일본식「성씨」를 보존하고 있다. 73세대의 면접조사에서「일본식성씨는 없다」고 부정한 사람은 겨우 2세대(2.8%)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생활의 편의 때문으로, 창씨개명을 강요 당했던 시대와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10]

제주도인의 일본식「성씨」에 대한 그 당시 의식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문패의 서식(書式)을 들어보면 다음의 네 가지 양식이 인전된다.

(1) 조선「성명」뿐인 것.

---

10) 1939년의 조선총독부령 공포 이전에 있어서도 재일조선인은 통칭(通稱)의 일본성(姓)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잖이 있었다.

(2) 조선「성명」옆에 자그마한 괄호를 하고 일본의「성씨」를 써 놓은 것.
(3) 조선「성씨」와 일본「씨명」을 따로 따로 쓴 문패를 걸어 있는 것.
(4) 일본씨명 뿐인 것.

(ii) 이름의 變容

조선에 있어서 남녀의 이름은 족보에 따라 일정한 규정이 있어 이에 의해 동본동성 집단 속에서의 장유서열(長幼序列)이 정해지고 있다. 요컨대 같은 세대의 남자·여자는 동본동성의 조부모의 이름의 머리글(頭字)를 따서 여기에 한 글자를 첨가한 것을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번역자 주≡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정해진 항렬자(行列字)에 따른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음). 따라서 김해김씨와 같이 다수의 혈족을 전 조선에 갖고 있는 씨족이라도 간행된 족보를 보면 자기 서열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동열(同列·同行)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모두 형제라 부르면서 형제로서의 교제를 하는 일도 적잖고 이름에 의해 장유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유례풍(儒禮風)의 명명법에도 도쿄의 제주도인에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림 51>은 동 지구 거주 제주도인 K씨의 3대에 걸친 계보(系譜)이다. 이 도표에는 K씨의 조상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3대 전의 제주도에서 태어나 명명된 사람에게는 모두 이름 앞에「관(寬)」자가 붙여져 있다. 다음 세대의 일부분은 제주도에서, 대부분은 도쿄에서 태어나 명명되어지고 있지만 K씨는 이 대(代)의 사람으로「윤(潤)」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철저하게 쓰이지는 않고 있다. 즉 남자 12명중 8명까지는 구습(舊習)을 묵수(墨守)하고 있지만 4명은 이미 항렬(行列)에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이 제3대, 곧 모두

<그림 51> K씨 一族의 이름의 變化

가 도쿄에서 태어난 대가 되면 항렬에 대한 배려는 거의 무시되고 명명은 양친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재일제주도인의 항렬에 대한 관심은 일본적인 이름을 받아들이는 일과 맞물려 차츰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그 때문인지 조사세대 73세대중 족보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겨우 2가족(2.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낡은 것으로 지금 사용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1939년의 조선총독부령은 일반적으로 창씨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갖는 「집(家)」의 창설을 정치적 압력으로써 「허가」한 때문에 성씨와 조화(調和)된 이름으로 개명(사실은 또 하나의 이름을 만들었다)하는 자가 속출했다. 조선본토에 있어서는 해방후 이런 이름을 즉시 고치는 일도 조

속히 이루어졌지만 이름 쪽은 개성(改姓)만큼 철저하지 않아, 현재도 여자에게 「자(子)」를 부치는 풍습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상태는 X지구의 제주도인이 일본식 성씨를 함께 갖지 않은 자가 2,8%에 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에 있어서는 일본식 성씨와 함께 일본식 이름을 갖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와같이 성인남녀는 조선식성명과 일본식성명의 두 개를 함께 갖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 자식들의 씨명에 대해서는 이것과 약간 취향을 달리하고 있다. 요컨대 자식들은 성씨에 따라 두 개의 이름을 갖는 일 없이, 이름은 하나만을 갖고 있다. 면접한 73세대 3백60명 중 1백54명은 이러한 하나만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름을 출생연차별(出生年次別), 조선식·일본식 이름 별로 정리하면 <표 29>와 같이 된다.[11]

11) 창씨개명(創氏改名)에 관한 조선총독부령은 1940년 2월에 시행되었다.

<표 29> 年次別 어린이 이름

		1940年 2月 以前出生	1940年 2月以後 終戰까지 出生	終戰後 出 生
男子	朝鮮式이름	71.4%	25.0%	91.3%
	日本式이름	28.6	75.0	8.7
	合 計	100.0	100.0	100.0
女子	朝鮮式이름	43.5	14.8	83.8
	日本式이름	56.5	85.2	16.2
	合 計	100.0	100.0	100.0

이 표에서도 분명하듯 창씨개명에 관한 법령의 시행 이전에도 일본식이름을 명명하는 일은, 특히 일본재주자 중에는 적지 않았다.

그것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더욱 고율이 되었다가 해방후는 민족의식의 고양(高揚)에 의해 1940년 2월 이전보다 일본식 이름이 명명되는 비율은 훨씬 낮아졌다. 또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남녀를 비교하면 여성 쪽이 일본식 이름이 명명되어지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지금까지 서술해온 바와 같이 제주도인의 성명은 배후에 가로놓인 여러제도와 더불어 급격하게 변용의 외길을 더듬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일본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의 설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어렴풋이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6. 남녀의 생활

동국여지승람에 「여다남소(女多男少)」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이 섬의 성별인구는 1936년의 통계로는 男 100에 대해 女 116이라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남녀비율의 불균형성은 섬의 사회에 있어서의 남녀의 지위를 특수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제 섬의 해촌(海村)과 산·양촌(山·陽村)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산촌[12]에 있어서는 모든 재산과 노동은 남편에게 돌아간다. 즉 여자의 노동력은 반드시 남편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남자를 중개(仲介)로 하며 토지와 이어진다. 그리고 여자의 노동의 과실은 남자 소유로 돌아가게 된다. 남편에 준하는 남자란 「첩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첩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노리개가 아니라, 뛰어난 노동자로서, 남자가 첩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토지를 제공해서 첩의 부양을 받는 것이다.

해촌에 있어서는 생산면에서는 농업 외에 나잠(裸潛)과 어업이 더해져 토지의 중요성은 약간 떨어진다. 여자는 남자를 중개로 해서 토지와 결합 않는다 해도 해녀로서 생산에 종사할 수가 있으며 더구나 나잠함으로써 남자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해촌에 있어서는 양·산촌과 달리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남자보다 우위(優位)에 있다. 즉 가족 가운데서의 남녀 수입은 구별되어 아내의 것을 남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서 많은 일을 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경제적으로 종속(從屬)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을 신용할 수 없을 때엔 여자가 번 돈을 시가의

12) 제주도에 있어서는 바다에 면한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을 해촌, 산지(山地)와 해안의 중간에 있어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마을을 양촌, 산간지대에 있어 주로 소·말의 방목에 의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마을을 산촌이라고 부르고 있다.

믿을만한 친족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여자는 가족 안의 실권(實權)을 쥐어 있으면서도 가사(家事) 전반에 대한 의논은 반드시 시댁의 친족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처가의 친족이 가족과 동거(同居)하는 일도 없다. 해촌에서는 남자를 일하도록 하는 여자는 병신……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요컨대 제주도에서는 여자는 잘 일하고 더구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국적(大局的)으로 보면 남자에게 종속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간(這間)의 소식을 알리는 얘기로, 양·산촌에서는「이상적인 아내는 부지런히 일해서 남편을 일하게 하는 일 없이 부양하고 그와 동시에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는 여자이다. 해촌의 여자는 일은 잘 하지만 집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下等)이다」고 말하고 해촌에 있어서는「어째서 산의 사람을 아내로 얻겠냐, 바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 못하는 여자를…」이라고 양·산촌 사람을 경시(輕視)하지만 어떻든간에 여자를「노동력」이라는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풍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제주도의 여자는 남편을 부양할만한 노동력을 갖고 있지만 남자가 아무 것도 않고 놀고 있느냐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섬에서는 그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더구나 제주도의 가족인구가 극히 적은 때문에 남자도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 섬에 있어서의 남녀 분업의 현황은 <표 30>대로이다.

그런데 고향에 있어서의 남녀의 분업은 X지구의 제주도인의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두드러지게 바뀌어가고 있다. 가족 안의 부부의 노동비율을 살펴 본 것이 <표 31>이다. 단 이것은 조선인소학교 4·5·6학년생에게 쓰도록 한「나의 집」이라는 제목의 작문으로부터 살필 수 있었던 것이다.

<표 30> 陽·山村, 海村별 男女分業比較

	양 · 산 촌	해 촌
男	牛馬牧畜·牛馬를 사용하는 농사·수확시의 일부·숯구이·수렵·건축·儒敎的 마을祭·7~8세 이상 男子의 교육·契관리	대체로 陽村과 같지만 牛馬牧畜이 적어지고 漁業이 더해진다. 育兒(젖먹이만 모친이…)
女	粗耕地의 흙덩이 부수기·파종·밭밟기·김메기·脫穀·風選·방아질·養豚·養鷄·물긷기·취사·賦役·育兒와 다소 커진 여아의 교육·조상제사·家祭의 施行. 金錢出納	농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陽村과 같지만 養鷄가 적어지고 潛水(海女)질이 더해진다. 育兒는 授乳외는 부친에게 맡긴다.

<표 31> 父母別就職狀況比較

(單位 : 名)

		父				
		就 職	無 職	不 明	死 亡	計
母	就 職	12	4	2	1	19
	無 職	32	21	5		58
	不 明	2	3	12		17
	死 亡	1			3	4
	計	47	28	19	4	98

(X地區朝鮮人小學校兒童의 作文에 의함)

이 표에 의해서도 분명한 바와 같이 남편이 일하는 경우가 47명, 아내가 일하는 것은 19명으로 분명히 도쿄에서는 남자의 노동이 한 집안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요컨대 아버지가 일해서 어머니가 가정에 있는, 일본의 도시에 있어서는 당연한 가

정이 32조(組)로 전 가정 98호의 최고위를 차지하고 맞벌이가 12조로 아주 적어지며 어머니가 일하고 아버지가 무직인 가정은 겨우 4조밖에 볼 수 없다.

이와같은 가족의 노동양식은 제주도의 농가에서 볼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일하고, 더구나 노동의 시간이나 양으로부터 보아도 아내 쪽이 더 일하는……관습은 거의 볼 수 없고 일본의 도회에 있어서의 일반가족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맞벌이 또는 여자 쪽이 더 일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풍토적조건에의 적응(適應)으로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도시생활에 순응(順應)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남녀의 노동의 변화와 관련해서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남녀비율을 학동(學兒)에 대해서 보면 남아 100 여아 85로 제주도에 있어서의 여다남소 현상은 볼 수 없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X지구의 제주도인의 직업을 살펴본 것이 <표 32>이다.

<표 32> X地區濟州島人職種比較

(單位 : 名)

	男	女		男	女
고무加工	26	1	露店商	1	
미싱加工	23	11	無職	5	
古物	2		洋裁		1
會社員	2		會社事務員		3
革靴製造	2		紡績工		5
朝鮮服店	1		靴工		1
洋服店	1		裁縫		1
양초	1		電氣工		1
비누	1		서커스從業員		1
엿製造	1		海女		1
運送業	1				

본 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자의 직업으로서는 고무 가공(加工)과 미싱 가공에 태반이 집중하고 있다.

(2) 남자와 여자의 직업이 미싱가공업을 제외하면 거의 중복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직업으로서는 고무가공이 가장 많은데 여자는 겨우 한사람밖에 볼 수 없다.

(3)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직업으로서는 토공(土工)·인부가 많다고 여겨져왔는데 73호의 조사세대에는 그와같은 직업의 사람은 한사람도 볼 수 없다.

또 X지구 구청에 등록된 4백81세대의 직업을 보아도 그 가운데 토공·인부는 겨우 두사람밖에 없다는 것으로도 이 사실은 확인된다. 일본의 여학교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 본토출신의 주부가 말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인은 날붙이를 사용하는 것을 특히 매우 멸시하는」데서 삽·곡괭이를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극렬 회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무가공과 미싱가공에 제주도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인뿐 아니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일인(一因)일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인에게 있어 일본은 새로운 이주지(移住地)이며 거기에서 그들을 둘러싸는 새로운 환경은 미지의 불안한 벽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동향 출신이 믿을 곳이며 우선 이러한 선배의 직업이나 생활을 주목한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새로운 일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고 혹은 그 흉내를 낸다. 거기서 때마침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위에 조촐한 고무·미싱가공업이 그 당시의 X지구의 제주도인의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 당시 X지구에 사는 제주도인의 직업은 고무와 미싱가공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이 두 개의 직업에 집중해 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그들이 주로 종사하게될 직업이 변전(變轉)하는 것이다. 그 당시 고무 또는 미싱가공업에 관련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이 직업에 종사하기 전에 다른 일에 종사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고무가공업은 일본의 패전 뒤에 늘어난 그들의 직업이지만 이미 미싱봉제업(縫製業)으로 전향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한 고로(古老·1921년에 도쿄로 來住)의 말에 따르면 그가 상경했을 당시는 조선본토인은 토공인부, 제주도인은 공원(工員)이 많았지만 하숙 겸 식당을 경영하는 제주도인도 적지 않아, 그도 그것을 했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인의 기질은 매우 격심하다. 특히 일본인과 비교하면 제주도 여성의 기질의 격심함이 눈에 띈다.

때마침 면접조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제주도인의 집에 두사람의 빚쟁이가 독촉하느라 호통치며 들어왔다. 처음에는 집 주인이 응대하고 있었지만 쌍방이 흥분하여 소리 높이며 입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주부가 끼어들어 주인을 뒤쪽으로 밀어내더니 일본어와 조선어를 섞어가면서 두사람의 빚쟁이 남자를 면박한다. 전신이 노여움과 입이 돼버린 것같은 느낌이었다. 빚쟁이가 「넌 틀어박혀 있어」라고 하니 「너란 뭐야! 나는 애기아빠 외에는 <너>라고 들어본 기억이 없어!」 빚쟁이는 「너」라고 불렀던 탓에 한 대 먹고 도망쳤다. 또 조선인소학교의 직원실에 조사하러 갔을 때 간막이 옆에서 PTA(주·우리나라의 師親會에 해당)의 대표와 교사들이 교육방침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 때 남자보다 어느 누구

보다 격한 소리로 당당히 주장을 폈던 것은 20세를 갓 넘은 젊은 부인이었다.

이밖에 여러 차례나 제주도여성의 격심함에 충격 받은 일이 있다. 그들의 격심한 기질은 제주도에서 키워진 것이겠지만 아직까지도 X 지구에서 의기양양하다는 것은 흐뭇하다. 왜냐면 그녀들의 격정성(激情性) 뒤에는 소박한 순수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도 예로 든 조선본토 출신의 어느 주부는 「제주도의 여자들에겐 우물가의 쑥덕공론이 없다. 험담을 나누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험담을 하면 오히려 자신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므로 그것이 머리에 박혀있는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무엇이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 부딪쳐 가서, 뒤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곳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진 C역 가까이의 제주도인 시장에 안에 사는 일본인 주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제주도인의 가정이 집결되어 있는 속에 이사와서 가장 민감하게 느낀 일은 무엇입니까」는 물음에「여인들이 매우 시원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뿐으로, 우물가의 쑥덕공론으로 남의 험담을 한다든지 소문을 내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 대신 감정의 억제가 다소 모자라지 않는가고 여겨집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하기 쉬운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기질이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녀들에게 저절로 갖춰져 일본의 대도시 속에서 생활하면서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귀중한 일이다. 앞에서 말한 초등학교 아동들이 쓴「나의 집」이라는 제목의 98명의 작문에서 그들 가정의 분위기를 살펴 보자. 뚜렷히「원만(圓滿)」「불화(不和)」라고 판독(判讀)되는 것만을「원만」또는「불화」로 하고 표현이 애매한 것은 모두 「불명(不明)」으로 한 때

문에「불명」의 수가 많지만 오히려 실정을 포착한 수자가 나와있는 것이 아닐까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가정·불화, 형제간의 원만·불화와 부모의 취로(就勞)상황에 의해 분류한 것이 <표 33>이다.

<표 33> 家庭의 雰圍氣

	家 庭			兄 弟(姉妹)			집에서 공부를		
	圓滿	不和	不明	圓滿	不和	不明	할수있다	할수없다	不明
父 就 職 母 就 職	12	0	0	12	0	0	7	5	0
父 就 職 母 無 職	24	4	4	26	2	4	17	12	3
父 就 職 母 不 明	0	0	2	1	0	1	0	2	0
父 就 職 母 死 亡	0	0	1	0	1	0	0	1	0
父 無 職 母 就 職	0	1	3	2	0	2	3	0	1
父 無 職 母 無 職	11	4	6	14	3	4	5	13	3
父 無 職 母 不 明	0	0	3	2	0	1	1	1	1
父 不 明 母 就 職	0	0	2	2	0	0	2	0	0
父 不 明 母 無 職	1	0	4	4	0	1	2	2	1
父 不 明 母 不 明	0	0	12	2	0	10	0	2	10
父 死 亡 母 就 職	0	0	1	1	0	0	1	0	0
父 死 亡 母 死 亡	0	0	3	2	0	1	0	0	1
總 計	48	9	41	68	6	24	38	40	20

부모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집안이 형제 사이나 가정이 모두 원만하고 그에 이어 아버지가 일하고 어머니는 가정에 있다고 하는 보통가정에 원만한 것이 많으며, 그 위에 부모 모두가 무직인 가족도 원만스러움에 있어 뒤를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수적(數的)으로도

적다. 이것을 종합하면 X지구의 제주도의 가정에는 불화가 매우 적고 대부분의 가정은 원만하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또 애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부모무직·부모불명·부모사망 등의 가정에 있어서 고율이다.

7. 소비생활

1. 의 복(衣服)

이른바 조선옷은 널리 제주도에서도 착용되고 있지만 제주도 독특한 의류로서는 「갈옷(柿澁衣)과 가죽옷(裘衣)이 있다. 전자는 감물을 드린 것이며 더러움을 타지 않고 빨래가 잘 되며 땀을 흡수하지 않으므로 특히 여름 노동복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다. 또 후자의 가죽옷류는 제주도 남자만이 겨울에 입는 것인데 노루의 털가죽을 다루어 피모부(被毛部)가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와 같이 눈이 내리고 습윤(濕潤)한 땅에서는 무두질한 면을 밖으로 내놓으면 가죽이 굳어질 우려가 있을 것이다. 산촌에서는 눈 속의 수렵때 흔히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특유의 의복은 X지구의 제주도인 사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다. 갈옷은 출가해녀들이 일본에서도 입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되지만 도쿄 거주자들에게는 벌써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본토풍의 조선옷은 일본에서도 널리 볼수 있다. <표 34>는 남녀별 조선복소유자수이다.

즉 여자의 86.9%는 조선옷을 갖고 남자는 84.2%까지가 갖고 있

<표 34> 朝鮮服所有者所持數

	所有者數	없 음	所有者1人 平均所有數	全平均 1人當
男	10(15.2%)	56人(84.2%)	1.6	0.2
女	53(86.9)	8(13.1)	4.5	4.0
日本人女	0	6(100)	0	0

지 않다. 더구나 남자소유자의 8명까지는 한 사람이 한 벌 꼴이며 나머지 둘은 각각 세 벌과 다섯 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소유자 한 사람의 평균소유수도 1.6벌밖에 안된다. 이에 반해 여자의 1인평균 소유수는 4.5벌로 남자에 비해 훨씬 많다. 총체적으로는 76세대 가운데 남자조선옷은 16벌밖에 안되는데 여자의 그것은 2백41벌이다. 이렇듯 남자는 거의 입지 않는 조선옷을 여자들은 고향의 여자와 비슷하게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중에는 일본정부의 압박, 혹은 일본인의 멸시(蔑視) 등에 의해, 또는 일부의 편승(便乘) 조선인이 잉크를 뿌리며 다닌 일이 있어 조선옷은 생활의 표면으로부터 거의 말살되어 있었다.

그것이 해방후 재차 특히 여성의 조선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생활의 향상과 맞물려 새로이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조선에서는 요즘 남자는 양복을 많이 입지만 여자는 도회지나 젊은 층을 제외해서는 거의가 조선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일본 거주의 조선인(X지구 거주의 제주도인을 포함해서) 여성은 일상적으로 조선옷을 입는 일은 적고 특히 젊은 부인은 제사나 식전(式典) 남을 방문할 때 이외는 거의 양복차림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제주도와 도쿄에서는 조선옷의 생활속에 있어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결혼식 복장을 예로 들어보자. 제주도에서는 남녀 모두 예복으로 조선옷을 입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조선옷을 입는 것은 여자뿐으로 남자도 조선옷을 입는 사람은 적고 모오닝 코우트를 입는 것이 보통이다. 신부는 조선식 옷을 입지만 머리에는 퍼어머를 하고 서구식(西歐式) 베일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일본옷에 베일은 어울리지 않지만 조선옷에 베일은 잘 조화되어 부자연스럽지가 않다. 일본에서 식을 올린 47명에 대해 그 복장을 조사해 봤더니 조선옷으로 식에 임한 사람은 12명으로 25.5%였는데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이 12명 가운데 8명이 오사카에서 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는 일본에서 가장 제주도인이 집중되고 있는 곳임으로 제주도인의 생활양식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식사(食事)

제주도의 특징있는 음식물로는 자리젓과 생콩잎으로 싼 쌈이 있다. 자리는 제주도 근해에서 풍부히 잡혀 섬의 해촌에서는 특히 중요한 음식이다.「콩잎으로 싼 밥」은 마치 일본인이 김으로 밥을 싸서 먹듯이 콩잎을 감아서 먹는다.

X지구에서도「콩잎쌈」이 있는데 콩잎뿐 아니라 갖가지 이파리가 쓰이는 것 같다. 앞에 말한 제주도인의 시장에 사는 일본인 주부가 주위의 제주도인들의 음식물에 대해「여러가지 이파리를 된장과 함께 싸서 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명할 것이다. 한편 자리젓은 X지구에서는 손에 넣기가 힘든 때문에 먹는데 익숙하지 않다. 또 제주도뿐이 아니라 조선의 일반적 요리인 내장요리(內臟料理)나 갖

가지 야채 절임류는 일본에 있어서는 거의 변함 없이 애호(愛好)되고 있다. 요컨대 음식물은 재료에 제약이 없는 한, 이주후(移住後)도 고향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또 일본음식물도 잇따라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를 포함한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지 않고 밥을 퍼낸 솥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식후에 마시는데 X지구에서는 식후에 차를 마시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밥이나 반찬을 한 사람마다의 그릇에 담지 않고 밥·야채절임(김치 등)을 각각 커다란 사발에 함께 담아 쇠숟가락으로 떠먹는다. 따라서 식기는 대형이다. 이 습관은 현재 X지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널리 보이며 앞에 말한 시장 안의 일본인주부도 이 일을 지적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쓰이고 있는 식기는 주로 도기(陶器)이며 유기(鍮器)는 중류 이상에서도 갖춰있는 곳이 적다. 또 X지구에서도 널리 쓰이는 것은 도기이며 유기는 거의 볼 수 없다. 제주도의 밥 그릇은 직경 30㎝, 깊이 8㎝의 세면기로 대용되고 있었지만, X지구에서는 세면기가 곧잘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식의 소형식기를 쓰는 자도 점점 늘어, 일본식으로 각 개인의 식기에 밥을 뜨는 습관도 볼 수 있게 되었다.

3. 주거(住居)

제주도에서는 용암덩어리(溶岩塊)를 현무토질(玄武土質)의 찰흙으로 고정시켜 집의 외벽(外壁)을 만들지만 X지구에서는 이러한 건축양식은 전혀 볼 수 없고 대부분이 일본식의 목조가옥에 살고 있다. 아라가와구(荒川區)의 본토 조선인 가운데는 온돌방을 꾸미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지만 X지구의 제주도인의 집에는 온돌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X지구의 제주도인의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일본인 가옥을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제주인이 스스로 새로운 집을 세울 경우에도 거의가 일본인 목수에게 맡겨진 채로이다. 현관이 남쪽으로 널리 마련되어 있다든지 통풍(通風)에 대한 고려가 안되어 있다는 등, 제주도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4. 기타

민구(民具)로서는 생산구(生産具)인 농구 어구와 같이 현재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젠 X지구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생활도구 중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에 대해 말하겠다.

(가) 애기구덕(搖籠)

이것은 제주도에서는「사진 63」과 같이 대로 짠 바구니 속에 젖먹이를 눕혀 들에 나가는 어머니는 그대로 옆에 끼고 나간다.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애기구덕은 금속제로 옆에 끼고 걸어다닐 수는 없다. 그것은 모친이 들 일 때문에 나갈 일이 없고 모친의 가외노동(家外勞動)이 일본의 도회생활과 변함이 없으므로 애기구덕(요람)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어져 침대의 착상(着想)을 가미(加味)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요람(애기구덕)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대신에 다리가 활 모양을 하고 있어 좌우로 흔들 수가 있다.

(나) 요강(오줌단지)

변소(통시)는 제주도에서는 대개 돼지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다. X지구에서는 대부분이 일본식 변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실내에 요강(오줌단지)을 두고 작은 볼 일을 본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해촌의 극히 일부에서밖에 볼 수 없는 관습이지만 본토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현재의 제주도인 시장에서는 변소가 불편한 때문에 실내에 본토풍의 단지를 넣어두고 어른이나 아이가 용변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또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가끔 세면기도 쓰이고 있지만 이것들은 제주도 재래(在來)의 관습은 아니다.

8. 교육·종교생활

(ⅰ) 세대주 및 배우자의 교육정도

<표 35>는 세대주 및 배우자의 학력(學歷)을 연령별·도일(渡日) 연령별로 분류한 것으로 ○인(印)이 붙여져 있는 것은 현재의 연령을 나타낸다. 우리들은 이 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가) 남자로서 전혀 학력이 없는 사람은 전체의 겨우 3.1%인데 대해 여자에서는 63.2%에 이른다.

(나) 남자의 26.6%는 고향에서 서당(書堂)에 다녀 한학(漢學)의 소양을 갖춰 있지만 여자에게는 서당에 다닌 사람이 1명도 없다.

(다) 남자는 구제(舊制) 소학 졸업자와 중학졸업자가 동수에 가깝지만 여성의 중학졸업자는 소학졸업자의 3분의 1 이하이다.

<표 35> 學歷比較

○표는 現在年齡

渡日年齡	男 (學 歷)						女 (學 歷)						現在年齡	
	없음	書堂	小學	中學	高等	大學	없음	書堂	小學	中學	高等	大學		
日本태생			1	3			1		4①				20歲	
3歲				1①					②	1			21	
5					1		②		①				22	
6					1				1②	1③			23	
7			2	②			1①		2②	①			24	
8			1②	①			1②			1			25	
9			2①		②		1①		1①				26	
10		②	③	②			1						27	
11			1	②			1①						28	
12			1①	①			④		2①				29	
13		1①	2①	1②	①	①	1②						30	
14		1①	1①	1①	①		3①		1①	1			31	
15		1	1①	①	1①		1①						32	
16		1①	2①	2①			3①		1	1①			33	
17	1	2	5①	1②		1	3③		1				34	
18		2①	1②	1①			1①						35	
19	1	①	③	①			4②						36	
20		3①	1	2①			3①		1				37	
21		1		3			3①						38	
22			①	3	1		1						39	
23							1①		1				41	
25				①			1①						42	
26		1					3		①				43	
27	①	②					1						45	
30	①	1					①						46	
32		2①					③						49	
33		③					①						50	
37		①					1						51	
39		①											52	
不 明		1					1①						53	
		①											54	
		①											63	
%	3.1	26.6	32.8	29.7	6.2	1.6	63.2	0	28.1	8.8	0	0		
計	2	17	21	19	4	1	36	0	16	15	0	0		
日 本 人									3①	3①			22	日本人
									①	①			24	

(라) 여자로서 대학·고등전문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연 없다.

(마) 남녀 모두 젊었을 때(12세 이전) 도일(渡日)한 사람은 모두 소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23세 이후에 도일한 사람은 서당 정도의 교육밖에 받아 있지 않고 여성은 겨우 소학교 졸업자가 1명 있을 뿐이다.

(바) 그 당시 20세 줄의 사람으로 무학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40세 이상의 남자에서는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은 겨우 1명으로, 소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고 모두가 서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여성은 거의 무학이다.

(ii) X地區에 있어서의 濟州島人의 교육정도

73가족에 포함되는 1백54명 가운데서 이미 교육을 마친 사람 및 그 당시 신제중학교(新制中學校) 이상의 사람을 걸러내면 남 36명, 여 41명이었다. 이들 남녀 합계 78명에 대해서 그 학력을 밝힌 것이 <표 36>이다. 본표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남녀 각 1명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어버이의 교육정도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친의 학력이 없는 것은 3.1%, 모친은 63.2%였다는 것에 비하면 특히 여자애들에 대한 교육의 보급은 눈부시다. 또 중학교 이상의 취학률을 보면 남 36.1%, 여 43.9%(특수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신제중학교까지 포함시켰다)로 여자 쪽이 오히려 남자보다 웃돌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로부터 곧바로 제주도인 자제의 취학상황은 여자가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다소 불비(不備)하다. 단지 소학교만으로 공부를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매우 적어지고 중학교 이상에로의 취학률이 남자 수준까지 높아져 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등전문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것은 역시 남자 쪽이 여자

보다 훨씬 많아 남자 가운데 고등전문학교 이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22.2%인데 대해 여자는 겨우 5.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친에 비하면 여기에도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6> X地區在住濟州島人子弟의 生年別, 男女別. 學歷別, 就學狀況

生年	男															女													
	小		中		新制中		高		新制高		大		新制大		없음	小		中		新制中		高		新制高		大		新制大		없음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卒	在	
1925												1																		
1926	2														1	1														
1927																		1												
1928												1				1														
1929			1											1				1												
1930	1						1			1								3				2								
1931	1						1							1																1
1932			1							1						1		2												
1933																1		4												
1934					1													1												
1935																				1										
1936																				3										
1937						1																								
1938		5				1											2													
1939		1															1													
1940		1															5													
1941		2															4													
1942		1															3													
1943		8															3													
卒業在學別小計	4	18	2		1	2	2			2		2		2	1	4	18	12			4	2								1
學歷別總計	22		2		3		2		2		2		2		1	22		12		4		2		0		0		0	1

제주도인만은 아니지만, X지구에는 조선인소학교가 있어 X지구에 사는 조선인 자제 약 3백명이 통학하고 있다. 이 약 반수가 제주도출신자이며 X지구에 사는 제주도인 자제의 소학교적령자(適齡者)의 4분의 3이 여기에 통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4분의 1이 일본인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교통관계라든가, 사상문제라든가.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든가, 일본에 안주(安住)할 수 있는 가망이 있기 때문이라든가, 조선인학교 출신자는 일본의 상급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등의 이유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조사한 73세대중 일본인소학교에서 교육을 받게할 방침이라고 명언(明言)한 집은 한 군데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인 중학교가 약간 떨어진 곳에 있어 여기에 X지구의 제주도인의 대부분의 자제가 통학하고 있었다.

조선인소학교는 그 당시 일본인이 교장이었지만 일반교원은 거의 조선인이었다.

(iii) 信仰과 행사

제주도에 있어서의 자연부락의 당(堂)이나 용왕부인당(龍王夫人堂)에 대한 무속적(巫俗的)인 신앙행사 또는 유례(儒禮)에 기초를 둔 마을제(祭)는 X지구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마치(町)」의「우지가미(氏神·주≡마을의 守護神)의 「우지코(氏子(주≡氏神의 신봉자)」가 되어 제사(祭祀)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기부금 모집이나「미코시(神輿·주≡神位를 모시는 가마)」메기를 자진해서 맡는다. 또「봉오도리(盆踊·주≡음력 7월15일의 于蘭盆때 추는 輪舞)」에도 주위의 일본인으로부터 고립되는 일 없이 참가하는데 노래도 춤도 솜씨가 좋다.

이와는 반대로 가족 또는 친목에 관한 행사 중 특히 장례와 조상제사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따라 비교적 엄중히 치루어지고 있다. 장례에 즈음해서는 지붕에 올라가 행하는 초혼(招魂)의 의식을 제외하면 각 행사는 거의 정확히 치루어지고 있다. 단지 토장(土葬)이 화장(火葬)으로 바꿔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장렬(葬列)은 화장장으로 가는 영구차(靈柩車)까지로 끝난다. 조상제사는 섬에 있어서 친족관계집단에 의해서 올려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도쿄에 있어서도 5대 전까지의 조상을 중복하여 모시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불행이 계속될 때 「철리(주=遷移에서 와전된 듯)」라고 해서 신방(神房 또는 巫人) 또는 풍수사(風水師)의 점에 따라 무덤을 파내어 뼈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사가 있다.[13]

일본에 있는 제주도인의 집에 흉사가 잇따라 「철리」의 필요가 확인되면 향리에 매장된 조상의 뼈를 도내에서 옮긴다. 악령(惡靈)은 일본에서의 뼈에는 못된 짓은 않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가제(家祭) 외에 질병 또는 흉사에 대한 신방의 행사가 가끔 이루어진다. X지구에는 세 사람의 신방이 있어 제주도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행사에 쓰이는 북이나 종은 제주도의 그것과 거의 같다. 그러나 신방들은 신방이라는 데에 열등감을 가져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숨기기만 한다. 제주도 본래의 신가(神歌)나 본해(本解·본풀이)는 거의 잊혀지고 있지만 행사의 진행방법, 입무과정(入巫過程) 등은 제주도의 그것과 변함이 없다. 신방의 지지율은 우리들의 조사로는 남자 0%, 여자 14.3%라는 결과가 나와있지만 실제로은 여자의 지지율이 아마도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유례적 행사나 무속 외에 불교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

13) 제1부 제4장 제1절 참조.

교적인 관심이 제주도에 비하면 X지구에 있어서 약간 높아지고 있다. 불교신자는 남자 66명중 4명, 여자 60명중 6명(그 중 2명은 일본인)으로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에 속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남 4명, 여 1명으로 이 지구에는 소학교에 이웃하여 교회가 있다. 불교도나 그리스도교도 모두가 일본에서 개종(改宗)한 것으로 어느 쪽이나 일본에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X지구 제주도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약하며 무(巫)에 대한 신앙도 질병 그 밖의 흉사에 부딪쳐서 비로소 나타난다.

제주도에 있어서 특징있는 사귀(蛇鬼)에 대한 두려움은 도쿄에 있어서도 아직 강하게 남아, 뱀을 죽인다든지 만지는 일을 절대로 피한다. 뱀 꿈을 꾼것만으로도 신방의 푸닥거리(굿)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9. 性格-로르샤하·테스트에 의한 分析

다음에 그들의 퍼스낼리티에 대해 로르샤하 테스트(早稻田大學 改訂版)를 사용해서 분석(分析)해 봤다.[14] 피험자(被驗者)는 소학교 고학년 남

14) 로르샤하 테스트는 스위스의 정신과의 Hermann Rorschach에 의해 1921년에 고안된 것으로 흑·적·청 그 밖의 색잉크를 떨어뜨려 만든 대상형(對象形)의 무의미한 도형(圖型)을 그린 카드를 피험자(被驗者)에게 보여 이 도형의 전체 또는 부분을 봐서 연상되는 것을 말하도록 하고 그 답을 분석함으로써 퍼스낼리티(성격·개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현재 퍼스낼리티 분석의 수단으로서는 가장 신뢰도(信賴度)가 높은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 도판(圖版)은 일단 국제적으로 정해진 것이 표준판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되고 있지만 1950년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는 이 표준판을 입수하기란 곤란하여 와세다(早稻田)대학 심리학연구실의 도가와 유키오(戶川行男)·모토아키 히로시(本明寬) 두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早大改訂版 로르샤하 테스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우리도 또한 이것으로써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개정판은 8매의 도판으로 이뤄지고(표준판에선 10매) 또 도판의 형태나 색채도 표준판과는 여러 가지 점에

녀 13(남6, 여7)명이며 어느 것이나 랜담샘프링(無作爲抽出)에 의해 추출했다. 각학년 간의 차이는 거의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고려에 넣지 않고 차가 큰 남녀 양 집단을 나누어 생각키로하여 비교집단으로서 도쿄 S초(町)의 상점가 아동, H초의 주택가 아동 기타를 대조시키기로 한다. S초 H초의 두지역 아동 모두가 일본인의 소학교 고학년생이며 도회아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춰 X지구 제주도인 아동과 비교하는 데에 최적(最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서 다른 때문에 이 도판에서 행한 결과를 곧바로 표준판에 의해 얻어진 그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어렵다. 또 당시의 일본에 있어서는 로르샤하의 분석기술이 아직 늦어지고 있어 15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보면 매우 불충분한 점이 적지 않아 보완해야될 부분이 여럿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제주도인의 퍼스낼리티의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수정할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극히 부분적인 정정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 테스트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문화인류학적조사에 응용한 사람은 후지자와(藤澤・1930년 臺灣 高砂族의 조사)이지만 전후(戰後)에 있어서는 우리의 조사가 처음이었다는 것을 부언해두고 싶다.

또 최근에 있어서의 로르샤하 테스트 분석기술에 대한 상세한 것은 가타구치야수시(片口安史)의 「로르샤하 테스트 심리진단법 상설(詳說)」 (1960)・「현대작가의 심리진단과 새로운 작가론 : 작가와 면접해서 로르샤하법에 의한 심리진단서 발표」 (1962) 등을 참고 바란다.

문화인류학에 있어서의 본 테스트 응용례(應用例)로서는 예를 들어

WALLACE, A. The Modal Personality Structure of the Tuscarora Indians : As Revealed by the Rorschach Test (Smithsonian Institution, Bureau of American Ethnology, Bulletin, No. 150) 1952.

SPINDLER, G.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Processes in Menomini Accultu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 in Culture and Society, Vol. 5) 1955.

HUZIOKA, Y. "Modal Personality of People in Nagir through the Rorschach Techniqur" (in) K, Imanishi(ed). Personality and Health in Hunza valley 1963.

등이 있다.

또한 본 테스트를 문화인류학적조사에 응용할 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소후에 다카오(祖父江孝雄)의 「문화인류학에 있어서의 로르샤하 테스트 사용의 문제」 (1957 人類學雜誌), 「문화・사회 조사에 있어서의 로르샤하 테스트의 사용」 (『로르샤하 연구』, 1958) 참조.

(1) 반응수(反應數 · R)

그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	X地區		S 町		H 町	
	男	女	男	女	男	女
20 미만	33%	57%	6%	37.5%	12.5%	17%
20~39	50	28	50	50	50	50
40 이상	17	15	44	2.5	37.5	33

R이 낮은 것은 지능의 낮음, 사회성(도시화)의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앞 표에서 보면 분명히 S·H 두 곳에 비해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R<20인 자가 매우 고율이라는 사실은 X지구 아동의 특색이다. 단 이 지구의 결과는 일본의 촌락에 비하면 반응수는 훨씬 높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青森縣)의 벽지농촌 Sh(村)의 결과는 남자아동의 90%가 20미만, 10%가 20~30이며 여자아동의 전원이 20 미만이다.

여기에 서술한 R와 도시화의 정도, 문화도(文化度)의 고도(高度)와의 관계를 보다 한층 분명히 하기 위해 갖가지 환경 아래 놓인 청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R	東京近郊N村 (女子)	青森Sh村 (男子)	東京 K女子高	青森縣立 H女子高
20 미만	59%	80%	0%	55%
20~39	35	20	61	45
40이상	6	10	39	0

이에 따라서 보면 R의 크기가 도시화와 정신의 내면적(內面的) 액

티비티와의 정도, 이른바 지능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X지구의 아동은 이들의 점에 있어서 일본인 아동보다 적잖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들이 놓여 있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체험형(體驗型 Experience type<Exp>)[15]

체험형은 이 테스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로르샤하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즉「순수색채반응(純粹色彩反應)」(圖形의 색채의 類似로부터 연상한 것)을 C,「색채형태 반응(도형의 색채를 第一義, 형태를 第二義로하여 연상한 것)을 CF,「형태색채반응」(위와는 역으로 형태를 제1의, 색채를 제2의로 하여 연상한 것)을 FC로 했을 때 ½(FC+2CF+3C)를 ∑C라고 칭한다. 다음에「운동반응」(인간의 운동·동작·표정·자세 등을 연상한 것)을 M로 할 때 M : ∑C의 값이 이 Exp이며 이른바「향성(向性)」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셋으로 대별(大別)되고 그 위에 다섯 개의 형으로 분류된다.

		X 地 區		S 町		H 町	
		男	女	男	女	男	女
M>∑C	(內向型)	0%	14%	37.5%	9%	31%	37.5%
M=∑C	(兩向型)						
M=∑C=0	(兩貧型)	0	0	12.5	0	7	12.5
M=∑C>0		0	0	0	0	0	0
M<∑C	(外向型)						
M>0	(外向Ⅰ型)	17	14	50	58	31	12.5
M=0	(外向Ⅱ型)	83	72	0	33	31	37.5

15) 이 형(型)은 일본의 촌락, 특히 동북지방의 농촌에서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할 것.
소후에(祖父江)「일본인 퍼스낼리티의 여러 유형 : 로르샤하 테스트에 의한 연구」(1954),「프로젝티이브 테크닉」.

즉 M은 일반적으로「마음의 내부로부터의 자극」을 나타내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공상이나 독창적관념과 같은 상상력의 수준, 혹은「innercreativity(내부적 독창력)」을 표시하는 것. 이에 대해 ∑C는「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정서적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양자의 비율이 향성(向性)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취급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우선 M>∑C의 경우는 창조적 능력, 내면적 생활의 정도가 높고 정서는 안정되고 있는 특색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내향형(內向型)이라고 칭한다. M=∑C>0인 경우는 내면적 생활의 능력과 정서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M도 ∑C도 함께 0인 경우엔 내면적 생활이 가난함과 동시에 감수성·정서성도 또 억제되고 있어 말하자면 독창성이 없는 판에 박은 형태의 인간상(人間像)을 나타냄으로「양빈형(兩貧型)」이라고도 칭한다. 이에 대해 M<∑C의 경우는 내면적인 창조력보다도 외부에 대한 정서적 방응쪽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외향형(外向型)」으로 한다. 이때 M>0인 경우 (이것을 잠정적으로 外向Ⅰ型이라고 칭해 두자)에는 외부환경에 대한 현실적 적응력이 강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는 안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M=0인 경우 (이것을 잠정적으로 外向Ⅱ型으로 칭해 두자)에는 자율성이 약해서「egocentrism(자기중심주의)」의 경향이 강하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서는 반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일이 많다. 이상과 같이 분류할 수 있지만 앞 표를 봐도 분명하듯 X지구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외향Ⅱ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최대의 특색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단 색채반응의 감각에 대해서 보면 CF(약간 통제가 결여된 정서적 반응의 정도를 나타냄)나 C(충동성·폭발성을 나타냄)가 FC(통제가 잡힌 정서반응)를 웃도는 일은 없고 따라서 정서는 안정되고 있다고 봐도 괜찮다.

⑶ 음영반응(陰影反應)

색채가 없는 도판(圖版)에 있어서의 흑·회색·백색에 대한 반응을 음영반응(陰影反應)이라 총칭하고 그 위에 그안에서 몇 개인가로 세분해서 쓰이고 있다. 이들은 마음 속의 불안·초조·어둠 등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X지구에 있어서는 출현도(出現度)가 극히 적어 오히려 극히 밝고 명랑한 기분에 차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다.

⑷ 간극반응(間隙反應)

도형(圖形)의 하얀 간극(間隙) 및 하얀 공간에 대한 반응이 이것이며 체험형(體驗型)이 외향형인 때는 완고(頑固)한 경향을 보이고 내향형일 때는 자기비판·자책(自己批判·自責)의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제 X지구에 있어서의 출현률을 타 지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X 地 區		S 町		H 町	
男	女	男	女	男	女
34%	43%	44%	50%	50%	60%

이것으로부터 본다면 이곳에서의 출현률(出現率)은 도리어 낮아 오히려 시원스러운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⑸ 반응내용(反應內容)

반응에 있어서는 평범한 것이 많아 독창성(originality)은 모자라다. 그러나 이 집단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반응이 인정된다(각각 어느 것이나 1회이다)

1. 조선의 지도
2. 제주도의 지도
3. 조선의 북반(北半)
4. 조선신
5. 조선의 빨래방망이

조선생활의 심리적 방향(orientation)이 뚜렷히 나타내지고 있지만 특히 세 번째의 「조선의 북반」 같은 것은 우리들이 얼른 보아서는 알아 차릴 수 없는 것과 같은 도형에 대한 연상(連想)이며 그들의 정치적 관심의 강도가 반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第 3 部

濟州島에 있어서의 30年

(1965年 現在)

1. 머 리 말

1935년 여름, 나는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그때부터 37년 10월까지 사이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은 이 섬에 건너 갔다. 그 당시의 필드 노트가 망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한지 어떤지 자신이 없다. 그러나 1937년에 제주도를 떠난 후 지난 1965년까지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이 섬을 찾은 일이 없다. 30년의 세월은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는 매우 긴 시간이다. 1965년에 겨우 이 섬을 찾았을 때 나는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세월의 흐름을 실감(實感)으로서 듣고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교적 찾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된 교래리(橋來里)의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그 당시의 친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사진 19).

한편 역사의 흐름을 되돌아보면, 30년의 세월은 순간보다 짧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특정의 30년 사이에 정치경제 혹은 사회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는 일도 있다. 제주도의 역사에 있어서의 이 30년간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가장 격심한 정치적 변동의 한 시기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을 통해서 제주도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것은 인류학의 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193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을 연대(年代)를 따라 살펴 보자. 1935년부터 1944년까지의 10년은, 차츰 강화되어간 일본의 전시체제 아래서 전시징용(戰時徵用), 마지막에는 징병(徵兵)이 실시되었지만 제주도에만 특수한 정책이 취해졌다던지 사건이 일어난 일은 없었다.

그런데 제2차대전이 끝나는 전년인 1944년에 13만에 이르는 일본군이 이 섬에 주류(駐留)하게 되었다. 그 당시 대본영(大本營·주≡일본에 있어서 戰時 또는 事變에 즈음해서 설치되는 천황 직속의 최고의 統帥部. 제2차대전후는 폐지)이 얻은 정보에 의해 연합군의 상륙이 예상됐었기 때문이다. 인구 25만 정도의 섬에 그 거의 반수에 해당되는 일본군이 들어와 온 섬을 요새화(要塞化)하기 위해 해안으로부터 한라산 기슭에 걸쳐 토치카를 만들고 도로를 보수, 또는 신설했다. 그리고 진지(陣地)에는 무기가 쌓여진 것이다. 그것은 1년이 못되는 기간이었지만 뒤에도 서술하는 바와 같이 섬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1945년 8월 조선이 해방되고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이 떠나자 제주도도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조선은 해방후 북위 38도를 경계로하여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그 당시는 왕래가 비교적 용이했다. 남조선에도 인민정부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한편 북조선주민 가운데서 인민정권에 참가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남조선으로 내려와 한국 속에 커다란 정치세력을 만들었다. 그것을 서북청년대(西北靑年隊)라고 부르고 있다. 서북청년대는 한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진보적분자(進步的分子)와의 대결에 이용되어 때때로 지방도시에서 양자(兩者)의 격돌(激突)이 일어난 것이다.

보통 4·3사건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제주도의 가공(可恐)할 비극도 제주출신으로 더구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진보주의자와 그 당시 경찰서장을 비롯 경관의 다수 및 시가지의 불량배를 포함하는 서북청년대와의 대립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반드시 공산당의 지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말하고 있는 강한 지방주의가 전 도민으로하여금 전적으로 섬 출신의 진보주의자를 지지토록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의 외곽에 대해 아사히(朝日)신문 히

키다 게이이치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1)]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 폭동이 일어났다. 8년간에 걸친 소동으로 도민 24만 가운데 6만이 죽었다. 서울에서 본 자료에 따르면 그날 새벽 일제히 봉기한 공산계세력은 제주경찰서, 9개소의 주재소를 습격하여 경찰관·공무원·우파정치가·그 가족을 죽였다. 세력은 약 2천, 전부터 산중에서 게릴라 훈련을 하고 있던 인민위원회·민주청년동맹·거기에다 국방경비대도 일부 참가했다. 공산계에 의한 섬의 지배는 20일간으로 끝났지만 최성기(最盛期) 전도의 지하조직을 합쳐 5만의 대세력이 되어 군대에 의한 진압(鎭壓) 소토(掃討)는 곤란을 극했다.」

이 시대는 군정하(軍政下)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일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국민에게도 사건의 전모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당시의 아사히신문으로부터 관계기사를 골라 보자.

1948년 6월 19일 (서울 18일 UP=共同)「제주에서 좌파게릴라 토벌에 나서고 있던 남선경찰대장 박대령은 18일 아침 사령부에서 취침중 사살되었다」. 동년10월 3일(共同)「서울의 한국정부 내무부에 입수된 정보로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10월1일 제주도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사상자 5백50명 이상을 내었다」. 동년 10월 5일(AP특약)「1일의 제주도 폭동사건에 대해 한국정부 내무부장관은 3일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공산당계열의 폭동으로 경관 5명이 피살되었지만 현재는 평정(平靜)으로 되돌아갔다. 제주도의 공산당게릴라는 올 봄 이후 산중에 도망쳐 있었지만 1일 한 부락을 습격, 이를 불태운 것이다」. 동년 11월20일(UP≡共同)「이승만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반란을 진정(鎭定)하기 위해 18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섬에 있는 국

1) 아사히(朝日)신문, 소화41년(1966) 1월 15일 석간「한국 마음과 흑과」.

군 제7연대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전(內戰)은 계엄령에 의해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히키다기자의 기사를 더 인용한다. 「제주도의 게릴라활동이 고도(孤島)이면서 8년간이나 계속된 것은 첫째로 일본군의 무기탄약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방목중의 소·말이라는 식량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게릴라는 도민이며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산의 원시림은 깊다. 추적하면 숲에서 잠복하고 있던 게릴라에게 몰살 당했다. 진압군은 산간부의 부락을 해안선으로 옮기고 산림을 불태웠다」 그러나 게릴라는 해안의 마을에서도 화공(火攻)을 감행했다.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고도 했다. 게릴라는 밤에 부락을 습격하여 식량을 강탈하고 젊은이를 이끌고 철수한다. 반항하면 피살되었다. 뒷날 아침 이번엔 진압군이 온다. 살아남은 부락민은 거꾸로 게릴라와의 통모(通謀) 협의를 받아 피살되었다. 도망갈 곳이 없는 낙도이다. 단결심은 없다. 서로 죽이는 일은 보다 격렬하고 보다 어둡고 비참해질 뿐이었다.

이와같은 4·3사건의 초연(硝煙)이 피어오르고 있는 사이에 1950년 여름, 한국전쟁이 일어나 눈 감짝할 사이에 한국은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全域)을 북조선군에게 점령 당하고 말았다. 맥아더사령부는 제주도의 장정으로 해병대를 편성하여 4·3사건이 한창인 가운데 섬에서 훈련시키고 이를 인천의 상륙작전과 더 나아가 북진(北進)에 투입하고 있다.

4·3사건은 한국전쟁이 종말을 고함과 더불어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도 있어 결말로 향해 1955년에 이르러 일단 해결을 본 것이다. 한국정부는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절히 느껴 새로운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일본통치시대에는 제주도는 처음 전라남도 완도군의 일부였다가 1915년에 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제주도(濟州島)」가 행정상의 단위로 되었다. 그래서 제주경찰서장이 도사(島司)를 겸한 것이다. 요컨대 여기서는 경찰권과 행정권이 일체화(一體化)했다. 가장 비민주적인 행정조직이 깔린 것이다. 이것이 1946년에는 「濟州島」는 「濟州道」로 승격하고 그후 서귀면(西歸面) 대정면(大靜面) 및 한림(翰林)은 각각 (邑)이 되고 한림읍의 서부가 한경면(翰京面)으로 분리됐다. 또한 1955년에는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했으므로 현재의 행정체제 즉 제주도의 「1시2군3읍10면」제는 4·3사건이 끝난 뒷해인 1956년에 정비된 셈이다.[2)]

4·3사건으로 제주도는 황폐화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총인구(1948년의 인구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30만에 가까웠다고 추정된다. 왜냐면 1958년의 인구는 22만약(弱)이었기 때문이다)의 4분의 1이 피살되고 산·양촌의 거의가 불태워져 한 때는 전부가 해안에 내려와 있었다. 이와같은 산·양촌의 대부분은 원위치로 돌아가 새로운 부락을 만들고 있지만 교래리와 같이 원래 주민의 대부분이 피살되어 극히 일부만이 해촌에 살아남고 있는 곳에서는 이미 부락의 재건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민이 완전히 교대되어 버리고 있다. 이제부터 이러한 격동의 30년 사이에 제주도의 문화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받았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검토에 즈음해서 1965년의 조사는 불과 4일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중점을 사회조직에 두고, 다른 사항은 참고에 그친다.

---

2)「濟州道年報 제4회」

2. 經濟의 변동

문화의 여러 요소 가운데 경제·기술은 그 진보의 발자욱을 더듬기가 가장 용이하다. 또 수량적인 파악도 가능하므로 우선 이 점부터 시작하자.

(가) 인 구

제주도에서의 정주인구(定住人口)는 <표 37>에 제시하는 바와같이 1916년 이래 정체(停滯) 또는 다소 감소의 경향을 더듬었지만 해방후 4·3사건에 의한 격감(激減)이 추정되어진다고 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3] 한편 세대수도 1916년 이후 혹은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37> 世帶數·人口·男女比의 推移

	總世帶數	總人口	男 子	女 子	平均世帶人口	男女比
1916	40,523	202,072	99,457	102,615	4.98	96
1928	42,462	204,420	98,956	105,464	4.81	93
1934	47,744	188,410	87,557	100,853	3.94	86
1957	55,149	258,961	116,163	142,798	4.69	81
1963	68,795	307,519	143,149	164,370	4.47	87

3) 제3부의 통계자료는 1957년부터의 새로운 수자에 대해서는 「濟州道第4回統計年報, 1964年」에 의해, 일본통치시대의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은 「濟州島勢要覽 昭和十年(1935)」에 따름.

일본통치시대의 인구 감소는 출생·사망률의 역전(逆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의 출가(出稼)가 원인이었다. 일본으로의 출가에 의한 인구의 감소 즉 노동력의 부족은 농가의 분가(分家)를 가능케 했기 때문에 세대수(世帶數)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표 37>.

이러한 출가는 정기적인 해녀의 출가를 제외하면 우선 남성으로 시작하여 여성이 이에 따랐다. 그 결과 옛부터 볼 수 있었던 「여다남소(女多男少)」가 현저히 강조되는 결과가 되고 또 여성을 호주로 하는 세대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후는 이 현상이 일변(一變)했다. 많은 사람(그 實數는 알 수 없다)이 일본으로부터 귀국하고 일본으로의 출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재일교포와의 연락도 이전에 비하면 곤란하게 되고 인구는 부풀러 올랐다. 그 즈음 4·3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제37표에서도 분명한바와 같이 1957년의 정주인구는 25만8천9백61명을 헤아리고 있으므로 4·3사건의 희생자를 공표한대로 약 8만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이의 자연증가를 고려에 넣어도 사건 전의 인구는 30만명에 가까웠음에 틀림없다. 또 이 시점에서는 사건은 총인구에 있어서의 남녀비율에도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출가가 별로 많지 않았던 1916년경에는 여성 100에 대한 남성의 비율은 97, 평화적인 출가의 하나의 피크였던 1934년에서 조차 86, 그것이 4·3사건이 종식해서 2년후인 1957년에는 81로 가장 낮은 수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남녀비(男女比)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제 비교적 급속히 수적(數的)으로는 평형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표 38>과 같이 제주도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아마도 4·3사건 중에 최저에 이르고 그후 급격히 회복, 더욱 증가 경향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제2차대전 후에 일어나고 있다. 즉 대전직후인

1945년 9월부터 46년 6월까지의 출생률은 1천명에 대하여 22명이 되어 사망률 26명을 웃돌았다. 그런데 그후 출생률은 차츰 상승하여 1947년에는 1천명 당 40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망률은 하강일로(下降一路), 같은 해에는 14명이라는 숫자[4]를 나타내고 있다.

<표 38> 人口의 增加

	① 인구 1,000명에 대한 出生率	① 인구 1,000명에 대한 死亡率	自然增加率 ①-②
1934	22.49	16.76	5.73
1957	18.64	4.81	13.83
1963	48.41	12.37	36.04

제주도에 있어서는 출생률에 대해서 보면 1955~57년에 현저한 감소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급격한 증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률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1957년의 그것이 1천명 당 4.81명이라는 너무도 낮은 수치(數値) 때문에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다음에 산업별 인구의 추이(推移)를 살펴 보자. 제39표는 1934년과 1963년의 비교이다. 대충 살펴보면 1934년에 비해 1963년의 산업별인구는 6만2천4백35명 증가하고 있다.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표에 수록된 산업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4년과 1963년을 통해서 대단히 무겁다. 즉 1934년에는 91.7%, 1963년에도 84.6%이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 가운데는 목축이나 어업을 겸업(兼業)으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뒤에 볼

4) 다테 미노루(舘稔) 「日本人口論」 社會大學系4 國立書院. 昭和23年(1948).

<표 39> 産業別人口의 推移

		有業人口	農業(兼業포함)	漁業	工業	商業交通業	公務自由業	其他	無職
1934	男	42,205	36,765	1,393	449	1,764	844	990	
	女	50,635	47,817	632	166	1,210	149	661	
	男女計	92,480	84,582	2,025	615	2,974	993	1,651	
	總有業人에대한百分比	100	91.1	2.1	0.7	3.2	1.1	1.8	
1963	男	64,969	49,310	2,096	2,211	3,000	6,571	1,781	
	女	86,251	78,870	247	545	2,271	1,223	3,095	
	男女計	151,550	128,180	2,343	3,116	5,241	7,794	4,876	
	總有業人에대한百分比	100	84.6	1.5	2.1	3.5	5.1	3.2	

수 있는바와 같이 어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보다 낮은 것 같이 여겨지는데 겨우 2.1%와 1.5%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여성의 전업어업자 즉 해녀의 수가 3분의 1 가까이까지 감소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해녀는 일반적으로 보아 보통교육이 진보하면 할수록 감소하고 또 도시 특히 제주시의 주변에는 적다고 말해지고 있다.

상업 교통업의 전 취업인구에 대한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지만 공업은 약간 증가하고 공무·자유업 가운데 공무원의 수는 1936년에 비하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4년은 93.9%, 1963년에 있어서도 86.1%로, 미국의 12.5%(1950년) 이탈리아의 41.3%(1951) 및 일본 41.0%와 같은 국가단위의 수자와는 직접 비교할 바 아니지만 아직도 제주도의 산업구조에는 많은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

(나) 농업과 목축(牧畜)

산업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저하(低下)했지만 전업농가의 절대수는 193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겸업농가(兼業農家)의 감소는 어업 기타의 직업이 차츰 전업화(專業化)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지형·지질 및 기후 관계로 논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 <표 40>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1934년 겨우 8백93정보의 논을 볼 수 있는데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1963년에도 1천73정보, 요컨대 1백80정보밖에 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밭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논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1934년의 총경지(總耕地) 면적은 도청(島廳)의 통계에 따르면 9만3천1백54정보이며 그 가운데 3만4천7백23정보가 휴한지(休閑地)로 되어 있었다. 즉 5만8천4백31정보가 실제 경작되고 있었던 면적이다. 그런데 해방후의 통계에는 휴한지는 계상(計上)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므로 경지면적의 합계에 커다란 차이가

<표 40> 農家世帶數와 耕地面積의 推移

	農家數 合 計	兼業農家 (世帶)	專業農家 (世帶)	耕地面積 合 計	논 (町)	밭 (町)	1世帶당平均 耕地面積(町)
1931	39,781	6,597	33,184	-	-	-	-
1934	42,780	1,714	41,066	93,154* (58,431)	892	92,262	2.18 (1.37)
1957	46,794	4,234	42,560	39,369	913	38,456	0.84
1963	56,387	4,508	51,879	44,921	1,073	43,848	0.80

※ 이 숫자에는 休閑地 43.723町이 포함되어 있다. ( )는 휴한지를 제외한 면적

보인다. 그런데 휴한지를 빼어도 1934년과 1957년 사이에는 현저한 격차가 있다. 요컨대 이 사이에 1만9천62정보의 경지의 감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아마도 이와같이 광대한 면적의 밭이 포기되었다는 것은 4·3사건에 의한 산·양촌의 해안으로의 퇴거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 뒤 경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다음으로 1934년과 1963년 사이의 각 농작물의 작부반별(作付反別)을 <표 41>에 의해 비교해 보자. 1957년은 4·3사건의 영향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참고로 남기기 위해 실었다. 대국(大局)에서 보면 제주도의 주식(主食)이었던 보리·피(稗) 등 잡곡의 작부면적의 감소 서류(薯類)·특용작물 및 소채와 같은 환금작물의 증가가 눈에 띈다. 서류의 대부

<표 41> 農作物作付反別의 推移

	米 穀		麥 類		雜 穀		豆 類	
	作付面積(町)	全作付面積에대한比率	作付面積(町)	全作付面積에대한比率	作付面積(町)	全作付面積에대한比率	作付面積(町)	全作付面積에대한比率
1934	5,086	6.19	25,708	31.27	36,813	44.78	7,448	9.06
1957	3,352	5.15	30,893	47.48	20,595	31.66	2,236	3.44
1963	4,047	5.68	29,091	40.84	19,902	27.95	5,659	7.94

(계속)

薯 類		特用作物		蔬 菜		合 計	比 率
作付面積(町)	全作付面積에대한比率	作付面積(町)	全作付面積에대한比率	作付面積(町)	全作付面積에대한比率		
3,650	4.44	2,976	3.62	526	0.64	82,207	100
6,394	9.83	234	0.36	1,351	2.08	65,055	100
7,818	10.98	3.634	5.10	1,079	1.51	71,230	100

분은 고구마로 절간(切干)을 만들어 대부분 전분(澱粉)의 원료가 되는 것이다. 일본통치시대에는 목면(木棉)의 재배가 장려되고 있었지만 1963년의 작부면적은 겨우 1백45정보(1934년에는 2천6백16정보)에 지나지 않다. 그에 반해 현재는 담배 재배가 널리 보급되어 특용작물로서 필두(筆頭)의 작부면적을 차지, 경작자는 2천5백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소채의 작부면적도 거의 두곱이 되었다.

주된 작물의 반당(反當) 수확은 <표 41>와 같이 1957년 이래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같은 수량(收量)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작물의 품종 개량, 농기구의 개선, 시비, 소독 등 기술의 향상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나 제주도에서는 아직은 품종개량과 농기구의 개선은 장래에 기대해볼만한 것으로, 현재의 상태는 주로 시비(施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다. 농구로서는 개량괭이가 주체를 이루고 있어 1936년경과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런데 퇴비(堆肥) 및 금비(金肥)의 시비량은 해를 따라 증가하고 있다. 섬에서는 원래 윤경(輪耕)에 의한 지력갱생법(地力更生法)은 알려져 있었으나 시비는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 일본통치시대에 우선 장려되고 오늘날도 더욱더 촉진되고 있다. 자급비료(自給肥料)의 생산고는 1957년에 전도적으로 겨우 37만2천3백27t이었던 것이 1963년에는 1백51만3천1백9t으로 증가했다. 또 금비의 사용도 1957년의 7천6백30t이 1963년에는 1만6천8백7t으로 튀어오르고 있다.

한편 제주도 산업중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축산에 대해서 과거 30년간의 추이(推移)를 좇아 보자. <표 42>는 소·말·닭 및 꿀벌에 대해 살핀 것이지만 돼지를 제외하고는 그 확실한 수를 알아 내기가 힘들었다. 제주도에 있어서 거의 모든 농가가 뒷간에 돼지를 길러 퇴비를 생산함과 동시에 식료원(食料源)도 되어 있다는 것은 30년 전과 오늘날이

거의 변함이 없다. 단지 30년 전에는 뒷간이 노천(露天)이었지만 오늘날은 거의 지붕이 있는 오두막이 그 한녘 위에 만들어져 있다(사진 19).

소·말은 특히 산간지대에서 사육되고 있었기 때문에 4·3사건의 영향이 처참하게 보인다. 따라서 그후인 1957년대부터는 특히 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말은 제주도 안과 육지에서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지만 대규모 시장의 수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와 같은 증가는 앞으로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소에 대해서는 육우(肉牛), 유우(乳牛) 모두가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이 확실하여 축우의 기업화가 계획되고 있다.

<표 42> 畜産의 推移

年代	畜牛數	飼馬數	養 鷄	蜂 群
1934	(±20,000) 40,064	(±5,000) 22,235	(26,965) 75,414	 3,219
1957	(19,712)* 32,462	(4,710)* 9,758	 82,708	(321) 4.071
1963	(37,003) 70,807	(6,180) 18,674	 114,903	(461) 5,807

① ( )안은 飼育世帶數 ② *印은 1958년의 統計 ③ 돼지는 거의 增減이 없다.

일본통치시대에는 계란 5만7천7백80kg 안팎이 육지 및 일본으로 반출됐었으나 아직 양계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봉은 1923년 이래 시작된 산업으로 그후 차츰 벌떼가 늘어 최근에는 5천군(群)을 넘고 양봉세대도 4백61세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 오면 제주도의 농업과 목축은 최근에 이르러 미미하나마 발전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여 요컨대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술과 경영의 개혁을 단행할만큼의 자금의 축적도 없는가 하면 자금원(資金源)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어업(漁業)

산업별 인구통계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어업인구의 추이를 수산통계에 의해 살펴 본 것이 <표 43>이다. 이 통계는 1957년이 빠져있어 1960년으로 넘었기 때문에 4·3사건이 어업에 남긴 손톱자국은 뚜렷치 않다. 전업(專業)어업자의 인구는 1936년에 비하면 3배가 되고 겸업자(兼業者)는 6배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자와 산업별 인구와의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 즉 <표 39>에서는 전업어업자수는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성은 절대수(絶對數)에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표 43>에 있어서는 이와는 완전히 역경향(逆傾向)을 보임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인구통계와 특수한 목적을 위한 통계와의 사이에 다소 계수상(計數上)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큰 줄기의 경향이 엇갈림으로 해석이 어려워진다.

<표 43> 漁業人口의 推移

	專 業				兼 業				被 用 人			
	漁業世帶	漁業人口合計	男	女	漁業世帶	漁業人口合計	男	女	漁業世帶	漁業人口合計	男	女
1936	996	2,021	1,161	860	7,714	10,280	2,767	7,513	1	1	0	1
1960	1,607	5,000	2,700	2,300	7,439	22,319	5,300	17,019	1,900	5,770	1,700	4,070
1963	1,332	6,572	3,255	3,317	17,483	84,512	31,098	53,414	320	1,583	963	620

<표 44> 漁船의 推移

	帆 船	動 力 船		
		10톤級	10~30톤級	30톤 이상
1934	1353	48	15	0
1963	796	219	22	3

어선은 <표 44>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범선은 2분의 1로 감소하고 10t이하의 동력선이 껑충 증가했고 10t 이상의 것도 얼마 안되지만 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라 해도 어업인구에 대한 동력어선의 수는 적다. 따라서 겸업어업자를 포함한 1년간의 수획고는 1958년엔 겨우 1세대 평균 3천9백원, 1963년에는 급증(急增)하긴 했으나 1만9백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1934년의 세대당 평균 어업수획고 1백96원에 비하면, 물가의 환산(換算)은 어렵지만 그다지 상승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라) 의식주(衣食住)에 대해서

의복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였다. 우선 첫째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점은 제주도의 일상노동복인 갈옷이 거의 착용되지 않고 여자에게는 육지풍의 복장이, 남자에게는 양복과 군복 같은 작업복이 눈부시게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상품경제의 발달과 맞물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육지에서 보이는 조선옷의 유행이 갖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섬으로 밀려들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복의 색채에도 저 갈옷색갈조차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작업복의 태반은 색채에서 보면, 여성은 파랑 또는 검정으로, 남자는 카키색으로 바뀌었다.

한편 산촌에서 겨울에 착용되었던 가죽옷은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다. 제주도미속박물관에는 가죽두루마기나 가죽버선 및 초신이 진열되어 있지만 산·양촌의 일반 가정에는 이젠 보존되어 있지 않다. 4·3사건에 의해 양·산촌이 해안으로 이전했을 때 대부분 망실된 것 같다.

이에 반해 삿갓(竹笠)류는 농사에 즈음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또 남자 쓰개와 여성의 머리를 덮은 수건(帛巾) 가운데 남자의 쓰개는 복장

의 양복화에 따라 거의 안 쓰이게 되었지만 여성의 수건은 복장이 완전히 양장화(洋裝化)되지 않은 탓도 있어 오늘날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착용방법은 지금까지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일본식(네에상가부리)」이거나 뒷머리에 묶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신발에 대해서 보면 초신은 작업에 즈음해서도 별로 쓰이지 않고 차츰 고무로 된 조선화(朝鮮靴)로 바뀌고 있는 것이 육지와 마찬가지이다. 음식물은 특히 산·해촌에선 거의 변화가 없다. 또 뒤에도 서술하는 바와같이 시가지에서는 쌀을 구입하는 사람이 80%에 이르고 있지만, 중국요리·일본요리 또는 유럽요리의 최근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이제 K리에서의 최근의 음식물을 제시하면 <표 45>와 같다. 요컨대 봄에는 저장해 두었던 곡류(穀類)를 먹으면서 보리 수확 때까지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와같이 갖가지 종류의 곡류와 저장해 있는 배추와 젓이 식료(食料)가 되는데 식사의 회수도 하루 두 끼니를 넘기기는 힘들다. 여름이 되면 보리가 수확되므로 보리와 팥의 밥이 만들어지고 날 콩잎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옛날과 거의 다

<표 45> 海村K里의 食物(1965年)

		主 食	副 食	食事回數
봄	아침	조, 팥	배추된장국, 자리, 멸젓	2
	저녁	보리, 조, 쌀		
여름	아침	보리, 팥	콩잎, 야채(오이, 파), 국, 자리회	3
	점심·저녁	보리, 팥		
가을	아침	보리, 조, 팥	배추·무, 호박콩국 덜말린 바다고기	3
	점심·저녁	보리, 조, 팥		
겨울	아침	조	앞과 같은 콩국 간한 바다고기	
	저녁	조		

름 없다. 여름에는 국에도 신선한 야채가 쓰이며 자리도 날 것이 인기를 끈다. 가을 들어 조가 수확되면 보리·조와 팥을 섞은 밥이 지어지고 거기에다 갈치·전갱이·고등어 등의 시들린 것을 먹을 수 있다. 또 콩가루를 섞은 콩국이 한몫 한다.

이와같이 제주도의 식사는 30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 건어(乾魚)를 스스로 먹을 수 있게된 것이 변화라면 변화이다. 이른바「칼칼 먹엄다」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행해지고 있지만 쌀밥을 먹는 회수는 그다지 늘지 않고 있다. 또 식사 회수도 지금까지와 거의 변함이 없다. 겨울부터 봄에 걸쳐 하루 세 번 식사를 한다는 것이 마을사람들로선 어렵다. 여진히 춘궁(春窮)은 지독하다. 식사가 변화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문화의 보수성」이나 「내셔널니즘」이 아니라 경제적인 빈곤스러움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도시거주자의 80%는 이미 식료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식생활은 「육지적(陸地的)」이 되어가고 있다. 이점은 산·해촌에 비하면 현저한 변화이다.

주거는 도시를 제외하면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촌에서는 이 30년 사이에 별로 집이 신축되지 않는 것 같다. 또 신축됐다 해도 그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단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뒷간의 개조가 보일(사진 19) 뿐이다.

한편 산·양촌의 가옥은 4·3사건 때문에 거의 전부 불태워졌다. 따라서 현재의 집은 그후 새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가옥의 구조나 마을의 양식도 30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다. 단지 석벽(石壁)을 굳히는 접착물(接着物)로서 전에는 석회(石灰)가 쓰이던 것이 시멘트로 바뀐다든지 부엌 토방에 콘크리트가 쳐졌다든지……시멘트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4·3사건 후 정부가 산촌

재건에 즈음하여 시멘트를 지급한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뒷간의 변화는 해촌과 같다.

한편 도시의 주택은 일본통치시대의 것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외에 신축도 보이지만 산·해촌과 같은 초가(草家)는 줄고 기와집이 늘고 있다. 그리고 온돌에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연탄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도시의 공공건축물이나 식당, 호텔에는 근대적 건축이 늘고 있지만 그것이 민가의 생활에까지 파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3. 가족과 친족의 변동

가족과 친족의 구조를 문화·사회의 변동 속에서 포착하기 위해 1965년 10월에 해촌인 K리와 산·양촌인 T리의 조사를 실시했다. 어느 것이나 자연부락 가운데의 일구획(一區劃)을 잡아서 조사했지만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생각한 바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다. 또 1935년~37년대와의 비교가 30년에 걸친 세월 사이에 일어난 필자의 조사방법의 변화로 해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해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1) 가족과 혼인

<표 46>는 세대원수(世帶員數)에 의한 세대수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우선 느끼는 것은 한 사람 및 2인세대가 비교적 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3~4인세대가 절대수로서 많다는 것이다. 이 일은 평균의 세대인구에도 아주 강하게 영향하고 있다. 말

<표 46> 世帶員數別世帶

事項 / 世帶員數	濟州島 (1965)						東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	朝鮮
	海村(K里)		山村(T里)		平均			
1	15.8	12	6.7	4	11.8	16	4.1	0.8
2	18.4	14	16.6	10	17.7	24	14.9	8.2
3	28.9	22	26.6	16	27.9	38	27.0	16.1
4	10.5	8	11.7	7	11.0	15	14.9	20.8
5	7.9	6	20.0	12	13.2	18	12.3	15.8
6	5.3	4	1.7	1	3.7	5	9.5	10.2
7	7.9	6	6.7	4	7.4	10	6.8	4.9
8	1.3	1	5.0	3	2.9	4	4.1	1.0
9	2.6	2		3	3.7	5		0.5
10	1.3	1			0.7	1		
11以上		76		60		136		
總數		100.0		100.0		100.0	100.0	100.0
平均世帶員數		3.56		4.08		3.82	4.3	4.7

할 것도 없이 이와같은 결과는 제주도의 가족 구성에 의해 야기(惹起)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965년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가족 구성은 <표 47>에서도 분명한 바와같이 세대주의 성별은 평균하면 세대주 100명에 대해 남 62.5명, 여 37.5명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여자 주인의 세대가 눈에 띄게 많다. 그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가족, 즉 부부가 가지런한 가족은 겨우 전체의 반을 조금 웃돌 정도이다. 이러한 경향이 해촌에 있어서 특히 현저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30년 전의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도쿄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에는 가족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즉 부부가 가지런한 가족이 증가하고 더구나 배우자나 모계(母系)의 혈족이 가족 속에 포함되어 오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특히 해촌에 있어서는 이런 류의 혈족은 가족 속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산촌에서도 포함되

<표 47> 가족 구성

事項 / 世帶員數	濟 州 島 (1965)			東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
	海村(K里)	山村(T里)	平 均	
世 帶 主 (合計)	1,000.0	1,000.0	1,000.0	1,000.0
〃 (男)	460.5	833.3	625.0	
〃 (女)	539.5	166.7	375.0	
配 偶 者	407.9	750.0	558.8	822.0
配偶者 또는 어머니의 血族		50.0	22.1	137.0
아 들	1,828.9	183.3	1,838.2	208.0
아 들 의 配 偶 者	26.3		14.7	
孫	223.7	16.7	32.4	95.9
祖 父		16.7	7.4	
祖 母		16.7	7.4	
父	13.2	16.7	14.7	13.7
母	13.2	133.3	66.2	27.4
兄 弟	13.2	133.3	66.2	68.5
姉 妹	13.2	66.7	36.8	
그 밖 의 父 系 의 親 族	13.2	33.3	22.1	68.5
親 知				68.5
不 明		50.0	22.1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 보는 것은 재혼의 처의 의붓자식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장모와 자매 및 의붓자식이지만 의붓자식의 비율은 낮다.

이제 제주도의 가족의 형(型)을 <그림 52>와 같이 다섯으로 나누고 그 출현의 빈도(頻度)를 보면 <표 48>과 같다.

<그림 52> 家族 타이프

<표 48> 家族타이프 分布表

事項 / 家族의 형태	濟州島 (1965年)					
	海村(K里)		山村(T里)		合計	
I 型	65.78	50	68.33	41	66.90	91
II 型	14.47	11	18.33	11	16.18	22
III 型	1.32	1	3.33	2	2.21	3
IV 型	1.32	1	3.33	2	2.21	3
V 型	17.11	13	6.67	4	12.50	17
合計	100.00	76	100.00	60	100.00	136

가족의 Ⅰ형은 이른바 핵가족으로 부부(어느 한쪽이 사망 또는 부재(不在)의 경우도 포함)와 그 미혼의 자식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Ⅱ형은 직계적 가족으로 세대주의 부모 또는 어느쪽인가 한쪽 및 부부, 그 미혼의 형제자매, 기혼의 자식부부 한쌍과 그 애들 및 미혼의 자녀를

포함하는 구성을 갖는다. 제Ⅲ형은 Ⅱ형에다 세대주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소박데기의 자매나 그 자식, 상처(喪妻)한 형제와 그 자녀)가 첨가된 가족이다. 한편 제Ⅳ형은 장인·장모, 처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다. 제Ⅴ형은 독신 또는 단신자(單身者)이다.

제주도에서는 무엇이라 해도 제Ⅰ형의 가족이 가장 많아 전체의 66.90%를 차지하며 제Ⅱ형과 제Ⅴ형이 이에 따른다. 제Ⅴ형에는 여성이 많다. 제Ⅱ형은 얼른 보면 일본의 직계가족과 같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요컨대 결혼한 자식은 양친과 별거하고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양친의 어느쪽인가가 사망하지 않는 한, 제Ⅱ형의 가족은 제Ⅰ형으로 분해하는 과정적(過程的)인 상태이다. 또 때로는 남편을 잃은 노미망인(老未亡人)은 자식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단독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손자나 조부가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예는 적지 않다<표 48>. 아무튼 간에 제주도에 있어서는 일본과 같은「이에(家. 주=조상대대 이어져 내려온 일본 고유의 혈족집단)」는 존재하지 않고 문중(門中)이라고 불리우는 친족관계집단에 의해 친족이 통합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제Ⅲ형과 같은 가족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또 제Ⅳ형도 부계적 혈연원리(父系的血緣原理)로부터는 생각키 어려운 가족이다. 그러나 근소(僅少)하긴 하나 이와같은 이형(異形)의 가족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친족구조를 고려하는 위에서는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

혼인에 있어서의 동성불혼(同姓不婚)의 원칙은 원리(原理)로서는 육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지고 있다. 요컨대 본관과 성씨의 조합(組合)

이 같은 사람의 혼인은 금기이다. 그 외에도 대본(大本)의 조부가 형제 또는 자매였다고 전해지는 특정의 성씨, 예를 들어 본관이 「제주」 또는 「탐라(耽羅)」인 고·양·부(高·梁 또는 良·夫)」의 삼성은 이 셋이 형제였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삼자(三者)의 결혼은 금기로 되어 있으며 또 전주유씨(全州柳氏)와 차(車)씨, 김해김씨와 김해허씨와의 혼인도 탐탁하지 못하다. 이와같은 조선에 있어서의 동성동본의 체계가 정연히 성립한 것은 이조시대이며 주자학(朱子學)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씨족외혼제(氏族外婚制)가 전연 존재하지 않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요컨대 이조(李朝) 이전부터 조선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몇 개인가의 부족 중에는 외혼제를 갖고 있던 자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적어도 본관과 성씨의 조합(組合)이 외혼제의 단위가 되어 있다는 점은 중국에 있어서의 외혼제와는 취향이 다른 셈이지만 이조시대를 통해서 이념적으로는 동성혼(同姓婚)이 호감을 받지 못했었다는 것은 <표 49>로도 분명할 것이다. 요컨대 1920년경의 조사에 따르면 전조선에 있어서 동본동성혼이 도시에서 겨우 0.2%뿐, 이본동성혼(異本同姓婚)도 도시·농촌에서 각각 5.2%, 6.5%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에서

<표 49> 同姓氏婚姻

	全朝鮮(±1920)		濟州島(1965)		東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
	都 市	農 村	漁村(K里)	山村(T里)	
同本同姓婚	0.2	0	6.5	8.8	4.1
異本同姓婚	5.2	6.5	12.9	14.7	2.7
高梁夫婚			0	14.7	
異姓婚	94.6	93.5	80.6	61.8	93.2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의 성씨 가운데 김씨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만일 이본동성혼에 대해서 일반적인 혐오감(嫌惡感)이 없다면 이렇듯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일을 없을 것이다.

그런데 1965년의 제주도에 있어서 동성혼인의 비율은, 그것을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별로 적당한 자료는 아니지만, 1920년의 조사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연대(年代)에 의한 증가인가, 지방적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어서는 김해김씨의 일곱 개의 계통 사이에서는 동본동성이라도 혼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든 앞에서 말한 동성혼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이 적어도 현재의 제주도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과 같이 여겨진다.

⑵ 친족(親族)

조선의 친족구조에 있어서는 그 혼인이나 혈연체계(血緣體系)가 부계(父系)인데도 불구하고 친족호칭이 유별적(類別的)이란 것은 마키노 다츠미(牧野巽)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5]

친족호칭에 대해서는 제주방언도 표준어와 그다지 다르지는 않지만 참고로 여기에서는 제주도K리의 김영희(金永嬉·67세)씨로부터 들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을 예시해 두겠다. 여기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첫째로 자기와 동세대(同世代), 3·2대 앞의 조상세대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 증조부모를 포함해서 아버지쪽 어머니쪽의 구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직접적인 조상과 그 형제자매 사이에 호칭상(呼稱上)의

5) 마키노 다츠미(牧野巽)「支那家族의 硏究」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1대 앞의 조상, 즉 부모와 동세대에 한해서 차이가 뚜렷해진다. 그것을 도형(圖形)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3>과 같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부(父)에 대한「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제까지밖에 미치지 않고 모(母)에 대한「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매가 아니라 아버지 형제의 처에 대한 호칭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자매는「고모」이며 그 남편은「고모부」가 된다. 한편 어머니쪽의 동세대자(同世代者)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자매를「이모」라고 부르며 그밖에 어머니의 형제, 그 처 및 어머니 자매의 남편 모두는「외삼촌」이다.

ə b ə ji ┌ Fa　　ə m ə ni ┌ Mo
　　└ FaBr　　└ FaBrWi

Komo ┌ FaSi
　　└ FaSiHu bu(夫)

Samchun → MoSi

　　┌ Mo Br
Wesamchun ├ Mo Br Wi
　　└ Mo Si Hu

<그림 53> 二世代祖上의 呼稱

요컨대 부모의 호칭과 각각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의 호칭은 같지만 그밖은 아버지쪽 어머니쪽이 구별되어 있다. 이 점 제주도의 친족 호칭은 두드러지게 희한하다. 1세대 앞의 조상 즉 부모의 세대를 제외하면 현저히 유별적(類別的)인 양상이다. 그런데 부모의 세대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형제와 그 처를 부모와 같은 호칭으로 부른는 외에는 아버지쪽과 어머니쪽이 약간 분명하며 더구나 어머니쪽에 대

1) 3代 앞의 祖上
Fa FaFa Wanhalibay
(FaFaFaBr, FaFa, Fa, Si Ha, FaFaFa Wi Br……同世帶의 남자 모두에게 共通)
FaFaFaWi Wanhalmany
(FaFaFaBrWi, FaFaFaWiBr 기타 同世帶의 女性 모두에게 共通)
2) 2代 앞의 祖上
FaFa haltbay 또는 halibay
大 khĭtn ㄱ
FaFaBr 中 sɛt ㅓ haltbay 또는 halibay
小 jagin ㄴ
FaMoBr haltbay 또는 halxbay
FaMo haltmani 또는 halman
FaFaSi haltmani 또는 halman
FaMoSi haltmani 또는 halman
3) 1代 앞의 祖上
Fa ab∂ji
大 khĭn ㄱ
FaBr 中 set ㅓ ab∂ji
小 jagin ㅓ
未婚 maljɛt ㄴ
FaSiHu Komobu②

해서는 남녀의 구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계(家系)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친족호칭을 들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인 김영희씨의 가계를 개관하면 <그림 54>·<그림 55>와 같다. 즉 본관이 나주(羅州)인 김영희씨의 5대 앞의 조상은 청주한씨(淸州韓氏)와 결혼해서 영평리(寧坪里)에 살고 있었다. 그 당시 K리는 아직 무인지역(無人地域)이었다. 4대의 조상은 김해김씨와 결

MaSiHu Wesamchun①
Mo Br Wesamchun①
Mo ∂m∂ni
大 Khĭn ┐
FaBrWi 中 sɛt ┤ ∂m∂ni
小 jagin ┘
MoSi Samchun①
MoBrWi Wesamchun①
Fa Si Komo②

4) 自己와 同世代

Br (年長) s∂ŋnim ┐
Br (年少) ashi ┤ 의 Wi ajimaŋ
FaBrSo (年長) s∂ŋnim ┤
FaBrSo (年少) ashi ┘

FaSiSo, MoBrSo, MoSiSo에 대해서도 年長, 年少에 따라 s∂ŋnim 또는 ashi 라고 부른다. Wi에 대해서도 모두 ajimaŋ.

Si(年長) nunim ┐
Si(年少) nui ┤
FaBrDa(年長) nunim ┤ 의 hu ajibay
FaBrDa(年少) nui ┘

FaSiDa, MoBrDa MoSiDa에 대해서도 年長 또는 年少에 따라 nunim과 nui로 부른다. Hu에 대해서도 ajibay.

혼해서 역시 영평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친족에 대해서는 3대 앞의 조상의 누이동생으로 제주고씨와 결혼해서 K리에 이주한 사람의 이름 외에는 김영희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자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한다. 3대 앞의 조상은 아라리(我羅里) 태생의 현씨(玄氏·본관은 기억하지 못함)와 결혼해서 K리로 옮겨 왔다. 이사람에게는 셋의 자식이 있으며 그의 조상 즉 조부는 K리 출신 청주한씨와 결혼했다. 그 형제는 함덕리(咸德里) 출신의 김씨(본관 불명)와 결혼해서

<그림 54> 在K里羅州金氏永嬉氏家系 및 關係家系原圖 I

<그림 55> 在K里 羅州 金氏 永熹氏家系 및 關係家系原圖 Ⅱ

<그림 56> 在K里 竹山 安氏 家系

아들을 얻어 그 자손은 많지만 지금 동네에 없으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자매는 노형(老衡)에 사는 제주양씨와 결혼했지만 현재는 교제가 전연 없다. 2대 앞의 조상 즉 영희씨의 아버지는 삼형제로 자매는 동네에 사는 죽산안씨(竹山安氏)와 결혼<그림 56>, 그 자손의 대부분은 동네에 살고 있으므로 뒤에 서술하겠다. 다음으로 형제는 독신시대에 타국을 방랑하다가 귀향해서 동네의 김해김씨와 결혼했으나 그날 급사했으므로 영희씨의 동생부부가 양자로 되어 있다<그림 57>.

<그림 57> 在K里 金海金氏 家系圖

<그림 58> 在K里 水原白氏 家系圖

영희씨의 아버지는 동네의 수원백씨(水原白氏 · 그림 59)와 결혼해서 3남3녀를 두었다.

3녀 가운데 장녀는 그 당시 제주에 살고 있던 제주양씨와 결혼, 자손은 현재 일본에 있다. 차녀는 동네에 살고 있던 제주부씨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다. 그 둘 다 일본으로 건너가 한 사람은 행방불명, 다른 한사람은 일본에서 여산송씨(礪山宋氏)와 결혼해서 귀국, 현재는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 59>. 막내딸은 동네에 살던 전주이씨와 결혼, 2남2녀를 얻었다. 그들의 현황은 <그림 60>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림 59> 在K里濟州夫氏家系

<그림 60> 在K里全州李氏家系

본인인 나주김씨 영희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전주이씨와 결혼했지만 이 부인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인으로 하여금 2남4녀를 낳도록 했으나 모두 전주이씨의 자식으로서 키우고 있다. 그 자세한 것은 <그림 55>와 같은데 남자 1명은 태평양 전쟁 때 선원으로

징용(徵用)되어 남방(南方)으로 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방불명, 차남은 김해김씨와 결혼해서 제주에 살고 있다. 영희씨의 가족 가운데도 현재 일본에 살고있는 딸의 세대가 있다.

차제(次弟)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김해김씨와 결혼했지만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숙부가 결혼 당일에 사망한 때문에 그 양자가 되었다 <그림 57>. 이 가계에서는 동본동성이 결혼한 실례(實例)를 볼 수 있다. 그 다음 동생은 동네의 김해김씨와 결혼했지만 부부 모두 사망해서 자손이 없다.

이밖에 김영희씨에게 있어 친족 중에 들어갈만한 사람이 다수 동네에 살고 있는데 외가의 수원백씨의 계통 <그림 58>과 숙모의 시집인 죽산안씨의 계통 <그림 56>이 포함돼 있다. 단 지금까지 서술하고 계도(系圖)로 표시한 <그림 54·55> 중에 3대 앞의 할머니로 제주고씨에게 출가한 사람의 계통, 2대 앞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계통과는 실제에 있어 친족으로서 교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김영희씨의 친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식 및 그 배우자, 그 위에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그들의 형제자매와 그 자식들과 배우자 및 그들의 자식을 포함하는 거대한 체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마을이나 타향으로 전출하고 있는 사람은 연고가 적어져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보인다. 단지 여기에 표시한 가계(家系)는 정리의 편의상 본관과 성씨만을 나타내고 이름은 생략했지만 김영희씨의 기억 가운데는 여기에 게재한 한도내에서 특별히 지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관·성씨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 말한다면, 3대보다 앞의 조상에 대해서는 직계의 조상(부부) 이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지식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그것은 분명히 부계적(父系的)이어서 모친의 계통은 더듬을 수 없다. 한편 2대 이후에 있어서는 조상제사를 제외한 실제의 교제에 있어서 아버지쪽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조상제사라해도 그것이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에 있을 경우는 남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재혼 또는 삼혼(三婚)한 여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여자의 제사를 어디서 맡느냐는 것이 가끔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사망 당시의 가족에 의해 올려진다.

요컨대 마지막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에 의해 장례도 그 후의 제사도 치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가끔 먼저 남편의 자식들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체가 빼앗기는……사건이 일어난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경우 시체를 빼앗긴 쪽도 잠자코 있지는 않는다. 유혈참사(流血慘事)가 가끔 일어난다. 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전승(傳承)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조(李朝)초, 이조에 복종하지 않는 경주김씨(慶州金氏)가 제주에 건너가 살림을 차렸다. 그 부인(본관·성씨 불명)은 어떤 사연으로 김씨와 이혼, 성씨(成氏)와 재혼했으나 다시 이혼하여 강씨(康氏)와 결혼했다. 그런데 각각의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 그 세 남자가 성장하여 셋 다 대과(大科·관리등용시험)에 합격, 칙지(勅旨)가 내리고 궁(宮)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이후 김·성·강의 세 집에서는 모두 이 부인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법으로, 부인의 제사를 모실 곳은 무덤을 만든 가족의 계통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가족에게 재가(再嫁)한 어머니의 제사를 그 아들들이 모실려면 유체(遺體)를 그들의 땅에 매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 거슬러올라가, 다른 집으로 떠나간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문제가 된다. 제주도 사람들은 「아버지 제사에 어머니 이름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둘째 부인 이하는 그녀들에게 자식이 있는 한, 본처의 자식은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 만일 본처가 떠났다고 하면 제사 때 후처 또는 두 번째 이하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과 열기(列記)해도 아무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본처의 자식들이 어머니 그 자체를 그들의 친족계통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다. 요컨대 제주도에서는 「애비 없는 자식」보다 「애미 없는 자식」쪽이 어깨가 좁아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지금부터 조선의 사회구조를 푸는 열쇠와 같이 여겨진다. 더구나 이와같은 친족관계는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이주(移住)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에필로그(맺는 말)

지금까지 서술해온 각 문화요소 외에도 많은 변동이 30년 새에 일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우선 거론(擧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탈곡(脫穀)을 위해 쓰였던 전마(碾磨·말방아)나 절구가 전력 또는 동력에 의한 탈곡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말방아(碾磨)가 쓰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나 말방아간이 헐려지고 전마집단(碾磨集團)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전마집단이 맡아왔던 부락이나 친족을 통합하는 기능이 약화됐는가 어떤가는 앞으로의 연구로 남겨진 문제이다. 한편 쓰이지 않게된 말

방아나 절구의 돌은 마을이나 관광지의 도표(道標)로서 쓰이고 있는 것(사진 49) 외는 길가에 버려져 되돌아보는 사람도 없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용수(用水)는 양·산촌에서는 거의 옛날대로지만 해촌에선 수도화(水道化)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마집단의 소실(消失)과 맞물려 용수관리의 주체였던 자연부락의 통합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와같은 자연부락의 통합력은 동회(洞會)가 면사무소의 강한 관리 아래 놓여 행정조직의 말단이 되어있는 오늘날 더욱더 행정조직으로서의 색채가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통은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육지와의 사이에는 일본통치시대와 같은 해상항로가 보이는 외에 서울·부산으로부터 1일 3왕복의 국내항공로가 열리고 있다. 도내의 교통은 지금까지의 일주도로 외에 제주·서귀포 간에는 포장된 횡단도로(사진 80)가 지나가고 그 위에 제주=대정, 제주=정의(旌義)를 잇는 자동차도로도 건설중이다.

그러나 이 30년간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문화의 변화는 긴 안목에서 보면 그다지 격심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태평양전쟁, 4·3사건 및 한국전쟁은 이 섬의 문화를 오히려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들 사건에 의한 경제적 정체(停滯)로 문화의 전체적 구조에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같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부락 구성이 20세기 후반에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는 것은 앞으로 남겨진 중대한 문제로서, 제주도의 촌락은 아시아의 근대화를 생각하는 데 있어 그야말로 알맞은 샘플이다.

부 록

濟州島關係文獻目錄

Ⅰ. 戰前의 部

安倍能成,「耽羅漫筆」,『靑丘雜記』, 1932年, 岩波書店.
秋葉隆,「오로촌民具」,『民族學硏究』 第3卷 第1號, 1937年 1月.
秋葉隆,「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하여」,『社會學硏究』.
秋葉隆,「朝鮮의 星祭」,『旅行과 傳說』.
秋葉隆,「濟州島에 있어서의 蛇鬼信仰」,『靑丘學叢』 第7號, 1932年 2月, 靑丘學會編.
秋葉隆,「朝鮮巫俗의 家族에 대하여」,『社會學硏究』. 1937年 1月.
秋葉隆,「朝鮮民俗에 대하여」,『朝鮮文化之硏究』.
赤松智城·秋葉隆,『朝鮮民俗의 硏究』 上卷.
赤松智城·秋葉隆,『朝鮮巫俗의 硏究』 上卷. 1937年, 大阪屋號書店.
Belcher, Edward, Narative of Voyage of H. M. S. Sammarang. 1848.
朝鮮總督府,『1935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朝鮮地質調査要報』 第10卷의1, 1931年 2月.
朝鮮總督府,『濟州島地質圖』.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1939年.
朝鮮總督府觀測所,『朝鮮氣象30年報』, 1936年.
今西龍,「東國輿地勝覽에 대하여 (第1回)」,『朝鮮學報』 第1卷 第1號.
今西龍譯,「高麗史」 第57卷, 1908年, 國書刊行會.
稻葉岩吉,「朝鮮民族史」,『朝鮮史講座分類史』.

川崎繁太郎,「濟州島의 地質學的觀察」,『文敎의 朝鮮』1930年 10月號.

金錫翼,『耽羅紀年』, 瀛洲書館版, 1918年, 濟州.

小浜基次・佐藤正良,「濟州島・對馬 및 壹岐에 있어서의 島原住民의 體質人類學的硏究」,『人類學雜誌』第50卷 第11號, 1935年. 第51卷 7號, 第51卷 8號, 1936年. 東京人類學會』.

Lantensach, H. Quelpart und Dagelet, Wiss, Veröff Museums f. Länderk. 2., Leipzig, N. F3., 1935.

桝田一二,「濟州島牧畜의 地理學的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桝田一二,「濟州島의 地理學的特性에 대하여」,『地理學評論』. 1931年 8月號.

桝田一二,「濟州島에 있어서의 畜産의 地理學的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3輯, 1934年 8月, 古今書院.

桝田一二,「濟州島海女의 地誌學的硏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 1934年 3月, 古今書院.

森爲三,「濟州島의 陸産動物槪論」,『文敎의 朝鮮』1928年 10月號.

森爲三,「濟州島所生植物分布에 대하여」,『文敎의 朝鮮』1928年 10月號.

森爲三,「濟州島漫談」,『文敎의 朝鮮』1928年 10月號.

村山釀造「朝鮮産小蠹蟲類의 種類分布 및 被害植物」,『農業關係諸學聯合大會講演集』1929年 10月 16日.

內藤雋輔,「高麗風俗에 미친 蒙古의 影響에 대하여」,『桑原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1931年, 弘文堂.

中井猛之進,『東亞植物』, 1935年, 岩波書店.

中井猛之進,『濟州島 및 莞島植物調査報告書』, 1914年, 朝鮮總督府.

中村新太郎,「濟州島火山雜記」,『地球』第4卷 第4號, 1925年, 京都帝國大學地理學部地球學團.

小倉進平,「濟州島의 異名」,『大學新聞』1935年 4月 8日.

岡本半治郎,「濟州島의 昆蟲相」,『勸業模範場歐文報告』第1卷 2號.

金 淨,『濟州風土錄』.

李 某,『耽羅地圖序』.

李 某,『耽羅地圖』.

李健著, 今西龍譯,「濟州風土記」,『朝鮮學報』第1卷, 第2卷.

濟州島廳,『濟州島勢要覽』1935年, 濟州.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大東輿地圖第22」,『奎章閣叢書』第2, 1936年 3月.

京城帝國大學山岳部,『積雪期漢拏山登山記—前川智春君을 잃다—』.

關野雄,「濟州島에 있어서의 遺跡」,『考古學雜誌』, 第28卷 第15號, 1938年 10月.

多田丈男,「朝鮮의 火山」,「地理敎育」, 1936年 9月號.

竹中要,「染井吉野櫻의 原産地에 대하여」,『史蹟名勝天然記念物』第11集 第1號, 1936年,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協會.

高橋享,「民謠에 나타난 濟州의 女子」,『朝鮮』1933年 1月號.

鳥居龍藏,「民族學上에서 본 濟州島(耽羅)」,『日本周圍民族의 原始宗敎』, 1924年, 岡島院版.

全羅南道水産會支部,『濟州의 水産』.

『元史・外夷傳』第95卷.

「唐書東夷傳」,『朝鮮史』第1編 第3卷, 支那(中國)史料別錄, 1933年 3月,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新增東國輿地勝覽』, 1937年 3月, 朝鮮史學會編.

Ⅱ. 解放後의 部

張籌根,「濟州島女神考」,『濟州文化』第1號, 1947年 6月, 濟州.
張籌根,「濟州島民謠選」,『濟州文化』第1號, 1947年 6月, 濟州.
張籌根,「濟州島巫歌」,『국어국문학』第19號, 1958年 6月.
張籌根,「濟州島巫歌後記」.
張籌根,「濟州島巫歌의 地域性에 對하여」.
玄平孝,『濟州島方言硏究』第1輯, 資料編, 精硏社版, 1962年 1月.
方鍾鉉,「濟州島의 方言」,『朝鮮文化叢說』1947年 11月.
徐廷範,「濟州方言點考」,『高凰』(新興大) 第1卷 第2號, 1957年 10月.
金永三,『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版, 1958年 4月.
金榮敦,「제주도 방언의 어미 훤용」, (1), (2), (3),『한글』119·122號, 1956年 10月, 1957年 2月, 1957年 10月.
金榮敦,「濟州 方言의 音韻槪說」,『濟州文化』第1號, 1957年 6月.
金奉鉉編著,『濟州島歷史誌』1960年, 6阪.
金奉鉉·金民柱,『濟州島人民들 <4·3> 武裝鬪爭史—資料集—』, 大阪, 1963年 12月.
金完鎭,「濟州島方言의 日本語語辭借用에 對하여」,『국어국문학』第18號, 1957年 12月.
金泰能,『濟州島史』(抄稿).
金斗奉,『濟州島實記』.
洪貞杓,『濟州島民謠解說』.
任暫宰,『濟州島에서 새로 얻은 갓댖가지』.
李琪亨,「濟州島傳說昆蟲에 얽힌 이야기」,『濟州道』. 第12號.
李崇寧,「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硏究」,『東方學志』(延世大) 第3輯, 1957年 12月.

李東林,「濟州島神話에 對한 管見—良·高·夫·乙那稱號를 中心으로—」,『國語國文學報』(東國大) 創刊號, 1958年 12月.
梁弘植·吳太用,『濟州鄕土記』, 1958年.
柳洪烈,「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敎迫害—1901年의 敎難—」,『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1956年 10月.
崔鶴琁,「濟州民謠에 나타난 海女의 生態」,『現代文學』第4卷 第12號, 1958年 12月.
石宙明,『濟州島 方言集』, 서울 新聞社出版部, 1947年 12月.
石宙明,『濟州島生命調査書』, 1947年 9月.
秦元日,『濟州島野史』.
秦聖麒,『濟州島民謠 (第1輯)』, 1958年 3月.
秦聖麒,『濟州島民謠 (第2輯)』, 1958年 7月.
秦聖麒,『濟州島民謠 (第3輯)』, 1958年 9月.
秦聖麒,『濟州島俗談 (第1輯)』, 1958年 10月.
秦聖麒,『濟州島俗談 (第2輯)』, 1958年 2月.
秦聖麒,『제주도속담 (第1輯)』, 1958年 10月.
秦聖麒,『南國의 說話』, 博文出版社版, 1959年 7月.
秦聖麒,『濟州島巫歌集 (第1輯)』, 現代 프란트 社版. 1960年 3月.
秦聖麒,『濟州島巫歌集 (第2輯)』, 現代 프란트 社版. 1963年 4月.
秦聖麒,『濟州島巫歌集 (第3輯)』, 現代 프란트 社版. 1963年 7月.
秦聖麒,『濟州島地名의 由來集』, 濟州道觀光案內所, 1960年 10月.
秦聖麒,『濟州島學(第1輯, 槪觀編)』, 詩人의 집 人間社版, 1962年 10月.
秦聖麒,『南國의 神話(濟州島巫俗硏究, 第1輯), 博文出版社版, 1964年 2月.
秦聖麒,『濟州島民族遺物(第1輯)』, 駿文出版社版, 1965年 4月.
秦聖麒,『濟州島民과 巫俗信仰』.

부 록

부 록

부 록

부 록

부 록

부 록

부 록

부 록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영문요약

이즈미 세이이치 연보(年譜)

1915년 도쿄에서 출생
1927년 서울로 이전. 京城府公立東大門심상소학교 편입
1928년 경성공립중학교 입학
1935년 경성대학 법문학부 진학. 여름에 제주행. 12월~뒷해 1월 한라산 등반, 대원 마에카와 조난
1936년 한라산 재조사
1937년 졸업논문 「제주도-그 사회 인류학적 연구」 제출. 경성대학 법문학부 조수로 됨.
1939년 예비사관학교 간부후보생
1943년 서뉴기니아 조사
1944년 몽골 올도스지방 조사
1945년 경성대학 조교수. 일본으로 돌아감
1946년 서울에 밀항.
1948년 메이지(明治)대학 정경학부 전임강사
1950년 「도쿄에 있어서의 제주인」 조사
1951년 메이지대학 교수. 아이누 종합조사 참가. 11월 도쿄대학 조교수 취임 (동양문화연구소 문화인류학 부문)
1952년 남아메리카 「사회적 긴장연구(유네스코)」
1953년 남미 조사 마치고 미국으로
1955년 도쿄대학 교양학부에 문화인류학 전공과정 신설. 외무성 위탁으로 「브라질 일본인」 조사
1956년 페루의 리마에서 안데스 유적 답사. 하바드대학 유학.
1957년 페루의 창가이계곡 유적발굴
1958년 제1차 도쿄대학 안데스지대 학술조사
1959년 홋카이도 아이누 조사
1960년 제2차 도쿄대학 안데스지대 학술조사
1961년 도쿄대학에서 李杜鉉과 만남
1964년 모스크바 제7회 국제인류학·민족학회의 참가. 교수 승격. 페루정부 최고훈장 받음
1965년 한국 방문
1966년 「濟州島」 출간. 제4차 안데스지대 학술조사.
1967년 한국조사. 아이누 그림조사 위해 홋카이도로.
1970년 도쿄대학동양문화연구소장 취임. 10월 한국여행. 11월 15일 사망

▣ 저자 소개

洪 性 穆

- 1933~2008
- 제주고등학교 졸업
- 제주일보 편집국장 · 상임논설위원
- 한라일보 상임논설위원 · 편집국장 · 주필
- 한라일보 이사 겸 논설고문
- 제주도문화상, 새마을훈장, 덕산문화상 수상
- 일본외무대신 표창장 수상
- 칼럼집 「나아가며 되돌아보며」
- 「되돌아본 세월」,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Ⅰ · Ⅱ」

濟州島 Ⅴ

인쇄일 : 2010년 7월 5일
발간일 : 2010년 7월 15일

저 자 : 洪 性 穆
발행인 : 洪 性 豪
발행처 : 도서출판 濟州文化
인쇄처 : 耕 信 印 刷 社
☎ (064)746-2044

<300부 한정판> 값 20,000원

ISBN 89-88949-81-1-94090
ISBN 89-88949-00-5(세트)